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 이 인 수 |

이천문화원

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사학자,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천시사 편찬위 상임위원으로 이천지역 향토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천도자기축제,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 같은 지역축제를 기획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이천의 인맥』,『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이천독립운동사(공저)』,『이천의 옛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2008년 8월 11일 초판 1쇄 인쇄
2008년 8월 11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이인수
만든이 이상구

만든곳 이천문화원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312 시민회관 내
등 록 제 2-777호
전 화 031-635-2316
팩 스 031-637-7486
홈페이지 www.cc2000.or.kr
제 작 도서출판 홍익문화사 02-2274-8110

© 이인수, 2008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 이 인 수 |

이천문화원

발간사

들판에 피었다 지는 꽃, 산과 골짜기에 널려 있는 이름모를 풀과 나무, 하늘을 나는 새 등 세상 만물에는 저마다 이름들이 있다. 이천에 있는 수많은 마을과 들판, 산과 골짜기 같은 땅에도 저마다 특징과 내력을 지닌 이름들이 있어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옛날 문헌이나 유물 유적 조사연구는 물론이고, 하나의 땅이름에서 숨어있는 역사를 찾아내야 하는 우리고장의 향토사 연구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천문화원은 지난 1979년부터 향토사 연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1996년부터 8년 여에 걸쳐 이루어진 「이천시읍면별 문화유적 · 민속조사」를 토대로 『이천시지』를 편찬하였고, 이어서 이천의 옛노래(2002), 이천의 민간신앙(2003),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2004), 이천사람들의 생활과 의례(2005), 이천의 문화재(2006), 이천의 옛이야기(2007) 등 모두 7권의 이천학술총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펴내는 이천학술총서 8번째 권은 그동안 이인수 사무국장께서 이천지역 향토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정리해 오신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인수 사무국장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고장 이천의 문화발전과 이천향토사 정립을 위한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그동안 『이천군 향토문화자료총람』, 『이천독립운동사』, 『이천의 인맥』,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이천시지』등의 집필과 편찬을 통한 향토사 정립은 물론, 각종 문화원 사업과 활동

을 통해 향토문화와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내 고장 이천의 문화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고장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문화 진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다시 한번 반평생을 이천문화원에 몸담아 오신 이인수 사무국장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편집과 제작을 위해 수고한 도서출판 홍익기획 김태익 사장께도 감사드린다.

2008년 6월

이천문화원장
이 상 구

향토사
글모음집을 내면서

한 장에 팔백원짜리
원고지 빈 칸에 매달려
삼복더위 다 보내고 나서
문득, 높아진 하늘 앞에
당황해 진다.

천년을 비바람에 씻겨
이즈러진 돌부처 하나
이름모를 골짜기에 뒹구는
이끼낀 기와쪽 하나
숨겨진 사연들을 헤집다가,

시보다 더 절실한게 생활이라고
소주 몇 잔에 취해
게걸 게걸
지껄이다가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소슬바람 앞에
철 이른 가을꽃 앞에.

—<졸시, '요즈음' 중에서>

젊은 날 한 때는 시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시를 쓰는 흉내를 냈던 시절이 있었다. 그 후 우연찮게 문화원의 일을 맡게 되었고, 그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훌쩍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 도자기축제다 설봉문화제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이다 해서 일에 매달려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 또한 적지 않다.

문화원 활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각종 향토지와 소식지를 비롯한 자료집을 엮어내는 일이다. 일년에 두 차례씩, 그것도 원고 집필은 물론이고, 사진촬영에 편집, 교정까지 도맡다시피 해서 발간해온 설봉문화가 금년 말이면 꼭 찬 20주년을 맞게 된다. 그밖에도 소식지와 이런 저런 자료집들, 향토지들, 거기에 외부 청탁원고까지 틈나는 대로 쓰고, 또 쓰다 보니 신물이 나도록 글을 써야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비록 시 쓰는 일과는 멀어졌지만, 잡문일망정 원 없이 글을 쓰다 보니 소원풀이는 한 셈이라고 쳐야 할까.

문화원 일을 맡은 처음 한 두 해 동안은 뚜렷한 목표도 없이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음악발표회 같은 행사들 위주의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차츰 향토문화와 문화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향토사 정립이란 과제였다.

향토사란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던 시절이다. 향토사 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1979년부터 관내문화재 조사사업을 시작했는데, 필자 자신이 조사에 필요한 기본상식조차 모르던 때였다. 일년동안 소위 박물관대학이라고 해서 당시 인기가 높았던 국립중앙박물관 특설강좌에 등록하여 한편으로 공부해 가면서, 한편으로 열심히 현장을 쫓아다니다 보니 조금씩 보는 눈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이천군향토문화총람』 제1집 향토사 · 유적편이 햇빛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2 · 3집도 펴낼 수 있었는데, 당시 유광렬 원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2001년 10월 『이천시지』의 발간은 그간의 향토사와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일단 분야별로 모두 정리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편찬 책임을 맡았던 필자에게는 큰 의미와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천시지가 완성되었다고는 해도 향토사 연구분야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향토사에 관한 한 여전히 관련자료나 문헌도, 연구실적도, 사람도 부족하기 만한 실정인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설봉문화』를 비롯한 몇 군데 지면을 통해 발표했던 글 가운데 향토사와 관련된 내용의 글들만을 뽑아서 간추린 것이다. 논문집이라 부르기엔 너무 주제넘을 것 같아서 그냥 향토사 글모음집이라 부르기로 했다. 향토사 관련 내용 중에서도 한말의병과 독립운동에 관한 글들은 별도의 책으로 엮을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했다.

문화원 생활 31년 동안 필자에게 분에 넘치는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면에 올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고장 향토사 연구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여기에 모아놓은 글들이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8년 5월, 설봉산을 보며

李仁洙

발간사

향토사 글 모음집을 내면서

제1장 땅 이름을 찾아서

利川地方 마을 이름의 分析 1
利川地方 땅 이름의 分析 20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39
利川지역 地名硏究의 成果와 限界 53

제2장 사라진 문화유산들

日帝의 문화재 수탈과 利川지역 81
이천향교 오층석탑 반환운동에 대하여 114
사라진 문화유산들 130
구룡암(九龍巖)을 찾아서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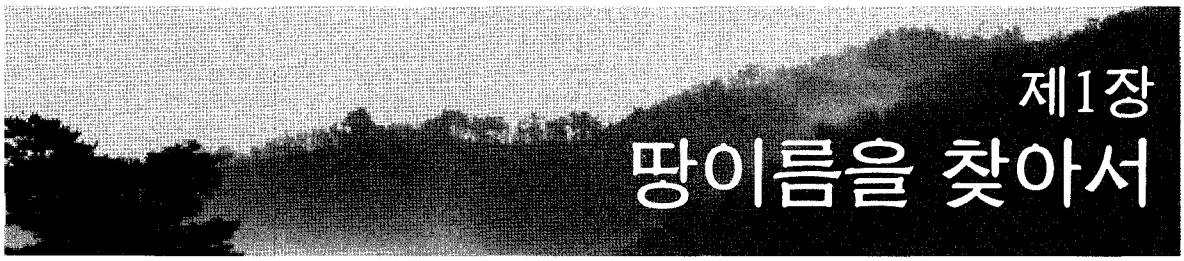
제3장 이천지방의 역로와 교통

利川地方의 역로(驛路)와 교통 155
利川 紫彩와 農謠 170
利川·驪州 지역 도자마을의 형성과 변천 190
徐熙 선생에 관한 몇가지 쟁점들 212
율면 고당리의 민속놀이와 민요 223

차례

제4장 물과 利川

故鄕 이야기 239
地名과 향토사 242
물과 利川 246
안흥지(安興池)에 대하여 249
쌀과 도자기의 고장 이천 252
망향의 탑 258
사라지는 문화유산들 261
양녕대군 유적지 개발 서두르지 말아야 264
전래의 민속놀이를 되살리자 267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270
망향의 이천향교앞 오층석탑 273



제1장
땅이름을 찾아서

利川地方 마을 이름의 分析

Ⅰ. 머리말

향토사를 연구하려면 우리나라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고학·고미술·민속학 등 관련된 여러 분야의 지식이 모두 있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명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명과 향토사는 서로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문헌에는 나와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숨겨져 있던 문화유산을 찾아낼 수도 있고, 우리 조상들의 당시 생활모습이나 풍속과 신앙을 알 수도 있으며, 지역 문화 속에 스며든 외래 문화의 영향을 살필 수도 있다.

근래에 와서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명연구의 가치와 필요성을 崔範勳 교수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1] 첫째, 지리적인 관점에서 지명은 대체로 한 고장의 지형 및 방위에 따라 명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지명에는 고장의 지리적

1) '京畿道 漢字語 地名의 特性' 『전통문화 연구 2』 p36, 1984, 명지대 한국전통문화 연구소

인 특성이 잘 들어나 있으며, 둘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명속에는 오랜 역사의 누적이 반영되어 지상의 유물, 유적과 함께 그 지방의 역사가 숨쉬고 있고, 세째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지명 가운데는 한 고장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것이 많아 지금은 이미 사라져 버린 옛 풍속이나 생활관습이 나타나 있고, 네째 고문학적인 관점에서 지명에는 그것이 생겨나게 된 유래와 전설 등이 얼켜있는 어문학의 보고이며, 다섯째,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지명은 강한 보수성과 구어성의 특성을 지닌 탓에 그 고장의 독특한 방언이나 갖가지 음운현상이 투영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함께, 민속학・고문학・언어학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을 한데 묶어서 상호 비교하고 보완해 가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 각 지방의 문화원이나 향토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펴내고 있는 각종 자료집속에 나타나는 지명연구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행정지명의 변천과정을 관계문헌들을 조사하여 밝히거나, 지명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구전이나 연기설화 등을 수집하여 소개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 수 년전 문화원의 이름을 빌어 나름대로 조사한 이천지방의 지명 유래를 한 권의 보고서 형식으로 묶어 발표한 적이 있지만[2], 역시 보다 깊이있는 지명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지명의 변천과정과 비교적 뚜렷한 생성동기를 갖는 마을 이름들의 유래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다. 더구나 앞에서 말한 분야별 연구, 특히 언어학이나 민속학 쪽의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내용이 미흡하고 사실과는 다르게 해석된 부분들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한고장 전체의 지명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자면 한 두 사람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 내지는 공동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나의 지명을 놓고 역사・지리・민속・언어 등 각 분야별 연구성과를 상호 비교하고 보완하여 가장

2) 『利川郡 鄕土文化資料總覽』 제3집(地名由來편) 1984, 利川文化院

사실에 근접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를테면 이천지역의 앞으로 본격적인 지명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지작업인 셈이며, 미숙한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리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천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지명이 갖는 상관관계를 밝혀보려고 시도한 글이다.

이 글은 원래가 기전향토문화연구회(畿甸鄕土文化硏究會)가 펴낸 『畿甸文化』 제4집에 같은 제목으로 발표하였던 것을,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을 쓰는데는 崔範勳 교수의 지명 연구에 대한 글들이 많은 참고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기전향토문화연구회의 副會長으로 활발한 연구활동과 더불어 필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崔範勳 교수께서 지난 6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하시고 말았다. 글 말미를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II. 대상과 방법

이 글의 분석대상이 된 지명들은 지금까지 간행된 문헌이나 각종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 이천지방과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숫자의 지명들을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는 한글학회가 펴낸 『한국지명총람』[3]에서 가려 뽑아낸 것이다. 이천군 항목에 읍면별로 수록된 마을·산·하천·들·골짜기·바위·고개·명소이름 등 각종 지명 중에서도 일차로 마을 이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편의상 다음의 선별원칙을 적용하여 약 650여 개의 자연부락 이름을 간추렸다.

3) 『한국지명 총람』 18하 (경기·인천편)

① 邑·面 행정구역 명칭과 한일합방 이후 일인들의 손으로 변경된 것이 확실하여 생성동기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행정리명은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새말-新村> <윗들-上坪> <가마골-釜谷> <살개골-杏洞> <매바위-鷹岩> 등 순수한 우리말 지명과 뜻이 동일한 한자지명이 함께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는 한자지명에 우선하는 우리말 지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동석교촌-서석교촌> <윗장승이-아래장승이>와 같은 형태의 지명들은 동·서·위·아래 등의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어를 뺀 석교촌·장승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반면에 위치나 방향이 곧 지명으로 화한 웃말·아랫말·건너말 등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④ <장해원-장호원-장원>과 같은, 뜻은 같으나 발음이 다른 둘 이상의 복수 호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지명은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름 하나만을 취하고, <중담-궁리> <퇴포-토깨> 등 한 마을에 뜻과 발음이 다른 둘 이상의 호칭이 함께 불리우고 있는 경우는 다른 호칭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이하여 간추린 마을이름들을 대상으로 우선 동일한 명칭으로 2개 마을 이상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를 모두 조사하여 중복된 숫자가 많은 지명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았다. 일부 특별한 예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마을 이름 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명칭일수록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은 당연하며, 이천지역을 하나의 표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마을이름이 대략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Ⅲ. 마을 이름의 일반적인 명칭

지명총람에서 가려 뽑은 이천군 관내 약 650여 개의 마을이름[4]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 명칭이 2개 이상의 마을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조사하여 보았다. 그결과 중복된 숫자가 제일 많아서 적어도 이천지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웃말(윗말)>로 나타났는데, 같은 의미의 한자지명인 <上村> <上洞>을 포함하여 신둔면 남정·도봉·용면·지석리와 백사면 도립·송말·조읍리, 부발면 죽당리, 호법면 동산리, 마장면 관·오천·회억리, 모가면 두미·서경·신갈·산내리, 설성면 장릉리, 율면 오성리와 월포·총곡리에서는 각각 2개 마을 등 모두 22개의 마을에서 불리워지고 있었다. 이는 웃말의 상대적인 명칭인 아랫말 18개소와 합하면 모두 30개소로 더욱 월등해진다.

조사결과를 중복된 숫자가 많은 차례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 22개 : 웃말(上村/上洞) ····· (1)
- ○ 21개 : 새터(新垈/새터말) ····· (1)
- ○ 18개 : 아랫말 ····· (1)
- ○ 16개 : 새말(新村)·양달말/양지말(陽村) ····· (2)
- ○ 15개 : 주막거리 ····· (1)
- ○ 10개 : 안말(內村) ····· (1)
- ○ 9개 : 응달말·골말 ····· (2)
- ○ 8개 : 중말(中里)·벌말/평말(坪村) ····· (2)
- ○ 7개 : 건너말(越村)·점말(店村)·큰말(大洞) ····· (3)
- ○ 6개 : 곰말 ····· (1)
- ○ 5개 : 장터(새장터) ····· (1)
- ○ 4개 : 섬말(島村)·본말(本洞)·넘말(넘어말) ····· (3)

4) 『지명총람』 이천편에 수록되어 있는 마을 이름의 수효는 이천읍 75, 장호원읍 156, 신둔면 100, 부발면 100, 호법면 76, 마장면 128, 대월면 99, 모가면 78, 백사면 86, 설성면 123, 율면 153으로 모두 1,174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Ⅱ장에서 적용한 선별원칙에 따라 정리하면 650여 개가 된다.

○ 3개 : 뒷말(後洞) · 뒷골 · 작은말 · 목골 · 텃골 · 비석거리 · 소정이 · 능골 · 용머리 · 윗거리 · 가래울 · 갈미 · 소래울 · 군들(군량) ..... (14)

○ 2개 : 벌터 · 사장거리 · 장터거리 · 고잣말 · 공말 · 진말 · 갓골 · 오미 · 윗들 · 뒷들 · 매바위 · 사거리 · 장승이 · 과수원 · 세집매 · 가마골 · 샘재 · 무지기 · 산골 · 왜골 · 석교촌 · 대골 · 은골 · 중담 · 양지땀 · 속담 · 산대 · 선황댕이 · 상나무골 · 미륵댕이 · 샛말 · 선바위 ..... (32)

이상의 조사결과에 따라 중복된 경우가 많은 마을이름들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마을이 자리잡은 곳을 상대적인 위치나 방향으로 일컫는 지명들이 단연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웃말 · 아랫말 · 중말 · 건너말 · 안말 · 본말 · 뒷말 · 뒷골 · 곰말 · 샛말이 모두 87개소로 전체의 1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새말 · 새터 · 새터말이 37개소로 이것은 취락발달에 따른 새로 이루어진 마을의 일반적인 호칭이다.

③ 마을이 자리잡은 곳의 지형적인 특징이 마을이름으로 화한 골말 · 벌말 · 가마골 · 섬말이 29개소

④ ①③과 비슷한 계열이면서 양지와 음지의 의미를 갖는 양달말 · 응달말이 25개소

⑤ 번화한 길목을 나타내는 주막거리 · 사거리가 17개소로 이는 옛날의 역로와 교통로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⑥ 상대적인 마을의 크기가 그대로 마을이름으로 굳어진 큰말 · 작은말이 10개소

⑦ 사기나 옹기를 굽던 점말(店村)이 7개소

⑧ 장터 · 장터거리 · 새장터 7개소

따라서 마을이 자리잡은 곳의 위치나 방향, 또는 지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웃말·아랫말·중말·건너말·안말·본말·뒷말·뒷골·곰말·샛말·새말·새터골·골말·벌말·가마골·섬말·양달말·응달말·큰말·작은말 등이 일반적인 마을의 호칭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같은 계열의 텃골·산골·용머리·윗거리·아랫거리·사거리·가래울·윗들·뒷들 등과 특징적인 기능이나 기념물의 존재에서 유래된 주막거리·점말·비석거리·능골·장터·사장거리·솔골·밤골·상나무골·진말·고잣말·장승이·왜골·선황댕이·못골·방죽골 등을 손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천군이 바다나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은 내륙지방인 탓에 나타나는 지명도 육지계통의 지명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하천계통의 지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명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마을이름의 分析

1. ~말(洞·村·里)형

① 위치·방향·지형에서 온 것

웃말(上村·上洞)·아랫말·새말(新村)·새터말·중말(中里)·건너말(越村)·넘말·안말(內村)·뒷말(後村)·샛말(間村)·큰말(大洞)·작은말·본말(本洞)·양달말·응달말·골말(谷村)·벌말(坪村)·곰말·섬말·서편말·東村·下南村·구렁말·장등말·중안말·등터말·저수말·구석말·바깥말·동말·못안말·중터말·남산말·산말(山村)·上山洞·鶯山洞·直山洞·龍山洞·국말·두촌·후미촌·弓里

② 기념물에서 온 것

점말(店村)·왱말(瓦村)·향교말·핑고말·石橋村·倉말·旌門말·槐村·오동촌·방죽말·못말(池洞)·송말(松村)·洪村·司庫里·오창말·진말(陳村)·둔말(屯村)

③ 기타

蘆洞·수평말·고잣말·늠말·음향촌·하락동·솝리·자옥동·대왕리·茂村·소론동·신성리·구리말·다래촌·비파리·승구리·구영말·풍덕말·전촌·무릉촌·황새말·자은동·연화동·등롱말·생골말·양아리·부로동·자오리·골문리·옥야촌·행심촌·거머리·청시리

기타 항목에 넣은 마을이름들은 대부분의 경우 지명 생성에 대한 동기나 유래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왠만큼 밝혀졌더라도 단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오리(율면 오성리)의 경우는 한자로 '尺五里'라 표기하며 조선 개국 후 왕씨들을 마을에 가두어 놓고 사방 오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여 왕씨 탄압이란 역사적인 사실이 지명의 생성동기가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좀 더 고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타 항목에 넣었다.

2. 골형

일반적으로 '谷'의 의미를 갖는데 '고을'의 준말이 되어 '~洞'과 함께 호칭되기도 한다. ~골(꼴)·~굴(꿀)·~올(울)·~실·~일이 모두 谷에 대응하는데 <올>은 <골>의 ㄱ이 약화하여 탈락한 형태, <일>은 <실>의 ㅅ이 약화 탈락한 형태이다. 골이 일반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실은 주로 내륙 산간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① ~골/~洞

구작골(九岱洞)·살개골(杏洞)·왯골(瓦洞)·남정골(南井洞)·노가지골(老柯洞)·가목골(柯木洞)·시미골(侍美洞)·대산굴(大山洞)·못골(池洞)·뒷골(後洞)·뱀골(巳洞)

② ~골/~굴(谷)

桑谷·末谷·牛谷·草谷·추자곡·장골·족장골·안골·큰골·산골·사기막골·당골·송골(松谷)·옻샘골(漆田)·감나무골·상나무골·밤나무골·미나골(면화골)·고래골·요골·나래골·방가골·대골(竹谷)·은골·목골·텃골·온방골·때골·소롱골·자리골·갓골(冠谷)·월량골·소눈골·원적골·옥골·가골·무태골·어림박골·이터골·고락골·정학골·황토골·범골·쇳골·어룡골·금성골·한정골·계골·능골·장수골·찬샘골·고자골·붕터골·참새골·장성골·녹두골·장북굴·가마굴·뒤주굴(杜谷)·가래울·새울·도지울·소래울·소리울·가재울·매지울·나재울·도니울·자개울·각시울·고비울·장자울·구시울·미리울·갈매울·중계울·여뀌울

③ ~실/~일

증일(曾日)·밤가실·소일·메일·두고실·토끼실·돈의실·달개실·압실·사기실·새실·우무실·포기실

쇳골(모가 소고리)과 소일(백사 내촌리)은 '金谷'의 음운변화에 따른 동일 명칭이며, 소래울(장호원 송곡리, 대월 송라리)과 소리울(모가 송곡리)도 같은 '松谷'의 의미라고 본다. 마을이름은 아니지만 설성면 대죽리의 들판이름으로 제촌부곡(蹄村部曲)이 있는데 제투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려때 이곳에 제촌부곡이 있었다고 하여 신라와 고려시대의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알려진 鄕·所·部曲의 흔적이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우이다.

3. 山系地名

① 뫼(山·峰)

갈미(葛山)·오미(오산)·기치미·거부미(龜山)·도달미·도리미(桃山)·통미·도뱅이(道峰)·금산이(金山)·어산·말산·고봉·종태봉·석산

② ~고개(峴)

망재·밤고개(栗峴)·송현·샘재·붓고개(筆峴)·여우고개·넉고개(廣峴)·두무재·당재·길고개·빙고개·살티(瑟峙)·달봉재·턱고개·망울재

③ ~바위(岩)

선바위(立岩)·계암·봉바위·학바위·도암·호암·검은바위(玄岩)·마라위(馬岩)·매바위(鷹岩)·문바위(門岩)·두름바위·수암·검은돌(黑石)·맷돌바위·불암(佛岩)

4. 平野系 地名

① 벌(坪)

윗벌(上坪)·두집벌·장군벌·廣坪·평말(坪村)·벌말·벌담·長角洞(긴뿔이)·方角洞(방가골)

② ~들(野)

노들·너먼들·윗들·덕들·군들·봇들·소경들·장들·진들·뒷들·미륵들

③ ~땀(潭)/~뜸

철뚝넘어땀 · 골땀 · 아랫땀 · 중담 · 양지땀 · 갓담 · 속담 · 갸집담(기와집담) · 구석새땀 · 큰담 · 작은담 · 마루땀 · 벌담 · 고댐이(高潭) · 풍담

④ 배미 · 밭

개배미 · 신배미 · 굿배미 · 인두배미 · 버리앗

崔範勳 교수의 논문 「京畿道 漢字語 地名의 特性[5]」에서 보면 <~들(野)>은 <~벌(坪)>보다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을때 쓰인다고 한다. 坪의 釋借는 '角', 이천지방에서는 長角洞(설성 장천리)과 方角洞(장호원 방추리)의 예를 들 수 있다. 부발면 고백리의 '두무재'는 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춤을 춘 곳이라고 하여 '杜舞재'로 쓰고 있으나 뜸(潭)을 의미하는 '豆無'나 '斗無'로 표기해야 옳을 것이다.[6] 여기서는 편의상 고개(산계지명)로 분류하였다.

'버리앗'은 보리밭에서 ㅂ음이 음운변화의 과정에서 약화 탈락한 형태로 본다.

5) 『전통문화 연구 2』 P. 48 1984, 명지대 한국전통문화 연구소

6) 위의 책 P. 49

5. ~터(垈) · ~거리 · ~다리

① ~터(垈)

새터(新垈) · 마전터 · 벌터 · 새장터 · 산대 · 안터 · 둔터 · 궁터 · 경기터(京垈) · 장터 · 구장터 · 안배터 · 벌배터 · 원터(院垈)

② ~거리

주막거리 · 사장거리 · 시장거리 · 도수장거리 · 소나무거리 · 탑거리 · 윗거리 · 아랫거리 · 비석거리(비선거리) · 우꾸리(윗거리) · 장터거리 · 삼거리 · 사거리 · 당거리 · 상나무거리 · 왜(瓦)거리 · 모래뚝거리

③ ~다리

새다리 · 마다리(馬橋) · 고분다리 · 보름다리 · 회다리 · 돌다리(石橋)

④ ~머리

떡전머리 · 용머리 · 용지머리 · 원머리 · 달기머리

궁터(백사 내촌리)는 양녕대군이 거주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가 채집되고 있다.[7] 원터(율면 신추리)는 역원이 자리잡았던 마을이다.

7) '讓寧大君이 폐위되어 利川의 시골집에 있었다' 『연려실기술』 권1

6. 河川系 地名

① ~개(浦)

배증개(梨增浦) · 황정개(黃汀浦) · 退浦 · 그지개

② ~내(川)

건개울 · 南川 · 川防 · 복하 · 단내(丹川) · 牛川 · 단월천(단드래) · 대포천 · 한개내(황그내) · 미나리 · 거치라리[8]

8) 거치라리(부발 무촌리)는 거친내를 의미하는 '거친나리'에 변음되었을 것으로 추정.

③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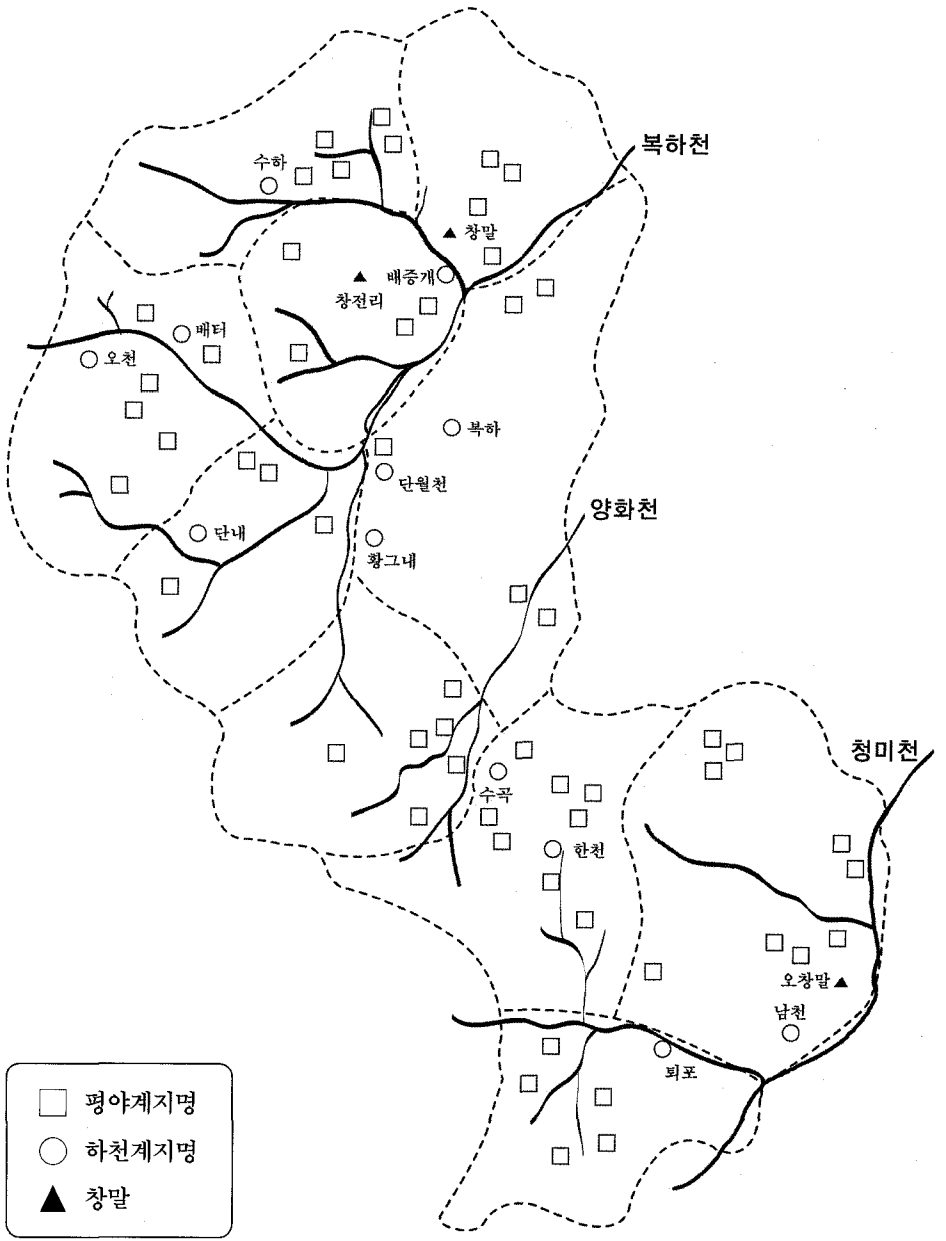
한우물(大井) · 가마소(釜沼) · 새우물 · 물우물(水井) · 독정이(篤井) · 寒泉

7. 위치 · 방향系 地名

① ~안(內)

능안 · 잔등안 · 바위안 · 등아니(등안) · 산안(山內) · 읍내 · 안동네 · 안바지

【그림1】 평야 · 하천계, 지명분포



② 앞·뒤

창앞·당앞(堂前)

③ 아래·위

남산밑·원아래(院下)·물아래·당아래·上松

④ 모퉁이

서밭모퉁이·아랫모퉁이·윗모퉁이·숯돌모랭이·모퉁이·가운데모퉁이·뒷모퉁이·띠밭모퉁이·당모레이·동양모텡이

⑤ 기타

집건너·近西·水北·등너머·청룡뿌리·큰다리께·양지편·장등너머·엉뚝너머·행길께·골바닥·개너머·흔기슭·진구렁

8. 記念物에서 온 地名

官庫·소정이(松亭·小亭)·선황댕이·원천(溫泉)·생교말(鄕校)·관절이(官寺)·높은절이(高寺)·미륵당·돌당이(石堂)·梧倉·배나무정(梨木亭)·장해원·개와집담·괸돌(支石)·장승이·파발막·과수원·돌원(石院)·용댕이(龍堂)·부처당·원당이

9. 기타

오양가마·무래이·은매기(隱脈)·금호·개자위·내뱅이·갈월·문드러니·풍계·풍토·홍시·용계·원양이·漢城府·도드라미·나무가지·용면(龍眠)·인배·沙玉·도니피·금생이·한머루·두들기·삼상·영천·메쟁이·노가뎅이·윙갱이·주리틀·아미랏·매작·오양간뿌리·안고니·주바구니·군량·무지기(수직)·송치미·

【그림2】 산계지명분포


원적산
송곡
정개산
어산
말산
광현
둔지산
소일
양각산
기치미
두무재
설봉산
큰 가마골
작은 가마골 문바위
저명산
산말
효양산
이치
빙고개
말산
나라모르기
건지산
소학산
쇳골
봉의산
대덕산
산안
고봉
거북와
소리울
직산동
살티
앵산동
마국산
설성산
대산동
붓고개
노성산
산대
봉미산
종태봉
달봉재
백족산
망월재
도산
석산
임오산
용산동
상산동
산골
마이산
팔성산

대왕이 · 삼승이 · 작별이 · 기너미 · 억만이 · 단드래 · 공다리미 · 소도니 · 장노기 · 범흥이 · 개삿 · 토둔 · 소고지 · 소새 · 병라목 · 쇳대배기(孝竹) · 반월 · 상팔계 · 세붓(細筆) · 장율 · 제갈 · 반오성 · 자무니(尺門) · 분디기(分竹) · 상알 · 사우남 · 지시랭이 · 비누꾸미 · 조제(釣堤) · 토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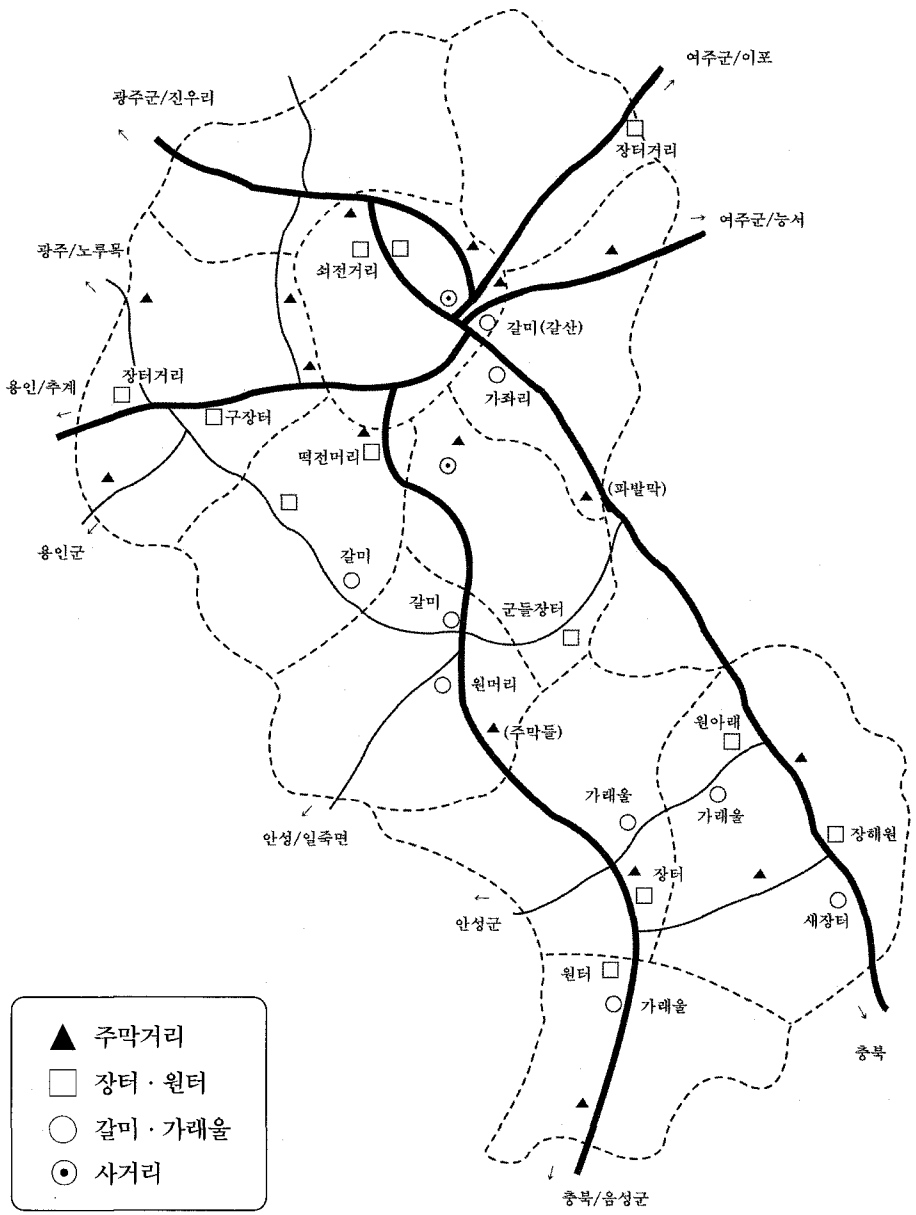
V. 마을 이름의 분포

이천지방의 지형적인 특징은 앞장에서도 언급했듯 험산준령도 큰 강도 없는 반산반야의 내륙지방이라는 점이다. 광주군과 용인군의 경계를 이루는 북쪽과 서쪽을 관내에서 제일 높은 원적산(634.1m)을 비롯한 정개산(406.7m) · 양각산(388.7m) · 건지산(410.7m) · 대덕산(308.5m) · 마옥산(444.4m) · 마이산(471.9m)등의 산줄기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복하천과 양화천이 군 중심부를, 청미천이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면서 모두 서쪽에서 비스듬히 동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이들 하천과 그 지류들을 끼고 발달한 평야지대가 옛날부터 품질 좋기로 이름난 '이천쌀'의 주산지이다. ~벌 · ~들 · ~담(뜸) 등 평야계 지명과, 드물기는 하지만 ~내(川) · ~개(浦)와 같은 하천계 지명들을 지도 위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이 이들 하천유역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표에서 보듯 평야계 지명들이 군내의 3대 하천과 그 지류들을 끼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은 과거의 이 지역이 논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논 농사에는 생명과도 같은, 꼭 필요한 요소가 물이다. 큰 강이나 큰 내를 끼고 있지 않으

【그림3】 옛 역로와 지명분포



면서도 이천은 옛날부터 물이 풍부하여 가뭄의 피해가 덜한 지방이었으니, 지형과 기후 등 타고난 천혜의 특성이 '利川'이라는 고을 이름에서부터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하천계 지명으로 이 지방에서는 특이한 예에 속하는 배증개(梨增浦-이천읍 증포리)와 퇴포(율면 월포리)가 있다. 노인들의 말을 빌리면 옛날에는 남한강에서 복하천을 거슬러 올라온 조운선들이 이천읍 외곽에까지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복하천 지류와 청미천을 끼고 자리잡은 이 두 마을은 수운을 위한 배가 드나들던 포구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까이 위치한 창말(백사면 모전리)·창전리(이천읍)·사고리(이천읍)·오창말(장호원 오남리)과 같은 세곡 저장소의 존재를 나타내는 지명들이 역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원고에서는 분류의 편이상 ~골(谷)형 지명을 별도 항목으로 하고, ~뫼(山·峰), ~고개(峴·峙), ~바위(石·岩)만을 산계 지명으로 분류했으나 일반적으로 ~골형은 가장 보편적인 산계 지명이다. ~말형의 골말·남산말·구석말·후미촌 등도 산계 지명이다. 숫자상으로 볼때 산계 지명들이 다른 계통보다 월등한 것은, 툭 터진 벌판보다는 낮은 산자락에라도 등을 기대어 발달한 우리나라의 취락구조에서 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마옥산 기슭에 자리잡은 산안(山內-모가면)과 대산동(大山洞-설성면), 八聖山 기슭의 산골과 상산동(上山洞-율면), 馬耳山의 용산동(龍山洞-율면), 효양산의 산말(山村-부발면)등이 산기슭에 자리잡은 지명의 대표적인 예이며, 모가면 두미리의 '살티'는 한자로는 <瑟峙>로 쓰고 있으나 두미리에서 안성군 일죽면으로 넘어가는 '사슬터고개'의 이름에서 변형된 것이다. 광현(廣峴)은 광주군으로 넘어가는 넓고개 밑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넓고개가 넙고개 → 넉고개로 음이 변하여 '넋고개(魄峴)'로 뜻이 와전되기도 했다. 마장면 관리의 가마골은 둥글게 산자락으로 둘러싼 마을, 즉 釜谷의 의미이다. 마을이름은 아니지만 마장면 작촌리에 '나라모르기'라는 골짜기가 있다. 산 아

래쪽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면 첩첩한 산줄기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가 있어 나라에서도 모르는 궁벽한 땅이라는 뜻이다. <그림2>

<그림 3>은 주막거리·장터·원터·파발막·가래울·갈미(葛山)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했던 길목에서 많이 나타나는 마을 이름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본 것이다. 지세와 지명이 일치함을 나타내는 한 예이며, 옛날의 중요한 역로와 교통로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물이다.

지세와 지명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일은 궁극적으로 지명들에 대한 생성동기를 밝히려는 지명연구의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룬 마을 이름만으로는 부족하고, 골짜기, 산과 하천, 들판 이름 등 모든 땅이름을 망라한 종합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향토문화연구』, 1988, 이천문화원>

利川地方 땅 이름의 分析

-골짜기 · 들판 이름을 중심으로-

Ⅰ. 對象과 方法

야트막한 산자락을 끼고 초가지붕을 인 마을이 옹기종기 업드려 있다. 마을 앞으론 실개천이 감돌아 흐르고 그 너머로 파란 들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언제 보아도 정겨운 우리네 농촌 풍경이다.

지금은 웬만한 산골까지도 세멘트로 포장된 널직한 길로 이어지고 초가지붕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어린시절 가재를 잡던 작은 산골짜기, 소를 먹이던 등성이, 송사리떼를 쫓던 봇도랑이나 들판, 정자 나무가 들어선 동구밖에도 저마다 정다운 이름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 글은 지난 『畿甸文化』 제4집[1]에 수록되었던 필자의 졸고 「利川地方 마을 이름의 分析」에 이어, 골짜기와 들판이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글이다.

1) 1988, 畿甸鄕土文化研究會 編

땅이름에는 마을이름과 골짜기 · 들판이름 외에도 산이나 고개 · 바위 · 강 · 하천 · 길 등에도 빠짐없이 이름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제외

하였다. 왜냐하면 마을이나 골짜기·들판 이름들이 어느 지역이나 고르게 분포되어 보편성을 띠고 있음으로 해서 이 글에서 시도하려는 이천지방의 지리·문화적인 특성과 지명이 갖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가능한 반면, 산이나 하천, 고개 등의 이름은 지역적인 특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원고의 내용상 적합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된 지명들은 마을 이름과 마찬가지로 한글학회가 펴낸 『한국지명총람』 이천군편에서 간추린 것들이다. 이천군편에 수록된 지명의 수효는 골이름 497, 들이름 699로 모두 1,196개에 달하며 읍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읍면별	골이름	들이름
이 천 읍	28	42
장호원읍	69	71
신 둔 면	33	47
백 사 면	13	55
부 발 읍	23	69
호 법 면	24	49
마 장 면	76	65
대 월 면	65	78
모 가 면	57	89
설 성 면	67	81
율 면	42	53
계	497	699

이 표에서 우선 알수 있는 것은 골이름보다 들이름이 숫자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인데 이는 반산반야의 농업지역인 이천지방의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뒤에 자료에도 나타나듯 새로운 농경지의 개간으로 많은 수효의 골 이름이 그대로 들이름으로 바

뀌어진 결과이다. 반대로 골이름이 더 많은 지역은 마장면이 유일한 예인데, 양각산·설봉산·건지산 등으로 사방이 둘러싸이고, 도드람산을 품안에 안고 있는 관내에서는 가장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상이 된 지명들을 간추리는 데는 전편 마을이름에 대한 선별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① <윗들-上坪> <옥시울-玉水谷> <은골-銀谷> <마루들-宗坪>의 예와 같이 순수한 우리말 지명과 뜻이 동일한 한자지명이 함께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자지명에 우선하는 우리말 지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이름의 경우 한자표기의 필요성과 특히 일제에 의한 무분별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순수한 우리말 지명의 심한 파괴와 오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골·들판이름에는 비교적 우리말 명칭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② 마을이름의 경우와는 달리 드믄 예에 속하지만, <아랫검성게-윗검성게(대월면)> <아랫배울-윗배울(부발면)> <아랫절내미-윗절내미(이천읍)>와 같은 경우는 아래·위·큰·작은과 같은 위치나 방향,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뺀 검성게·배울·절내미로 하였다. 특히 봇들의 경우 위봇들·안봇들·새봇들·큰봇들·건너봇들 등 29개소나 되는 들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봇들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큰골-작은골> <윗들-아랫들> <방죽안-방죽너머>와 같이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낱말이 그대로 지명으로 화한 경우는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③ 역시 드문 예이지만 <바람마지-두고지(부발면)> <시렁거리-쇠쟁이(설성면)> 등, 한 지형에 발음과 뜻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호칭이 함께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는 다른 호칭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간추린 지명들을 대상으로, 먼저 골·들판이름의 일반적인 호칭이 어떤 것들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II. 땅 이름의 일반적인 명칭

1. 골 이름의 일반적인 명칭

『지명총람』에서 간추린 이천군내 497개의 골짜기 이름 중에서, 발음이 같거나, 발음은 틀리더라도 뜻이 동일한 명칭이 2개 이상의 장소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조사하여 보았다. 마을 이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복된 숫자가 많은 이름들이, 적어도 이천지방과 유사한 지형에 나타나는 골이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를 중복된 숫자가 많은 차례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18개 : 큰골(큰바래기 · 큰저골) ····· (1)
○ 17개 : 절골/절터골(불당골) ····· (1)
○ 11개 : 능골/능안 ····· (1)
○ 10개 : 안골/안터(속골 · 안번단 · 발안골 · 말림안 · 안역골) (1)
○ 8개 : 윗골/웃(욱)골(上谷 · 안윗터 · 우대거리) · 가골/가굴(가장굴 · 가장터) · 뒷골(뒤누굴) ····· (3)
○ 7개 : 밑에골/미테골(말밑골 · 절밑 · 아랫말골 · 윗산밑) · 앞골/앞터골(앞고래 · 앞등 · 동말앞 · 터앞) 가재골/가자골 ····· (3)
○ 6개 : 가는골/가능골(꼬챙이골) · 방축골(~굴) · 탑골/탁골 · 부처골(부처지골 · 부처박골 · 미력골) ····· (4)
○ 5개 : 새골/새터(새꼬래) · 찬샘골/참새골 · 은골(구진골 · 깊은골) · 밭골/바골(쑥밭골 · 산바골 · 밧터골) · 갈골/가래골 ····· (5)
○ 4개 : 작은골(~자올 · ~자골) · 긴골/진골(진구리) · 너른골/너븐골(넙적골 · 광(廣)골) · 사당골(~굴 · 당골) · 원수골 · 상나무골(상낭구배기) ····· (6)

○ 3개 : 가운데골(~들) · 좁은골(쪽지골) · 무데골(무터골) · 집너머 · 병마골 · 산제당골(산지당골) · 동막골(~재) · 막장골(~가리) (8)

○ 2개 : 절밑 · 용산골 · 배나무골 · 옻나무골 · 여박골 · 가막골 · 물탕골 · 막은골 · 갓골 · 망골 · 청룡뿌리 등.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복된 경우가 많은 골이름들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골짜기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큰골 · 작은골이 22개소, 골이 자리잡은 위치나 방향이 지명으로 화한 앞골(7) · 뒷골(8) · 윗골(8) · 밑골(7) · 안골(10) · 가운데골(3) · 가골(8)과 집너머(3)등 같은 계열의 지명이 약 70개소로 월등하게 많으며 이는 마을이름의 경우와 같다.

② 골짜기의 생긴 모양이 지명으로 화한 가는골(6) · 긴골(4) · 너른골(4) · 좁은골(3) · 가래골(5)과 막은골 · 가마골 계열이 약 30개소.

③ 사찰이나 작은 암자가 자리잡았던 골짜기를 일컫는 절골(절터골 · 불당골)이 17개소, 여사골(女寺谷-호법면) · 정학골(마장면)도 같은 계열의 지명이며, 탑골(6) · 부처골(6)을 합하여 불교문화와 관련된 지명들이 31개소나 된다. 그밖에 능골 11개소, 산제당골 · 사당골 · 서당골이 8개소로 향토사 발굴의 단서가 되는 소중한 지명들이다.

④ 큰바위골 · 무당바위골 · 범바위골 등 특징적인 바위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이 29개소, 상나무골 · 배나무골 · 옻나무골 등 나무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이 17개소이다.

따라서 큰골 · 작은골 · 윗골 · 밑골 · 앞골 · 뒷골 · 가운데골 · 안골 · 너머골 등 골짜기의 위치나 방향, 가는골 · 긴골 · 좁은골 · 너른골 · 가래골 등 지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이 역시 골이름의 일반적인 호칭인 셈이며, 그밖에 골이름에는 절골 · 탑골 · 부처골과 같은 지난날

융성했던 불교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명들이 많다. 또 그 지역안에 지금도 남아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념물이나 자연물의 이름을 딴 지명들이 많은 것이 한 특징이다.

마을이름에서 흔히 나타나는 새(新)~·양달~·응달~의 지명은 골이름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취락과 자연물 사이에 나타나는 당연한 차이라 하겠다.

2. 들 이름의 일반적인 명칭

○ 29개 : 봇들(새~·큰~·위~·아래~·중~·건너~·순~·궁~등) ····· (1)

○ 25개 : 앞들/앞벌(전들·터앞(들)·문앞(들)·새터앞·당앞) (1)

○ 14개 : 긴들/진들(긴골·진평·긴논·진설미·진살미·진사리·진펄이·기단들·뱀들) ····· (1)

○ 13개 : 방아다리/방아다리들(방아골) ····· (1)

○ 12개 : 구렁자리(구렁텅이·구레이·구레·구레굴·굴챙이·구렁말·구렁들·굴청들) ····· (1)

○ 11개 : 아랫들/하들(미테울·알밑들·아랫말들) ····· (1)

○ 10개 : 안들/안터(속골·안다니·안가래·안고지·안고래·속속골) ····· (1)

○ 8개 : 너븐들/나븐들(너더리들·광대들·광대배기·군들·노들) 윗들/윗벌(상들·상곡·웃바지·웃밑들)·집너머·큰들(한들·큰번던·큰자울) ····· (4)

○ 7개 : 왜배기/왜미(왯들·외골·왯모랭이)·물레방아들(~거리·물방아들) ····· (2)

○ 6개 : 마루들/마릿들(마루터기)찬샘/참슴·(찬우물들·냉우물들)·뒷들/뒤실(뒤께·뒷내) ····· (3)

○ 5개 : 방축골(~굴)·능골(가재능골)·새들(새뚝·새원) ····· (3)

○ 4개 : 미력들(~골) ..... (1)

○ 3개 : 쉬골(쇠쟁이) · 배울 · 밧가래 · 주막들(~거리) · 방죽들 · 밭들(바골 · 골밭) · 사장(사장터) · 가운데들 · 절터(절골) · 비선거리(비석거리) · 구마니(~들) · 구리너머(구렁너머들) ..... (12)

○ 2개 : 장머루 · 능내 · 둑너머 · 건넌들 · 돌배기 · 탑거리(탑골) · 잣나무들 · 은행나무들 · 저수지들 · 도장굴 · 어리굴 · 소리골 · 방죽들 · 방초굴 · 더덕굴 · 샘들 · 황새울 · 모래들 · 자재기 · 독골 · 움방골 · 오미 · 서낭당이 · 장승이 · 잿들 · 성밑(~들) · 풀무건너 · 군들 · 비렁뱅이 들 등

들이름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앞들(25) · 뒷들(6) · 아랫들(11) · 윗들(8) · 안들(10) · 마루들(6) · 집너머(8)를 비롯하여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동일계열의 지명이 모두 1백개소가 넘는 월등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봇들이 29개소로 같은 계열의 방축골(5) · 방죽들(3) · 저수지들(2) · 샘들(2)과 함께 논농사에는 생명과도 같은 수원지나 수로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지명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다.

③ 긴들(14) · 구렁자리(12) · 너른들(8)처럼 넓거나 길거나 구렁텅이가 있거나한 들판의 생김새가 지명으로 굳어진 형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④ 방아다리(13) · 물레방아(물방아)거리(7) · 왜배기(7)등의 이름은 지난날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들판의 다리나 물레방아, 혹은 기와를 굽던 자리가 지명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다.

들이름 역시 마을이나 골이름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위치나 방향, 지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일반적인 호칭인 셈이다. 그밖에 수로나 수원지의 존재에서 유래된 이름이 많은 것은 논농사의 중요성과

함께 들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골이름에 비해 불교 유적과 관련된 지명이 흔하지 않은 이유는 절들이 대부분 산골짜기에 터를 잡았던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큰들(8)·너른들(8)에 비해 작은 들판을 의미하는 이름에는 호법면의 소주박(小珠珀)[2] 단 하나의 예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큰들·너른들에 대응하는 작은들·좁은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문이 아니라, 들판이 작고 협소한 경우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렁뱅이들·궁골·된가리·잔다랑이와 같은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탓이다. 반대로 백석지기·비단들·노들·군들 등은 넓고 기름진 들을 의미하고 있다.

2) 소주박-주박리의 작은 들판이란 뜻

Ⅲ. 골 이름의 分析

1. 위치·방향에서 온 이름

①大·小

큰골·큰덕골·큰바래기·큰저골·작은골·작은자올·작은자골

②위·아래(밑)·앞·뒤

윗골(웃골/욱골)·상곡·안터위·우대거리·탑상곡·미태골(밑에골)·무테골(무터골)·말밑골·절밑·아랫말골·효양산밑·윗산밑·통뭇골[3]·정밑·앞골·터앞·앞터골·앞고래·앞등·동말앞·뒷골·뒤누굴·윗절내미

3) 통뭇골(모가면)-통모이산 밑에 있는 골짜기.

③ 가운데 · 안 · 가장자리

가운데골(~굴) · 가운데들 · 안골 · 안터 · 발안골 · 방죽안 · 말림안 · 안번단 · 안역골 · 속골 · 가골(~굴) · 가장굴 · 가장터

④ 넘어 · 건너 · 모퉁이

너머골 · 새터넝골[4] · 문배넘어골 · 집너머 · 산너머골 · 서낭너머 · 개너머 · 안너머골 · 풀무건너잔등 · 마재미모퉁이

4) 새터넝골(장호원읍)-새터넘어 골짜기의 뜻.

⑤ 새(新)

새골 · 새터 · 새꼬래

⑥ 양지 · 음지

양지골 · 해바라기 · 음지터골

⑦ 기타

소정이골 · 화두재 · 백장이터골 · 남산골 · 공고개 · 소터골 · 넉고개 · 인배골 · 장재골 · 강산암골 · 돌담 · 안고니골 · 나루목 · 새재골 · 보리산골 · 용산골 · 한터골 · 골말림 · 검은뫼

2. 지형에서 온 이름

① 일반적인 지형

가는골(가능골) · 꼬챙이골 · 긴골(진골/진구리) · 좁은골 · 쪽지골 · 너른골(너븐골) · 넙적골 · 광(廣)골 · 가래골 · 갈골 · 서가래울 · 고브랭이[5] · 구진골 · 깊은골 · 은골[6] · 등골 · 막은골(마근골) · 뱀골

② 특수한 지형

관골 · 갓골 · 비연개[7] · 비아매기[8] · 쇠목골[9] · 쇠목가골 · 소포골[10]

5) 고브랭이(대월면)-굽은 골짜기의 뜻

6) 한자로는 '銀谷'이라 쓰지만 후미진 골짜기, 은밀히 숨어지낼만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7) 비연개(부발) '飛燕개'라 하여 제비가 나르는 형국이란 뜻으로 풍수지리설에서 온 지명.

8) 비아매기(모가)-병목처럼 잘룩하게 생긴 지형이란 뜻으로 소리울(松谷里)의 옛터라고 함.

9) 쇠목골(부발)-소의 목처럼 생겼다고 함.

10) 소포골(설성)-소포(관혁)처럼 생긴 골짜기.

· 벼락골 · 소댕이 · 가마골[11] · 돼지코구멍골 · 청룡뿌리 · 나라모르기

③ 수렁 · 버덩이 있는 지형

수랭이 · 쉬골 · 번디기 · 더덩들 · 번서구리 · 능구리

④ 기타

보이는골[12] · 쥐방골[13] · 동막골(동막재) · 다섯골 · 여섯골 · 거치락골

3. 기념물에서 온 이름

① 불교기념물

절골 · 절터골 · 불당골 · 옥시울[14] · 여사골 · 정학골[15] · 탑골(탁골) · 탑상골 · 부처골(부처지골/부처박골[16]) · 미력골

② 기타 기념물

생겨들[17] · 산제당(산지당골) · 사당골(~굴) · 당골 · 서당골 · 시낭골 · 솔서낭뎅이 · 사장 · 사장벌 · 능골 · 능안 · 공동묘지골 · 공동묘지고래 · 장승이 · 장승배기 · 당뭇골 · 원텡이 · 소정굴 · 금성 · 장군터 · 삼막골 · 물방아골 · 회가마골[18] · 황토골[19] · 왜골(왱골)[20] · 갱터 · 갱지 · 막장가리 · 막장골[21] · 물다리골 · 장사막골 · 석회골

③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에서 온 이름

병마골(병막골)[22] · 송아지골[23] · 초병골[24] · 피란골 · 중죽은골 · 범잡은골 · 뱀잡은골 · 쇠매기골 · 듬테[25] · 도둑골 · 미끼리골 · 안씨남 · 박가곡 · 진상골[26] · 산삼동[27] · 나루

④ 자연물에서 온 이름

ㄱ. 나무

11) 가마골(마장)-주위가 둥글고 가운데가 가마솥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

12) 보이는골(장호원)-글자 그대로 마을에서 보이는 골짜기란 뜻.

13) 쥐방골(설성)-쥐방울만한 작은 돌들이 많다고 함.

14) 옥시울(호법)-玉水庵 절이 있는 골짜기

15) 정학골(마장)-定岳寺가 있었음『利川郡邑誌』

16) 부처박골(모가)-부처바위골. 넓은 바위에 佛像이 새겨져 있다.

17) 생겨들(호법)-鄕校가 있었다고 함.

18) 회가마골(신둔)-회(灰)를 굽던 가마자리라고 함.

19) 황토골(신둔)-황토질 구덩이가 있었다고 함.

20) 왜골(마장)-한자로는 '瓦治谷'이라 쓰며 기와를 굽던 자리.

21) 막장골-갱터 · 갱지 · 막장거리와 같이 鑛山과 관련된 地名.

22) 병마골(장호원)-1920년 전염병이 돌았을 때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병막이 있던 곳이라고 함.

23) 송아지골(율면)-금송아지가 묻혀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地名.

24) 초병골-草瘧을 해두던 골짜기라고 함.

25) 듬테(이천)-군사의 주둔지나 屯田이 있었던 '둔터'에서 유래된 地名으로 추정.

26) 진상골(대월)-나라에 進上하기 위한 벼를 심던 곳이라고 함.

27) 산삼동-산삼을 캐낸 골짜기라고 함.

상나무골(상남허[28]/상낭구배기) · 으느나무골[29] · 배나무골 · 가나무골 · 오리나무골 · 참나무골 · 옻나무골 · 푼나무골 · 스승나무골 · 진나무골 · 솔따배기 · 송뎀

ㄴ. 바위

굴바위골 · 부엉바위골 · 용마바위골 · 큰바위골 · 꺼먹바위골 · 속바위골 · 무당바위골(무당바굴) · 얼개바위골 · 병풍바위골 · 자라바위골 · 성아바위골 · 개바골[30] · 부처박골 · 여수박골(여박골) · 밤바골 · 주정골[31] · 검박골 · 가치박골 · 머루박골 · 복박골 · 약박골 · 드라위 · 한양바골 · 농바골 · 산바골

⑤ 전답 · 샘(물) · 방축

잔드랑골[32] · 솔따배기 · 방축골(~굴) · 방죽골 · 수명자리[33] · 찬샘골(참새골) · 우수무골 · 가재물골 · 수원곡 · 물탕골 · 원수골(~굴) · 사기수 · 원정곡 · 샘터굴 · 옻샘말 · 옻샘골

⑥ 마을에서 온 이름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동이 되어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이다)

골말 · 새터말 · 우대거리 · 송축말 · 공말 · 옻샘말

4. 평야계 지명

가운데들 · 더덩들 · 사장벌 · 생겨들

5. 기타

가재골(가자골) · 신새골 · 새젓골 · 철그물 · 장살미 · 호장골 · 거먹

28) 상남허(장호원)-상나무터의 뜻.
29) 으느나무골-은행나무골.
30) 개바골-개바위가 있는 골짜기.
31) 주정골-주정바위가 있는 골짜기
32) 잔드랑골(설성)-잔다랑이의 논들이 있는 골짜기
33) 수명자리(설성)-수문(水門)자리의 뜻

골 · 고시랑골 · 부수골 · 영노골 · 도장골 · 여모골 · 시누굴 · 복골 · 연방저골 · 통보골 · 생기시리 · 시무나골 · 이터골 · 한해골 · 대배 · 미인락골 · 각자골 · 호청골 · 어리굴 · 주누게굴 · 유욱굴 · 전역골 · 만골 · 하반톱골 · 배태굴 · 승저골 · 경남골 · 고장배기 · 성지골 · 둥둥골 · 때골 · 황새울 · 시상골 · 심배울 · 가맛대 · 감제미 · 빼울 · 노방골 · 고은줄 · 번덕골 · 범골 · 산저굴 · 지펙골 · 호박골 · 한데미 · 감바골 · 새낙골 · 서덜 · 장파골 · 중서골 · 자작골 · 신선골 · 신성골 · 요용골 · 한장골 · 숙골 · 연등대 · 움무골 · 너테골 · 산수골 · 목적골 · 목판골 · 음박골 · 명재골 · 공술골 · 부응골 · 소창굴 · 왱갱이 · 거지굴 · 구루무골 · 분투굴 · 방치골 · 첨복골 · 막상골 · 무누골 · 소토골 · 복사배 · 무니골 · 장시마골 · 싱산골 · 승지골 · 염통골 · 먹뱅이 · 탄아골 · 마골 · 개시미 · 배모간 · 옹잠 · 새끼밀 · 각장골 · 과부자리 · 광어기 · 대장굴 · 모상골 · 빗가리 · 사개울 · 산마골 · 시푸골 · 유박골 · 작지 · 풍덩골 · 중산골 · 멀떼미 · 개닥골 · 수누골 · 구리목골 · 용진골 · 집장골 · 한가무골 · 됨박골 · 옥골 · 밤자골 · 두지골 · 둔저골 · 범덩골 · 송장골 · 장자골 · 가라골 · 매장골

위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지명들은 대부분이 생성동기나 유래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이다. 이들 지명에 대한 유래를 밝히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Ⅳ. 들 이름의 분석

1. 위치 · 방향에서 온 이름

① 大 · 小

큰들 · 한들 · 큰번던 · 큰봇들 · 소주박

② 위 · 아래(밑) · 앞 · 뒤 · 머리(마루)

윗들(웃들/웃벌) · 상들 · 상곡 · 윗말들 · 웃바지 · 아랫말들 · 알밑들 · 미테울 · 무테골 · 오산밑 · 방하 · 윗산미테 · 능밑들 · 길아래 · 성밑(들) · 방죽밑 · 앞들(앞벌/전들) · 새터앞(들) · 문앞(들) · 당앞 · 죽곡앞들 · 원앞들 · 앞고개들 · 장생이앞 · 황정개앞 · 비선앞 · 집앞거리 · 뒷들 · 뒤께 · 뒷내 · 뒤실 · 뒷돌새 · 뒷논빗들 · 뒷산거리 · 이공관뒤[34] · 마루들(마릿들) · 생마루 · 마루터기 · 고루머리 · 자장머루 · 장머루 · 한우머리 · 기름머리들 · 저수지머리 · 어미들 · 동마리

34) 이공관뒤(이천읍)-利公館 뒤. 현 이천극장 뒤 벌판을 말하며 지금은 상가와 주택가로 변모되었다.

③ 가운데 · 안 · 밖 · 가장자리 · ~께

가운데골(~들) · 안들(속들) · 언안 · 안다니 · 안가래 · 안고지 · 안고래 · 안터 · 안두골 · 속속골 · 방죽안 · 요굴안 · 회고개안 · 묘안 · 중복개 · 능내 · 귀내 · 밖억만리 · 대문밖 · 가골 · 기슥들 · 생겻[35] · 사겨테[36] · 개울께 · 철다리께 · 벌딴

35) 생겻 -鄕校 곁에 있는 들.

36) 사겨테(모가)-사거리 곁에 있는 들.

④ 넘어 · 건너 · 모퉁이 · 사이

집너머 · 망두너머 · 모이너머골 · 둑너머 · 철뚝너머 · 구리너머 · 구렁너머들 · 너믄들 · 언너머 · 능너머 · 주막너머 · 집건너 · 건넌들 · 풀무건너 · 홍건너 · 가쟁이 · 왯모랭이 · 오얏모롱이 · 종종모랭이 · 바위모퉁이 · 모랭이 · 행성모리 · 개똥모퉁이 · 청룡모퉁이 · 한단

모랭이 · 행교모랑 · 샛논 · 샛들

⑤ 새(新)

새들 · 새밭들 · 새원 · 새뚝

⑥ 기타

한내들 · 새재들 · 요골들 · 문드렁골 · 수비재들 · 오미고개 · 마다리들 · 고밀봉이 · 노가댕이들 · 완평 · 관진들 · 오미들 · 주미리들 · 사거리 · 덕밭들 · 월산들 · 덕산들 · 광악들[37] · 골백애미[38]

37) 광악들(모가)-光岳山 밑에 있는 들판.

38) 골백애미(호법)-백암리(용인군 외사면) 쪽 골짜기의 뜻.

2. 지형에서 온 이름

① 일반적인 지형

긴들(진들) · 긴골(진골) · 진사리 · 진살미 · 기단들 · 뱀들 · 너더리들 · 나븐들 · 광대들 · 광대배기 · 백석지기 · 비단들 · 군들 · 노들 · 구비재 · 곱사리들 · 둠벙이 · 둥글메 · 갈골 · 은골 · 가마골

② 특수한 지형

보습들[39] · 멍에배미 · 멍에미[40] · 소시랑뎅이 · 벼루재들 · 소반매기 · 독들(~골) · 장구자리 · 망태들 · 통미 · 낭떠러지기 · 잉어들

39) 보습들-보습(쟁기)의 모습처럼 생긴 地形.

40) 멍에배미 · 멍에비-멍에처럼 생긴 地形.

③ 수렁 · 버덩이 있는 지형

구레(구레이) · 구레골 · 굴챙이 · 구렁자리 · 구렁텅이 · 구렁말 · 사천이구레 · 옥골구레 · 굴청들 · 쉬골 · 쉬께 · 쇠쟁이 · 웅덩자리 · 번던 · 장등들 · 구렛들

④ 기타

비렁뱅이들[41] · 궁골[42] · 모래들(~봇들)[43] · 됫덩이 · 된가리[44] ·

41) 비렁뱅이-메마른 천수답이 있는 척박한 들.

42) 궁골(장호원)-땅이 메말라 곡식이 잘 자라지 않으므로 '窮골'이라 했다고 함.

43) 모래들 · 모래봇들-모래가 많은 地形의 들판.

44) 됫덩이 · 된가리-땅이 메마른 들.

돌산[45] · 돌배기 · 맷돌거리 · 청속돌배기 · 돌방구 · 청룡들 · 후지골 · 양수합개비[46] · 바람마지[47]

3. 기념물에서 온 이름

① 불교 기념물

미력골(~들) · 탑거리 · 절터(~골) · 감줄[48]

② 기타 기념물

생겻[49] · 생겨골[50] · 당골 · 창들 · 원터 · 원앞들 · 서당들 · 서낭당이 · 사장 · 사장터 · 사정이골 · 용당들 · 토정 · 소정이 · 능골 · 왕무덤 · 개무더미 · 묘골 · 가재능골 · 비석거리 · 비선거리 · 비끼미[51] · 곳재 · 곳집거리 · 고추거리 · 꽃집거리[52] · 물레방아들(~거리) · 물방아들(~거리) · 막장다리 · 너더리[53] · 시승다리들 · 헌다리 · 쪽다리 · 주막들 · 술청거리 · 장터골 · 장터거리 · 장승이(장생이들) · 역들 · 왯들 · 왜미 · 왜배미 · 왜배기 · 왜뎅이 · 갱지 · 막장가리 · 두집매 · 도수장거리 · 된장거리 · 시렁거리 · 함박거리 · 둔전들 · 원살미

③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에서 온 이름

강만호[54] · 송씨암 · 강철수들 · 신하공들 · 서하담밭 · 시종지[55] · 강수원 · 조간납 · 설가들[56] · 아전이 · 기만재[57] · 이가들 · 이덕들 · 만중들 · 주천들 · 구마니들[58] · 천냥짜리들 · 백석지기들 · 제투골[59] · 소금바지[60] · 괸돌들 · 서가들

④ 자연물에서 온 이름

ㄱ. 나무

산해남배기 · 옻나무들 · 은행나무들(~거리) · 솔나들이 · 송골 · 솔배기 · 정자나무들 · 숲거리 · 잣나무들 · 참나무실 · 참나무거리 · 안

45) 돌산(백사)-들 가운데 돌산이 있음.
46) 양수합개비(율면)-청미천과 웅천 두 냇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들.
47) 바람마지-바람이 센 곳이라고 함.
48) 감줄(모가)-감절이란 절이 있었다고 함.
49) 생겻-향교 곁에 들판.
50) 생겨골(설성)-향교가 있었다고 함.
51) 비끼미-비석이 있었다고 함.
52) 곳재 · 곳집거리 · 고추거리 · 꽃집거리-상여를 보관하여 두는 고집이 있었던 자리.
53) 너더리-나무판자로 된 널다리가 있었던 곳.
54) 강만호(신둔)-姜萬戶의 농토였다고 함.
55) 시종지-李侍宗의 농토였다고 함.
56) 설가들-薛氏의 농토, 李가들, 徐가들도 마찬가지임.
57) 기만재(대월)-'金彦佐坪'이라 하여 김언좌라는 사람의 땅이었음.
58) 구마니들(이천 · 마장)-九萬里들이라 하여 넓은 들의 뜻과 함께 유명한 금송아지의 전설이 깃들여 있다.
59) 제투골(설성)-옛날 행정구역에 하나인 蹄村部曲이 있었다고 한다.
60) 소금바지- 소금배가 짐을 부리던 들판이라고 함.

ㄴ. 바위

마제미[61] · 고늪[62] · 드라위 · 형제바위들 · 성지박골 사당바굴 · 돌방구 · 청석돌배기

61) 마졔미(부발)-말바위가 있는 들.
62) 고늪-고누바위가 있는 들.

⑤ 田畓 · 샘(물) · 보(방축)

궁논 · 샛논 · 궁밭논 · 거청배미 · 개논 · 한배미 · 감주배미 · 밭들 · 바골 · 골밭 · 새밭들 · 밤밭들 · 밭풀이 · 평낫밭 · 덕밭들 · 도루논갈림 · 봇들 · 영상봇들 · 고추봇들 · 응암봇들 · 굴바위봇들 · 방축골(~굴) · 방죽들 · 천방들 · 늪자리 · 독정 · 웅덩자리 · 여수물 · 찬샘(참슴) · 참새골 · 찬우물들 · 냉수물들 · 언개 · 언안 · 무시늪 · 이정개 · 샘들 · 봇물 · 감자물들 · 응개 · 복개들[63] · 샘내 · 병상개 · 수원골 · 저수지들 · 불새미 · 구수무 · 가잡물 · 밧가래 · 모시랏 · 마전

63) 복개들(호법)-福河川 곁에 있는 들.

⑥ 마을에서 온 이름

새말들 · 벌말들 · 비녕리 · 장성리 · 구소리울 · 신우터

4. 山(谷)系 지명

바자굴 · 요굴 · 도장굴 · 어리굴 · 오리굴 · 소리굴 · 속속골 · 할미골 · 궁골 · 등안이골 · 지장골 · 소라실 · 가장굴 · 방개골 · 등테골 · 사미실 · 고양골 · 마산골 · 수누골 · 돌기재 · 술래골 · 구레굴 · 여섯굴 · 송장굴 · 나릿굴 · 보실 · 영굴 · 명장굴 · 기새울 · 거지골 · 석벽굴 · 지새울 · 통미 · 보무새 · 불하치 · 자올 · 박대울 · 시리미 · 진설미 · 쇄골 · 한대울 · 가리미 · 학성굴 · 방초굴 · 소턱굴 · 원서굴 · 개경굴 · 염통골 · 개똥굴 · 회양골 · 무테골 · 장자골 · 바골 · 삼막골 · 더덕골 · 초마골 · 후지골 · 음방골 · 등산골 · 황골 · 갈골 · 선대울 ·

콩대울 등

들이름 가운데 ~골(올)·~굴(울)·~실(일)·~미와 같은 접미어가 붙는 산계 지명들은 위의 예를 든 지명 말고도 상당수가 더 있다. 골이름 중 평야계 지명의 수효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희귀한 것에 비해, 들이름에 산계 지명들이 유달리 많은 이유는 골짜기를 이룬 지형들이 많다는 지리적인 특성과 함께, 앞 글에서도 언급하였듯 처음에는 골짜기였던 곳이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농경지의 개간으로 들판으로 변모된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수만평, 또는 수십만평 단위의 넓은 야산과 농경지가 하루 아침에 주택단지나 공장지대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이들 지명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런지, 또는 아주 이름마저 영영 사라지고 말지 알 수 없는 일이다.

5. 기타

고림쟁이·후비전이들·장살미들·배애기·작사곡·사고맛들·역수니·오미주·원살미·만가리·된섬·빗가래·자래미·중빠지·둔지미·춘일들·양미들·고창아들·모새미들·비아미들·더게들·번개들·앵모루·김사랏·공서울·마선·배머루·장지기·고잔·에캥이·무즐·주즐·솔개미·조쟁이·오근지·군투성이·덕잔이·신경들·지릭뜨리·두고지·댓물·불문덕·망앗들·소가반·골진뱅이·새터뿌리·청탓들·매무니·삼영들·서빠텡이·살구들·진삼바벌·개랫들·서들·황시기·굴기터들·가무새·배복새·빈쟁이·도랑시터·검성게·거머거들·숫토정·보포랭이·벙들·장술·느들·술내들·보락·추본섶·경삼·싱가들·청벽들·최뿌리·고석들·용기·우렁터·산돌·쇠쟁이·새번디기·자재기·여뱅이·갈매기·비아매기·감상게·문징게·신거니·집장들·봉기들·동마리·심삿·영바래기·개똥자리·마꾸기·기앙지·날근

터 · 보고지 · 나부게 · 개꼬지 · 은고통 · 마전 · 갬둥지 · 묘꼬지 · 핫들 · 지식자리 · 점창 · 거무렛들 · 추내들 · 움방골 · 괭이 · 새발고지 · 잉어자리 · 중어자리 · 메기통들 · 바닥들 · 새터개미 · 생마루 · 함박거리 · 원살미 · 구수무

V. 맺는말

마을 · 골짜기 · 들판이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한장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가 있다. 여기 산자락을 낀 마을이 하나 있다. 햇볕이 잘드는 남향바지라서 이름이 양달말이다. 마을 뒤로는 산줄기로 이어지는 몇개의 골짜기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긴 골짜기의 이름이 긴골, 가재가 많은 가재골도 있고, 찬샘골도 있고, 수렁이 있는 쉬골, 바위골도 있다. 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 문앞들, 너른들, 봇들도 있고 그 넘어가 넘은들이다. 양지말 뒤에 있는 마을이 응달말이다. 벌판 건너 쪽이 벌말이고, 물레방아들, 주막거리를 지나면 생겨난지 얼마 안되는 새말이 있다. 이렇게 그려나가다 보면 대충 이천지방의 지형도가 한 장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암호문과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문제가 된다.

향토사를 연구하거나 문화재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명이 갖는 중요성을 크게 실감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숨어있는 문화재가 지명속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고를 쓰기 위해 지명들을 정리하다 보니, 생겨들(향교들) · 불당골 · 사당골 · 역들 · 원터와 같은 향토사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중한 이름들을 찾아내는 기대하지 않았던 수확도 있었다.

대다수가 한자지명화 해버린 마을이름보다도 골이나 들이름 가운데 숨어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 어휘들을 만나는 일은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다. 눈에 띄는대로 대충 나열해 보아도 큰 바래기 · 새꼬래 · 해바래기 · 새터넝골 · 고브랭이 · 비아매기 · 잔드랑골 · 쥐방골 · 솔나들이 · 솔따배기 · 솔서낭뎅이 · 드라위 · 생기시리 · 둥둥골 · 수랭이 · 기름머리 · 오얏모랭이 · 종종모랭이 · 보포랭이 · 지식자리 · 미테울 · 노가뎅이 · 멍에배미 등을 손꼽을 수 있고, 또 보이는 골 · 돼지코구멍골 · 진구리 · 번서구리 · 너더리 · 소시랑뎅이와 같은 해학적인 이름들도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함은 물론, 널리 불리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생성동기나 유래가 밝혀지지 않은 지명들에 대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며, 역사 · 민속 · 언어학적인 관점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명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설봉문화 창간호, 1989, 여름>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Ⅰ. 글머리에

금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와 각 지방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보도를 보면 경기도에서만 각 시군별로 금년에 추진할 예정인 기념사업이 모두 1백 41개 사업에 90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웃 여주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일제에 의해 희생된 명성 왕후의 생가를 복원하고 독립운동사료집을 발간하는 등 여러가지 뜻깊은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며, 각 시군마다 기념비 건립, 학술강연회 개최, 자료집 발간 같은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이천군만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이 쥐죽은듯 조용하기만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이천군은 을미의병과 정미의병항쟁 등 한말 당시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항쟁이 인근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했던 지역이었다. 또한 具然英·李壽興·柳澤秀·金遠祚·李先龍 같은 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하였으며, 관련된 유적지나 기념물들도 적지 않다. 그동안 뜻있는 몇몇 사람, 또는 뜻있는 민간단체들이 이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일들을 단편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당국이나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내용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드시 광복 50주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민족항쟁과 독립운동 사실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선양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일중에 하나가 일제에 의해 왜곡된 地名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일제 36년간 억업통치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지명이다. 일본은 한일합방 이후 제일 먼저 한반도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하여 1914년 3월에 이를 단행하였다. 이때 시, 군을 비롯하여 면, 리 등 기초행정단위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지명에 대한 명칭 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천군과 음죽군이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오늘과 같은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 것도 이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일인들의 손으로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해 뒤바뀌어진 지명들이 해방 이후로도 그대로 답습되어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II. 地名의 특성

과거에도 필자는 몇 군데 글을 통해서 지명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중

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원래의 지명 속에는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어 그 지명만이 간직한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마련이다. 우선 지명은 한 고장의 지형과 방위에 따라 이름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명속에는 고장의 지리적인 특성이 잘 들어나 있다. 양달말·응달말·산골·벌말·긴골·둑넘어 같은 지명들은 이름만 들어도 그 마을이 자리잡은 위치나 생김새를 짐작할 수가 있다.

둘째로 지명에는 그 고장의 오랜 역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특히 문헌이나 다른 고증자료들을 찾아내기가 힘이 든 향토사의 경우는 지명이 갖는 의미가 더욱 소중하다. 또한 중요한 문화유적이나 유물의 존재가 지명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같은 문화유산을 찾아내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우리고장의 경우 신둔면 지석(支石)리가 대표적인 예이며, 향교말·서당골·능골·비석거리·부처바위 같은 지명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필자는 실제로 지명에서 단서를 얻어서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불상과 도요지 등을 찾아낸 경험이 있다.

세번째로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한 고장의 세시풍속과 관련되어 지금은 사라진 옛 풍습이나 생활관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네번째로 지명에는 그것이 생겨나게 된 유래와 전설이 얼켜있어 구전되어 내려오는 민담이나 설화같은 구비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다섯째로 지명은 강한 보수성과 구어(口語)성의 특성이 있는 탓에 그 고장의 독특한 방언이나 음운현상을 연구하는 대상이 된다.

이처럼 그 고장의 독특한 문화전통을 간직한채 오랜 세월 존속되어 온 지명을 일제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미명아래 송두리채 뒤바꿔버린 이유는, 식민지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말고도 우리의 민족혼과 문화전통을 말살시키려는 저의가 숨어있었다고 보여진다.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잡아 민족정기를 상징하는 광화문을 헐고 그 자리에 일제의 수뇌부인 총독부건물을 들어앉힌 일이라든지, 풍수지리상의 요처가 되는 전국 방방곡곡의 중요한 산허리마다 혈을 끊는다고 쇠말뚝

을 박은 그들이니 지명이라고 해서 예외로 그냥 두었을 리가 없다.

한 예를 들어보면 대월면 부필리의 경우 원래의 지명은 富必里인데 여기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을사람들의 소박한 여망이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夫必'이라 고쳐부르도록 했으니 이렇게 되면 어려운 한자도 아닌 글자 하나를 일부러 바꿔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마을 이름도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불리워지는 탓에 본래의 담겨진 뜻이 중요하다. 수백년을 이어내려온 본 뜻을 상실한채 뒤바뀌어져 전혀 의미가 달라졌거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은 이름들을 지금도 우리들은 무심코 입에 담아 부르고 있는 것이다.

Ⅲ. 일제가 바꾼 마을이름들

이 글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일제가 명칭을 바꾼 지명들이 우선 어떤 것들인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물론 잘못된 명칭을 다시 바로잡자면 필요한 절차도 있을 터이고, 무엇보다 역사나 민속,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고증을 받고 절차를 밟는 일은 담당기관이 해야 할 몫이므로 여기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한다.

이 글의 조사대상은 우선 총 132개에 달하는 우리 군 관내의 법정리 명칭만으로 제한하였다. 물론 자연부락명이나 산이름, 들이름 같은 다른 지명들 속에도 잘못 고쳐진 경우가 있겠으나 드믄 예에 속하며 아직 자료도 부족한 형편이다. 법정리의 경우에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일제에 의한 변경사실이 분명하게 들어나기 때문에 이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1914년 개편 당시 바뀌어진 지명들을 읍면별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읍면별 개편 법정리수

합계	이천	장호원	부발	신둔	백사
88(132)	3(11)	12(13)	9(14)	3(12)	6(12)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설성	율면
7(9)	8(12)	11(14)	8(11)	12(12)	9(10)

※ ( )안은 법정리수

위의 표에서 보듯 1914년 당시 바뀐 법정리는 총 88개리로 전체의 6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음죽군이었던 장호원읍과 설성, 율면의 경우가 심하여 설성면의 경우는 전체 12개리가 모두 명칭이 바뀌었으며, 장호원읍은 羅來里 1개 리를 제외한 전체 리가, 율면의 경우는 叢谷里 1개 리를 제외한 전체가 명칭이 바뀌었다. 옛 이천군 지역은 부발·호법·대월·모가·마장면의 경우가 심하고, 이천읍과 신둔면 지역은 비교적 변경내용이 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일제가 바꿔놓은 법정리명을 원래의 명칭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2〉 변경된 里名 일람표

지역별	里名(변경후)	원래의 里名	비고
利川邑	官 庫 里	官後里	
	葛 山 里	新葛山里	
	沙 音 里	沙器幕, 切音里	新面에서 편입
長湖院邑	善 邑 里	善興里, 邑內	
	方 楸 里	方角洞, 楸洞	
	松 山 里	松谷里, 山垈	

지역별	里名(변경후)	원래의 里名	비고
長湖院邑	大西里	大井里, 近西里	
	於石里	於云洞	
	珍岩里	珍村里, 階岩里	
	長湖院里	長海院里	
	梧南里	梧倉里, 南川洞	
	梨黃里	梨亭, 黃庭浦	盧谷里
	瓦峴里	瓦洞, 皓峴里	
	豊界里	豊土里, 赤界里	
	老塔里	老坪里, 塔村	巨勿里
夫鉢邑	茂村里	巨次牙里	
	竹堂里	注洞里, 堂峴	
	新元里	新垈洞, 元積洞里	
	大冠里	大旺里	
	高白里	高寺里	
	新河里	新村, 福河	梅花谷里
	牙美里	峨眉垈里	
	加佐里	加佐洞里	
	柯山里	柯木洞, 杢山里	
新屯面	道岩里	道月岩里	
	水廣里	水北, 廣峴	水出里
	印後里	印培, 後洞里	
梧沙面	玄方里	黑岩里, 溫方里	
	上龍里	上村, 龍村	上洞里
	助邑里	助邑洞里	
	道知里	道知谷里	
	京沙里	京士垈里, 沙北里	
	松末里	末谷里	
戶法面	酉山里	酉良谷里	
	安坪里	安古里, 上坪	
	厚安里	厚美村里	
	珠珀里	珠珀村里	
	東山里	東山邑里	
	松葛里	松葛山里, 石塘村里	大陽面에서 편입
	梅谷里	土谷里, 梅芎里	

지역별	里名(변경후)	원래의 里名	비고
麻長面	灰億里	회다리, 億萬里	
	牛川里	五川里	
	冠里	冠洞里	
	芎村里	雀別里	
	木里	木洞里	
	長岩里	長壽旺里, 門岩里	
	各坪里	各氏洞里	
	標橋里	屯田里	
大月面	草芝里	草芝谷里	
	夫必里	富必里	
	大興里	大洞里, 範興里	
	高潭里	高垈岩里	
	長坪里	夫皇洞里	
	九時里	九時洞里	
	松羅里	松羅谷里	
	郡梁里	上郡梁里, 下郡梁里	
	丹月里	丹月川里	
	道理里	道理洞里	
	大浦里	大浦川里	
暮加面	陳加里	加洞里, 陳內	
	院頭里	元頭里	
	所古里	所古之里	
	豆美里	豆亦里, 侍美洞里	
	於農里	於農洞里	
	梁坪里	郡梁里	
	新葛里	葛山里	
雪星面	自石里	自隱洞, 黑石里	
	岩山里	九山里, 垂岩洞	
	松界里	松洞, 上八界, 下八界	
	長泉里	長角洞, 寒泉洞	
	樹山里	樹谷, 鶯山洞	
	大竹里	大山洞, 孝竹	
	上峰里	高峰里	
	新筆里	細筆里, 新楸洞	

지역별	里名(변경후)	원래의 里名	비고
雪星面	金 堂 里	金城골, 堂前	松三洞
	諸 蓼 里	諸葛村, 蓼谷	
	行 竹 里	行尋村, 分竹里	
	長 陵 里	장수골, 능골	
栗 面	新 楸 里	새터, 楸洞	
	高 塘 里	高尺洞, 池洞	
	月 浦 里	都月里, 退浦里	
	五 城 里	尺五洞, 長城里	
	山 星 里	山洞, 八星里	
	石 山 里	石橋村, 石院洞	
	山 陽 里	龍山洞, 陽阿里	
	北 斗 里	北頭里	
	本 竹 里	本栗洞, 竹栗洞	

법정리 명칭을 바꾸면서 읍면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읍면 호칭도 대부분 바뀌었으니 이를 비교하여 열거하면 <표 3>과 같다.

〈表 3〉 변경된 읍면 호칭알람표

邑面名(변경후)	원래의 명칭
邑內面 (利川邑)	邑內面
長湖院邑 (淸渓面)	縣內 東面 南面
新屯面	屯面 → 屯之山面(屯知山) 新面 → 新洞面
栢沙面	栢面 → 栢土里面(陌土里) 沙面 → 沙北面

邑面名(변경후)	원래의 명칭
夫鉢邑	夫面 → 夫毛谷面(夫老谷) 鉢面 → 鉢山面
戶法面	戶法面
麻長面	麻面 → 麻田洞面 長面 → 長壽旺面(長水旺)
大月面	大面 → 大陽面 草面 → 草枝谷面(苧枝谷) 月面 → 月良村面(月陽村)
暮加面	暮面 → 暮山面(母山) 加面 → 加麻洞面(葛麻洞)
雪星面	北面(近北面, 遠北面) 西面
栗面	上栗面 下栗面

이상 표에서 보듯 이천읍(읍내면)과 호법면, 그리고 율면이 上栗面, 下栗面 두개의 면에서 그냥 栗面이 되었을 뿐 다른 8개의 면의 명칭이 모두 바뀌었는데, 新面과 屯面이 新屯面이 되었듯 두 개의 면 지역(大月面의 경우는 3개면)을 하나의 면으로 합치면서 글자 한자씩을 따다가 이름지었음을 알 수 있다.

Ⅳ. 유형별 분류

개칭된 88개의 리명들을 보면 대충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道月岩里를 道岩里로, 於農洞里를 於農里로 줄인 것처럼 간소화한 경우이고, 두번째가 善興里와 邑內를 합하여 善邑里라 하고, 尺五里, 長城洞 두개 마을을 합하여 五城里로 한 것처럼 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3개의 마을을 합하여 글자 한자씩 따다가 명명한 경우인데 우리고장에서 가장 흔한 예이다. 세번째 유형은 官後里를 官庫里로, 高寺里를 高白里로 바꾼 예에서 보듯 뜻과 소리가 전혀 다른 완전한 개칭을 한 경우이다.

① 간소화한 경우

세음절로 된 호칭을 두 음절로 줄이거나 자획이 복잡하고 희귀한 글자를 쉬운 글자로 바꿔서 간소화한 예는 이천읍의 葛山里(新葛山里)와 부발읍의 加佐里(加佐洞里), 牙美里(峨眉垈里), 신둔면의 道岩里(道月岩里), 백사면의 助邑里(助邑洞里)와 道知里(道知谷里), 호법면의 酉山里(酉良谷里)와 珠珀里(珠珀村里), 東山里(東山色里), 松葛里(松葛山里)등 4개리, 마장면의 冠里(冠洞里)와 木里(木洞里), 各坪里(各氏洞里), 九時里(九時洞里), 松羅里(松羅谷里), 郡梁里(上郡梁里와 下郡梁里), 丹月里(丹月川里), 道理里(道理洞里), 大浦里(大浦川里)등 8개리, 모가면의 所古里(所古之里), 於農里(於農洞里)등 모두 23개의 리의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는 里名이 갖는 본래의 뜻을 그대로 이었거나 크게 손상되지가 않은 탓에, 개칭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峨眉垈里를 간소화한다고 牙美里로 고친 것이라든지, 各氏洞里를 各坪里로 한 경우는 간소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달라졌으므로 명칭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한 글자씩 따온 경우

두 세개의 마을을 하나로 합치면서 한 글자씩 따다가 새로운 리명을 만든 경우는 이천읍 1개리, 장호원읍 10개리, 부발읍 4개리, 신둔면 2개리, 백사면 3개리, 호법면 1개리, 마장면 2개리, 대월면 1개리, 모가면 2개리, 설성면 11개리, 율면 8개리로 모두 45개리가 있는데 특히 옛 음죽군의 땅이었던 장호원읍과 설성, 율면의 경우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율면 本竹里의 경우는 本栗洞과 竹栗洞 두개의 마을 이름중 '밤골'이란 원래의 의미는 쏙 빼버리고 첫글자만을 따다가 전혀 의미가 다른 本竹里라 했기 때문에 원래의 栗里나 栗谷里 정도로 환원시켜 부른다면 좋을 것이다. 더구나 사기막골과 切音里를 합하여 沙音里라 하고, 大井里(큰 우물)와 近西里를 大西里로 고친 형태의 대부분의 리명들의 경우는 새로 명칭변경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처럼 일제가 무차별하게 이름을 뜯어고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존하는 마을 이름들에 대한 풀이를 한다고 가정했을때는 웃지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梨黃里> 누른 배꽃마을. 원래는 '배나무정'의 한자차용어인 梨亭과 黃庭浦인데 두개의 마을이름에서 첫글자만 따온 합성어다 보니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렸다. 읍지같은 옛 문헌을 보면 이 마을은 원래가 蘆谷里였다.

<老塔里> 늙은 탑이 있는 마을. '노들'의 한자어인 老坪과 탑이 있었기에 塔村이라 불리웠던 두 마을명의 합성어. 옛 문헌에는 巨勿里(거머리)라 했다.

<竹堂里> 대나무로 지은 당이 있는 마을. '줏골'의 한자 차용어인 注洞里와 堂峴(당고개)의 합성어.

<新河里> 새로운 냇가마을. 新村(새말)과 복하천변에 있어 福河라 불렀던 두 마을명의 합성어. 옛 명칭은 梅花谷里이다.

<水廣里> 넓은 물(내)이 있는 마을. 水北(냇물 북쪽에 자리잡은 마을)과 廣峴(넓고개 아랫마을)의 합성어. 이 마을에 있는 文平公 묘비내용을 보면 옛 명칭이 샘이 잘 나온다는 뜻의 '水出里' 였음을 알 수 있다.

<玄方里> 북쪽에 있는 마을. 이천읍에서 볼때 대략 북동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연의 일치일뿐, 黑岩里(玄岩)와 溫方里의 합성어이다. 옛 문헌에는 墨坊里로도 나온다.

<長岩里> 긴 바위가 있는 마을. 長壽旺里(장생이) 門岩里(문바위)의 합성어.

<岩山里> 바위산이 있는 마을. 九山洞과 垂岩里의 합성어.

<長泉里> 긴 샘이 있는 마을. 長角洞(긴뿔이) 寒泉洞(찬샘골)의 합성어.

<金堂里> 금빛 당이 있는 마을. 금성골과 堂前(당앞)의 합성어. 옛 명칭은 松三洞이었다.

<五城里> 다섯개의 성이 있는 마을. 尺五里(자오리)와 長城里의 합성어.

이처럼 원래의 마을명이 간직한 본뜻과는 전혀 엉뚱한 의미가 되어버린다. 沙音里, 梧南里, 豊界里, 印後里, 京沙里, 灰億里, 陳加里, 豆美里, 松界里, 新筆里, 諸蔘里, 行竹里, 新楸里, 山星里 같은 경우는 의미조차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죽은 이름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두 마을의 합성어로 마을 이름을 지은 경우 이름을 뜯어고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본래의 옛 명칭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를 되찾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같은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발음과 뜻을 모두 바꾼 경우

이천읍의 官庫里(官後里), 장호원읍의 於石里(於云洞)와 長湖院里(長海院), 부발읍의 茂村里(巨次牙里)와 大冠里(大旺里), 高白里(高寺

里)등 3개 리, 백사면의 松末里(末谷里), 호법면의 厚安里(厚美村里), 標橋里(屯田里) 등 3개리, 대월면의 夫必里(富必里), 모가면의 院頭里(元頭里)와 梁坪里(郡梁里), 율면의 北斗里(北頭里)의 예를 들 수 있다.

이중 모가면 양평리 같은 경우는 원래가 郡梁里인데 대월면 군량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경우이므로 그런대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나머지 리명들은 거의 모두가 불필요한 개칭을 하여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호칭이 되어버렸으므로 검토 대상이 돼야 할것이다.

V. 맺음말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것을 되찾고 가꾸는 일에 너무 소홀하여 왔다. 우리의 소중한 지명들이, 그것도 일제의 강압에 의해 훼손되고 송두리채 뒤바뀌어져서 불리우고 있음에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생각조차도 해보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잘못된 지명들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크게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지명이란 앞으로도 계속 수도 없이 불리워지고 기록이 되며, 자손대대로 물려주게될 우리의 정신유산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잘못된 지명들은 남김없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바꿔서는 안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옛부터 불리워졌던 원래의 지명을 가능한한 찾아내어 되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차제에 부르기 좋은 고운 우리말 이름들을 행정구역 명칭에도 과감하게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원래가 대부분의 지명들의 경우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 먼저 생겨났

고, 이를 표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한자명이 뒤에 생겨났다. 한샘골·살개골·소리울·미리울·여뀌울·각시울·도니울·두고울·후미촌·매지울·토끼실·자개울·시미골·우무실·지시랭이·자위리·도달미 등 지금도 불리워지고 있는 부르기 쉽고 듣기에도 좋은 우리말 지명들이 얼마든지 있다.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이와 같은 우리말 지명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다.

<설봉문화, 제13호, 1995>

利川지역 地名硏究의 成果와 限界

-다시 파헤쳐 본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

Ⅰ. 利川지역, 地名硏究의 成果

이천의 향토사가 한승남씨가 오랜 동안 심혈을 기울인 지명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란 책을 펴냈다. 지명연구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본격적인 연구서라는 점에서 우선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천지역의 지명조사와 연구에 대해서는 1984년 이천문화원이 펴낸 『이천군향토문화자료총람』 제3집 「지명유래편」이 이 분야에 대한 최초의 성과물인 셈이다. 같은 해에 나온 『이천군지』의 지명 유래편은 총람의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 후 1996년부터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읍면별 문화유적 민속자료 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각 읍면별로 지명유래에 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정리되어 2003년 초까지 모두 열권의 보고서로 엮어져 나왔다.

강남대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2001년 말에 나온 『이천시지』 제3권 「민속과 구비전승」편에 정리되어 있는데, 지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지명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정리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천지역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으로는 필자의 졸고인 「利川地方 마을이름의 分析」[1]과 「利川地方 땅이름의 分析」[2]이 있다. 그런데 이 두편의 글은 이천지방 지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생성동기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주로 지리적인 관점에서 지형과 지명이 갖는 상관관계를 살펴본 내용이었다. 따라서 지명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본격적인 연구서는 韓勝男씨의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던 셈이다.

1) 畿甸鄕土文化硏究會 編 『畿甸文化』 제4집, 1988.
2) 利川文化院 『雪峰文化』 창간호, 1989.

韓勝男씨는 과거 오랜 공직생활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꾸준하면서도 열성적으로 향토사를 공부하고 연구해 온 분이다. 필자는 그를 25년전 문화원의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고, 1984년 당시 『이천군지』의 원고집필과 편집 및 발간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 후 이천향토사연구회의 활동과 최근 『이천시지』 편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같은 길을 함께 걸어 온 친근한 사이다. 최근에 와서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분야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韓勝男씨의 꾸준한 노력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이다.

책을 일별해 보니 우선 저자의 각별한 노력의 흔적이 느껴진다. 지명의 현장을 하나 하나 찾아다니면서 땅의 생긴 모습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토박이 노인들을 비롯한 다수 주민들을 만나서 구전자료들을 수집한 발로 쓴 성과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겠다. 또한 읍지류들을 비롯한 이름이 알려진 관계문헌들 뿐만 아니라, 문중족보나 비문같은 다양한 고문서와 자료들을 섭렵하였고, 지금은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과거 읍지의 방리(坊里)들에 대한 위치를 고증한 내용들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저자의 남다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미흡하다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좀더 객관적인 고증이 필요한 내용들이 적잖

게 눈에 띈다. 지명연구는 단순히 역사나 지리뿐만 아니라, 민속·언어·방언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만큼 개인 한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지명을 연구하는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이 이천지방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서인 탓에,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배어있는 저자의 노작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땅이름에 대한 풀이들은, 일단은 검증된 바가 전혀 없는 하나의 가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저자가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책 속에 밝혀놓지 않은 탓에, 자칫 잘못하면 책을 읽는 일반독자들이 저자의 주장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일 염려가 다분히 있다. 객관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설이 정설로 굳어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잘못하면 '행주치마'의 예에서 보듯 본의 아닌 역사왜곡마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글은 韓勝男씨의 책을 읽으면서 필자가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글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명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 정설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제시와 고증이 뒷받침 돼야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검토도 필요하다. 상반되는 다른 가설이나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하며, 때로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할 필요도 있는 법이다.

저자의 가설들에 대한 필자의 반론들 역시 또 다른 하나의 가설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이와같은 비교 논쟁의 과정을 통해 이천지역의 지명연구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II. 地名硏究의 諸問題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지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사와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네 실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문헌에는 나와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숨겨져 있던 문화유산을 찾아낼 수도 있고, 조상들의 당시 생활모습이나 관습, 신앙 등을 살필 수도 있으며, 지역문화 속에 스며든 외래문화의 영향을 알아낼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는 지명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그때까지 알려진 적이 없었던 석불상과 도요지 같은 고장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찾아낸 경험이 있다.

지명 속에는 한 고장의 지리나 역사, 민속적인 특성들이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처음 생겨난 지명은 그대로 원상태를 유지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명의 생성동기와 변화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데 지명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 고장의 한 예를 들어보자. 백사면(栢沙面) 내촌리(內村里)의 우리말 명칭은 '소일'인데 지금 불리워지고 있는 소일만 가지고는 아무런 생성동기도 밝혀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소일'의 한자 지명은 '금곡(金谷)'이며 이 마을 서편에 있는 안동김씨 묘비명에도 '金谷里'[3]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金谷'의 원래 우리말은 '쇳골'인데 쇳골이 몇 단계의 음운변화를 거치면서 소일로 바뀌게 된다.

3) 趙斗淳 撰, 「領議政 金左根 墓碑銘」

쇳골→쇠골→쇠일→소일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모음동화나 자음탈락 같은 음운현상에 따라 지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지명이 갖는 원

래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지명의 생성동기 가운데 가장 흔한 예가 지리적인 특성이 지명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마을이름을 예로 들자면 앞말·뒷말·건너말·양달말·응달말과 같이 마을이 자리잡은 위치나 방향, 또는 가마골·모퉁이·벌말·장등말 등과 같이 지형적인 특징이 지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지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과거 우리 생활의 큰 영향을 끼쳤던 풍수지리설이 지명으로 반영된 경우도 적지않다.

다음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인해서 지명이 생겨나는 경우인데, 괸돌(고인돌)·핑구재(빙고)·사고리(창고)·향교말·불당골·미륵당·장승이 같은 지명들이 여기에 속한다. 옛날 장이 서던 곳은 장터, 주막이 있었으므로 주막거리하는 식이다. 갈미나 갈매울은 길이 갈리는 곳에 흔히 나타나는 지명이다. 갈미·갈매울과 함께 장터·원터·주막거리·파발막 등을 지도상으로 연결시켜 보면, 옛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옛 역로나 교통로를 알아낼 수도 있다.[4]

4) 李仁洙, 「利川地方 마을이름의 分析」『鄕土文化硏究』, 이천문화원, 1988, 61~62쪽

그 고장의 특징적인 민속이나 전설, 민담 등이 지명으로 남아 전해오기도 한다. 이천지방의 경우 효양산 금송아지 전설과 관련된 작별이·억만이·억억다리·구만리들 같은 지명들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그러나 '넋고개와 기치미고개'의 전설처럼, 원래 지명의 생성동기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지명유래가 생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다양한 생성동기를 갖고 탄생한 지명들이 세월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처음 불리워졌던 호칭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지명연구자들이 크게 고민하거나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촌리 '소일'의 예에서 보듯,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한 음운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지명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지명들은 한자 지명에 앞서서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 먼저 생겨났다. 그 후 필요에 따라 우리말 이름을 한자를 빌어 적다보니 한글과 한자의 언어 체계가 서로 다른데서 오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변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동네라서 '솔골' 또는 '솔울'이라 불리우던 이름을, 뜻을 취해 '송곡(松谷)'이라 적는데 이를 훈차(訓借)라고 한다. 노가지골-노가동(老柯洞)·시미골-시미동(侍美洞)·가재울-가좌동(加佐洞)처럼 비슷한 소리가 나는 한자음을 따다가 적는 경우를 음차(音借)라고 한다. 원래의 우리말 지명이 없어지고 한자 지명만 남아있을때, 뜻을 취해 적은 훈차지명일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우리말 호칭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음차지명이나 훈차와 음차가 뒤섞인 경우는 원래의 우리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순수한 우리말 지명이라도 그것이 어느 시기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일어난다. 지명의 생성연대가 아주 오래전인 삼국시대나 그 이전인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나 선사시대, 그중에서도 당시 이천지방의 언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제아무리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단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천의 고구려때의 명칭인 '남천(南川)'을 두고 늠내, 골물, 아리내 등으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지명을 연구하려면 지리학·역사학·민속학·고문학·언어학 같은 지명과 관련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서 비교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뜻에서 지명연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지명을 놓고 분야별로 얻어진 성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토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韓勝男씨의 경우처럼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지명연구는 결국 연구자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 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라는 뚜렷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韓勝男씨의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 이천 지방은 물론 우리나라의 지명연구가 그 만큼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지명연구의 물고를 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과 고증을 거쳐, 미흡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듬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또 다른 가설들

1. 양녕대군은 어디서 살았을까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이제(李禔)는 끝없은 기행과 풍류행각으로 인해 수 많은 일화들을 남긴 인물로 유명하다. 19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자유분방한 성품에서 오는 파격적인 언행들이 부왕인 태종의 눈밖에 나서, 결국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귀양길에 오르게 된다. 양녕은 1418년(세종 원년)부터 1436년(세종 18)까지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이천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세종실록』을 보면 이천에 살면서도 멈출 줄 몰랐던 양녕대군의 기행들이 잘 나타나 있다. 태종이 승하하여 20여 일이 지난 국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밭을 갈게 하면서 농부가를 부르도록 하여 즐겼는가 하면, 장례가 끝나자 마자 무리를 이끌고 사냥을 나서기도 했다. 1428년(세종 10)에는 관비 윤이(閏伊)와 정을 통한 사실이 드러나 윤이가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유교적인 윤리규범에 엄격했던 당시의 조정대신들이 그때마다 들고 일어나서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종은 매번 형제간의 지극한 정으로 양녕을 감싸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실록에는 '양녕을 이천에다 농사(農舍)를 새로 짓도록 해서 살게 했다' 고만 했을 뿐, 이천관내 어느 마을에 살게 했다는 기록은 찾

아 볼 수 없다. 상감마마의 친형이 시골로 내려와 이웃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시 이곳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며 적지 않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양녕대군과 관련된 지명들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추리가 가능해진다.

韓勝男씨는 양녕대군이 이천에서 18년간 귀양살이를 했던 곳을 대월면(大月面) 군량리(郡梁里)로 일단 가정해 놓고, 군량리와 근처의 지명들을 이 가설에 대입하여 풀이해 놓고 있다. 먼저 군량리의 우리말 지명인 '군들'에 대해서,

> 「군들」이란 세종대왕께서 양녕대군 즉, 군(君)에게 하사한 들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본다.[5]

5) 韓勝男, 『마마, 파헤친 땅 이름이요』, 도서출판 홍익기획, 2003, p. 478

라고 하였다. 세종대왕이 양녕에게 식읍으로 하사한 '군들'이 그 후 큰아버지인 익안대군의 후손에게로 넘어가서, 군량리가 전주 이씨들의 세거지가 된 것이라는 세거내력까지 밝혀놓고 있다. 또, 한자 지명인 '郡梁'은 원래가 양녕이 돌다리를 놓은데서 생겨난 '군들다리'의 차용어인데, 따라서 원래는 '君梁'이었던 것이 군(郡)에서 놓은 다리라는 뜻의 '郡梁'으로 와전된 것이라 주장하였다.[6] 그런데 양녕이 이곳에 돌다리를 놓았다는 가설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이름을 '군들다리'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6) 위의 책 p. 478

한승남씨는 군량리 근처의 여러 지명들도 양녕대군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 예계바위 → 女妓바위, 풍류를 좋아하는 양녕이 기생들을 불러 춤추고 노래하게 한 바위
- ○ 양샘 → 양녕대군이 마신 물, 즉 讓샘.
- ○ 마서방네 집터 → 양녕대군의 저택이 있었던 자리. 下馬碑를

세웠기 때문에 하마비가 마서방으로 와전되었을 것이라고 함.

○ 한양밭골 → 양녕이 한양에서 내려왔으므로 '한양댁밭'이라 부른데서 온 이름.

○ 진살미들 → 양녕이 농사를 지어 부왕인 태종과 세종에게 진상했던 들. 즉 '진상미들'

○ 송골 → 대군의 사냥을 돕던 졸개들이 송골매를 기르던 곳.

○ 서경들 → 양녕대군 저택에서 서쪽으로 있는 들판.

그밖에도 귀골·대골·행골·방죽골·갈매울·풀무혈·터골·소리울 등을 모두 양녕대군과 관련있는 지명으로 풀이하였다.

'군들'이 임금이 (양녕대)군에게 하사한 들에서 온 이름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주변 지명들에 대한 그럴듯한 풀이들과 함께, 언뜻 보기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가설이 진정한 설득력을 얻으려면 '군들'이란 지명이 다른 지역에는 없고 유독 대월면 군량리에만 있어줘야 한다. 문제는 '군들' '군량'이 모두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명이라는데 있다.

『한국지명총람』[7]에서 '군들'과 같은 계열의 지명들을 눈에 띄는대로 뽑아 간추려 보았다. 우선 이천시 관내에서만도 여섯 군데나 나타나고 있다.

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 인천·경기편, 보진재, 1986.

○ 군들(들)－백사면 모전리

○ 군투성이(들)－마장면 표교리

○ 군량(마을)－마장면 관리

○ 군들·군량(마을)－모가면 양평리

○ 군개(들)－설성면 상봉1리

위에서 예를 든 지명 중 군량리와 인접한 마을인 양평리 군들을, 옛날 같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고 제외한다고 해도 같은 계열의 지명이 네

군데나 더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군들·군량이 이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군들(들)-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 구누실/군위실(軍威室, 마을)-여주군 흥천면 다대리
○ 군량들(들)-용인시 수지면 죽전리
○ 군보(보)-용인시 외사면 근곡리
○ 군량골(마을)-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 군계(들)-평택시 소사동
○ 군량개(논)-포천군 소홀면 이곡리
○ 군들(들)-화성군 송산면 육일리
○ 군내들(들)-연천군 왕장면 강내리

대충 찾아보았는데도 이렇게 한 지역에서 최소한 한 두 개씩 비슷한 지명들을 볼 수 있다.

'군들'이 '(양녕대)군들'에서 온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예를 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설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꼭 양녕대군이 아니더라도 임금이 대군, 또는 군의 봉작을 내려준 종친들에게 지급한 식읍지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만일 저자의 주장처럼 원래는 '대군들'인데 양녕대군 때문에 군들이 된 것이라면 '대군들'이라 불리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무리 지명의 음운탈락 현상이 심하다고는 해도 저자의 주장처럼 '대'자가 떨어져 나가서 군들이 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군'과 '군'은 임금의 같은 형제일지라도 적자와 서출이라는 신분상의 커다란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천지방의 강만호들(신둔면)·서하담밭(백사면)·이시종지(부발읍)·이가들(율면)·아전들(호법면) 같은 지명들이 인물과 관련된 지

명들이다. 이렇게 강만호・이시종・서하담 등 지명의 생성동기를 이루는 주제인물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이가들'이 '가들'로 '아전들'이 '전들'로 바뀌지 않는 것이 지명이 갖는 보수성인 것이다.

'군들'은 대군들이 아니라, 군량전(軍糧田)이나 군둔전(軍屯田)이 있었던데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지명해석이라 하겠다. '군량(郡梁)'도 '군들다리'가 아니라 그냥 '군들'의 한자 차용어라고 봐야하며, '들'의 한자음이 '梁'으로 바뀌는 예는 서울 노량진(鷺梁津)의 옛 지명이 '노들나루'였던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백사면 내촌리 궁터말을 양녕대군이 거주했던 곳이라 밝혀 놓았다.[8] 양녕대군의 배소가 한글학회의 주장처럼 백사면 내촌리였는지 아니면, 군량리나 그밖에 다른 지역이었는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韓勝男씨의 주장처럼 양녕대군이 군량리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군들'이란 지명은 양녕과는 관련이 없는 지명이란 것이 필자의 새로운 가설이다.

8) 한글학회, 앞의 책, p. 221.

2. 남천의 유래에 대하여

『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 시대의 이천은 '南川' 또는 '남매(南買)'라고 불리웠다. 고구려가 이천을 지배한 시기는 서기 475년(장수왕63) 고구려의 남진으로 한성이 함락되는 시기부터, 백제가 다시 구토를 회복하는 서기 551년 까지 약 76년 간이다. 이때 고구려가 南川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는지, 과거부터 내려 온 백제의 지명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南川이라는 지명은 이천의 대표적인 하천인 복하천 때문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 韓勝男씨는 그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전략>고로 장수왕이 우리 이천의 이름을 하사할 때 南川이라 하였으니, 이는 南에서 北으로 흐르는 내를 가상히 여겼으리라

본다. 즉 물이 고구려를 향해서 조공을 바치러 오니, 조공만 바치던 장수왕으로서는 대단히 기뻤으리라 본다.[9]

9) 韓勝男, 앞의 책, p. 22.

우리나라에서는 남에서 북쪽을 향해 흐르는 냇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복하천이 마치 조공을 바치는 모습처럼 고구려를 향해 흐르는 것에 왕이 감동하여 '南川'이란 이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한강 수계를 볼 때, 서쪽이나 남쪽에서 한강을 향해서 흘러드는 냇물들은 거의가 북쪽을 향해 흘러든다고 볼 수 있다. 이천시 관내만 해도 복하천뿐만 아니라 양화천과 청미천이 모두 그렇다.

장수왕이 북을 향해 흐르는 복하천을 보고 기뻐했으리라는 추측도 단순한 저자의 상상력에서 나온 허구일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설사 장수왕이 그런 이유에서 이름을 내렸다 한다고 쳐도,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南川'이란 이름을 내렸는지도 전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南川'의 어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는데, 다만 '川'과 '買'는 같은 뜻으로 물(水)을 나타낸다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다. '南'에 대해서 신태현씨는 저서 『三國史記 地理志研究』에서, 南이 '늠(느르-늘-늣-는-늠)'의 음차어이며 느리다(緩)의 뜻으로 보았다.[10] 그래서 南川은 느린내라는 뜻의 '늠내'가 되며, 南買도 마찬가지라 하였다.

10) 利川文化院, 『利川郡 鄕土文化資料總覽』 제3집 -地名由來-, 1984, p. 59 참조

그러나 유창균 교수는 南을 남소(南蘇)·남부(南部)·남해(南海)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보면서, 당시 고구려어의 발음을 '골'로 추정하였다.[11] 川은 발음이 '물'로 南川·南買는 남쪽물이라는 뜻의 '골믈'이 된다. 한편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南은 '앞'으로 大·先·前 등의 뜻을 갖는다고 했다. 앞은 고대어에 있어서 발음이 '아리-아리(阿利)·엄리(奄利)'이므로 南川은 앞내라는 뜻의 '아리내'가 된다.

11) 兪昌均,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I』,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0, 282~293쪽

'南川'의 원래 고유발음이 늠내, 골믈, 아리내 중 어느 것이었는지, 그

도 아닌 다른 발음이 있었는지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南川'을 지금 한자의 뜻만 보고 성급하고 어설픈 해석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3. 이천땅으로 시집 온 사투리

삼국시대 초기부터 백제의 땅이었던 이천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쫓겨가면서부터 76년간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앞장에서 설명하였다. 그 후 신라와 연합한 백제가 구토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백제의 영지가 되지만, 불과 2년이 지난 뒤에는 신라가 다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이 땅에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여 신라의 영지가 된다. 이렇게 삼국시대 후반 신라·고구려·백제의 치열한 패권각축장이 되었던 땅이었으므로, 이천지역에는 삼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뒤섞여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구려가 한때나마 이천지역을 지배한 사실은 『三國史記』를 비롯한 옛문헌이나 충주에 있는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의 존재와 비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12] 그런데 지금까지 이천지역에서 진행된 유적발굴이나 학술조사의 결과는 뚜렷한 고구려 문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고구려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던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에서도 백제와 신라계통의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지만, 고구려의 유물만은 현재까지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12) 이천시지편찬위원회, 『利川市誌』 I -자연과 역사-, 2002, p. 123.

이천의 지명들 가운데도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신라와 고구려 계통의 지명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韓勝男씨는 그래서 생성동기가 잘 풀리지 않는 몇개의 지명풀이를 위해, 평안도나 경상도 방언까지도 동원하여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신라와 백제가 요즈음과 같은 지방사투리를 썼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김유신과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를 그린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김유신 장군이 투박한 경상도 말로, 계백이 전라도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고 전투를 지휘한다는 재미있는 발상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삼국시대의 양쪽 지방언어가 그 시점에도 지금과 흡사한 모습이었을지는 단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타지방의 사투리를 지명풀이로 차용한 예로써, 먼저 호법면(戶法面) 주박리(珠珀里)에 대한 저자의 가설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주박리의 우리말 지명은 '주바구니' 인데 저자는 고심끝에 주바구니 네 음절 가운데 '바구' 가 '바위' 의 전라도 지방 사투리라는 데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전략> 바구란 전라도 경상도에서 바위를 일컫음을 알 수 있었다. 주바구니를 셋으로 나누면 주+바구+니이다. 바구는 바위를 뜻함을 알았고, 니는 마을 리(里)를 말한다. 그러면 주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13]

13) 한승남, 앞의 책, p. 124.

이렇게 '주'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애써 고민하다가 마을 주변에서 성혈이 뚜렷한 고인돌을 찾아내게 되었고, 고인돌의 존재에서 착안하여 '주' 의 의미가 '주검-죽음' 에서 뒷말이 음운탈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주바구니' 가 결국 주검바위리 → 주검바구니 → 주바구니로 음운변화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번에는 백사면(栢沙面) 현방리(玄方里) '검바위' 편에서[14] 검바위 역시 고인돌을 뜻하는 '주검바위' 에서 '주' 자가 떨어져나간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지역의 지명에서 똑같은 의미의 언어인데 어느 쪽은 앞의 음절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쪽은 뒤 음절이 떨어져나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최범훈 교수도 지적했듯 지명에는 강한 보수성이 있는 탓에 아무런 원칙도 없이 기분내키는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14) 韓勝男, 앞의 책, p. 199~201

'검' 이 왕검이나 임검의 예에서 보듯, 신령스러움이나 귀신을 뜻하는

우리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 의한 거석 숭배의 대상으로 신앙물이 되기도 하였다.[15] 따라서 '검바위'는 주검바위의 음운탈락이 아닌, 글자 그대로 신성한 바위란 뜻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다. '주바구니'도 주검바위리가 아니라, 노인회장이 들려주었다는 '쥐바구니'나 한자어인 '주박리(珠珀里)'의 음운변화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는 해석일 것 같다.

15) 세종대학교박물관 · 이천시, 『이천지역 고인돌연구』, 2000, p. 67.

다음은 이천시 관고동과 마장면 목리 사이, 설봉산에 있는 '화두재 고개'에 대한 풀이를 보자. 저자는 화두재를 목리쪽 주민들이 '화디재'라 부르는데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 국어사전에 보면 '화디 → 등잔(燈盞-평안)'이라 하였으니 이는 평안도 지방에서는 등잔을 화디라 부른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 이천에서도 평안도 말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역사적으로 약 76년간 고구려 영토였음을 감안하면 이해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16]

16) 韓勝男, 앞의 책, p. 166.

그리고 '조선시대에 성종 · 중종이 영능행차를 할 때 이 고개를 넘었으니, 임금을 비롯한 통행인들에게 불을 밝혀주는 '火등잔'을 고개마루턱에 설치하였음에서 생겨난 지명'이라는 것이다.

화두재는 큰 산이 없는 이천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높고 험한 고개였지만,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해도 장암리나 목리쪽 주민들이 읍내 나들이를 위한 지름길로 주로 이 고개를 이용했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길목이었다고 해도, 존귀한 임금의 행차까지 사잇길인 화두재를 넘었다고 보는것은 아무래도 논리의 비약이 지나친 느낌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영능참배길에 이천에서 머문 기록이 나타나는 역대 제왕은 성종 · 중종 · 숙종 · 영조 · 정조 등 다섯명이다. 어

가가 화두재를 넘으려면 용인쪽에서 이천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기록상 여기에 부합되는 인물은 성종과 중종이다. 숙종 때부터는 광주쪽에서 경안역을 거쳐 이천행궁에서 하루밤을 유숙한 후 여주로 향했기 때문에 화두재 고개를 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성종실록』을 보면 '대가가 출발하여 용인 합천(蛤川)가에 주정하고, 저녁에는 이천 오천(吾川)역 앞뜰 파오달(波吾達)에 머물렀다' 고 나온다. 또 이튿날은 복하천 가에서 주정하고 저녁에는 여주 강가 파오달에 머물렀으므로, 대략 어가가 하루에 50~60리 길을 이동한 셈이 된다.

중종의 환궁길 역시 똑같이 복하천가에서 주정하고 오천역 앞뜰 파오달에 머문 것으로 되어있고 어가가 읍내까지 진출하여 관아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오천에서 복하천을 왕복하려면 굳이 애써 가면서 험한 화두재고개를 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설봉산을 우회해서 표교리-유산리를 지나는 요즈음 도로와 비슷한 역로가 오히려 평탄한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의 능행차 길이라면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했을 것이 당연하다. 존귀하신 임금의 행차가 화등잔이 필요한 한밤중에 험준한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다면 또 모르지만 말이다. 설사 일반 백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목이었다고 해도, 백성들을 위해 누군가가 험한 고개마루까지 올라가서 등잔불을 밝혀 놓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화두재' 는 화톳불에서 어원을 찾는 정도로도 해석이 무난하리라고 본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 다른 지방의 방언들이 이곳으로 건너와서 지명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절차가 없이 단순하게 발음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분디기(分竹-설성면 행죽리)가 번데기의 경상도 방언에서 온 지명으로, 매지기(梅芑-호법면 매곡리)가 망아지의 평안도 방언인 '매지' 에서 나온 지명으로, 소고지(모가면 소고리)가 소쿠

리의 함경도 방언인 '소고지'에서 온 엉뚱한 지명으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의 방언들이 이천지방에 와서 지명으로 정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처에서 같은 지방의 방언들로 이루어진 다른 지명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을 얻는다.

4. 미나리와 武羅里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

우리나라의 지명들은 순수한 우리말 지명이 먼저 생겨난 후, 이를 문자로 기록하려다 보니 한자지명이 생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앞장에서 다루었던 이천의 옛 지명인 '南川'의 예에서 보듯, 『삼국사기』이래 각종 문헌에 기록된 지명들이 대부분 원래의 우리말 지명이 사라진 채 한자명으로만 남아있다는데 지명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말과 한자 지명이 함께 남아있는 경우에도 우리말 지명이 한자지명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자 지명이 먼저 생기고 나서, 비슷한 한자어 발음에 따른 우리말 지명이 생겨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과 한자 지명이 나란히 공존하는 경우에는 어느쪽이 먼저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승남씨의 지명풀이 중에서 우리말 지명을 한자어에 대입하여 지명의 생성동기를 밝힌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 ○ 미나리(신둔 수광리) → 무라리(武羅里)에서 유래, 무사들이 진을 쳤던 곳.
- ○ 아리(이천 송정동) → 아리(衙離), 즉 관아를 벗어난 동네라는 뜻.
- ○ 방고개(이천 율현동) → 관아에서 榜을 써서 붙였던 고개.

○ 방가골(장호원 방추리) → 방가곡(榜架谷), 관에서 방을 붙였던 게시판이 있었던 곳이라고 봄.
○ 어롱골(모가 어농리) → 어릉동(御陵洞), 고려왕이 고달사 행차 때 머물렀던 마을.
○ 응계보(호법 유산리) → 은계보(銀契洑)에서 유래.
○ 호박골(호법 후안리) → 白玉인 호박이 출토된 데서 유래.
○ 두무재(부발 고백리) → 杜舞재, 중국의 술사 두사충(杜師忠)이 기뻐서 춤을 춘 곳.
○ 대장골(이천 관고동) → 대장곡(大將谷), 대장(군) 김유신이 주둔했던 곳.
○ 신뱅이(이천 관고동) → 과거급제자의 명단을 적은 신방(新榜)를 써 붙이던 곳.
○ 가재울(부발 가좌리) → 품계가 加資되어 가자제(加資祭)를 올렸던 곳.
○ 장생이(마장 장암리) →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수명과 왕성(旺盛)받기를 기원한 '장수왕이'에서 음운변화한 것.
○ 뱅골(대월 사동리) → 白羊골의 준말로 백양을 길렀던 마을.
○ 무지기(마장 관리) → 무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여 '무직(武職)'이라 한데서 유래.
○ 징일(이천 중일동) → 성균관 직강(直講) 벼슬을 지낸 선비가 은일한 동네.
○ 도니피(백사 도립리) → 도립피(道立陂)에서 유래.
○ 왜골(瓦洞-장호원 와현리) → 고려말 공양왕 때 왜구들이 이곳에서 노략질을 한데서 유래, 즉 왜(倭)골.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대충 나열해 보았는데도 한자의 음과 뜻을 차용한 저자의 지명풀이에는 상상력이 지나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않다.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한 한자어에만 지

나치게 의존하려다 보니 설득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미나리'가 무사가 진을 친 곳이라는 뜻의 '武羅里'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미나리의 음을 취해 武羅里로 적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신둔면에는 특히 옛날 군사들의 주둔사실과 관련있는 지명들이 적지 않다. 둔지미(고척리)·둔터(수남리)·둔터고개(수남리)가 그렇고, 신둔면의 옛 명칭인 '둔지산(屯知山)'도 같은 계열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도 무사들의 주둔과 관련지어 '武羅'라는 한자지명이 생겼다는 가설에는 한자차용에 따른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나리'는 내(川), 또는 나루의 옛말이므로 미나리는 '밑나리'의 음운변화이거나, 이천읍 쪽에서 볼 때 아리 밑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의 '밑아리'가 미나리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무난한 해석일 것 같다.

밤고개(율현리)에 대해서는 '밤고개'가 일반적으로 '방고개'로 불리우고 있다는 전제 아래,

> 우리말에 밤나무 과일을 뜻하는 밤을 방이라 부르는 말을 발견할 수 없다.[17]

17) 한승남, 앞의 책, p. 42.

라고 했다. 그래서 옛날 관아에서 이 고개에다 방(榜)을 붙였기 때문에 '방고개'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자의 주장처럼 독립된 단음절일 경우에는 밤이 방으로 발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남콩이 강낭콩으로 음운변화한 예에서 뚜렷이 증명할 수 있듯, 'ㅁ'과 'ㅇ'은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율현리의 우리말 호칭에 대해서는 밤고개와 방고개가 함께 뒤섞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밤골이나 밤고개는 이천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지명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지명중에 하나이므로, 일부러 복잡하게 비슷한 한자까지 빌어다가 해석할 것 없이 글자 그대로

'밤나무 고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마찬가지로 뱅골(사동리)은 '뱀골'이 변화한 지명으로, 신뱅이(관고동)는 '새로 논을 풀은 곳'이란 뜻의 '신뱀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어롱골(어농리)의 경우, 고달사 방문길에 나선 고려왕이 어가가 이 마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려시대에 개성에서 여주방면으로 통하는 중요한 역로가 이 지역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당시 고달사를 찾았던 고려왕들의 행차가 손쉬운 한강수로나 더 빠른 다른 통행로들을 버려둔 채, 모가면 지역까지 우회해서 갔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같은 보석이라도 백옥(白玉)과 호박(琥珀)은 빛깔이나 성분부터가 엄연히 다른 종류인데, 백옥이 나온 곳에 호박골(후안리)이라는 지명이 붙게되었다는 것도 이치에 어긋나고, 무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마을이기 때문에 무지기(관리)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성균관 직강(直講)을 지낸 분이 은일한 동네이기 때문에 직일 → 징일로 변했다는 징일(증일동)에 대한 가설이나,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고려초기 마애불상까지 연관지어 '고려 때 장수왕의 수명과 왕성받기를 마애불에 발원한' 데서 장수왕이 → 장생이로 음운변화한 것이라는 지명풀이에 이르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쳐서 요즈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넌센스 퀴즈풀이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증일동에 이노(李艣)라는 선비가 은일한 사실은 저자가 『이천시지』[18]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저자는 그가 성균관 직강 뿐만 아니라 청주목사까지 지냈다고 했다. 정삼품 당상관 벼슬인 목사직은 정오품 직강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가문의 영예인데, 지체낮은 직강벼슬이 더 높은 벼슬이름을 제쳐놓고 마을 이름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밖에도 저자는 아리 · 방가골 · 응계보 · 두무재 · 대장골 · 가재울 · 도니피 · 도니실 등을 모두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정인물과 연관된

18) 『이천시지』II-인물과 문화유산-, 2002, p.73.

한자지명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한자지명풀이들이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금까지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더욱 충실한 고증작업을 통해 신빙성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지명연구

전 장에서 다룬 내용과는 반대로 현재 남아있는 한자지명을 두고 우리말에서 어원을 찾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노음죽(奴音竹)에 대한 풀이가 있다. '노음죽'은 1914년 이천군에 합병되기 전까지 장호원지역에 있었던 음죽현(音竹縣)에 대한 고구려 때의 이름이다.

한자어인 '奴音竹'이 어떤 의미일까를 두고 고심하던 저자는 이를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서 '노(항상) 대나무 소리가 난다'고 해석했다. 노 대나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죽창과 화살이 난무하는 전쟁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음죽'을 '음죽 음죽'하다는 의태어로 해석하여 늘 불안하게 움직이는 좌불안석 같은 고을아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19]

19) 韓勝男, 앞의 책, p. 41.

노상 음죽 음죽한 불안한 고을이어서 '노음죽'이라 했다는 저자의 해석은 매우 기발하고 재미있는 착상이기는 하지만, 한자 발음에 비슷한 우리말을 무리하게 대입시키려다 보니 역시 넌센스 퀴즈풀이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奴音竹'은 삼국시대 고대언어의 한자 차용어이므로 특히 고대언어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탓에 섣부른 해석은 금물이다.

그밖에도 한자지명을 우리말로 해석한 몇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 횻대백이(孝竹-설성 대죽리) → 선사시대의 소도가 있었던 곳. 솟대박이 → 쇳대박이 → 횻대백이로 변음되었음.

○ 후미촌(厚美村-호법 후안리) → 후미진 물, 즉 오목한 물(우물)에서 유래.

○ 행심이(行尋村-설성 행죽리) → 큰 샘이 있었던 동네. 한새암 → 한샘 → 행심이로 추정

○ 목동(木洞-마장 표교리) → 중요한 길목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에서 목동이라 했다가 木洞이란 한자 차용어로 표기.

○ 덕들(德坪-마장 덕평리) → 높은 언덕이 있는 德山밑에 들이라는 의미.

○ 유춘역(留春驛) → 옛 음죽현에 있었던 역이름. 공문서를 전달하는 관리들이 말을 바꿔타려고 멈추어서 멈춤역이라 했던 것이 유춘역으로 바뀜.

횟대백이가 선사시대의 솟대신앙이나 유적과 관련있는 지명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우선 쇳대가 횟대로 음운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은 음운법칙에도 없는 돌연변이라는 말이다.

혁대 → 석대
혓바닥 → 셋바닥
형님 → 성님

위의 예에서 드러나듯, 'ㅎ'이 'ㅅ'으로 바뀌는 음운현상은 이천지방의 방언에도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거꾸로 'ㅅ'이 'ㅎ'으로 바뀌는 음운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횟대백이의 한자지명은 '孝竹'인데 횟대의 '대'를 훈차하여 '竹'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奴音竹 · 陰竹을 포함하여 우리고장에서는 '竹'자가 들어간 지명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行竹里 · 大竹里 · 本竹里 · 分竹(분디기)이 모두 옛 음죽현 지역이며, 안성시의 竹山 · 一竹 · 竹林里 역시 노성산을 중심으로 가까운 인접지역이다. 한자 차용어인 '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들 지역을 상호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후미촌(후안리)의 경우, '미'는 뫼에서 온 말로 남쪽지방에서는 '물(水)'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다. 후미촌은 '후미진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후미진 마을'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좋겠다.

유춘역(留春驛)을 '멈춤역'으로 풀이한 내용도 머문다는 뜻의 '留'라는 한자어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되어버렸다. 옛날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중요한 길목마다 자리잡고 있었던 수많은 역들이 하나같이 공무로 오가는 관리들이 일단 멈추어 갔던 곳이다. 저자의 가설대로라면 전국 모든 역의 이름들이 똑같이 '멈춤역'이 돼야 한다.

멀고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과 그 주변에는 온갖 땅이름들이 생겨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끝없이 모습이 변해 왔다. 중간에 아주 없어지거나 새로운 이름들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처음과 전혀 의미가 다른 엉뚱한 모습으로 뒤바뀐 경우도 적지 않다. 지명의 생성동기가 다양하고 변화과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지명연구는 수학방정식을 풀어내듯 똑 떨어진 해답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어둠 속에서 작은 실마리라도 우선 찾고 보는 일이 지명연구의 현주소인 것이다.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장님이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고 하고, 몸통을 만져본 장님이 담벽같다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이 기둥같다 했다고 해서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여러 장님들이 모여서 각각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하다 보면,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이 그려질수도 있는 법이다. 지명을 혼자서 연구하다 보면 자칫 코끼리 앞에 선 장님이 되기 쉬우므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Ⅳ. 맺는 말

원고의 성격상 저자의 지명풀이에 대한 주로 반론의 글을 쓸 수밖에 없고 보니 『마마, 파헤친 땅이름이요』가 잘못된 지명 해석만으로 가득 찬 책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들 중에는 전문가들도 귀담아 들을만한 탁월한 견해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펑구재(창전동)'를 옛날 빙고(氷庫)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으로 풀이한 것, '통미'를 톡 불거진 산, '오산'을 오똑 솟은 산으로 해석한 것 등은 저자의 탁견으로 여겨진다. 도드람산의 어원이 산돼지가 운 산이라해서 돗울음산에서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저자는 돗울음이 아닌 도들바위산 → 도들암산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설(雪)'을 서라벌 → 새벌 → 새울 → 서울의 예에서 처럼 '새(新)'의 음차어로 풀이하여 '설봉산(雪峰山)'을 새+烽山, 장호원읍 선읍리에 있는 '설성산(雪城山)'을 새+城山으로 해석한 부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雪城山(새성산)에 대비해서 노성산(老星山)을 늙은(老)+城山으로 풀이한 것은 보다 설득력 있는 고증이 필요한 경우라 하겠다. 저자는 그 증거로써 노성산에 오래된 토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곳에 토성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글머리에서도 언급했듯 근래에 와서 각 지역마다 향토사연구가 상당히 활기를 띠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사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지명에 대하 연구만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지명연구에는 역사 · 지리 · 민속 · 고문학 · 언어학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연구과제로 삼기가 어려운 탓이라고 생각된다. 韓勝男씨의 연구서는 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우리고장의 지명연구를 한 단계 발전

시킨 주목할만한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지명연구가 아직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탓에, 이천지역 여러 지명들에 대한 첫 번째 가설들을 저자가 제시했다는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저자의 가설들에 대한 필자의 반론은 새로운 두 번째 가설들이 되는 셈이다. 앞으로도 다른 여러 지명연구자들에 의해 해석과 접근방식이 다른 다양한 가설들이 계속해서 나와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한 지명을 두고 나타난 여러 가설들에 대한 비교 검토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천지역의 지명연구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천문화 · 창간호, 2003, 송라문화연구원>

여 백



제2장
사라진 문화유산들

여 백

日帝의 문화재 수탈과 利川지역

-鄕校 앞 五層石塔의 移轉경위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일본 오사카시 나카노시마(中之島)에 있는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東洋陶磁美術館)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 일본 등 동양 3국의 도자기 유물들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일제시대 때 아다카 에이치(安宅英一)라는 인물이 조선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수많은 도자 예술품들을 수집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를 '아다카 Collection'이라 부르는데 전후 아다카의 회사가 도산하면서 그의 수집품 전체가 오사카시로 기증되어 동양도자미술관이 나카노시마 공원 안에 세워지게 됐다.

동양도자미술관에는 중국과 일본의 고대 및 근대 도자기들도 있지만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조선백자 같은 한국의 도자기들이 월등하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이나 유명 미술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빼어난 국보급 명품들이 수두룩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36년 간 일본이 수탈해 간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인 것이다.

일본의 이름난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한국의 문화재들을 만나게 되는 일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언젠가 나고야에서 멀지 않은 다지미(多治見)라는 도자기 마을을 찾아갔다가, 저명한 도예가의 집 정원에 놓여진 한국의 옛날 석등과 문인석들을 보고 놀란 일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용인시에 있는 세중옛돌박물관이 지난 2001년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석조문화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1]를 펴냈다. 그런데 조사대상은 이 박물관의 성격상 주로 묘제(墓制)와 관련된 석조유물이었고, 조사내용도 280점의 석물들을 한꺼번에 소장한 개인 소장품 조사가 중심이었다. 여기에 교토와 도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었는데, 4~5일간 단기조사를 통해 두 지역에서만 170여 점의 석조유물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일본 전역에 흩어져 남아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1) 世中옛돌博物館『在日本流出文化財 實態調査報告書』 2001.6

1910년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일본인들은 조선의 산업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들을 망라한 각종 조사사업에 착수했다. 조사의 목적이 식민지 통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수많은 조사사업 중에는 민속과 문화재 조사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黑板勝美 · 鳥居龍藏 · 今西 龍 같은 당시 일본의 저명한 어용학자들과 전문가 그룹이 다수 동원되었다.

본고는 191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천지역의 고적조사단 활동 내용과 함께 이때 조사된 이천군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천읍내 향교 앞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오층석탑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일본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조선의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목적에서, 철저한 문화재 수탈과 파괴 행위가 전국 도처에서 자행

된 사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II. 이마니시 류(今西 龍)의 고적 조사 활동

1917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마니시 류(今西 龍)가 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보고서[2]를 보면, 이마니시는 고적조사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1916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에 걸쳐 경기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에 대한 유물 유적 조사활동을 벌렸다. 3차로 나누어 실시된 당시 일정과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았다.

2) 朝鮮總督府『朝鮮古蹟調査報告書-大正五年度』利川郡편 97~102쪽

- 1차 조사 (9월 2일~9월 13일) - 광주군 · 이천군 · 여주군
- 2차 조사 (9월 18일~9월 20일)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3차 조사 (10월 4일~10월 30일) - 개성군 · 장단군 · 강화군 · 평산군

위에서 보듯 이천군 지역에 대한 조사는 맨 처음 1차 조사 때 광주군에 이어서 이루어졌다.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여주군을 두 차례 방문한 것은, 그만큼 조사해야 할 대상물들이 많았거나, 1차 조사 때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 조사한 것이라 여겨진다. 3차 조사 때는 총독부 기수(技手) 1명을 대동하기도 했는데, 그의 임무는 유물 유적에 대한 실측도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두 달간 현지조사를 마친 이마니시는 이듬해인 1917년 9월,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장 앞으로 제출한다.

- 大正五年度 遺蹟遺物調査報告書 2冊.
- 高麗陵墓調査報告書 2冊.

- 寫眞 162葉.
- 關谷長之助 實測作成 實測圖 44面.
- 高麗陵所在 地表示記入 5만분의 1도 3枚.

보고서는 각 군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분해서 다루었고, 조사 순서에 따라 이천군은 광주군에 이어 두 번째 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천군의 첫 번째 항목은 '槪記及 郡驛名稱の 調査'라고 하여 개설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루었다.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등의 기록을 인용하여 군의 연혁과 방리, 지명유래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내용으로는 利川의 옛 지명인 '南川'에 대해서 崔世珍의 『訓蒙字會』까지 인용해 가면서 상세하게 어원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마니시는 조선과 계통이 같은 북방민족들의 고대어에서 南·大·先·前 등의 한자어가 현대어의 '앞'과 같은 의미를 갖는 말로 '아리-阿利·奄利'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옛 지명인 '南川'이 고구려어인 '阿利買'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원에 관한 이마니시의 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다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가 고금에 걸친 조선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마니시는 어떤 인물인가. 교토제국대학 강사였던 그는 이 대학 미우라(三浦周行) 교수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왔다. 일제는 한일합방 직후부터 '조선에 가장 적합한 신정(神政)을 베풀기 위하여[3]' 총독부 산하에 취조국을 설치하고 조선의 옛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15년 취조국의 업무가 중추원(中樞院)으로 이관되고 조선사편수회가 발족되면서, 이마니시와 黑板勝美·三浦周行 3인이 조선사편수업무를 총괄하는 지도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1921년 「조선고사의 연구」라는 논문으로 모교인 교토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던 그는, 1932년 갑자기 사망하기까지 조선사편찬위

3)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徐熙乾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 1986, 고려원, 151쪽에서 재인용

원회 · 고적조사위원회 등의 촉탁 및 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이마니시에게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일본 학자라는 평가와 함께, 일제의 식민지 통치이념에 충실했던 어용학자로서 역사왜곡의 주범이라는 혐의가 뒤따르고 있다.

Ⅲ. 利川郡의 文化財

이마니시의 보고서는 두 번째 항목부터 당시 이천군 관내의 유물 · 유적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짧은 조사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비교적 충실한 편이어서 1910년대 초반 관내 유물 · 유적현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또 이들 유물 중에는 향교 앞 오층 석탑을 비롯해서 일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유물들도 있다.

1. 무학산성(舞鶴山城)

무학산(舞鶴山)은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을 말하는데 무학산성이 읍 서쪽으로 반리(半里-조선의 5里)에 있다고 했으니 지금의 설봉산성(雪峰山城)이다. 당시 설봉산의 별칭이 '무학산'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42년 총독부 조사[4]에서는 '무안산성(武安山城)'으로 표기하여 같은 산성에 대한 몇가지 다른 명칭이 보이고 있다.

4) 朝鮮總督府『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利川郡 - 1942, 18쪽

이마니시는『동국여지승람』『이천읍지』『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차례로 소개하고, 여지승람에 '雪峰山古城'이라 하고 읍지에는 '倭城'이라 했으며, 증보문헌비고에는 '왜성'과 '설봉산성'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왜성과 설봉산성은 별개의 성이 아

니라 같은 설봉산성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마니시의 이 주장은 최근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일치하고 있다.[5]

5) 단국대학교 박물관 · 이천시 『이천 설봉산성 지표 조사 보고서』 1998, 34쪽

이마니시는 설봉산성과 정상 부근에 있는 또 하나의 성지를 제1성지와 제2성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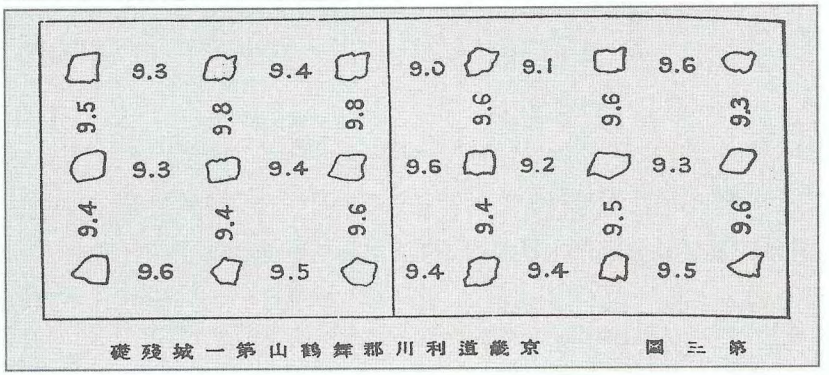
① 제 1 성지

제1성지는 무학산의 최고봉 391미터에서 동북으로 직경 78정 떨어진 별봉(別峰) 위에 있고, 주봉과 왜성은 높이에 큰 차이 없이 소위 말 등형으로 연결되며 작은 길 하나가 겨우 정상을 통할 뿐이라 했으니, 지금과 같은 등산로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이전 상황과 비슷하다. 이마니시는 또 설봉산성이 북한산성 · 남한산성 · 이성산성과 완전히 형식을 달리하며, 함경도 방면에서 마고성(麻姑城)이라 칭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보았다. 이마니시의 이런 주장과 산성의 대적 방향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후일 설봉산성을 고구려성으로 보는 견해를 낳기도 했으나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백제와 신라계통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반면, 고구려와는 뚜렷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설봉산성의 원경, 성문지와 성벽 등을 찍은 사진 4매와 함께 성내 건물지에 대한 실측도면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실측도면을 보면 6개의 주초석이 3열로 나란히 배치되어, 모두 18개의 주초석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놓여져 있다. 이를 1998년 단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의 조사결과[6]와 비교해 보면 서남쪽 모서리에 있었던 2개의 주초석이 없어진 것만 다를 뿐 서로 일치하고 있다. 산성 정상부에 이어진 평탄대지에 있는 이 건물지는 정면 5간, 측면 2간 규모의 장대(將臺)가 자리 잡았던 장대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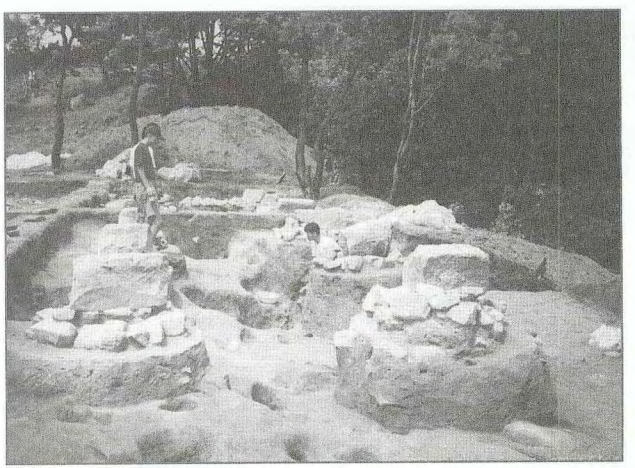
6) 단국대중앙박물관 · 이천시 『이천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9, 178쪽

〈도 1〉 설봉산성 건물지 주초석 실측도면 (1916년)



② 제 2 성지

제2성지는 설봉산 주봉에서 서북 약 3정에 있는 일봉의 정상부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 존재를 몰랐다가 우연히 제1산성 내로부터 알아냈다고 했다. 규모가 굉장히 작으면서 봉우리 정상을 성벽으로 포위하고 있어 작은 형초봉수대(形稍烽燧臺)를 닮았으며, 제1성과 서로 대립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진 1〉 설봉산성 건물지 발굴 장면 (1999년)

이마니시의 조사기록은 설봉산성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조사기록인 셈이다. 그런데 그가 기술한 내용이 최근의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설봉산성을 삼국시대에 신라와 고구려가 수축을 주도했을 것으로 본 것은, 발굴조사 결과 그 이전에 백제가 초축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왜성(倭城)이란 명칭에 대해서, 내지인(內地人)들 가운데 가등청정(加藤淸

正)이 이 성을 축조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들이 청정의 축성 운운하는 것은 필시 읍지에서 왜성이라고 한데서 나온 말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한 내용도 눈에 띈다. 왜성이란 호칭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성이라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재 2차 발굴조사까지 진행된 설봉산성에서는 함통6년(咸通六年)명 벼루를 비롯한 삼국시대 후기와 통일신라시대의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2000년 9월 사적 제423호로 지정되었다.

2. 영월암 및 유물

① 석불후배(石佛後背)

영월암 대웅전 앞뜰에 세워져 있는 현재의 영월암 석조광배(暎月庵石造光背)를 말한다. 화강암을 연판형(蓮瓣形)으로 다듬어서 만들어졌는데, 높이 6척, 폭 3척6촌5푼으로 사내(寺內)에 있는 우물곁에 쓰러져 있다고 했다. 연화보상화(蓮華寶相華)의 양각 무늬가 우수하며,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그 보존에 주의를 요한다고 기록하였다.

영월암 석조광배는 이마니시도 지적한 것처럼 조각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관내에서는 보기 드문 불교미술의 걸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광배와 짝을 이루었던 불상이 남아 있었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 일이지만, 이마니시의 조사기록에도 불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이전에 이미 없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2〉 영월암 석조광배(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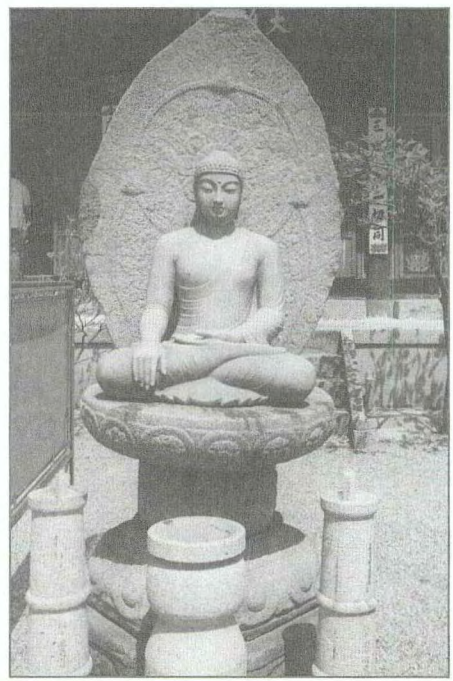
② 석조(石曹)

화강암 1석을 다듬어 만든 장방형으로 현재도 남아있다. 크기는 장외측 9척2촌, 내측 7척8촌, 횡외측 4척1촌, 내측 2척7

촌5푼, 높이 약 3척, 깊이 1척1촌이라 했다.

③ 석탑잔석(石塔殘石)

대석(臺石) 1, 주석(柱石) 1, 옥부(屋部) 2, 오륜부(五輪部) 잔편 1개가 남아 있는데, 대석은 장방형으로 1변 길이가 약 4척, 주석은 팔각형으로 각 면에 불상을 양각했다. 이마니시는 전기 제석(諸石)들이 동일탑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현재의 영월암 삼층석탑이 바로 당시 남아있던 석재들을 연결하고 없어진 부분들을 새로 다듬어서 세워놓은 것으로 동일탑의 잔존유물임이 확인되었다.



〈사진3〉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좌대의 현재 모습 (중앙석불좌상은 최근에 새로 제작한 것임)

④ 기타 잡물(雜物)

전기 석물들 외에도 석등롱(石燈籠)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3개의 석물이 있는데 연판을 새긴 조각 솜씨가 뛰어나다고 했다. 지금 영월암 대웅전 앞에 석조광배와 함께 복원된 연화좌대(蓮華座臺)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이마니시가 무너진 채 방치된 연화좌대를 보고 석등의 일부로 오인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영월암의 대표적인 유물인 영월암 마애보살입상(暎月庵磨崖菩薩立像, 보물 제822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절 뒤에 있는 암석에 마애불이 있는데, 얼굴 부분은 명백하지만 기타 부분은 마멸로 알아보기 어려우며 졸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영월암 유물들에 대한 이마니시의 기록은 필자가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영월암의 상황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마니시의 현지조사 이후 40~50년이 지났는데도 석탑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대웅전 뜰앞에 비슷한 상태로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폐사지도 아

닌 영월암 유물들에 대한 관리가 왜 이처럼 허술했을까, 주목되는 기록이 이마니시가 영월암을 소개한 첫 번째 부분에 보인다. 이마니시는 영월암이 근년에 폭도들의 봉기로 인한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했다.

폭도들의 봉기란 한일합방 직전인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구한국군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의병봉기를 말한다. 이때 이천군에서도 의병활동이 매우 격렬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마을마다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1907년 8월경 이천군 읍내면 · 신둔면 · 부발면 · 마장면 등 열 두 동리가 일본군들에 의해 불태워졌는데, 영월암 16칸도 이때 소실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7]

7) 신배섭 · 이인수 · 임혜봉 『利川獨立運動史』 1996, 이천문화원, 212~219쪽

당시 일본군은 의병활동과 관련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의병들의 이동경로가 되었던 영월암 역시 의병들에게 음식과 숙소 제공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파괴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영월암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 것도 방화 당시 일본군들의 소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안흥사지(安興寺址)와 유물

①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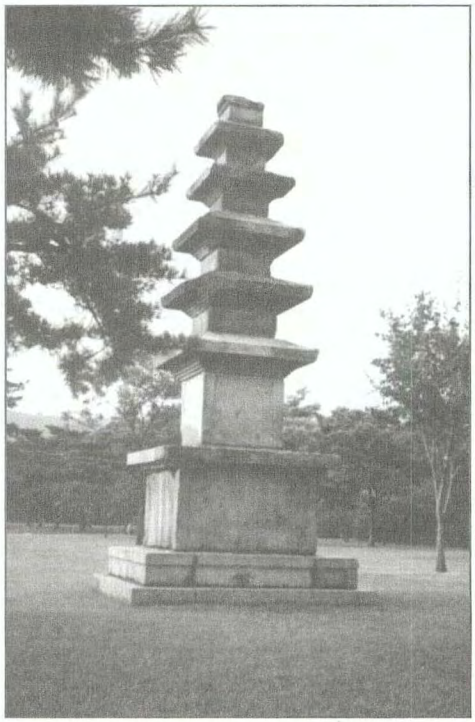
안흥사는 현재의 이천중학교와 안흥동 일대에 있었던 사찰인데 남아있는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사찰이었던 것 같다.[8] 당간지주석은 사지 언덕 앞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상부가 결손되어 있다고 했다. 필자가 중학생이던 시절에도 이천중학교 정문 왼쪽으로 마을 입구 양쪽에 서있는 이 당간지주석을 볼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사라져서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

8) 안흥사지 지표조사와 유물에 관한 내용은 최몽룡 · 장철수 · 신숙정 · 김태식 『利川市의 文化遺蹟』 1998, 서울대학교 박물관 36~39쪽 참조.

② 석탑지(石塔址)

언덕 위에 있었으나 석탑을 총독부박물관으로 이전하고 터만 남아있

다고 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동쪽 정원에 있는 안흥사지오층석탑(安興寺址五層石塔)이 그것이다. 1915년 일제가 물산공진회 개최를 핑계로 향교 앞 오층석탑과 함께 옮겨간 사실이 밝혀졌다. 상륜부만 없어졌을 뿐 보존상태가 뛰어나서 향교 앞 오층석탑과 함께 이천시의 대표적인 불교미술의 걸작품으로 손꼽힌다.



〈사진 4〉 안흥사지 오층석탑 – 향교앞 오층석탑과 함께 일제가경복궁으로 옮겨갔다.

4. 이천읍 부근의 석탑(石塔)

① 邑內鄕校傍 石塔 二基

이천향교 서남쪽으로 인접해 있는 약간 높은 대상(垈狀)의 언덕위에 두 개의 석탑이 마주 보고 있었는데 하나는 총독부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기록했다. 안흥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이전된 이 석탑이 그 후 다시 일본으로 유출된 문제의 탑이다. 남아 있는 다른 하나의 탑은 3층의 탑신과 옥개석이 남아있다고 했으니 현재 양정여자중학교 교정에 있는 관고동 삼층석탑(官庫洞三層石塔)을 말한다.

이마니시는 총독부로 이전해간 탑지(塔址)를 시굴해 본 결과 화염문이 들어있는 와편(瓦片)을 찾아냈는데, 석탑의 건립이 사찰의 건립보다 뒤에 이루어 졌다고 보면서 사명(寺名) 및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학교가 세워지면서 흔적이 없어진 현재의 양정여중 동쪽 교정 일대가 폐사지였음을 증명해 주는 기록이다.

② 邑內 安興里 安興寺址 一基

총독부 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사진4〉

③ 邑內面 陳里 一基

안흥사지에서 남쪽으로 수 정 떨어진 충주가도의 남방에 있으며, 현재 삼층이 남아 있고 옥개석과 탑신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사명 및 연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시청사 앞뜰에 옮겨다 놓은 중리동 삼층석탑(中里洞三層石塔)을 말한다.

④ 邑內面 官庫洞 一基

읍내에서 서서남(西西南)쪽으로 약 10정 떨어진, 설봉산 지맥으로 감싸인 밭 가운데 있으며, 4층의 석탑재가 남아있고 구조는 진리 석탑과 비슷하다고 했다. 현재 설봉공원에 있는 관고동 오층석탑(官庫洞五層石塔)이다.

⑤ 邑內面 松亭里 一基

대정 4년(서기 1915) 안흥사 연못 부근에서 송정리로 이전하였고, 5층 석탑으로 제1층의 탑신과 최상부의 옥개석이 없어졌다고 했다. 현재 높이가 5척7촌의 소형탑으로 이마니시는 이 탑을 향교석탑과 동형식이라고 보았다.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유물 중 하나다.

5. 기타유물

① 석조(石曹)

읍내 시장 서편 작은 거리쪽에 길이 8척 여의 석조가 있는데 다른 데서 이전해 놓은 것으로 전래불명이라고 했다. 이 석조 역시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

② 석불(石佛)

광주에서 이천에 이르는 가도 좌측에 있는데 얼굴 부분의 마멸이 심하며, 영험이 있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법왕정사 경

내에 있는 관고동 입상석불(官庫洞立像石佛)이다.

③ 석불 · 석탑

설성면 암산리에 석불상이 있고, 그 부근에 석탑이 있는데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암산리 석불상과 석탑 역시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게된 유물이다.

④ 마애불상(磨崖佛像)

저명산 남록에 있는데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으니 보물 982호인 장암리 태평흥국 6년명 마애보살반가상(長岩里太平興國六年銘 磨崖菩薩半跏像)을 말한다.

⑤ 지석(支石)

현재의 신둔면 지석리 지석묘를 말한다.

⑥ 원적산 고성(圓寂山 古城)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위에서 소개한 유물 · 유적 외에도 안흥사도(安興寺島)와 마장면 오천리의 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안흥사도는 지금의 안흥지(安興池) 가운데 옛날부터 있었다는 섬에 관련된 내용이며, 오천리 유적은 성벽이 있다고 해서 조사해본 결과, 조선의 자작(子爵) 민씨의 별저(別邸) 담벽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이마니시의 보고서는 조사기간이 3~4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거의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일제에 의해 이미 옮겨졌거나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유물들도 있어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表〉 이천군 관내유물의 변동상황

명 칭	소 재 지	변동상황
安興寺址 五層石塔	읍내면 안흥리	총독부 박물관으로 이축 (1915) 현재 중앙박물관 경내에 있음
安興寺 幢竿支柱石	읍내면 안흥리	행방불명
鄕校傍 五層石塔	읍내면 향교 앞	총독부 박물관으로 이축 (1915) → 동경 슈코칸으로 이축 (1918)
松亭里 五層石塔	읍내면 송정리	행방불명 (안흥지 → 송정리로 이전)
石槽	읍내면 시장 서편	행방불명
石佛	설성면 암산리	행방불명
石塔	설성면 암산리	행방불명

위의 일곱 개 유물 가운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는 안흥사지 오층석탑과 동경에 있는 향교 앞 오층석탑은 일제에 의해 옮겨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나머지 유물들이 사라진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9)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쪽

그런데 1942년 총독부의 조사보고서[9]를 보면 이마니시의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들 외에도 모가면 송곡리 폐사지에 석탑 1구와 설성면 수산리 폐사지에 불상 2구, 자석리에 석탑 1구가 더 있었음이 확인된다.

종 별	소 재 지	소 유	적 요
寺址塔	暮加面 松谷里	私有林	塔의 높이는 5척, 胴部의 직경 2척 3촌의 浮屠이며, 부근에 붕괴된 石垣과 瓦片이 現存함.
寺址佛像	雪星面 樹山里	老星山 國有林	寺址안에 높이가 각각 2척, 1척 5촌의 石佛座像 2구가 現存하는데 조각이 粗惡하고 목 부분이 절단됨.

종별	소재지	소유	적 요
寺址塔	雪星面 自石里	私有林 (黑岩洞)	塔은 石燈으로 추정되며 上層이 없어졌다. 현재 높이 3척5촌으로 부근에 柱礎石 십수개와 瓦片이 現存한다.

당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송곡리 석탑은 부도이며 자석리 석탑은 석등이었던 것 같다. 이들 역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문화재들이다.

현재까지 이천시 관내에 남아있는 석탑들은 이마니시가 조사했던 당시에도 결손된 부분이 많아서 형태가 온전하게 보존된 탑이 없었다. 그런데 일제가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간 두 개의 탑만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수한 문화재들만 눈독을 들였다가 수탈해간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Ⅳ. 향교 앞 오층석탑의 수탈 과정

1. 슈코칸(集古館)의 석탑 양도 요청

향교 앞 오층석탑(鄕校前 五層石塔)은 현재 일본 동경에 있는 오쿠라 호텔 옆 슈코칸(集古館) 경내에 있다. 오쿠라 호텔과 슈코칸은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의 하수인으로 거대재벌이 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가 건립하였다. 그는 향교 앞 오층석탑 뿐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우리 문화재들을 수탈해간 장본인으로, 약탈 문화재들의 전시 보관을 위해 지은 건물이 슈코칸이다. 오쿠라는 심지어 경복궁에 있었던 자선당(資善堂) 건물까지 통째로 헐어서 옮겨가기까지 했던 것이다.

1968년 당시, 고고미술동인회(考古美術同人會)가 펴낸 한국탑파연구자료(韓國塔婆硏究資料)[10]를 보면, 향교 앞 오층석탑 이전과 관련되어 일제가 남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어 이 탑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로를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슈코칸과 총독부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와 편지,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의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해 보면, 먼저 1918년 7월 오쿠라 슈코칸 이사(理事)인 사카다니(阪谷芳郎)란 자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長谷川好道)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10) 金禧庚 編『韓國塔婆硏究資料』考古美術資料 제20집, 1968, 考古美術同人會, 275~285쪽

> 肅啓 炎署之候 더욱 御淸榮하심을 奉恭賀합니다. 陳者 過日은 參上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御高話를 拜聽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其時 大倉 男爵의 의뢰로 大倉集古館 敷地 내에 건설할 목적으로, 朝鮮에서 歷史가 있는 古石塔 1基를 御讓受하고 싶은 뜻을 內願하였던바, 그 후 大倉 男爵에 御內示한 일도 있어 그 選定을 위하여 專門의 某 大學敎授에게 依賴하였던 바, 先年 集古館 敷地 內에 移設한 景福宮 內의 建物 資善堂 옆에 相應되는 것은 平壤 停車場 前에 있습니다. 六角七層石塔이 가장 適當할 것이라고 함에, 곧 京城 原勝一로부터 總督府의 係員되시는 분에게 직접 願出하도록 시켰사오니 아무쪼록 잘 보살펴주시기를 仰願하나이다. 다행이 聽許하여 주신다면 前記 建物과 함께 東都에 있어서 朝鮮의 古建築物을 연구하는 一端으로도 될 것이며, 학술상 많은 稗益을 줌이 적지않을 것으로 思料됩니다.[11]
>
> 大正七年 七月二十一日 阪谷芳郎
>
> **長谷川 伯爵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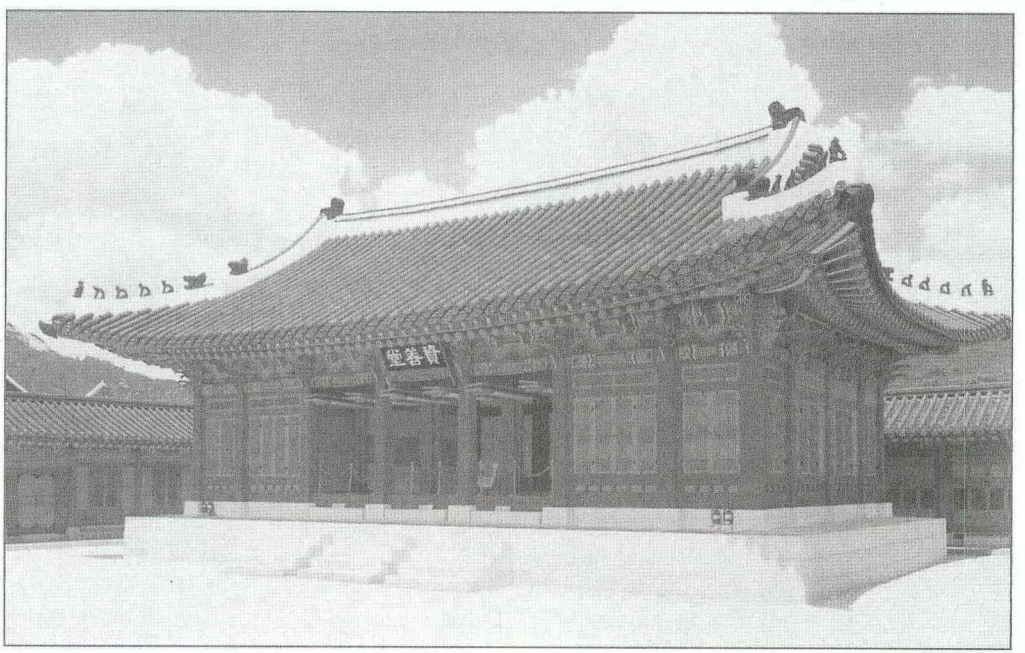
11) 띄어쓰기와 방점은 필자가 하였음.(이하 같음)

슈코칸 이사라는 사카다니가 오쿠라의 지시를 받아 하세가와 총독에게 보낸 일종의 청탁편지인 셈이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석탑 양도에 관한 사전협의와 구두 약속이 이루

어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자선당이 전 해인 1917년 이미 이전 건립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자선당에 어울리는 조선의 석탑을 전문가인 모대학교수에게 의뢰하여 선정해 놓고, 原勝一이라는 하수인을 시켜서 총독부 담당관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런데 당초 오쿠라측이 옮겨가기를 원했던 탑은 향교 석탑이 아닌 평양 정류장 앞에 있는 육각칠층석탑이었다.

하세가와는 초대 데라우치 총독에 이어서 조선총독이 된 인물이다. 일개 민간재단의 이사인 사카다니가 직접 총독에게 청탁편지를 보낼 정도이니 슈코칸 주인인 오쿠라의 막강한 영향력을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카다니의 편지는 즉각 효력을 발휘하여 석탑 양도허가를 둘러싼 총독부 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총독부 총무국장이 사카다니 앞으로 보낸 답신을 통해 나타난다.

〈사진5〉 1998년에 다시 복원된 경복궁 자선당의 단아한 모습



石塔讓渡에 關한 件

總務局長 荻田悅造

大倉集古館 理事(東京 赤坂 靈坂)

阪谷芳郎 宛

拜啓 더욱 御淸祥 奉賀합니다. 陳者 先般 御官理에 속하는 大倉集古館 敷地 內에 建設될 石塔의 件에 關하여 總督에게 申請하였기에 논의한 바, 平壤 停車場 前에 있는 塔은 他에 移轉할 수 없는 事情이 있어 論索한 결과, 지금 本府 博物館에 建立한 別紙 사진의 石塔을 選定하였으니, 이를 御願出하신다면 許可될 듯 하오니 이에 貴意를 얻고자 합니다.

追意 前文 石塔사진 1葉 同封하오니 보신 후에는 御返去하시기를 附言합니다.

이렇게 총독부의 논의과정에서 당초 오쿠라가 원했던 평양의 육각칠층 석탑이 총독부 박물관 경내에 있는 다른 석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탑이 바로 이천에서 옮겨간 향교 앞 오층석탑이었다. 이 편지에는 평양의 탑 양도를 허가해 줄 수 없는 이유를 '他에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라고만 했다. 그런데 그 사정이란 것이 무엇인지가 뒤의 고적조사위원회 회의 자료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오쿠라 측에서는 결국 총독부의 간곡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 해 10월 향교석탑 양도에 관한 정식 요청서를 조선총독 앞으로 제출하게 된다.

朝鮮古石塔 壹基 御下附願

一. 古石塔 壹基

但 總督府博物館內에 建設되어 있는것.

右는 東京에서 朝鮮 古代建造物의 實物을 널리 公衆에게 보여 專門家의

研究資料로 供한다면 學藝上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合併한 國民間의 同化親交를 增進하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게 利益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先年 本館內에 元景福宮 안에 있던 資善堂 建物을 移築하였던바, 다시 博物館內에 있는 古石塔 壹基를 御下附함을 얻어서, 右 資善堂 옆에 移築하여 前陳 目的의 一端을 達하고저 하오니, 아무쪼록 願意 聽許하여 주시기를 請願하나이다.

大正 七年 十月

財團法人 大倉集古館

理事 男爵 阪谷芳郎

朝鮮總督 伯爵 長谷川好道 殿

조선의 오래된 탑을 자선당 곁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자료로 제공한다면 '학예상으로는 물론 새로 합병한 양국 국민들간에 동화와 친교를 증진하는데도 적지 않게 이익이 될 것' 이라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결국은 석탑을 수탈해 가기 위한 핑계이며 형식적인 절차였던 것이다.

진행과정에서 평양의 석탑이 이천의 향교석탑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조선인들의 이목을 피해 일을 은밀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였음이 다음 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2. 고적조사위원회의 심의과정

하세가와 총독과 오쿠라 사이에 이미 밀약이 되어 있었던 만큼, 총독부는 발빠르게 석탑 양도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슈코칸의 석탑양도 요청서에는 총독부의 접수인이 10월 23일자로 찍혀 있는데, 그 보다 20일이 빠른 10월 4일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査委員會)가 '석탑양도의 건' 을 심의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

적조사위원장은 의안심의를 위한 회의소집마저도 생략한 채, 위원들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통지만으로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안건을 승인하고 있다.

第十一回 古蹟調査委員會

大正 七, 十, 四 總補 第 七,四一七號 決判 七, 十, 七
件名 古蹟調査委員會에 關한 件

左記 議案會議를 略하고 委員의 意見을 徵함이 可然哉.

議 案

石塔讓渡의 件

東京 大倉集古館 資善堂(景福宮에서 옮김)의 옆에 建立하여, 考古의 資料로 제공할 목적으로 平壤 停車場 前에 七層石塔을 讓受하고자 하여, 別紙와 같이 同館 理事 阪谷芳郎으로부터 願出이 있었으나, 右 石塔은 明治 三十九年(서기 1906) 停車場 設置時로부터 지금 場所에 있어서 世人의 熟知함이 되었음으로써, 이를 他에 옮김은 適當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에 대신할만한 石塔을 論索하였는바, 年代 및 製作이 相當되는 것은 모두 歷史 및 工藝의 참고로 朝鮮에서 保存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保存할 必要없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나 形狀이 倭小하여 製作 또한 劣等하다.

그런데 먼저 施政 五年 記念共進會 때 京畿道利川郡邑內面에서 移轉하여 지금 博物館 本館前의 空地에 있는 別紙 寫眞의 五層石塔은, 高 十八尺七寸, 基徑 七尺으로 製作이 中等하고 高麗末期에 속하여(石塔으로서는 時代가 가까운 것임) 대강 願出의 趣旨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一方에서 이를 생각하면 그

의 原所在地는 利川鄕校 앞의 烟中으로서, 廢寺址임은 疑心할 바 아니로되 寺名이 未詳이다. 하등 歷史上의 考證을 할만하지 못하다. 또 塔의 形狀은 普通으로 보이는 方形五層으로서 製作上 特異한 点이 없을 뿐 아니라 佳良하다고 칭할만하지 못하다. 또한 頂上의 裝飾을 잃고 特히 基壇 및 제1층의 높이가 매우 延長하여 屋蓋의 넓이 또한 전체 높이에 대하여 균형을 얻지 못하였다.

한마디로써 이를 評한다면 他에 來歷이 있고 또는 優秀한 石塔이 많은 朝鮮에 있어서는 특히 博物館에 保存하여 陳列品의 하나로 헤아림은 오히려 適當하지 못한 感이 있다. 共進會 때에는 다만 各地에 있는 많은 石塔 가운데 移轉에 便한 것 몇 基를 택하여, 朝鮮에 年代가 오래된 石塔이 많음을 보이고 겸하여 會場을 裝飾하였음에 不過하였다. 故로 今日에 이르러 博物館에 陳列物件으로서 그의 價値가 적음은 또한 부득이한 일이다. 以上과 같은 事情으로 大倉集古館에 대하여 그 目的物을 變更하여 다시 願出시킨 뒤에 右 五層石塔의 讓渡를 許可함이 機宜의 處置라고 思料됨.

右에 대한 御意見 承知하시기 바랍니다.

大正 七年 十月三日

古蹟調査委員長

이 회의서류의 마지막 장은 당시 총독부 고적조사위원 21명의 이름을 병기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았다. 위원들 중에는 柳모, 劉모, 具모 등 조선인 3명이 포함되어 있고, 1916년 이천군의 문화재 조사를 담당했던 今西 龍을 비롯한 黑板勝美 鳥居龍藏 같은 총독부 소속 어용학자들의 이름들도 들어있다.

제11차 고적조사위원회가 안건심의를 위한 회의소집도 생략한 채 위원 각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이 위의 기록을 통해 드러나

지만,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석탑 양도에 관한 심의 안건이 발의된 지 이틀만인 10월 5일 자로, 위원회가 이를 가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古蹟調査委員會 幹事

古蹟調査委員長

件名 石塔讓渡의 件

大倉集古館에서 願出한 바 있는 石塔讓渡의 件은 別紙와 같이 古蹟調査委員會에서 可決하였사옵기 이에 報告하나이다.

大正 七年 十月五日

석탑 일본반출에 관한 고적조사위원회의 심의과정까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준비를 끝낸 총독부는, 슈코칸의 양도 신청서가 접수된 이튿날로 즉시 허가 공문을 보낸다.

大正 七年 十月二十四日. 總 第四〇八號, 決判七二二

件名 石塔下附의 件

總務局長

大倉集古館理事 男爵 阪谷芳郎 宛

大正七年 十月附로 願出한 本府 博物館 前庭 陳列의 石塔(所在 京畿道利川郡 鄕校前廢寺址) 壹基에 대한 貴館의 下附의 件, 聽許되었으므로 諒知하시기 바라며 依命 通牒합니다.

追而, 右 石塔 移出에 관해서는 仁川稅關에 通牒하여 두었음을 參考로 添言함.

第 2 案

石塔移出에 關한 件

仁川稅關長 宛

금번 本府 博物館 前庭 陳列의 石塔 壹基가 大倉集古館에 下附되어 不日 移出하게 될 것이니 諒知하시기를 이에 通牒합니다.

備考, 大倉集古館은 古物을 蒐集하여 一般觀客을 위하여 公開하는 것으로, 朝鮮石塔의 下附는 이들 觀客으로써 朝鮮 古美術을 硏究시키는데 적당하다고 認定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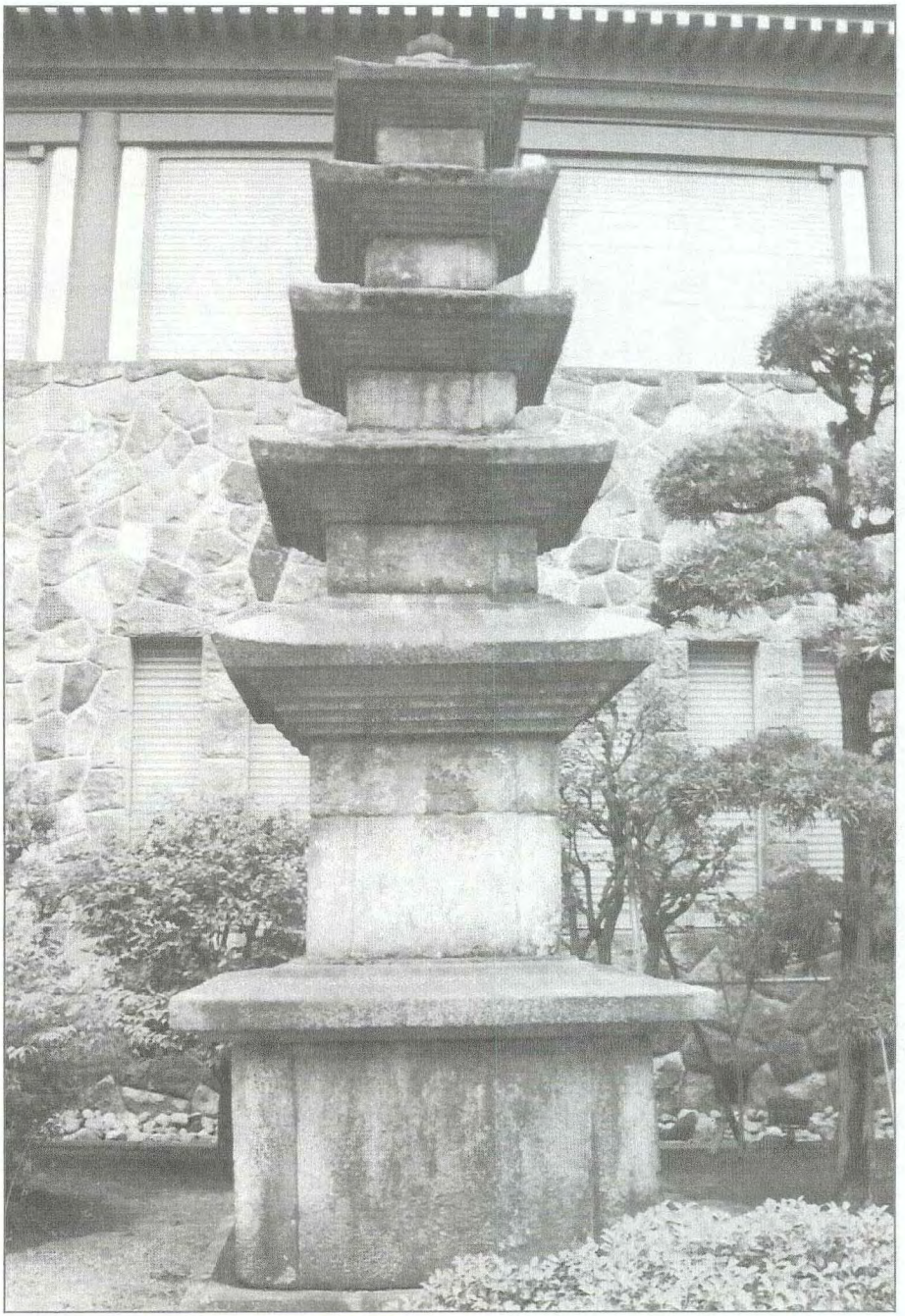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석탑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낸 향교석탑은 인천항에서 배에 태워져서 현해탄을 건너는 운명을 맞게 된다. 처음 총독부 내부의 검토과정에서 당초의 대상이었던 평양 칠층석탑이 이천군에서 옮겨진 향교석탑으로 바뀌게 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후로는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오쿠라측과 밀착된 조선총독 이하 총독부 관리들의 절대적인 비호와 협조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비운의 향교석탑

고적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회의자료를 검토해 보면 향교앞 오층석탑과 관련된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동경으로 옮겨진 향교석탑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남아있는 안흥사지 오층석탑이 당시 총독부 박물관(경복궁내) 정원으로 옮겨진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자료는 두 탑이 이천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진 시기를 시정(施政) 5년 기념공진회 때라고 했다.

공진회란 1915년 9월에 열린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말한다. 이 행사는 일제가 한일합방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정치업적을 자랑하고 총독부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한 일



종의 박람회였다. 이 해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3일간, 경복궁에서 열린 공진회는 당시 조선민중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모양으로, 관람객 수가 116만 4,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따라서 두 개의 석탑이 경복궁으로 옮겨진 시기는 공진회를 준비하던 때인 1915년 9월 이전이었다.

고적조사위원회가 밝힌 석탑을 옮겨다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진회 때 조선 각지에 있는 많은 석탑들 가운데 이전하기 편한 것 몇기를 택하여, 조선에 연대가 오래된 석탑이 많다는 것을 보이고 겸하여 회장을 장식하기 위해서'[12] 였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박람회장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흠잡을 데 없는 지방문화재들을 힘들게 옮겨다 놓았다는 것이다.

12) 金禧庚『韓國塔婆研究資料』277쪽

일제는 이처럼 공진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인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지방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수집하여 일제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서슬퍼런 일본 관리들이 '박람회장에 진열하겠다' 하고 탑을 파헤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당시 의식이 살아있는 주민이었다 한들 누가 감히 나서서 이를 저지하거나 문제삼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어느날인가 갑자기 서울 나드리길에 오른 향교석탑은, 또 어느날 아무도 모르게 동경으로 더욱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두 번째는, 공진회를 빛내기 위해 전국에서 옮겨다 놓은 석탑들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향교석탑이 대상물로 뽑히게 됐을까 하는 이유이다. 앞장에서도 이미 밝혔듯 당초 오쿠라 재단의 슈코칸측이 총독부에 요구했던 대상은 향교석탑이 아닌 평양의 육각칠층석탑이었다. 그런데 총독부의 심의과정에서 평양의 석탑은 양도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이유가 '1906년 정류장이 생길 때부터 그곳에 탑이 있었기 때문에, 세인들의 숙지(熟知)함이 있는고로 이를 옮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13]고 하였다. 조선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총독부 관리들은 사람들의

13) 김희경, 앞의 책, 276쪽

이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박물관 경내에 수집해 놓은 석탑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여러 탑들 가운데 공교롭게도 향교석탑이 대상물로 정해졌다.

고적조사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그래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향교석탑을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뒤지는 평범한 유물로 비하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첫째, 향교석탑은 '높이 18척7촌, 기단폭 7척으로 제작이 중등(中等)하며, 고려말기에 속하여 대강 원출(願出) 취지에 맞는 것'[14] 이라고 했다. 친절하게도 '석탑으로서는 시대가 가까운 것' 이라는 부연설명까지 달아가면서 말이다. 또 연대가 떨어지는 중간급의 평범한 석탑이어서 원출취지에 맞는다고 했는데, 오쿠라 슈코칸에서는 평범한 석탑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들의 연구대상' 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작연대에 관해서도 슈코칸을 방문하여 석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전문가들은 고려말이 아닌 고려 초기(10~1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15]

14) 金禧庚, 앞의책, 276쪽

15) 『서울신문』 1996. 1. 7일자

둘째, 원소재지가 이천향교 앞인데 폐사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명(寺名)을 알수 없어 하등 역사상 고증할만한 것이 없다. 셋째, 탑의 형태가 보통으로 보이는 방형 5층으로 제작상 특이한 점이 없어서 우수하다고 부를만 하지 못하다. 넷째, 정상의 장식이 없어지고 특히 기단 및 제1층의 높이가 길며, 옥개의 넓이도 전체 높이에 대해서 균형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수한 석탑이 많은 조선에서(향교석탑은) 박물관에 진열품으로 보존하기엔 부족하다' 며 심지어는 원래 공진회를 장식했던 진열품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별 볼일 없는 탑이기에 슈코칸 같은 민간단체에 주어버려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회의자료의 내용만 보아서는 향교석탑이 문화재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조선의 많은 석탑 가운데 하나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향교석탑이 과연 일제의 주장처럼 하찮은 탑이었을까.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

인하지 못했기에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사진으로 본 탑의 형태는 상륜부의 장식물만 없어졌을뿐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높이도 6m에 가까워서 결코 작은 탑이 아니며, 단아한 형태미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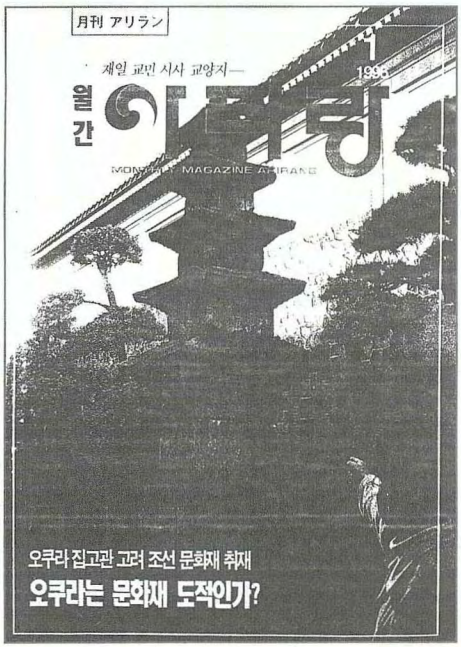
향교석탑은 경복궁에 있는 안흥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이천시의 대표적인 석탑유물이다. 현재 이천시 관내에 남아있는 몇개의 석탑들은 기단부와 탑신, 옥개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유물이 단 하나도 없다. 당시 일제는 여러 개의 탑 중에서도 보존상태가 좋고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두 개의 탑만 선별해 옮겨갔던 것이다. 가령 총독부 관리들의 주장처럼 '평범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마다 남아있는 모든 문화유산들은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법이다.

일제가 향교석탑을 슈코칸에 양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역사고증이 힘든 평범한 탑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스스로 인정한 대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총독부가 인천세관으로 보낸 협조공문에서 석탑양도를 허가해 주는 사유를 '관객들에게 조선의 고미술을 연구시키는데 적당하다고 인정'[16] 되기 때문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6) 金禧庚, 앞의 책 285쪽

V. 오쿠라와 슈코칸(集古館)의 한국 문화재

동경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글 잡지인 『월간 아리랑』은 1996년 1월호에서, 향교석탑을 비롯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슈코칸(集古館) 주변에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취재하여 표지 스토리로 크게 보도하였다. 『월간 아리랑』은 당시 한국으로 반환이 추진되고 있던 자선당 유구 철거를 취재하기 위해 슈코칸을 방문했다가 한국문화재들을 찾게 되었다



〈사진 6〉 향교 앞 오층석탑을 표지사진으로 다룬 '월간 아리랑' (1996년 1월호)

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당시의 『서울신문』이 인용 보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됐다. 『월간 아리랑』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슈코칸 정원을 장식한 30여 점의 유물들 가운데 11점이 한국문화재이며, 나머지는 명 · 청시대의 중국과 에도시대의 일본 유물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슈코칸 내부에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잠자고 있는지, 그 중에 한국 문화재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슈코칸 측이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잡지에 소개된 사진을 보면 향교석탑 외에도 평안남도 대동군 율리사에서 가져간 것이라는 고려 중기(12~13세기) 팔각오층석탑(八角五層石塔)이 눈길을 끈다. 그 밖에도 조선시대의 석인상 4점, 망주석 4점과 양마석 1점이 보존되어 있다. 11점의 석조유물들이 하나같이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것들이지만 『월간 아리랑』은 그 중에서도 향교석탑을 표지사진으로 크게 다루어서 대표적인 문화재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향교석탑을 '충주 탄금대 인근 정토사에서 가져간 것'[17] 이라고 밝힌 점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17) 『서울신문』 1996. 1. 11일자

앞장에서 검토한 당시 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기록들은 오쿠라 측이 자선당 곁에 두기 위해 가져간 탑이 이천의 향교앞 오층석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현재 슈코칸 정원에 있는 한국의 석조유물들 가운데 향교석탑과 같은 형태인 방형오층석탑은 오직 하나 뿐인데, 총독부 기록에 첨부된 사진과 잡지에 수록된 사진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석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월간 아리랑의 보도내용에는 언급된 바가 없는 서울신문의 탄금대 전래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한 노릇이다.

향교석탑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문화재들을 닥치는 대로 수탈해간 장본인인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는, 이토오 히로부미나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같은 당시 조선 최고의 권력층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함으로써 대재벌이 된 인물이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식민지 지배세력의 비호아래 조선의 경제 · 문화적 수탈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일제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수탈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오쿠라라는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쿠라는 니가타(新潟)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도쿄 우에노(上野)에 건물점(乾物店)을 내었다가 1868년 가을에 니혼바시(日本橋)에 오쿠라총포점(大倉銃砲店)을 개업했다. 무기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40세되던 1876년 8월, 일본정부의 종용으로 부산에 들어왔다. 이른바 한일수호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되면서 였다.[18]

오쿠라는 조선에서의 첫 사업을 동래부 성안에서 잡화상 경영으로 시작했다. 조선에서 번 돈을 미끼로 일본 권력층에 접근한 그는, 은행업 · 무역업 · 토목 건설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넓혀가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일본의 8대 재벌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오쿠라는 돈벌이에만 열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문화재 수집에도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막강한 권력층의 비호 아래 토목공사를 빌미로 조선의 궁궐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의 문화재 수탈행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향교석탑의 경우는 그래도 총독부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야했으므로 나은 편이었다. 다른 대부분이 문화재들은 아무

18) 김정동, 「도쿄에서 찾은 자선당, 그 보고서」 『일본을 걷는다』 23쪽, 이하 오쿠라의 행적에 관한 내용들은 김정동 교수의 글을 인용하였다.

〈사진 7〉 1996년 1월 7일자 서울신문기사



고려石塔등 한국문화재 11점
日도쿄 오쿠라集古館서 확인

【도쿄=홍순탁특파원】

일본 도쿄시내에서 「고려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시대 초기 5층석탑 등 한인원 문화재단은

한국문화재가 대량 확인 군 용리사에서 가져간 고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려중기(12~13세기) 팔

도쿄에서 발행되는 1 각 5층석탑과 조선시대

금융계 월간 아리랑」 석 초기 청동 정병(淨甁)

월호 표지(사진)에서 오 석 상감운학문(象嵌

쿠라집고관(集古館) 소 雲鶴文) 4점 등이다.

장품(藏品) 중 한국 이 중 팔각 5층석탑은

문화재가 대량 확인됐 높이 3m로 고려시대

다는 것. 탑대표 석조예술의 걸

이 월호는 오쿠라재단 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사장 오쿠라 슈이치 나머지 고려시대 석탑

로(大倉修一郎) 회장 등 3점과 조선시대 청

이 지난 1월 한국을 동 정병 1점 등 모두

방문, 한국 문화재 보 11점이 확인됐다.

존 실태를 조사한 것 나월 고유섭박사의

으로 알려졌다.

총선대책등 논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李興

宇총재와 金鍾泌대표

위원 등 당3역 회의를

열고 최근 삼성문화재단

등에 한국 문화재 반환

을 경고한 일본 오쿠라

집고관에 가져간 자선

당(慈善堂) 등 한국 문

화재 11점의 목록을 입

수, 이들 문화재 반환

을 위한 외교적 노력

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나서 고유섭박사의

런 절차도 없이 강탈되어 그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오쿠라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조선의 굵직한 건축과 토목공사를 도맡다시피 했다. 이토오 히로부미와 밀착되었던 그는 1903년 덕수궁 석조전 공사를 비롯하여 통감부 관사 건축, 경성농공은행, 수원농림학교 등 관청 · 학교 · 병원 · 은행 등의 공공시설과 군용시설, 철도건설에까지 손을 뻗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에는 고려 숙종왕릉과 공민왕릉을 불법으로 도굴하여 유물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까지 했으며,[19] 1907년에는 교육사업에도 손을 대 일본인들만 다니는 선린상업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 김정동, 앞의 책 26쪽

1909년 이토오의 뒤를 이어 데라우치가 조선통감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데라우치의 하수인이 된 오쿠라는 경복궁 · 창덕궁 · 덕수궁 같은 궁궐 건물들에 대해 마음놓고 손을 대기 시작했다. 물산공진회를 개최하는데 거추장스럽다하여 경복궁을 뜯어내는 공사도 오쿠라의 토목회사가 맡아서 했는데, 공진회 개최 1년전인 1914년까지, 경회루 · 근정전 등 몇 개의 중요한 건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들이 철거되었다. 1915년 물산공진회가 열린 이 자리에는 결국 총독부 청사가 들어서게 되었다.

20) 京城府『京城府史』1934, 조선인쇄주식회사, 464~477쪽

당시 기록에 '건물 약 4,000칸을 철거해서 민간에게 불하하여 구태를 일변했다.'[20]고 했으니 경복궁 7,225칸 중 자그마치 절반 이상을 헐어버린 셈이다. 경복궁의 많은 전각들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이름났던 자선당은 오쿠라가 눈독을 들여 동경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통째로 뜯어



〈사진 8〉 오쿠라 저택에 옮겨 세워진 자선당 –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었다.

날랐고, 1916년 9월 30일 조선관(朝鮮館)이란 이름으로 준공식이 열린 자리에 데라우치 총독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던 것이다.[21] 궁궐 철거과정에서 얼마나 많고 귀한 궁궐유물들이 오쿠라의 수중으로 넘어갔는지는 파악할수조차 없다.



〈사진 9〉 동경에 있는 오쿠라 슈코칸(大倉集古館)

21) 김정동, 앞의 책에서 재인용.

동경 아카사카(赤坂)에 있었던 오쿠라의 저택은 대가람(大伽藍)이라 불리울 정도로 크고 웅장했다고 한다. 수 십년 동안 약탈해 간 오쿠라의 수집품들은 자신의 저택 일부를 개조하여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이란 이름으로 박물관을 차리고 1917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됐는데, 이것이 일본 최초의 사립박물관이었다고 한다. 개관 당시 슈코칸의 유물은 진열 미술품이 3,692점, 서적 1만 5,600권이었다고 한다. 그 엄청난 분량이 모두 한국의 문화재들만은 아니었겠지만, 슈코칸 주변 문화재들과 같은 전체의 삼분지 일 정도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6,000점이 넘게 된다. 더구나 오쿠라의 문화재 약탈은 1917년 이후로도 10여 년간 더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유물들이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불타거나 없어지고 3,000여 점만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쿠라는 1928년에 사망했고, 1964년 그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 후손들이 오쿠라 호텔을 신축하여 파렴치한 문화재 약탈자로서의 부끄러운 이름을 후세에까지 남기고 있다. 자선당 역시 관동대지진 때 불타 없어지고 말았는데, 주춧돌들만 반환이 이루어져서 1996년 1월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향교석탑을 비롯한 다른 우리 문화재들은 아직도 낯

선 이국 땅에서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다.

VI. 맺는 말

향교 앞 오층석탑은 옛날부터 이천향교 앞에 있었던 이천시의 대표적인 불교미술품 중 하나였다. 높이 6m에 가깝고 보존상태가 뛰어나서 고려석탑의 형식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탑은, 1915년 일제가 물산공진회를 열면서 경복궁 경내(당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내)로 옮겨갔다. 공진회 회장에 진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행사를 핑계로 우수한 조선의 문화재들을 수탈하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이다.

일제의 권력층을 등에 업고 대재벌이 된 오쿠라는 경제침략만이 아니라 문화재 수탈에도 앞장서서, 엄청난 양의 우리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빼돌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경복궁 자선당 건물을 통째로 뜯어다가 자신의 저택에 옮겨 짓고는, 자선당을 돋보이게 한다는 핑계로 조선의 잘 생긴 석탑에 눈독을 들였다. 처음에는 평양의 육각칠층석탑을 욕심냈으나, 서슬퍼런 총독부 관리들도 당시 조선인들의 이목이 두려웠기에 평양석탑을 양도하는 것에는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이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총독부 박물관 경내로 이미 옮겨다 놓은 탑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향교석탑은 1918년 10월경 현해탄을 건너 동경 슈코칸 경내로 옮겨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하세가와 조선총독을 비롯한 총독부 관리들의 철저한 비호와 협조가 뒤따랐던 것이다.

이렇게 향교 앞 오층석탑은 일제의 조선침략 이후 일본인들이 얼마

나 많은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며, 그 수탈 과정이 일본 관리들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해 주는 생생한 증거물이기도 하다.

『월간 아리랑』이 조사하여 수록한 슈코칸 옥외 진열품 배치도를 보면, 향교석탑은 입구에서 슈코칸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면서 첫 번째로 조선시대의 문인석 한 쌍과 나란히 서있다. 문인석이 원래 주인의 무덤을 수호했듯, 비록 먼 이국 땅이지만 고국에서 함께 바다를 건너 온 비운의 탑을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향교석탑 바로 곁에는 오쿠라 기하치로의 송덕비가 서있어 씁쓸함을 자아낸다.

용인시에 있는 세중옛돌박물관에서는 지난 해 일본의 개인수장가로부터 석조 유물 70점을 환수 받아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정부나 이천시가 범 시민적인 문화재 반환운동이라도 벌여서, 향교석탑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설봉문화, 제30호, 2003>

이천향교 오층석탑 반환운동에 대하여

Ⅰ. 머리말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디에 얼만큼이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재를 알 수 있는 것들보다도 숨어있는 문화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조사한 목록에 의하면 일본내에 있는 한국문화재가 3만4369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학자들은 대략 30만 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0만 점이나 되는 우리 문화재들을 일본이 모조리 강탈해 간 것은 물론 아니라고 본다. 조선통신사 방문같은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정식으로 건네졌거나 국가나 개인이 선물로 준 경우도 있겠고, 정당한 댓가를 주고 가져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상당량의 문화재들이 강압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탈취당

한 것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북관대첩비 반환과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유출된 일본내 한국문화재 반환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방이후 일본의 양식있는 개인소장가들이 기증형식으로 소장품들을 한국에 반환한 사례는 적지않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단체가 직접 반환교섭에 나서서 이를 되돌려 받은 사례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1427점의 문화재들을 반환했고, 그것도 정식반환이 아닌 양국간 문화협력을 위한 인도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서 였다. 당시의 군사 정부는 이를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이다.

식민지 통치시절, 일제에 의한 문화재 수탈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이천시 향교 옆에 있었던 이천향교 오층석탑이다. 이 탑은 1915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물산공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멋대로 경복궁으로 옮겨갔고, 삼년 뒤인 1918년 총독부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또다시 멀리 동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금은 슈코칸(集古館)이란 사설박물관 뜰 한구석에 처박혀서 외롭게 망향의 설움을 달래고 있다. 향교오층석탑이 동경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환운동의 필요성이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마련한 의미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다.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이 공동주최한 『한일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이 그것이었는데, 발표내용 중에는 지난 해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에 관한 사례발표가 들어있어 관심을 끌었다. 또 일본인 하야시 교수가 자국내 약탈문화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인식과 반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소개하여 일본측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문화재가 약탈문

화재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약탈문화재의 원소재지, 약탈경위, 현 소장자의 소장상황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은 그 수탈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탈문화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제아무리 증거가 뚜렷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글은 이천향교 오층석탑 반환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짚어보기 위한 글이다. 반환운동의 성패는 결국 어떻게 상대를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적절한 협상전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둑맞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이니 만큼 당당하게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상대가 반환요청을 거절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은 비록 부당하게 빼앗겼을망정 원래 소유가 이천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들이 반환요청을 계속하는한 상대는 문화재 약탈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터이고,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언제가는 고향으로 되돌아 올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는다.

II.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유출

외세에 의한 우리나라 문화재 유출은 조선의 개항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량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체결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들의 세력이 밀려들어오면서부터 였다. 나라는 송두리째 외국인에 의해 유린당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우리의 많은 문화재

들도 외국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한말 이 땅에 와 있던 서구의 외교관, 선교사, 기술자 등은 많은 수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재들을 의도적으로 수집하였다.[1] 일제강점기로 접어 들면서 특히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약탈은 일본의 한반도 무력침략의 정당성과 그 지배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민족의 사고와 정신을 공동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문화재 약탈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과 보관된 것만 보더라도 개별적이고 임시적인 수집이라기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약탈행위임이 분명하다.[2]

조부근(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무국장)씨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이 공동주최한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에서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출된 중요한 문화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3]

1) 조부근,〈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 공동 주최, 2007. 4.27) 자료집, 9쪽

2) 조부근, 위의책 9쪽에서 재인용

3) 조부근, 위의책, 9쪽, 10쪽

〈1〉 일본의 고적조사 출토품

① 1909년 10월 제2차 고적조사
- 대동강 남단 고분 2기 발굴, 일본 반출
- 1910년 가을 고분 2기 발굴

② 1911년 10월 제3차 고적조사(사리원 인근)
- 사리원 인근 대방태수 장무이(張撫夷) 무덤과 토성

③ 1913년 9월 제4차 고적조사
- 진남포 부근, 봉산리 유적 고분(한(漢)대의 와당, 복식, 동기 등)

④ 1916년 10월 세키노(關野)발굴팀 고적조사
- 대동강 남쪽 낭랑고분 10기 발굴

⑤ 1911년 3월 세키노(關野) 발굴팀 가야시대 유적 발굴
- 진주 옥봉 출토유물(도쿄제대 공대기증)

⑥ 1915년 총독부 위촉 신라고분 조사 발굴

– 경남 황남리 고분에서 철검, 철장, 토기 출토
– 같은 해 보문리 부부총 발굴, 순금, 팔찌, 귀고리, 반지 출토
⑦ 1918년 경주 명활산 고분 발굴
– 순금, 귀고리, 금은팔찌, 반지, 기타 옥류의 장신구 출토
⑧ 1925년 도쿄제대의 낙랑 고분 발굴 출토품
⑨ 1921년 경주남문 밖 고분 발굴 문화재
⑩ 1924년 금령총 발굴 문화재
⑪ 조선고적 연구회의 발굴 문화재

〈2〉 일본인에 의한 대규모 도굴품

① 초대총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수집품(고려자기류 수천점)
② 오구라(小倉) 컬렉션
③ 가루베(輕部慈恩) 컬렉션(백제유적)
④ 1910년 선산지역 중심 낙동강 유적 도굴품
⑤ 이치다 컬렉션
⑥ 야마요시(山古盛未)도자기 컬렉션 수백점(주한 일본 공사관 근무자)
– 도쿄 재실 박물관 보관(세키노) 『한국건축 조사보고』, 1904

그 밖에도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과는 별도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수의 서지류들을 들 수 있다. 즉, 교토대학부속도서관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 마에마(前間恭昨)가 정족산사고에서 반출해간 동야문고, 도쿠도미(德富蘇峰–경성일보 주필)의 성기당문고와, 이마니시(今西龍–경성제대 교수)의 오사카시립도서관 한국고서, 이토 히로부미가 1911년 가져간 규장각 귀중본 563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아사미의 마쓰이문고는 2차대전 후 미국 버클리대학으로 팔려갔고, 가네자와의 탁족문고는 2차대전 중 미군공습으로 불타버렸다고 한다. 지난 해 잔여본이 환수된 오대산 사고본인 조선왕조실록도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이 불타버렸다.[4]

4) 조부근〈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 위의 책, 10쪽

이렇게 총독부 관리나 학자, 민간인 할 것없이 닥치는 대로 수집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들은, 이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듯 30만 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조사하여 밝힌 3만4천여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어디에 얼만큼이나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 1〉 동경 슈코칸 정원에 있는 이천향교 오층석탑 (사진제공 – 유광렬 해강도자미술관장)

Ⅲ. 오쿠라(大倉)와 오구라(小倉)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에 대해 언급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란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때 남선(南鮮)전기회사 사장으로 있던 오구라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조선미술품들을 긁어모은 악명 높은 수집가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수집품을 오구라 컬렉션이라 부르며, 그가 사망한 뒤 도쿄국립박물관으로 기증 되었다. 이 오구라 컬렉션은 1965년 한일회담 때도 한국측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목록중 하나였지만 당시는 오구라 개인의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제외되고 말았다.

그런데 오구라보다도 더 한층 탐욕

스럽게 조선의 문화재들을 강탈해간 인물이 이천향교 오층석탑을 반출한 장본인인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였다. 오쿠라는 덩치가 큰 석탑뿐만 아니라 경복궁 자선당까지 통째로 뜯어서 가져갔다. 이렇게 탈취해간 문화재들로 일본 최초의 사설박물관까지 차린 인물이 바로 그인데 이상하게도 한일 불법문화재를 이야기할 때 오쿠라 기하치로란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의 성이 비슷하게 발음되는 탓에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언로보도나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조차 혼동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오쿠라와 오구라는 엄연히 다른 인물이지만, 두 사람 모두 식민지 통치세력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문화재 수탈에 남다른 수완과 열의를 보여준 장본인이란 공통점이 있다. 일본어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성을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오오쿠라(大倉)와 오구라(小倉)가 되어 약간의 차이가 난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한일합방 이전인 1904년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처음에는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었다. 1911년에 대구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팔도 전역으로 전기사업을 확대함으로서 '조선의 전기왕'이란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해방직후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남북도 일대의 문화재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다. 지방경찰서장을 비롯한 권력층의 비호아래 유물의 밀반출이 얼마든지 가능하였고, 전기회사 지방출장소와 자신이 소유한 탄광회사의 광부들을 도굴에 앞장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전쟁패망과 함께 중요문화재들을 밀항선에 가득 채워 일본으로 빼돌린 오구라는 1964년에 사망했고, 1981년 오구라컬렉션보존회가 1천점이 넘는 소유유물을 도쿄국립박물관으로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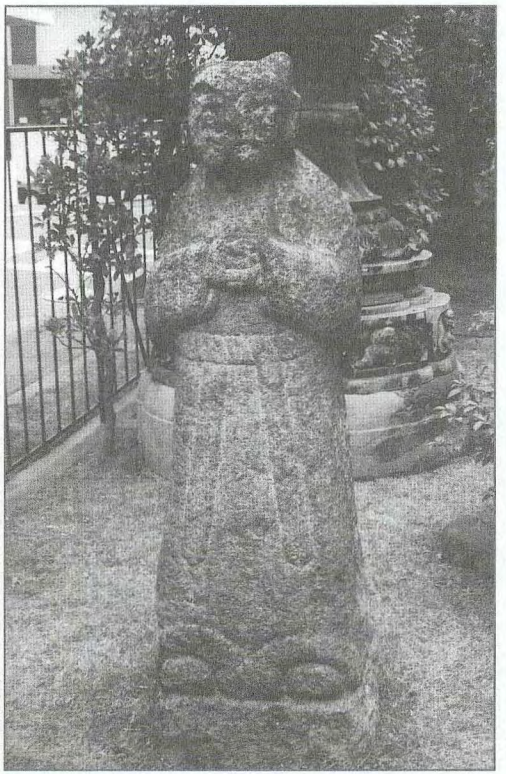
오쿠라 기하치로는 동경에서 총포상을 경영하다가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일찌감치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조선에서의 첫 사업을 부산에서 잡화상으로 시작했다. 오쿠라는 은행업, 무역업, 토목건설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면서, 특히 이토 통감이나 테라우치 총독 같은 막

강한 권력층을 등에 업고 조선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서 일본 오대재벌의 하나로 부상한 인물이다.

오쿠라는 돈벌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이용한 문화재 수탈에도 수완을 보였다. 식민지 지배권력의 비호아래 토목공사를 빌미로 조선의 궁궐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의 문화재 수탈행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일제는 조선황실을 상징하는 경복궁부터 헐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철거작업을 오쿠라 토목회사가 맡아서 했다. 1914년까지 경복궁 전체 7,225칸의 건물중 약 4,000칸이 철거되어 절반 이상이 없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궁중유물들이 그의 수중으로 넘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복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쿠라는 수많은 전각들 중에서도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했던 자선당을 통째로 뜯어다가 동경 아카사카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실어 날랐다. 대가람이라 불리울 정도로 크고 호화스러웠던 저택 안에 자선당을 복원하고 1916년 9월 조선관이란 이름으로 준공식을 가졌는데, 데라우치 총독이 직접 참석하여 친분을 과시할 정도였다. 오쿠라는 수 십년 동안 약탈해간 문화재들을 자신의 저택 일부를 개조하여 진열하고 1917년부터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이란 이름으로 일반에게 공개했다. 개관 당시 슈코칸의 소장유물은 미술품 3,692점, 서적 1만 5,600권으로 모두 2만여 점에 가까운 엄청남 양이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유물들 대부분이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불타버리고 겨우 3,000여 점만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며, 자선당 건물 역시 이때 불타 없어졌다.

오쿠라가 자선당 건물을 통째로 옮겨 짓고는 이를 더욱 돋보이도록 한다는 구실로 조선의 잘 생긴 석탑에 눈독을 들였다. 처음에 그는 평양 정류장 옆에 있는 팔각칠층석탑을 욕심내서 하세가와 총독 앞으로 이 탑을 양도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서슬퍼런 총독부 고위관리들도 조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던 탓에 오쿠라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미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남의 이목을 걱정

〈사진 2〉 슈코칸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 (사진제공 – 유광렬 해강도자미술관장)

할 필요가 없는 이천향교 오층석탑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친 비운의 탑이 1918년 10월 마침내 현해탄을 건너게 되지만, 향교석탑의 상세한 이전경위에 대해서는 『설봉문화』에 발표한 필자의 글[5]을 참고하기 바란다.

슈코칸이 관동대지진으로 불타버리기 전 그 안에 진열 또는 보관중이었던 우리 문화재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슈코칸은 1927년에 다시 재건되어 현재까지도 박물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지진을 피해 살아남은 나머지 유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5) 이인수,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 『설봉문화』 제30호, 2003, 46~57쪽

Ⅳ.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사례

1951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1차 한일회담 때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청구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는 <한일간 재산, 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출했는데, 8개 항목으로 된 이 요강의 첫 번째가 '한국에서 반출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 지은을 반환할 것'이었다.[6] 그러나 제1차 한일회담은 재한 일본인 재산처리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고, 그 후 양국간 최종협상이 타결되기까지 7차례의 본회담과 14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6) 조부근,〈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 자료집, 13쪽

문화재 반환협상에 있어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있는 문화재들은 대부분이 약탈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 일본측은 약탈이 아니고 정당하게 가져온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 독도문제나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1965년 제7차 한일회담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타결되면서 이해 6월22일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도자기 · 고고자료 · 석조미술품 · 장신구류 176건 434점, 서적 163부 852건, 체신자료 20건을 비롯한 1427점의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되돌아 왔다. 그런데 당초 우리 측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들은 서적 212종, 미술품 및 골동품 837점 등 모두 4,479점이어서 실제로 돌려받은 것은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고, 반환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군사 정부가 회담타결로 얻어지는 경제원조에만 급급해서, 문화재 반환문제를 포함한 다른 의제들을 성급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이후 한일간 문제제기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일본 쇼비대학교의 하야시 교수는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에서 한일회담 결과로 얻어진 당시 문화재 인도협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7] 먼저 한일협정 체결에 따라 문화재 반환문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상호간 전후처리문제가 외교상으로는 모두 정리된 사안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며, 이로써 우리 정부는 정식 외교루트를 통해 재차 반환요구를 할 수 없도록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반환절차에서도 '인도'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환'이지만 일본측은 '증여'로 해석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마찰의 소지를 남겼다.

7) 하야시 요코, <일본내 한국 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및 제도개선 방안> 위의 책, 48~49쪽

둘째 개인소유의 문화재들이 처음부터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의 3원칙으로 ①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돌려준다, 단 반환이 아니라 기부한다. ②사유재산은 인도할 수 없다. ③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법률적 의무에 의한 것은 아니다를 내세웠다. 따라서 당시 반환문화재 속에는 사유 및 국립대학 소유의 문화재는 모두 제외되었으며, 일본의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 휴전선 이북에서 가져온 것들도 제외되었다. 협정 당시 일본은 일본국민이 사적으로 소유한 한국문화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도록 계속 권장하기로 했으나, 이 약속은 처음부터 허울뿐이었다.

한일협정의 체결로 양 국간 청구 및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된 셈이 되고 말아 정부당국간 협상에 따른 문화재 반환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예외인 경우가 딱 두 차례 있었는데, 1991년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왕비의 복식유물 227점이 기증형식으로 반환되어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 하나는 최근의 일로 2005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북관대첩비가 민간의 환수노력과 정부의 교섭에 의해 되돌아온 일이었다.

정부와는 달리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재 반환 움직임은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대부분 일본의 양식 있는 개인 소장가들이

우리나라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소장품을 기증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최근에 와서 문화재 반환활동이 민간운동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지난 해 매스컴을 통해 주목을 끈 조선왕조실록 환수운동도 그 중의 하나였다.

1914년 당시 오대산 사고에 보관중이던 조선왕조실록이 테라우치 총독에 의해 도쿄대학으로 무단 반출되었다. 반출량이 자그마치 150짐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이 소중한 기록유산들이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중 다행스럽게도 불길을 면했던 실록 일부가 아직도 도쿄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게된 불교계가 실록환수운동에 나섰다. 불교계가 이 운동의 전면에 나선 이유는 조선 선조때 오대산 사고가 설치된 이래, 월정사 주지가 '실록수호총섭'으로 대대로 사고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왔던 때문이었다.[8]

2006년 3월 3일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이하 환수위)가 발족되어 이날 출범식을 갖고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일본총리 앞으로 된 반환요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환수위는 3월15일과 4월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표단이 도쿄대를 직접 방문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재일동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본정부와 도쿄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까지 미리 대비했다.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한 <조선왕조실록 되찾기 국회의원모임>도 결성되었다. 처음 도쿄대는 재산처리규정이 없어서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이었다. 그러나 5월31일 3차 회담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말을 맞게 되었다. 도쿄대측이 조선왕조실록 잔여본 47책을 서울대로 기증키로 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잘못하면 국가간 소송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법문화재 보관 사실에 대해, 큰 부담을 안게 된 도쿄대측이 고심 끝에 내어놓은 교묘한 해결방안이었다.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세종옛돌박물관은 지난 2001년 일본 미야기현

8) 혜문스님, <조선왕조실록 환수과정을 통해서 본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 협상의 과제 및 대응 방안> 위의 책, 79~90쪽

에 사는 한 개인수집가와의 교섭을 통해 문인석과 무인석을 비롯한 석조유물 70점을 환수받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역시 일본의 개인 소장가와의 마음을 연 대화와 교섭과정을 통해 추사의 유묵과 관련자료들을 기증받은 과천문화원의 경우도 눈길을 끈다. 2006년 과천시로 기증된 수천 점이나 되는 기증유물 가운데는 추사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중국 청대의 귀중한 문헌과 일본 근대사 관련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천시가 이천향교 오층석탑의 반환운동을 준비함에 있어, 각각 경우는 다르지만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활동이나 세종옛돌박물관, 과천문화원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문화재 반환운동에 따른 문제점

재일 불법문화재를 보는 한일 두 나라의 시각은 정부나 국민이 모두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에 반입된 문화재는 모두 불법이 아닌 정당한 경위로 일본에 소장된 것'[9]이라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쪽은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분명한데 상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잡아떼는 격이다.

9) 하야시 요코,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위의 책, 59쪽

유네스코는 1970년에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가입한 이 국제협약에 일본은 30년도 더 지난 2003년 12월에 가서야 가입하였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겉으로는 아닌 체해도 어딘가 떳떳치 못한 속내를 드러낸 셈인데, 30년이나 협약 가입을 미루었던 이유 중에는 재일 한국문화재 문제도 관련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국제협약 가입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특히 한국에 대한 문화재 반환문제는 징병, 징용 같은 강제노동이나 위안부, 영토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한일협정 체결과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려깊지 못했던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분 좋은 핑계거리를 선물로 얻게 된 반면, 우리 정부는 정식 외교루트를 통한 반환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꿀먹은 벙어리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편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소장가와 학자 등 소수를 제외하면, 일본 국내에 엄청난 양의 한국 문화재가 존재하고, 그것들 중 상당수가 약탈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번 <한일 불법문화재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하야시 교수조차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불과 2, 3년 전 한국인 교수에게서 '일본이 조선의 미술품들을 약탈해 갔다'는 말을 듣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놀라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에는 30만 점이 넘는 한국문화재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소장자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재 뿐만 아닌 문화재의 90%가 개인 수중에 있고, 개인 소장자들은 대부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 소유의 문화재가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야시 교수는 먼저 미술품 공개로 인해 불이익이 더 많은 일본의 세제를 비롯한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손꼽았다. 또 일본인 특유의 관습을 이유의 하나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일본에는 '눈때 손때'를 싫어하는 관습이 있어서 옛날부터 귀중한 물건일수록 많은 사람의 눈길에 닿거나 손때를 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귀중한 것일수록 감추어 두고 공개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10]

10) 하야시 요코, 위의 책 54~56쪽

하야시 교수는 양국 국민의 의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양 국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이 낮고, 또 사실

관계에 대한 인식결여 때문에 다른 한일 역사문제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11]고 분석했다. 하야시 교수의 말처럼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정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라면 무조건 일본이 부당하게 반출, 또는 약탈해 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화재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11) 하야시 요코, 위의 책 43쪽

근년에 와서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문화재 도난(절도)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그 대부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마다 어차피 불법으로 약탈해간 것을 되찾아 왔으니 나쁠게 없다는 정서가 지배했고, 불법을 용인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소장자와 연구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12] 일단 도난당하고 나면 찾을 길이 없으니 일본의 소장자들이 소장품의 공개를 더욱 기피하게 되고, 갈수록 꽁꽁 숨어버려 한국문화재에 대한 소재파악 조차 어렵게 되고 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12) 정우택, 위의 책 126쪽

VI. 맺는말

이천향교 오층석탑은 지금 도쿄(東京都 港區) 오쿠라호텔 곁에 있는 오쿠라슈코칸 정원 한 구석에 놓여 있으며, 근처에는 평양에서 가져간 팔각오층석탑도 함께 있다. 오쿠라호텔은 제국호텔, 뉴오타니호텔과 더불어 소위 어삼가(御三家)라고 해서 일본 최고의 일류호텔로 손꼽는 곳이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을 비롯한 슈코칸의 유물들에 관한 소유는 재단법인 오쿠라문화재단(大倉文化財團)이 갖고 있다.

향교석탑을 되찾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짚어보았듯, 부도덕한 일본 정부나 무기력하기만한 우리 정부 쪽은 기대할 것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 불법문화재 정책포럼에서도 정부 쪽은 가능하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민간 차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양 국 국민들 사이에는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의식의 차이가 장애물로 가로놓여 있다. 서로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벌어진 간격을 좁히고, 전정한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회복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향교석탑의 반환운동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자세로 임하는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상대가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고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쪽이 가만히 있으면 향교석탑은 슈코칸의 소유물이지만, 강탈당한 것이니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도쿄 한구석에 있다고 해도 우리 것이 된다. 우리 세대가 반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고, 또 다음 세대가 계승한다는 신념으로 반환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을 되찾아 오는 일은 민족의 정기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도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리고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강탈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당하게 반환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불법문화재 환수문제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설봉문화, 제37호, 2007>

사라진 문화유산들

Ⅰ. 글머리에

이천군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이 자리잡았던 곳으로 1천 5백년이 넘는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고구려 이전에는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백제의 소읍이 위치했으리라 추정되며, 더 거슬러 올라간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의 여러 부족국가중 노람국(奴籃國)과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두 개의 소국이 이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둔면 지석리의 지석묘와 도봉리의 지석묘군, 백사면 현방리의 지석묘군은 이 지방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시대배경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이천문화원에서는 지난해인 92년 가을부터 해강도자미술관 학예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신둔면 지역 일대의 선사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94년 초까지를 목표로 지금도 진행중인 이 지표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지석묘로 추정되고 있는 유적만 해도 2백기가 훨씬 넘어서, 원적산 자락에 위치한 신둔면과 백사면지역 일대가 대규모의 지석묘를 비롯한 선사유적지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조사는 당초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으로 존재가 알려진 지석리 지석묘에서 착안하였다. 지석묘가 이미 알려진 바 대로 수 백 또는 수 천명의 부족 집단을 거느리는 부족장이나 지배계급의 무덤이라면 지석리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 군락을 이루고 살았다는 추측이 가능해지며, 그렇다면 지석묘만 해도 단 하나의 유적만 남아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진다. 더구나 지석리에서 현방리에 이르는 지역은 북쪽을 원적산이 병풍처럼 가로막아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이어지고 있어 선사시대의 주거지역으로 적당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몇년전 국립중앙박물관 조사팀이 내방했을때 필자의 이런 생각을 말했더니 도봉리와 현방리의 지석묘군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천군의 새로운 선사유적지가 빛을 보게 되었다. 지금의 조사가 백사면지역까지 일단 마무리되면 우리 고장 선사시대 연구에 보다 확실한 근거와 증빙자료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II. 사라진 文化遺産들

필자가 이 원고의 내용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형체가 보존되어 잘 알려진 문화재가 아니라 사라진 문화재들에 관한 것이다.

오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고려 때 현(縣)이었던 이천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인구가 불어나서 세종 28년(서기 1444)에 도호부로 승격이 되는

데, 한말에 이르러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천군이 되기까지 계속 도호부로 존속되어 기내에서는 규모가 큰 고을축에 들었다. 그런데도 흔한 관아의 부속건물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은 수차례 전란을 거치는 동안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을 뜻한다.

이천은 한반도의 심장부에 자리잡아 사통팔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평화시 보다는 전쟁시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했다.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태종무열왕이 군대를 이끌고 주둔했던 곳이 이천의 남천정(南川停)이었고, 후삼국이 패권을 다투던 고려 초기에도 태조 왕건의 군대가 이 고장에 주둔했던 기록이 보인다. 임진왜란 시에는 충주전투에서 전사한 신립(申砬) 장군의 상여가 이천을 지나가는 기치미 고개의 전설에서 역시 전란의 흔적을 보게 된다.

한말 의병항쟁기에 들어서면서 이천은 다시 의병활동의 중심무대가 되었다. 맨 처음 을미의병(1895~1896) 당시 김하락(金河洛)을 중심으로 한 우국지사들이 이천으로 모여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결성함으로써 경기의병의 중심지가 된다. 그 후 정미의병(1907)시에는 김봉기(金鳳基)대장을 중심으로 임형순(任亨淳), 정용대(鄭用大), 신창현(申昌鉉)등의 의병부대가 원적산을 무대로 활발한 의병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미의병은 이미 향맥 창간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군의 철저하고 악랄한 보복을 받게된다. 일본군들은 가는 곳마다 먼가에 불을 질렀으니 당시 이천군수가 관찰사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천군 전체의 불타버린 민가가 930호에 달하고, 이천읍에서만 483호의 민가가 일본군의 만행으로 불에 타버려 이때 이천읍의 절반이 불타고 말았다고 한다.

전략상 요충지라는 개념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여서, 6.25 전란시에도 이천읍은 매우 심하게 파괴되어 그나마 남아있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천향교가 거의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망현산 기슭에 처음부터 자리잡아 시가지

와는 격리되어 있었던 탓으로 생각된다.

1. 利川 官衙

역대 이천도호부사가 기거하면서 공무를 보았던 이천 관아는 지금의 이천경찰서와 이천읍사무소 일대에 있었다. 광무(光武) 3년에 나온 이천읍지를 보면 대강의 건물 규모와 위치를 알 수 있다. 우선 객사(客舍)가 8간으로 별관(行宮) 서쪽가에 있고, 아사(衙舍)가 22간으로 동쪽은 들이며 서쪽은 창고(東野西倉)라고 나와있다. 토포청(討捕廳)은 아사 뒤에 있고, 작청(作廳)은 아사 외문 우측에 있으며, 사령청(使令廳)은 아사 내문 우측에 있다고 했다. 노방청(奴房廳)은 아사 내문 좌측에 있고 형방청(刑房廳)은 아사 우측에 있는데 새로 지었다고 나와 있다.

또 역대의 군왕들이 여주 영릉을 참배하는 길에 쉬어가는 곳으로 이천행궁(利川行宮)이 있었는데 별관 방 2간, 대청 10간, 월방 7간의 규모로 서상옥(徐相鈺) 부사(1870~1872)시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천관아는 한말 정미의병 항쟁기에 일본군이 접수하여 수비대 본부로 사용했으니, 이때 쫓겨난 이천군수가 민가에서 공무를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왜정때는 헌병분견소와 경찰서로 사용했으며, 해방이후 이천경찰서 청사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지금의 이천등기소 자리에는 높다란 문루가 있어서 일제강점기 초까지도 건재했던 모습이 사진자료를 통해 남아있다. 이 문루의 기둥을 비롯한 목재들을 뜯어다가 영월암 대웅전을 지었다고 하니 영월암 대웅전에서 사라진 이천관아의 편린을 보는 셈이다.

관고리(官庫里)는 옛 명칭이 관후리(官後里)인데 관가 뒤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며, 창전리(倉前里)는 관아에 속한 창고 앞 마을이란 뜻이다.

2. 壇과 廟

읍지(邑誌)에 보면 사직단(社稷壇)은 <在府西四里 雪峰山 東麓>이라 했으니 지금의 이천읍 증일리쪽 설봉산 자락에 위치했을 것이다. 社는 토지신, 稷는 곡물신을 지칭하며, 사직단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고을마다 두어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도 이곳에서 올렸다. 나라에서는 태조 3년(1394)에 지금의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내에 사직단을 건립하였고, 사직서(社稷署)란 관청을 두어 종5품관인 서령이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천고을에 가뭄이 들면 설봉산에서 기우제를 올렸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사직단에서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오음산(五音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성황단(城隍壇)은 <在府西一里許 鄕校外紅門右邊>에 있다고 했으니 향교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역시 관아에서 주관하여 성황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이었다.

여단(厲壇)은 <在府北五里 望峴山北麓>이라 하였으니 향교에서 동북쪽으로 얼마간 떨어진 망현산 기슭에 있었을 것이다. 객귀, 영산, 몽달신, 역신, 호구신 등 잡신들을 망라하여 여신(厲神)이라고 하였다. 주로 억울하게 죽은 원한이 맺혀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면서 인간들을 해친다는 객귀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

3. 倉庫

다음은 관아에 속한 각종 창고에 관한 기록이다. 사창좌기청(司倉坐起廳)이 3간인데 아사(衙舍) 동쪽에 있었으며 이에 속한 창고가 좌우로 하나씩 있었다. 좌고(左庫)는 30간으로 <天地玄黃間庫>라 했으니 네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우고(右庫)역시 30간으로 宇宙洪荒 네개의 칸으로 나누어졌다. 사창(司倉)은 사고리(司庫里)란 지

명으로 유추해 볼 때 지금의 시외버스 터미날 동쪽 동부파출소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관청좌기청(官廳坐起廳)이 또한 3간으로 객사 앞에 있었는데, 여기에 딸린 庫는 10간으로 <三隅絶造>라고 하였으니 3개의 건물을 꺽어서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청좌기청은 관아의 문서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기관이었으리라 여겨지며 사창좌기청은 창고를 관리하는 이를테면 지금의 관리사무소격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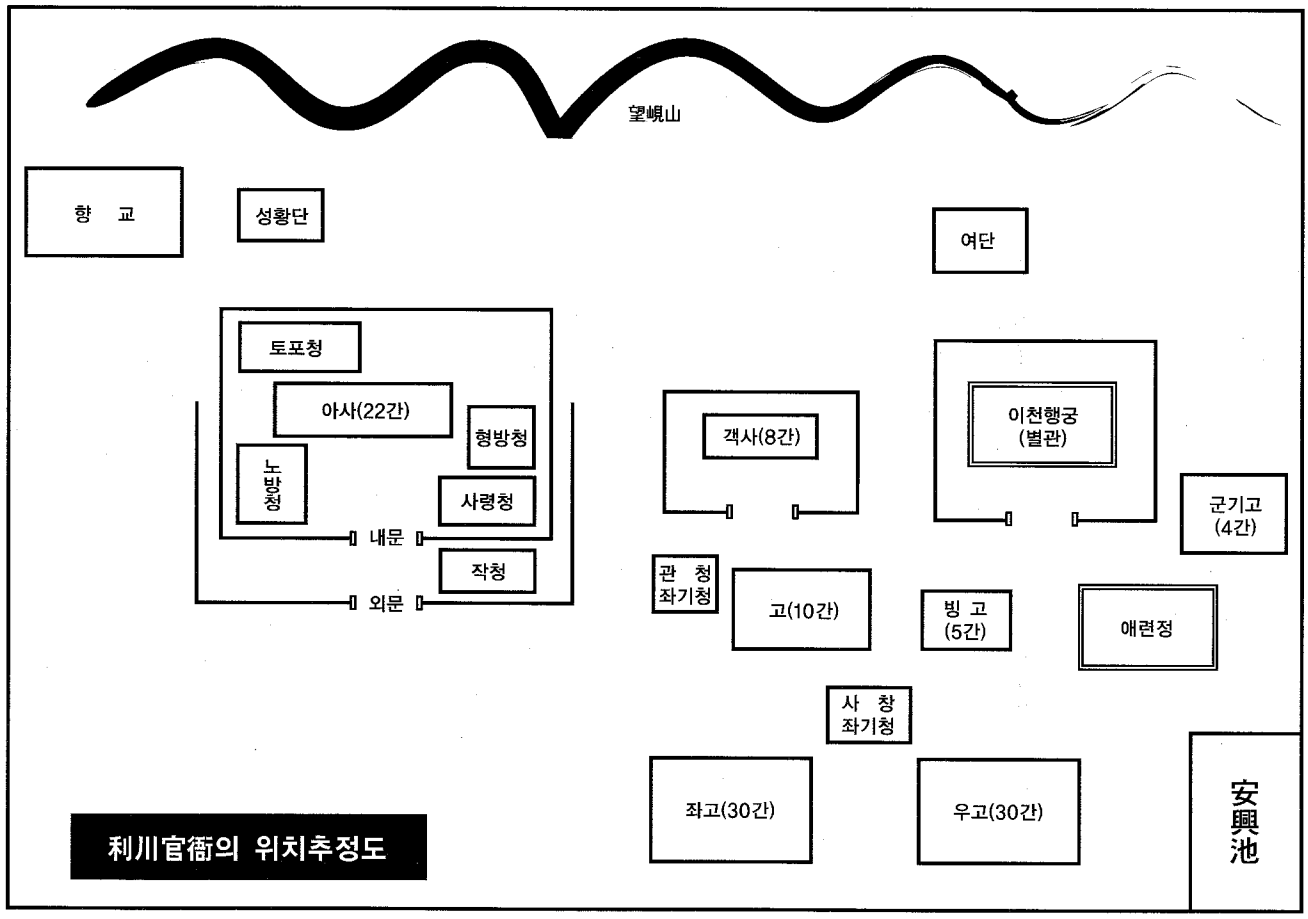
군기고(軍器庫)가 4간으로 별관 우측에 있었으니 글자 그대로 무기와 병참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이며, 빙고(氷庫)가 5간으로 사창(司倉) 북쪽에 있다고 했다.

강창(江倉)은 4간으로 각종 납세물자와 봉물등을 쌓아두었다가 포구로 보내는 곳이었다. 강창(江倉)의 위치는 <在府東三十里 驪州古川寧縣>이라 했으니 옛 천령현의 땅이면서 이포나루가 가까운 지점인, 부발읍이나 백사면에서 가까운 여주군 흥천면의 복하천변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다.

4. 驛院

오천역(五川驛)이 <在府西二十里 麻田面>이라 했으니 지금의 마장면 오천리에 있었다. 오천역에 속한 마필로는 大馬 2필, 騎馬 3필, 卜馬 5필이 있었고, 역리가 34인에 노비가 35인이 있어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아천역(牙川驛)은 <在府北六里 新洞面>에 있다고 했으니 지금의 이천읍 송정리를 말한다. 아천역에는 大馬 1필, 騎馬 3필, 卜馬 2필이 있었고 역리 6인에 노비 6인이 있었다.

고척참(高尺站)은 <在府西二十里 屯知山面 廣峴店>이라 했는데 지금의 신둔면 용면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대포참(大浦站)은 <在邑內 紅門外>라 하여 이천읍내에 있었고, 소사참(素沙站)은 <在府東二十五里 鉢山面 鷹岩里>라 했으니 부발면 응암리의 파발막이란 지명으로 남아있다.


望峴山
향 교
성황단
여단
토포청
아사(22간)
형방청
노방청
사령청
내문
작청
외문
객사(8간)
이천행궁(별관)
군기고(4간)
관청 좌기청
고(10간)
빙고(5간)
애련정
사창 좌기청
좌고(30간)
우고(30간)
安興池
利川官衙의 위치추정도

5. 雪峰書院

이천읍지 단묘조에 보면 설봉서원(雪峰書院)은 처음에는 삼현사(三賢祠)라 하여 <嘉靖甲子歲 府使鄭礪 設立 于府東安興池上 萬曆壬辰移建于雪峰山下 府西二里許遂 號雪峰書院 春秋享祠>라고 기록되어 있어 처음 명칭을 삼현사라 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19년(1564) 안흥지 윗쪽에 부사 정현(鄭礪)이 건립하였고, 성종 25년(1592)에 설봉산 아래 지금의 현충탑이 서있는 자리로 이전하고 이때부터 설봉서원(雪峰書院)이라 이름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설봉서원의 명칭이 처음에는 삼현사라 불리웠던 것은 徐熙・李寬義・金安國 세사람을 제향했던 탓이다. 서희 선생은 이미 잘알려진 것처럼 고려 성종때 명신으로 거란의 대군이 침입하여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하여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군을 물리친 우리 고장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관의는 조선 성종때 인물로 학행이 널리 소문나서 당대의 명신들과 교유했으며, 임금이 친히 불러다가 강론을 청해 들은 바 있는 이천인이었다.

모재 김안국은 이천인은 아니지만 기묘사화로 이천 줏골(부발읍 죽당리로 추정)에 내려와 9년동안 살면서 농장을 직접 경영하였고, 백사면 도립리를 드나들면서 괴정(槐亭)6현의 한사람이 되었던 이천과는 인연이 깊은 인물이었다. 읍지에 나오는 설봉서원의 규모는 사우 3간에 강당이 4간이었다. 설봉서원은 이름난 사액서원이 아니었기에 한말 대원군 집정시 서원철폐령이 내려지자 헐리우게 되었고, 삼현의 위패를 묻은 커다란 봉분을 대신 만들어 놓았던 탓에 '말무덤'이라 불리워 왔다. 70년대 초 그 자리에 현충탑이 들어서고 한구석에 유허비를 세워놓았으며, 서원지 입구에 윗부분이 동강난채 없어진 하마비(下馬碑) 하나가 유일한 유물로 남아있다.

이천의 서원으로는 설봉서원 외에도 백사면 현방리 공원일대에 세워졌던 현암서원(玄岩書院)이 있었다. 현암서원은 영안부원군 김조순(金

祖淳)을 제향했으며 순조 33년(1833)에 세워졌으나 역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

6. 愛蓮亭

애련정(愛蓮亭)은 지난 <鄕脈> 제5호에서도 자세히 소개했던 것처럼 <在別館東庭>이라고 했으니 대략 지금의 안흥지 북쪽으로 연못이 잘 바라보이는 위치에 세워졌던 정자였다. 任元濬이 지은 애련정기에 李世瑤가 애련정을 처음 세웠다고 했으니, 건립연대는 이세보가 이천부사로 부임해온 성종 5년(1474)에서 1~2년 사이로 추정된다.

애련정은 우리 고장에서는 드물게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당대의 손꼽히는 시인묵객들이 다투어 애련정의 경치를 칭송하는 글을 남긴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愛蓮'이란 당호를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申叔舟가 지었으며 애련정기를 지은 任元濬 또한 당대의 문장가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다. 애련정을 주제로한 시문은 성종임금의 형으로 시를 잘지었던 月山大君 李婷을 비롯하여 역시 대문장인 徐居正・曺偉・姜景敍의 글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고, 후대의 인물로는 숙종과 영조조에 대사헌을 지낸 金鎭商의 시문이 남아있다.

또 중종・숙종・영조・정조 네 임금이 여주 능행길에 이천행궁에서 유하는데 애련정에 올라 경치를 감상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전해오고 있다. 특히 정조실록에는 정조임금이 이천 행궁에서 당시 경기관찰사와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행궁 뜰가에 있는 정자가 그 애련정을 말함인가?"
"애련이라고 칭함은 그 유래가 오래되어 국초부터 그렇게 전해오고 있읍니다."
"풍월정집에 있는 애련의 글이 이 애련정을 두고 말함인가?"

"그러 하옵니다."

이 군신간의 대화내용을 보면 애련정이 세워진지 3백여 년이 지난 뒤에 일인데도 정조가 애련정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고, 월산대군이 지은시가 있다는 것과 그 내용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애련정의 성가가 임금에게까지 잘 알려졌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애련정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정조임금대인 1,700년대 후반까지 뚜렷하게 건재하였으므로 이보다는 연대가 상당기간이 지난 한말 혼란기로 여겨진다.

이천의 명소였던 애련정을 복원하는 일이 꼭 필요하지만 당장은 힘들겠기에 우선은 안흥지 곁에 아담한 애련정 시비라도 건립하여 이를 기념하였으면 좋겠다.

7. 陰竹鄕校

음죽향교는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현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다고 했으니 지금의 장호원읍 선읍리 마을 서북편 산기슭에 있었다. 태종 세종조의 문신인 문정공(文定公) 鄭以吾가 지은 향교기에 保安 林穆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무신년 8월 12일에 시작하여 그해 9월 그믐에 완성했다고 했으니 세종 10년(서기 1428)으로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향교기에 보이는 건물규모는 대성전 3간, 동서무 각각 3간에 문루가 3간이었다. 광무 3년에(1899)에 펴낸 음죽읍지에도 향교가 있다고 나와있어 이때까지 존속되었던 음죽향교는, 그후 한일 합방과 함께 음죽군이 이천군으로 병합되면서 돌보는 이가 없어 무너져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8. 竹南樓

동국여지승람에 객사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역시 鄭以吾가 지은 기에 음죽향교를 세운 현감 林穆이 기유년에 정자세운 일을 감사 李明德에게 보고했다고 했으니 죽남루가 세워진 것은 향교 건립 이듬해인 세종11년(1429년)이 된다. 그런데 한말의 읍지 누정조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 이 시절에는 이미 자취가 없어 진 것으로 보인다. 누각의 규모와 경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기록이 없고 다만 記에 '조정에 청하여 놀고 있는 사람들을 역사시켜 공해 동편에 다가 누각 몇칸을 일으켰는데, 등마루와 서까래를 높게 하여 바라보는 것을 굴곡있게 하고 단청은 얇게하여 검소하게 하였다.' 고 하는 구절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다.

9. 陰竹官衙와 부속건물

장호원읍 선읍리 읍내는 적어도 조선조 5백여 년 간의 음죽현(陰竹縣) 읍치가 있던 곳이어서 당연히 관아와 다른 부속건물들이 있었을 터이나 음죽관아에 대한 기록은 읍지에도 보이지 않아 규모나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읍지에 나오는 현내지도를 보면 선읍리 일대에 관아와 객사 등의 건물표시가 그려져 있다. 부속건물로 창고는 모두 56간이며, 단묘로는 사직단이 관문 서쪽 2리에, 여제단(여단)이 관문에서 북으로 3리 되는 거리에 있다고 나와있다.

그밖에 고적조를 보면 <長海院有石塔>이라 하여 석탑이 있다고 하였고, 현내 지도에도 탑그림이 들어있어 규모있고 이름이 알려진 석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노탑리 탑거리(塔村)가 이 석탑의 존재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이름만 남아있을뿐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또 교량조를 보면 남면 장해원에 석교(石橋)가 있는데 길이가 21척 폭이 3척으로 관문 남쪽으로 15리 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 지금의 청미천을 가로질러 충청북도와 연결된 돌다리가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鄕脈, 1993. 12~1995. 5>

구룡암(九龍巖)을 찾아서

Ⅰ. 契의 연원과 종류

계(契)란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으로, 우리 사회의 특징적인 관습이 반영된 민간자치의 협동조직이다. 보통 같은 지역이나 서로 관련있는 사람들끼리 일정한 목적을 갖고 모여서, 정해진 액수의 돈이나 곡식, 피륙같은 물건을 추렴하여 이를 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서로 나누어 갖기도 했다.

계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을 만큼 매우 다양하다. 첫째 생산·식리·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모임으로 농계(農契)·보계(洑契)·식리계·구우계(購牛契) 등이 있고, 둘째 동리의 공공비용 마련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모임으로 동계(洞契)·보안계(保安契)가 있다. 셋째 계원들의 복리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혼상계(婚喪契)·혼구계(婚具契) 등이 있다. 넷째로는

조상의 제사, 혹은 부락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모임으로 종계(宗契)·문중계·동제계가 있다. 다섯째 자제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계(學契)·서당계, 여섯째 계원의 친목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시계(詩契)·문우계(文友契)·동갑계·유산계(遊山契) 등을 손꼽을 수 있다.[1]

1)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참조

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삼국시대 이전인 원시 공동체에서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보는 설이 있는가 하면, 신라시대나 그 이후 고려 때의 발생설도 있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고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특히 농촌사회의 두레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계모임들이 폭넓게 존재했음을 각종 문헌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동창회나 향우회, 종친회, 청년회 같은 각종 사설 모임들이 크게 성행하는 이유도, 뿌리 깊은 계모임의 전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II. 利川地方의 契

조선시대 후기 이천지방의 대표적인 계모임으로 「가좌동 금송계(可左洞禁松契)」가 있다. 금송계란 동약(洞約)이나 촌계(村契)처럼 면·리를 중심으로 각 계층의 사람들이 마을 근처 임야의 남벌을 단속하고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다.[2]

2) 이천시지 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 제1권 자연과역사, 263~266쪽

이천 소고니면 가좌동(所古尼面可左洞)[3] 금송계는 1838년(헌종4)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금송계사목(禁松契事目)이 잘 보존돼 있어 계를 처음 만들게 된 동기와 계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가좌동 금송계사목은 16장 1책으로, 서문·소지(所志)·완문(完文)·입의(立議)·좌목(座目)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3) 지금의 부발읍 가좌리

계원인 최병옥(崔秉玉)이 쓴 서문은 '소나무가 궁실과 관곽(棺槨) 등의 재료로 용도가 큰 탓에 국초 이래로 함부로 베어내지 못하도록 했으나, 풍속이 날로 각박하여 사람들이 멋대로 나무를 벤 탓에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므로, 이곳 마을 백성 50여 인이 솔선하는 뜻에서 금송계를 조직하여 앞으로 수십년간 나무를 보호하고 가꾼다면 벌거숭이산도 다시 울창해질 것이므로, 계원 모두가 솔선해서 금령을 지키고 행하자'는 내용의 취지문이다.

소지는 당시 지방수령 앞으로 보내는 일종의 허가요청서이다. 우선 가좌동의 유래를 설명하고 이 마을이 옛날에는 소나무 마을이라고 불리울 만큼 소나무가 울창했으나, 근래에 이르러 수원 · 평택 등지의 나무꾼들이 남벌하여 벌거숭이 산이 되었으므로 금송계를 만들게 되었다고 했다. 또 동으로는 효동(孝洞), 서로는 대곡(大谷), 남으로 모곡(茅谷), 북으로는 석정(石井)을 금표(禁標)로 삼아, 번을 바꾸어 가면서 순찰하고 관리하겠으니 지방수령의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완문은 소지에 대한 지방수령의 회답문이다. 금송에 관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금송계에서 청원한대로 범금자(犯禁者)에 대한 처벌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가좌동 금송계와 같은 일종의 공익보호 차원의 계모임을 당시 관청에서도 적극 장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입의는 모두 20개 항목으로 된 일종의 내규이며 행동강령이다. 솔선수범 할 것,계의 창설금으로 각각 2전 씩의 돈을 출자할 것, 금송패(禁松牌)를 가지고 순찰하는 방법, 순찰을 교대하는 방법, 규약을 어기거나 계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벌금 부과에 대한 내용, 봄 가을로 공회(公會)하는 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마지막에는 계원 각자가 봄 가을로 자신의 선산 주변에 소나무 100주를 심어야 한다고 했으니, 소나무를 베지 않고 보호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식목까지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좌목에는 상계 45명, 중계 3명, 하계 3명 등 모두 51명의 계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가좌동 금송계사목은 당시 부락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

인 계모임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세기 초반인 1818년(순조18), 당시 이천에 거주하던 아홉명의 선비들이 남천구로회(南川九老會)란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이 모임 역시 일종의 시계(詩契) 성격을 띤 계모임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구로회의 구성 멤버는 연안 이씨, 창령 성씨, 여산 송씨, 풍천 임씨 등 당시 이천읍을 중심으로 백사면 등 인근지역의 대표적인 향반 출신들이었다. 최연장자가 73세, 최연소자가 52세로 21년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백사면 도립리의 '괴정육현(槐亭六賢)'의 활동이나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구룡계(九龍契)'에서 보듯 당시 선비사회에서 나이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Ⅲ. 九龍巖이 생기게 된 내력

정조 을묘년(서기 1795) 봄이었다. 이천 땅을 거쳐 영남으로 가던 아홉 명의 선비가 길가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 잠시 아픈 다리를 쉬어가게 되었다. 이때의 일이 연유가 되어 탄생한 구룡계(九龍契)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넘도록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계모임이 후손들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라 하겠다.

조선시대 후기에 한양에서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 중 하나가 광주에서 이천의 아천역(阿川驛)[4]을 거쳐 부발읍 응암리(파발막)로 해서 장호원읍 이황리를 지나가는 길이다. 부발읍에서 장호원읍까지는 대략 지금의 3번 국도와 비슷한 노정인 셈이다.

4) 지금의 이천시 송정동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후기의 조선왕조는 전국의 대로를 9개로 나누어 관리했다. 그중 제4로가 이천시 관내를 지나가는 길이었고, 이 도로

는 서울 → 송파 → 광주 → 경안 → 곤지암 → 이천 → 음죽 → 장호원 → 목계 → 박달재 → 충주를 거쳐 조령을 넘어 부산까지 연결되었다.[5]

5) 『利川市誌』 제1권 자연과 역사, 161쪽

정조 19년(서기1795) 춘삼월 어느날, 성균관에서 동문수학 중이던 아홉명의 선비가 단출한 행장으로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아홉 선비의 당시 거주지역을 보면 안동이 3명, 영주(영천) 3명, 예천(예안) 3명으로, 아홉명 모두가 경상북도 내륙지방에 서로 이웃한 고을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제일 연장자인 이주정(李周禎)이 영조 26년 생으로 당시 나이가 46세, 제일 나이가 어린 이가순(李家淳)은 영조44년(서기1768)생으로 28세였으니 18년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들 아홉은 모두 초시(初試)인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동문수학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고향도 서로 이웃한 처지여서 자부심과 함께 동류의식이 강했을 것이다.

일행이 응암리 파발막을 지나 문드러니 고개 마루에 올랐는데 지금의 장호원읍 이황리 설성산 북쪽이다. 길섶에 넓고 평평하게 생긴 바위가 있어 모두 아픈 다리를 쉬어가게 되었다. 『구룡암세록(九龍巖世錄)』에 보면 아홉 선비중 막내인 이가순이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 바위는 嶺西의 雪城[6] 梨花驛의 북쪽 옆에 있으니 지난 정조 19년 을묘 3월, 泮宮[7] 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홉 사람의 선비가 단출한 행장으로 함께 이 바위에 올랐다. 鐵城 李知縣[8] 어른께서 九龍이라 이름하심에 여럿이 모두 좋다고 했다. 그 뒤에 과거에 오른 이가 이미 세 사람인데 여기에 이어 또 장차 몇 사람이나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9]

6) 雪城 – 陰竹縣의 옛날 다른 이름
7) 泮宮 – 성균관의 별칭
8) 知縣은 현감이니 곧 제일 연장자인 李周禎을 말함.
9) 九龍巖 同遊錄, 『九龍巖 世錄』1997,55쪽

아홉 선비중 나이 순서로 제7위인 박시원(朴時源)의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을묘년 봄 성균관에 유학 중이던 아홉 사람이 단출한 행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귀향하는 길에, 술이 거나하여 노래로 우스개 소리로 피곤한 줄도 잊어가며 雪城 땅에 이르렀다. 그 북녘 고개 길 옆에 한 너럭바위가 있어, 일행 아홉 사람이 그 위에 올라 무릎을 모으고 둘러 앉아서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의 이 놀이는 龍池의 一躍[10]이라 뒷날 마땅히 함께 燒尾宴[11]에 오르게 되면 이 바위에 새기리라 하여 九龍이라 이름하게 되었다.[12]

10) 입신출세를 위한 발돋움
11) 燒尾宴-과거에 급제하면 베푸는 잔치
12) 『九龍巖世錄』 57쪽

그 뒤에 이주정과 자신(박시원) · 정약수(丁若琇) · 이가순 4인이 잇달아 대과 급제함으로써 구룡암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후 바위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바위를 가리키고, 입신양명을 바라는 선비들은 바위 위에 올라 과거 급제를 빌게 되었노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구룡암은 서기 1795년 봄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바위 위에 올랐던 아홉 선비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 후 그들 중 네 사람이 잇달아 대과급제를 하면서 영험있는 바위로 소문이 나서, 과거에 뜻이 있는 선비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일부러 찾아가서 장원급제의 소망을 비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화에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보태지게 된다. 그래서 후손들의 기문을 보면, 아홉 선비가 구룡암에 오르니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느니, 또는 농부 하나가 달려와서 바위를 향해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소인이 어제밤 이 바위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기에 특별히 와서 절을 올립니다' 고 했다느니 하는 설화같은 내용들을 찾아 볼 수 있다.

Ⅳ. 九龍契의 성립과 변천

앞의 글에서도 지적하였듯 구룡계를 처음 탄생시킨 아홉 선비들은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 중이던 성균관 유생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 안동 · 예천이 당시 이들의 고향이었기에 같은 지방색에 따른 동류의식도 남달랐을 것이다.

아홉명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이주정(李周禎)은 영조 32년생으로 당시 나이가 46세, 본관은 고성이며 안동사람이다. 구룡암 회합이 있던 해인 1795년에 제일 먼저 문과급제하여 결성군수, 사헌부지평, 개성부 소윤을 지냈다. 후손들 중에는 손자인 정덕(庭德)이 돈령부도정을 지냈다.

제2위인 이귀성(李龜星)은 본관이 진성으로 퇴계의 후손이며, 영조 32년 생으로 당시 나이가 40세, 안동사람이다. 사마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후릉참봉, 의금부도사, 종묘서직장, 금부도사, 하양 · 지례현감, 풍기군수, 첨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여 관력이 아홉 사람 가운데 가장 화려하다.

제3위 유회문(柳晦文)은 본관이 전주, 당시 나이가 38세로 안동사람이다. 사마시에 합격하고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아들 치명(致明)이 문과급제하여 병조참판을 지냈고, 손 지호(止鎬)가 산음군수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제4위인 정약수(丁若琇)의 본관은 금성, 35세로 영주사람이다. 서기 1798년(정조 22) 문과급제하여 벼슬은 전적을 지냈다. 3남 집교(集敎) 또한 문과급제하고 형조참의를 지냈다.

제5위인 권위(權褘)는 본관이 안동, 34세로 예천사람이다. 제6위 전일흠(全一欽)은 본관이 옥천, 영주사람이며 나이는 권위와 동갑이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관력은 나와있지 않다.

제7위 박시원(朴時源)은 본관이 반남, 당시 32세로 영천사람이었다. 정약수와 같은 해인 1798년 문과급제하여 사간원 사간을 지냈다. 손 명수(明壽)가 역시 문과급제, 사간원 정언이다.

제8위 권보(權補)의 본관은 안동, 31세로 예천사람이다.

막내인 이가순(李家淳)은 당시 나이가 28세로 가장 연장자인 이주정과는 18년이나 나이차가 있다. 본관은 진성, 예안 사람이다. 1813년(순조 13) 문과급제하여 응교를 지냈고, 2남 휘준(彙濬) 역시 문과급제하여 대사성, 손 만규(晩煃)가 교리, 만수(晩壽)가 승지를 지냈다.

구룡계(九龍契)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구룡암에서의 첫 회동 이후 100년이 지난 1895년(고종 32)에 지은 후손 이만경(李晩擎-이귀성의 증손)의 기문에도 '契會의 立約은 어느 집에서 비롯되었으며,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다 좋은 사이를 더욱 도탑게 하고 대대로 우의를 이어 서로 친하게 하려는 뜻에서 였다'[13]고 했다.

13) 『九龍巖世錄』 92쪽

성 명	생몰연대	본관	호	관 직
李周禎	1750(영조26) ~?	固城	大溪	사마시, 문과급제(1795.정조19) 결성군수, 사헌부지평, 개성부소윤
李龜星	1756(영조32) ~?	眞城	俗隱	사마시, 후릉참봉, 의금부도사, 하양, 지례현감, 풍기군수, 첨지중추부사
柳晦文	1758(영조34) ~?	全州	寒坪	사마시(1783,정조7)
丁若琇	1761(영조37) ~ 1816전적	錦城	?	문과급제(1798,정조22)
權 禕	1762(영조38) ~ 1835	安東	石窩	사마시
全一欽	1762(영조38) ~ 1789	沃川	星峰	사마시(1783,정조7)
朴時源	1764(영조40) ~ 1842	潘南	逸圃	사마시(1789),문과급제(1789) 사간원사간
權 補	1765(영조41) ~ 1831	安東	星圃	사마시(1789)
李家淳	1768(영조44) ~ 1844	眞城	霞溪	사마시, 문과급제(1813,순조13) 응교.

아홉 선비중 막내인 이가순이 「구룡암동유록(九龍巖同遊錄)」을 지은 시기는 1806년(순조 6)인데, 이 속에 박시원의 기문(1816년), 권위의 기문(1824년)이 보인다. 구룡계라는 명칭은 『구룡암세록』 가운데 「한천서원이설구룡계회운(寒泉書院移設九龍契會韻)」에 처음 나타난다.[14] 여기에는 박시원과 이가순을 비롯해서 권병헌(權秉憲-권위의 장남), 전종윤(全宗奫-전일흠의 장남), 박종교(朴宗喬-박시원의 장남), 이응수(李應秀-이주정의 3남), 이정덕(李庭德-이주정의 손, 응수의 장남) 등의 이름이 보이고 있어 아홉 가문의 조손 3대가 시회에 함께 어울렸음을 알 수 있다.

14) 위의 책, 64~84쪽

구룡계 시회가 열렸던 시기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박시원과 이가순이 생존해 활동하던 시기가 분명함으로 1810~1830년대로 추정된다.

1847년(헌종 13)에 지은 이응수의 기문을 보면 구룡계의 내력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 契를 계승하여 한결같이 이끌어 간다면 장차 저 바위(구룡암)와 더불어 길이 존속될 것이며, 이는 九家의 후손된 이 다같이 힘써야 할 것'[15]이라고 하여 계의 지속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5) 〈書九龍巖契帖後〉 『구룡암세록』 90쪽

한편 이만경의 기문(1895년)에는 '九家의 후손으로 계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全氏家에서 보내온 遊錄을 받아보고 나서야 잘못되었음을 알아, 아들 中淳에게 모임에 참여토록 하여 허물을 벌도록 했다' 고 하여 구룡암 회동 이후 100년이 흐른 그 무렵에도 여전히 구룡계가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룡계는 이처럼 1795년 구룡암에서의 회동이 출발점이 되어 그 후 아홉 선비들이 각별한 교유를 가져오다가, 자연스러운 대물림으로 후손들이 뒤를 이어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계회로 발전했다고 본다.

V. 九龍巖을 찾아서

후손인 박종후(朴宗厚-박시원의 2남)의 기문을 보면 구룡암 앞에 연못을 파서 단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16] 박종후는 1835년(헌종 1년) 8월 28일 다른 3명의 후손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이틀 후인 8월30일 지금의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었던 이화역(梨花驛)에 도착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과거를 보는 일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16) 〈九龍巖鑿唐時日記〉『九龍巖世錄』 85,86쪽

이화역 부근 민가에서 하루 저녁을 묵으면서 일꾼들을 구한 일행은, 이튿날 아침 일찍 제물을 갖추고 구룡암을 찾아가 고사부터 지낸다. 당시 구룡암은 '흘러내린 토사에 묻히고 해묵은 초목으로 덮혀 거의 그 자리를 찾아 볼 수 없었다'[17]고 했다.

17) 앞의 책, 86쪽

박종후는 인부들을 시켜 바위 언저리의 흙과 뒤엉킨 초목들을 제거하고 그 앞에 연못을 파도록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서는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내심 걱정했으나, 미처 절반도 파기 전에 샘줄기가 솟아올라서 물이 가득 고였고, 충청도며 영남지방으로부터 과거를 보기 위해 지나가던 선비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들 신기하게 여기고 찬탄하기를 마지 않았다고 한다.

구룡암 앞에 연못을 판 이유를 박종후는 '용의 변화란 반드시 물을 가지고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중(契中)에서 벌써 오래 전부터 뜻을 두어 오던 바라고 했다.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한다는 비슷한 이야기가 구룡암에서 그리 멀지않은 청미천 자점보(自點洑)에 얼킨 일화에도 들어 있다. 구룡암은 이처럼 아홉 선비 가문의 유대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상징물이었다. 또 과거급제를 통해 일신과 가문의 영달을 성취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연못은 메워져 없어지고 구룡암의 존재도 점점 잊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

는 격동의 시대가 구룡암의 망각과 시절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잊혀질 뻔 했던 구룡암의 옛이야기가 오늘에 와서 다시 되살아 나게 되었다.

기록에 나타난 구룡암의 소재지는 음죽현(陰竹縣) 이화역(梨花驛)에서 북쪽으로 문갈현(文碣峴) 아래 옛 길 바로 옆이라 했다. 구룡암 찾기에 나선 후손들은 지난 1970년 옛 지명을 토대로 당시 한국일보사로 문의한 결과, 대략 지금의 장호원 이황리 지역일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

이듬해인 1971년 5월, 전일흠의 6세손인 전대하(全大河)씨 등 몇사람이 구룡암을 찾아 현장답사에 나서서 이황리 지역을 탐문조사한 결과,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옛날에는 도로가 '구룡바위' 뒷 편으로 나 있었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다. 문드러니고개를 옛날에는 '문득현(文得峴)'이라고도 했는데, 그 까닭은 영남지방에서 과거보러 가는 선비들이 구룡바위에 올라 쉬어간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사진1〉구룡암 기념비 – 장호원읍 이황리 J·C동산안에 있다

전대하씨 일행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마침내 고개마루 근처 길옆에 있는 현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위는 흙 속에 파묻혀서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초 신작로를 내는데 구룡바위가 고개마루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흙 속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해 12월에 후손들이 다시 인부들을 동원해서 구룡암 찾기에 나섰지만 역시 찾을 수가 없었다.

1972년 8월 23일, 문드러니 고개에서는 마침내 구룡암유지비(九龍巖遺址碑)가 세워져 이날 제막식이 열렸다. 그 옛날 선조들이 맺은 아름다운 우정이, 18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후손들의 손으로 다시 꽃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경충산업도로가 다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기념비는 또 다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구룡계(九龍契)가 다시 나서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교섭을 진행한 끝에, 1995년 10월, 가까운 도로변에 있는 장호원 J · C 동산에 새로운 기념비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장호원 J · C 동산은 문드러니 고개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1km쯤 떨어진 경충산업도로변에 있다. 바로 앞에서 상승대로 가는 진입로가 갈라진다. 원래의 구룡암이 놓여있던 자리는 식당이 들어섰고, 그 앞을 4차선 자동차 도로가 가로 놓여 각종 자동차들만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을 뿐이다.

<설봉문화, 제32호, 2004>



제3장
이천지방의 역로와 교통

여 백

利川地方의 역로(驛路)와 교통

Ⅰ. 역로와 역참(驛站)

중앙과 지방을 비롯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도로망과 하천 · 강을 이용한 수로(水路)의 발달은 오늘날은 물론 과거에도 교통 · 통신을 포함한 지역 상공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수도 서울의 외곽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천과 여주 · 양평 지역은 각각 육상과 수상교통의 요충지였으며, 특히 이천 · 여주 지방의 주생산품인 쌀은 중요한 상업적 자원이었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수여선(水驪線) 철도를 건설한 이유도 이천 · 여주 지방의 쌀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였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비롯한 과거 우리나라의 역로들은 물화의 운송과 교역을 통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행정과 군사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따라서 세곡과 공물수송 등 물화의 운반은 수로나 해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것은 교통수단의 제약으로 한꺼번

에 많은 분량의 육로수송이 힘들었던 당시 실정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었다. 조선시대의 한강을 무대로 활동한 경강(京江)상인들의 예에서 보듯, 근세사회의 상업의 형성과 발달은 서울을 비롯한 조운이 용이한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경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고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해 옛날부터 전국의 중요한 도로는 국가가 이를 직접 관리하였고, 중요한 길목마다 역참(驛站)을 설치하여 공무수행에 따른 편리를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참제도는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본기 소지왕 9년(서기 487)에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유사들에게 명하여 도로를 수리하게 하였다' 고 하여, 5세기 후반, 또는 그 이전부터 역참이 이미 국가에 의해 설치 ·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국가에 있어서 역로의 정비와 확충은 왕권 확립과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도 역로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일신라는 관제의 개편과 함께 역로의 사무를 전담하는 특수기관으로 경도역(京都驛)을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하여 이를 관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참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 였다.

고려 건국이후 역참제의 확립은 지방 행정구역의 정비와 더불어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후삼국시대 이후 흐트러진 역로의 시급한 복구와 개편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성종 때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역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니, 성종 2년(서기 963) 역의 대소에 따라 공수전(公須田) · 관전(館田)등의 역전(驛田)을 지급하도록 하여 역참의 조직과 함께 운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전국 525개의 역을 두고 22개의 역로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국 22개의 역로 중 평구도(平丘道)는 지금의 서울인 남경(南京)과 영월을 연결하는 관로로 모두 30

개의 역을 두었는데, 양평의 오빈(娛賓)·전곡(田谷)·백동(伯冬)등 3개의 역과 여주의 양화역(楊化驛)이 여기에 속했다. 한편 광주도(廣州道)는 광주와 연풍을 연결하는 관로이며 15개의 속역을 두었으니, 이천의 오행(五行)·안리역(安利驛)과 당시는 음죽현 지역이었던 무극역(無極驛)이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과 관계되는 두개의 역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평구도 (남경-영월)**

평구(남경)·봉안(광주)·오빈(양근)·전곡·백동(지평)·유원(원주)·양화(천녕)·가흥(충주)·황강·수산·안음(청풍)·단구·안양·신림(원주)·천남(제천)·연평·온산·정양(영월)·영천·장림(단산)·의풍(영춘)·약수(평창)·신흥·신진(황리)·창락(홍주)·평은·창보(강산)·유동(감천)·도심(봉화)

□ **광주도 (광주-연풍)**

덕풍·경안·장가·안업·남산(광주)·양재(과재)·금령(용구)·좌찬·분행(죽주)·오행·안리(이천)·무극(음죽)·요안(음성)·단월·안부(괴산)

한편 조선은 건국과 함께 왕권강화와 국가체제의 확립을 위해 역로를 재정비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참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당시 실정에 맞게 재조직하였다. 주요도로에는 대략 30리 거리를 두고 역을 설치하였으며, 마필과 역정을 갖추어 공물을 전달하는 외에 공무로 내왕하는 관리들의 숙식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역참에 마련된 마필과 시설을 사용하는 일은 공용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용에 준하는 사용에 이용되기도 했다. 역의 마필을 사용하는 데는 마패(馬牌)가 이용되었으며, 사용자의 신분

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는 마필의 수효가 마패에 그림으로 새겨져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외방으로 뻗는 도로를 그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하여 대로 · 중로 · 소로로 구분하였다.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통행의 길목에는 이정표가 세워졌는데, 도로의 거리는 주척(周尺) 6척을 1보, 360보를 1리, 30리를 1식(息)이라 하였다. 그리고 10리마다 작은 이정표, 30리마다에는 큰 이정표를 세우고 거리와 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5리마다 정자를 세워 오리정(五里亭)이라 이름하고 길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고려조 이래 역에 대한 사무는 병조가 관할하였으니, 각 역참에는 대개 찰방(察訪)을 책임자로 두었고 그 밑에 역승(驛丞)과 역리(驛吏)들을 비롯한 노비 등의 인력을 배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시 경기도에는 영서도(迎曙道) · 도원도(桃源道) · 중림도(重林道) · 양재도(良材道) · 경안도(慶安道) · 평구도(平丘道)등 6개의 관도가 있었다. 이중 병조가 직접 관할한 평구도에 11개의 속역을 두었는데 양평 지역의 오빈 · 백동 · 전곡역이 포함된 것이 고려시대와 동일하다. 또 경안도의 7개 속역 가운데 여주의 양화 · 신진(新津) · 안평(安平)역이, 이천의 아천(阿川)과 오천(吾川)역이, 음죽의 유춘(留春)역이 속해 있었다. 지역과 관계있는 조선시대의 두 관도는 다음과 같다.

□ **평구도**

평구(양주) · 녹양(양주) · 안기(포천) · 심문(영평) · 봉안(양주) · 오빈(양근) · 쌍수(양주) · 백동(지평) · 전곡(지평) · 구곡(양주) · 단천(가평) · 연동(가평)

□ **경안도**

경안(광주) · 덕풍(광주) · 양화(여주) · 신진(여주) · 안평(여주) · 아천(이천) · 오천(이천) · 유춘(음죽)

아울러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는

① 서울-한강-판교점-용인-양지-광암-석원-달천-충주

② 서울-송파강-광주-경안역-곤지암-이천-음죽-장호원-목계-박달재-충주

의 두 갈래 코스가 일반적인 관로였다. 서울에서 판교와 용인 · 양지를 거치는 길은 음죽현의 석원(石院-지금의 이천시 율면 석산리)을 지나는 길이었고, 송파강을 건너 광주 경안읍과 곤지암을 거쳐 이천 · 장호원 · 목계를 지나는 관로가 이천지역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서울-평해 간의 관로는 서울-망우리-왕산탄-평구역-봉안역-고량진-월계-양근-지평-천령현을 거쳐 강원도로 연결되었다.

역과 더불어서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길목에 설치했던 편의시설이 원(院)이었다. 원은 역과 같은 장소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 역과 원을 합하여 역원(驛院)이라 불렀다. 원은 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었던 탓에 대략 30리 거리를 두고 하나씩 설치했으나,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평지에서는 다소 멀고 산악지대에서는 가깝게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원은 전국에 걸쳐 1,310개소가 있었으며 그 중 경기도에는 117개가 있었는데, 지역과 관련된 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여주

초계 · 가노개 · 파양 · 신원 · 복천 · 보통 · 자천 · 진제

□ 이천

잉읍 · 관천

□ 음죽

부민 · 관사 · 장해

□ 양근

월계 · 다락 · 말원 · 초원

□ 지평

지덕원

이들 중 당시 음죽현의 장해원(長海院)은 장호원(長湖院-이천시 장호원읍)으로 음이 변하여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경우이며 서울의 이태원이나 홍제원, 조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는 역과 원외에도 이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참(站)이 있었다. 참은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선조 30년(서기 1597)에 전국적으로 파발망(擺撥網)을 조직하게 되면서 생겨났다. 파발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변경에서 일어나는 군사정세를 시급히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통신제도이며, 기발(騎撥)은 25리마다, 보발(步撥)의 경우는 60리마다 참을 설치하였다. 이천 지역의 경우 발소고척참(撥所高尺站) · 대포참(大浦站) · 소사참(素沙站)이 있었으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의 '파발막'도 같은 유형의 지명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역로와 역참들은 어디까지나 공무수행의 임무를 띤 관리를 위한 시설이었던 탓에, 보부상(褓負商)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관로에 연결된 지름길을 많이 이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길목마다 주막이 있었고, 지금도 '주막거리', '주막들'과 같은 지명으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II. 조운(漕運)

교통이라고 하면 흔히 도로를 이용한 육상교통을 연상하게 되지만, 교통수단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다량의 물화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과 강, 또는 바다길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과 하천이 많은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육상교통로는 주로 역로를 통해 행정 및 군사적인 목적의 공무 수행이 이루어졌고, 세곡과 공물을 비롯한 물화의 운송은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왕조가 수도로 정한 한양은 수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서해안과 한강 하류를 통해 충청남도, 전라 양도와 황해 · 평안도 지방의 물화가 한양으로 운반되고, 한강 상류인 남한강 · 북한강을 통해 충청도 내륙지방과 강원도의 물화가 운송되었다. 경상도의 물화는 육로로 문경새재를 거쳐 충주까지 운반되어 충주에서 다시 남한강 수로로 연결되기도 했다. 따라서 남한강 유역의 중요 거점지역인 여주와 양평은 자연 수상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이천지방은 복하천 · 청미천과 같은 남한강의 지류를 통해 수상교통이 이루어졌다.

수로를 이용한 물화 운반의 가장 중요한 품목은 세곡이었다. 봉건사회의 국가 운영은 세곡에 의한 재정 확보가 기본이었기에, 세곡의 관리와 운송이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좌우할 만큼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는 이미 국가 초기부터 13조창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 조운제(漕運制)를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고려는 12세기 말 무신란을 계기로 국내정세가 동요되면서 여러 제도가 문란해지자 조운제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었으며, 14세기 후반 왜구가 창궐하면서 조운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였다. 그리하여 세곡의 대부분이 육로를 통해 운송되었는데, 이로 인해 운송량이 크게 감소되어 국가재정이 날로 궁핍해졌고, 이것이 고려왕조의 지배력을 약

화시켜 쇠망을 촉진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은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운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다시 수로에 의한 세곡 운송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조선왕조가 큰 강을 끼고 있는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조운이 용이한 수로의 요충지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조운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조창(漕倉)·조선(漕船)·조군(漕軍)을 관장하였다. 조창은 서울에 경창(京倉)을 두고 전국 중요지역에 가흥창(可興倉)을 비롯한 아홉개를 설치했다. 조운에는 강을 이용한 참운(站運)과 바다를 이용하는 해운(海運)이 있는데, 참운은 다시 좌수참·우수참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각 지역을 관할하도록 했다.

〈表〉15세기 조창의 수세구역(참운)

구분		조창명	조창의 수세구역부	속조선수
직납		경 창 (서울)	경기 제읍과 강원도의 화양, 금성, 금화, 평강, 이천, 안협, 철원	
참운	좌수참	가흥창 (충주)	경상도 제읍과 충청도의 충주, 음성, 괴산, 청안, 보은, 단양, 영춘, 제천, 진천, 황간, 영동, 청풍, 연풍, 청산	51척
		흥원창 (원주)	강원도의 원주, 평창, 영월, 정선, 횡성	
	우수참	소양강창 (춘천)	강원도의 춘천, 홍천, 인제, 양구, 낭천	
		금곡포창 (백천)	황해도의 해주, 연안, 풍천, 신천, 장연, 문화, 강령, 옹진, 송화, 은율, 백천	20척
		조읍포창 (강음)	황해도의 강음, 황주, 서흥, 평산, 봉산, 곡산, 수악, 안악, 재령, 신계, 우봉, 토산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사 24》, p.526

<표>에 나타나듯 경창은 경기도 내의 여러 고을과 강원도 북부 일부 지역을 직접 관할하였고, 충주에 설치한 가흥창이 경상도 각 지역과 충청도 내륙지방을 함께 관할하였으니, 가흥창의 모든 물화는 자연 여주·양평을 지나는 남한강 수로를 통해 서울로 운반되었다.

조창에 모여진 세곡의 운반은 국초에는 관선(官船)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간인 선박인 사선(私船)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태종조에 전라도 지방 세곡 7만석을 운반하는데 30%에 해당하는 2만석을 사선이 운반하였다. 태종 14년(서기 1414) 전라도 조선 66척의 침몰사고를 계기로 민간인들에 의한 세곡 운송이 더욱 활기를 띠면서 경강상인(京江商人)들에 의한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한양은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가장 번화한 도시였기에 이곳을 관통하는 한강유역은 그 어느 하천지역보다도 경제성이 높은 곳이었다. 특히 한양 남쪽의 한강을 경강이라고 하여 서강·마포·용산·송파 등지에는 전국의 중요한 물산이 선박에 의해 이 지역으로 운반됨으로써, 경강 연변에는 조선조 초기 이래로 운수업은 물론 선박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선상업이 발달하였다.

경강상인들의 선상활동은 당초에는 세곡운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후 세곡뿐만 아니라 양반 지주들이 지방의 농장에서 거두어 들인 소작료를 운반하는 일도 담당하였으며, 소금·어물·목재·땔감 등 중요한 소비재들에 대한 운송과 거래를 통해 상업적 기반을 다져 나갔던 것이다.

태조 4년(서기 1395) 용산에서 충주 금천(金遷)에 이르는 한강유역의 수로관리를 위해 수로전운소 완호별감(水路轉運所 完護別監) 7개소를 설치하였으니, 충주 연천(淵遷-金遷), 여주의 여강(驪江), 천령의 이포(梨浦), 양근의 사포(蛇浦), 광주의 광진(廣津), 그리고 한강도(漢江度)와 용산진(龍山津)이 그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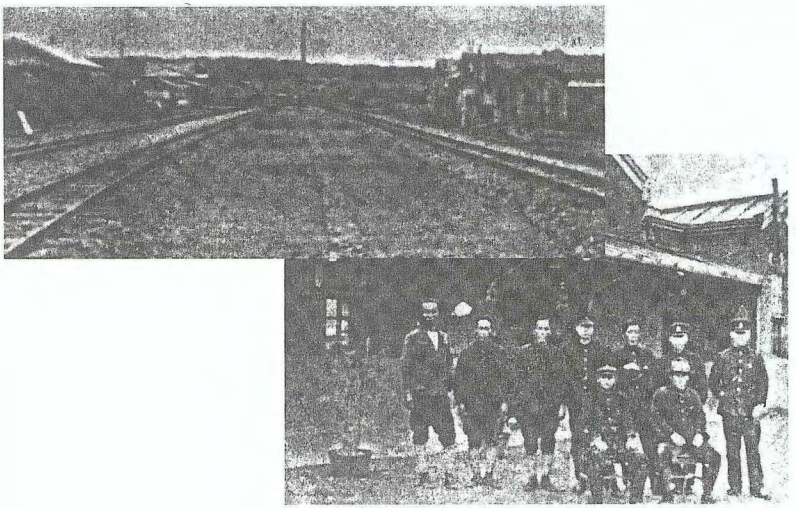
남한강 수로의 중요한 운반물은 충주 가흥창과 원주 흥원창(興原倉)의 세곡이었다. 경상도와 충청도 내륙지방의 세곡을 운송하는 가흥창의

조운선들은 처음에는 금천에서, 뒤에는 가흥에서 출발하여 한강의 물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섬강(蟾江) 하구에 이르러 흥원창의 조선과 합류하게 된다. 다시 북상하여 여주의 여강과 이포, 양근의 대탄(大灘)에서 다시 북한강을 타고 내려온 소양강창(昭陽江倉)의 조운선과 합류하며, 광주의 두미진(斗迷津) 양주의 미음진(美音津), 광진(廣津), 광주의 송파, 과천의 동작진(銅雀津)등을 거쳐서 용산에 있는 강창(江倉)에 이르렀다. 가흥창은 조선 후기까지도 변함없이 운영되었으니 260리에 이르는 이 한강 조운로는 세곡운반을 비롯한 선상업의 중요한 동맥이었다.

여주지역의 중요한 나루로는 이포진(梨浦津) · 양화진(楊花津) · 우만진(又晩津) · 이호진(梨湖津) · 조포진(潮浦津) · 학동진(鶴洞津)등이 있었다. 이중 양화진은 양화역과 함께 역로와 조운로가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여주군지』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양화창(楊花倉)을 설치하고 충청도 북부와 강원도, 경기 동남부 일대의 세곡을 수집 보관하였다가 조운선을 통해 운반했던 탓에, 세종조에 크게 확충하여 선군(船軍) 127명을 두고 선박도 50척이나 있었다고 한다.

양평지역의 주요 나루로는 용진도(龍津渡) · 갈산진(葛山津) · 상심진(上心津) · 월루진(月樓津) · 청탄진(菁灘津) · 수여진(水餘津) · 수입진(水入津) · 액참진(扼站津)등이 있었다.

강을 끼고 있지 않은 이천시 지역의 경우도 세곡의 운반은 역시 하천 지류를 통한 조운을 이용하였다. 『여지도서』 이천도호부편 <창고>조에 보면 강창(江倉)이 있는데 '부에서 북으로 30리, 여주의 옛 천령현에 있다(在府北三十里 驪州古川寧縣)' 고 하여 이포진과 가까운 복하천 하류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구전에 따르면 이천시 북쪽에 하천을 끼고 있는 배증개(梨增浦) 마을이 진상미를 비롯한 세곡을 배에 실어 운반하던 나루가 있던 곳이었다고 한다.



〈사진1〉1930년대의 이천역

Ⅲ. 수여선 철도(水驪線 鐵道)

철도는 육로를 이용한 교통수단 중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수송할 수 있고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근대화 이후 교통과 산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양평군이 우리나라 철도망의 양대 동맥중 하나인 중앙선(中央線)이 관통하고 있어 일제시대부터 철도교통의 요충지인 반면, 현재의 이천시와 여주군은 철도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

그러나 이천 · 여주 지역의 나이가 지긋한 토박이 주민들이라면 누구나가, 지난 날 흰 연기를 내뿜으면서 푸른 들판을 가로지른 협궤선 선로를 따라 오고 가던 수여선 기차의 모습을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수여선(水驪線)은 수원을 기점으로 한 경부선(京釜線) 철도의 지선으로 일본이 식민지 통치와 착취를 위한 목적에서 건설하였지만, 일제시대 후반부터 광복 이후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철도 관할 지역인 용인 · 이천 · 여주의 주민생활은 물론 산업 및 유통에 적잖은 역

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9월 경인선(京仁線) 철도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철도 교통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철도부설에 관한 논의는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군사상의 목적으로 서울-인천, 서울-부산간의 철도부설을 조선정부와 교섭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그후 우리나라는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의 이권을 둘러싼 일본과 미·영·독·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고, 최초의 철도부설권은 미국인과 프랑스인 손에 넘어갔다.

조선정부는 처음에는 외국인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의 빈약한 재정과 무능한 정부의 능력으로는 처음부터 무리였고, 마침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한 일본이 집요한 공작으로 철도부설권을 인수하여 1899년 제물포-노량진간의 경인선이 개통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인철도는 연장길이가 32km였고, 증기기관차 4대, 객차 6량, 화차 28량의 장비를 구비하였다.

그 뒤 1905년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을 보게 되었고, 1906년 용산-신의주간의 경의선(京義線)이, 1910년 평남선(平南線)이, 1914년에는 대전-목포간의 호남선(湖南線)과 서울-원산간의 경원선(京元線)이 개통되었다. 이어서 1928년에는 함경선(咸鏡線)이, 1936년에는 이리-여수간의 전라선(全羅線)이, 1942년 청량리와 경주를 잇는 중앙선이 각각 개통되었다. 이와 같은 간선철도 외에도 일본은 식민지 착취와 대륙침략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간선에서 연결되는 지선철도의 건설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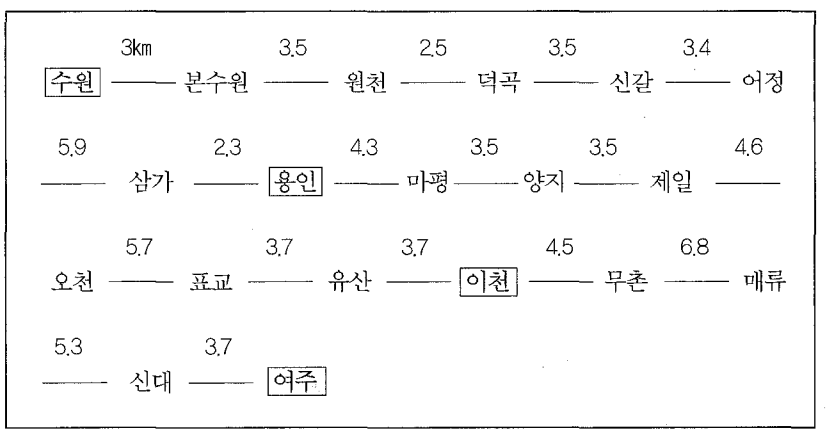
지선철도는 대부분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인 사설철도회사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되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호황을 맞아 자본주의가 급성장한 일본의 유동자금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17년 이후 조선에서 철도부설 면허를 받은 사철은 일선식산철도(日鮮殖産鐵道)·조선삼림철도(朝鮮森林鐵

道)·조선경남철도(朝鮮京南鐵道)를 비롯한 11개사에 이르렀다.

수여선은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에서 건설하였다. 일본인 다가와 죠지로(田川常治郎)가 사장인 경동철도는 192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1930년 12월 1일 수원-이천간의 철도를 개통하여 영업을 개시하고, 이듬해인 1931년 12월 1일 이천-여주간이 개통되어 수원-여주간 73.2km의 전구간 운행이 시작되었다. 경동철도는 수여선 외에도 수원-인천간 54km의 수인선(水仁線) 영업선을 보유하였고, 남한강 상류인 충주강과 원주의 섬강을 이용하는 수운까지 운영하였기에, 충청도와 강원도 내륙지방의 물자수송은 물론 서해안 지대의 소금과 해산물 수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경동철도회사의 1939년도 영업실적을 보면 여객 수송이 571,000명, 화물은 102,000여 톤을 운송하여 609,000원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이 회사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수원-여주간 73.2km를 1일 4회 운행하였으며, 소요시간은 2시간 23분이었다.

수여선의 운행로와 역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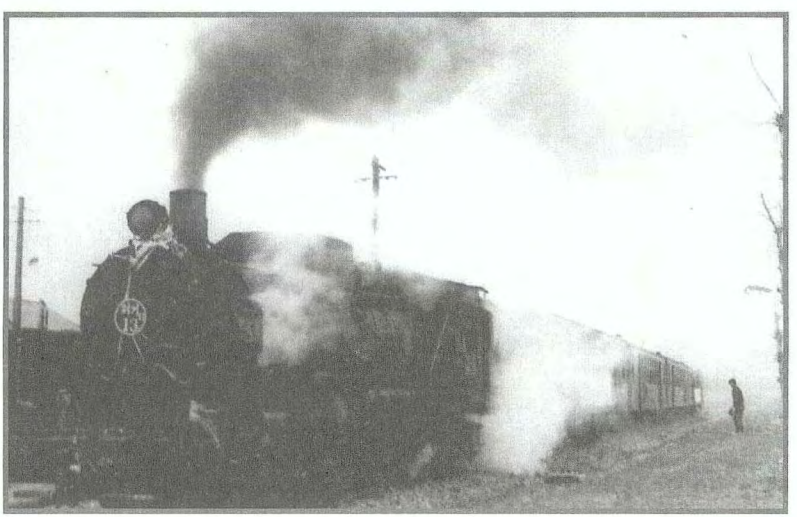


경동철도는 그밖에도 여주-점동간 16km의 철도증설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에서는 본사를 천안에 두고 서남평야지대와 중부지방을 잇는 천안-장항간 144.2km와 천안-장호원간 69.8km의 철도를 운영하면서, 장호원-원주간 40km의 철도증설계획도 가지고 있었으나 역시 실현을 보지 못했다. 경남철도는 그밖에도 경기도 일원의 자동차 운수사업과 온양온천을 경영했고, 객차의 일부는 서울-온양간을 직통운행하였다. 경남철도가 1929년 이천온천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천온천이 수여선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일제가 침략전쟁을 시작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조선의 철도사업은 1940년을 전후로 크게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일본경제가 점차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쇠퇴일로를 걷게 되고, 1942년 5월 수여선의 운영권이 조선철도주식회사(朝鮮鐵道株式會社)로 통합되어 사실상의 총독부 직영체제로 바뀌어졌다.

해방 이후인 1946년 5월 수여선은 다시 우리나라 교통부가 관장하는 국철(國鐵)에 편입되었다. 『이천대관』에 의하면 6 · 25동란 직후인 1950년대 후반 수여선의 하루 운송객 수가 200여 명이라 했으니 운영



〈사진2〉수여선 기차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자동차 도로망이 계속 확장되면서 더욱 경영이 악화되어, 1972년 7월 마침내 열차운행이 중지되고 수여선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설봉문화, 제18호, 1997>

利川 紫彩와 農謠

Ⅰ. 글 머리에

이천군은 경기도 동남단에 위치하여 충청북도와의 경계를 이루며 총 면적은 462.55㎢이다. 경지면적은 약 204㎢, 이 중 논이 84㎢로 전체 경지면적의 41%에 해당한다. 이천은 옛날부터 땅이 기름지고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다른 고장에 비해 덜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벼 농사를 주로한 농업이 발달한 고장이었다. 근래에 와서 크고 작은 산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업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농가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업지역이다. 따라서 이 고장의 토착문화는 농업에 뿌리를 둔 농경문화인 셈이며, 그 중에서도 도작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천 문화의 뿌리인 농경문화의 한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인 셈이다.

필자는 처음 지역적인 특징이 살아있는 일노래의 발굴을 목적으로 '자채벼'에 주목하였다. 자채벼는 이천을 중심으로 여주군 일부 지역에

서만 재배되었으나, 이미 30여 년 전에 멸종되어 버린 벼의 한 품종 이름이다. 자채벼의 멸종에는 다른 개량종 벼들에 비해 수확량이 보잘 것 없다는 실리적인 측면과, 우리 본래의 것을 경시하여 아끼고 보존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의식구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자채벼는 멸종되었지만 이를 심어 가꾸던 농부들은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이들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당시의 농사법이나 일노래는 재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인천교육대학 김순제 교수에게 부탁하여 자채 농사와 관련된 일노래의 조사를 1986년 7월에 실시하고, 김교수의 도움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9월에 열린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이천자채농요' 란 이름의 민요종목으로 처음 선을 보인 바 있다.

다음은 당시의 조사와 그 후 필자가 만난 노인들의 증언과 구술을 토대로 하여 특징, 유래, 재배법, 일노래 등 자채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II. 자채벼의 由來

자채벼는 이천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이곳과 인접해 있는 여주군 서편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었던 재래종 벼의 이름이다. 밥맛이 유별나게 좋기 때문에 임금의 수라상에 올리는 진상품이었고, '광주 분원 사기방아, 여주 이천 자채방아' 란 민요의 구절도 생겨날 만큼 유명했던 이천쌀의 대명사가 '자채쌀' 이었다.

벼의 기원과 처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이미 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이는 B.C 5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여

주군 점동면 흔암리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炭化米)의 존재가 뒷받침하고 있다.[1] 인도와 중국 남부지역이 원산지인 벼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다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며, 유입경로는 중국 화북지방으로부터 한반도 북쪽으로 먼저 들어왔다고 하는 북방유입설과, 중국 남부의 해안지방에서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부로 먼저 들어온 것이라는 남방유입설이 양립되어 있다.[2]

1) 尹瑞石 『增補 韓國食品史研究』 1985. 新光出版社 P. 46.

2) 上揭書 P.46~47.

삼국시대에 와서 백제는 특히 기온과 강우량이 벼농사에 적당한 서해안 지방의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탓에, 삼국 중 제일 먼저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초기부터 백제의 영역으로 같은 입지적 조건을 가진 이천지방도 일찌감치 벼의 재배가 이루어져 농사법이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을 보면 이천은 세종 26년(서기 1444)에 利川都護府로 승격되었는데, 그때 이미 부내의 인구가 천호 이상이었으므로 예에 따라 승격시켰다고 나와 있다.[3] 태종조에 陽村 權近이 지은 「利川新置鄕校記」에도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져서 백성이 많고 부유하다' 고 했으니[4], 조선조 초부터 이곳은 농업이 번성하여 이름난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땅이 기름지고 밥 맛 좋기로 유명한 자채쌀의 산지였고 보니 권문세가들의 수탈의 표적이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한 예로 역신 金自點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장호원에 많은 전토를 마련했던 일이 있었고[5], 한말에는 안동 김씨와 여흥 민씨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기도 했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 券八 利川都護府편.

4) 『陽村集』 券十四, 土廣而肥民衆而富

5) 『利川郡 鄕土文化資料總覽 제 4 집』 利川文化院刊 P.98(自點狀의 由來).

이천지방에서 자채벼가 어느 시기부터 재배되었는지는 지금까지의 자료만 가지고선 알길이 없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재래종벼의 이름 중에는 자채벼도 포함되어 있어[6], 이 벼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재배되어온 벼의 품종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자채벼는 이삭 끝에 달린 수염이 붉은 빛깔이었다고 하여, '紫彩' 라는 명칭이 이 수염의 붉은 빛깔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지방에서 재배했던 재래종 벼 중에 '노인벼' 가 있는데 이 벼는 수염이 노인들처럼 흰 빛깔이라고 한다.

6) 尹瑞石 『增補 韓國食品史研究』. P.104.

자채벼는 이천군 복판을 서에서 동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이 고장의 젖줄인 복하천과 양화천의 지류들을 끼고 발달한 넓은 들에서 주로 재배되었고, 이곳에서 거두어 들인 진상미는 일단 복하천 하류에 있던 강창(江倉)에 모았다가 여주강을 거쳐 한양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노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진상미는 3말 3되 3홉을 진상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자채벼는 그 뛰어난 맛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래종 벼들과 마찬가지로 수확량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한일합방 이후 은방도・그미도・칠성도・다마금 등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들에 밀려 차츰 재배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 1960년대 초까지도 일부 지정농가에서 소량을 재배하여 겨우 명맥을 이어오다가, 미곡증산정책에 따른 다수확 신품종들에 밀려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다.

대월면 군량1리 군들마을은 국도변에서 멀리 떨어진, 이천읍에서 버스로 30여 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양화천(楊花川)상류의 기름진 들판을 끼고 마을의 대부분이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78호의 전체가구 중 順川 金씨가 40여 호로 반이상을 차지한 김씨들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집성촌인 관계로 조상때부터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 노인들이 많으며, 자채벼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60세 이상된 마을노인 중 대부분이 당시 부르던 농요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김병익(77세), 김병기(72세), 김병천(65세) 삼형제가 대표적인 자채농요의 기능보유자 들이다.

Ⅲ. 재래종 벼의 品種

『增補山林經濟』『新增東國輿地勝覽』『鼎俎志』『閨閣叢書』 등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재래종 벼의 품종은 粳米(멥쌀)와 糯米(찹쌀)를 합쳐 30여 종에 달하였으니 이를 열거하면 구왕되오리 · 자채 · 서광 · 에우리 · 왜자 · 쇠노되오리 · 황금자 · 사노리 · 쇼되오리 · 거믄사호리 · 고새사노리 · 쇠노리 · 눗왜자 · 동아노리 · 우득산도 · 흰검부기 · 거믄검부기 · 동솔가리 · 영산되오리 · 고새눈거미 · 다다기 · 구렁찰 · 쇠노찰 · 다다기찰 · 점산도 · 보리산도 · 버들우리 · 중실벼 · 왜수리 · 대초벼 등이다.[7]

7) 上揭書 P. 104.

이천지방에서 주로 재배하였던 재래종 벼의 품종으로는 수확기가 이른 올벼에 '진상벼(진생이)' '노인벼(네임벼)' '자채벼'가 있었고, 늦벼에는 '돌벼'가 있었으나 많이 재배한 품종은 역시 자채벼였다. 자채벼를 제외한 진상벼 · 노인벼 · 돌벼가 위에서 열거한 재래종 벼 이름 중 어떤 것의 다른 호칭이었는지, 30종에는 들지않는 다른 신품종 벼의 이름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그밖에 조씨가 처음 심었기 때문에 '조동지'라 부르는 품종이 있었다고 하며, '이른모래기'라는 호칭도 있는데 벼의 품종명이 아닌 수확기가 이른 올벼의 일반적인 호칭이었던 것 같다.

자채를 비롯한 올벼는 음력 3월 3일인 한식일을 전후해서 씨를 뿌려 유월 유두절부터 칠월 칠석 무렵에 수확하는 극 조생종이었다. 조생종 3개 품종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表1〉 조생종 벼의 품종비교표

품종별	별칭	파종	수확	특징
진상벼	진생이 진생따래기 유두찰	음력3월3일 전후	유두(6. 15) 전후	수염이 거의 없다. 이삭이 팬 후 20일만에 수확.

품종별	별칭	파종	수확	특징
노인벼	네 임 벼 보리따래기	〃	음력6월20일 전후	수염이 희다. 이삭이 팬 후 25일만에 수확.
자채벼	자채	〃	칠석(7월7일) 전후	수염이 붉고 끝이 짧다. 줄거리는 자주빛 잎은 검록색

'진상벼'는 수확기가 제일 빨랐던 탓에 그 해에 첫번째로 수확한 쌀을 나라에 진상했던 이유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생각되며, 별칭이 '유두찰'인 것은 유두절을 전후로 하여 수확하는 때문이다. 보리 수확기와 비슷한 시기에 거두어들이는 '노인벼'를 '보리따래기'라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자채벼를 많이 심었고 진상벼와 노인벼는 소량을 심어 춘궁기를 넘기는데 대비했던 모양으로, 벼가 미쳐 익기도 전에 이삭을 잘라다가 절구에 빻아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한다.

Ⅳ. 紫彩벼의 특성과 재배방법

자채벼는 복하천과 양화천을 낀 이천의 중부지역과 이 두개의 하천으로 연결된 여주군 일부 등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여, 충청북도나 인접 지역인 광주군에만 가도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탓에 재배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천수답이나 토질이 척박한 땅에서는 자라지 않아 마을 앞 텃논처럼 기름진 논에서만 재배하였다.

자채쌀의 모양은 알이 동글동글한 단립(短粒)형상으로 밥을 지어 놓

으면 밥알이 희다 못해 푸르스름한 기가 돌며, 기름이 자르르 흐르기 때문에 매우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찹쌀처럼 끈기가 있고 맛이 뛰어난데에다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자채쌀로 지은 밥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노인들에게서 흔히 듣게 된다.

요즈음에도 '이천쌀' 하면 밥맛이 제일 좋은 일등미로 손꼽는다. 같은 품종의 벼를 심어도 다른지방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나는 때문인데 이 지방의 토질과 수질, 기후 등 농사에 필요한 여건이 벼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자채를 비롯한 재래종 벼는 재배방법이 특수하여 씨를 뿌릴 때는 별도로 모판을 만들지 않고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방식이었다. 김을 맬 때도 호미를 쓰지않고 손으로만 매기 때문에 일반 벼농사와는 다른 숙련된 농사기술을 필요로 했다. 농사 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방의 농부들이 이곳에 처음 와서는 자채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한다.

자채벼를 비롯한 재래종 올벼는 음력 삼월 삼짓날을 전후하여 씨를 뿌린다.

모판을 만들지 않고 직접 파종하기 때문에 쓰레질을 한 논에 물을 자작자작하게 대고 논 전체에 고루 볍씨를 뿌리며, 골고루 알맞게 씨를 뿌려야 하므로 숙련된 기술과 정성이 필요하다.

김은 보통 세 차례를 매어주며 호미를 쓰지않고 손으로만 매어주는 것이 특이하다. 초벌(애벌) 김은 손으로 잡초를 뽑아가며 뭉쳐서 난 모를 솎아내고 빈자리는 보식을 한다. 솎아낸 모와 잡초는 군데 군데 논바닥을 파고 흙속에 묻어준다. 두 벌과 세 벌 김 역시 호미를 쓰지않고 김을 매며, 특히 세 벌째의 김은 막대기 끝으로 대충 벼포기 사이의 논바닥을 긁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새끼 밴 암캐만 지나가도 된다' 는 재미있는 비유가 전해오고 있다.

자채벼는 음력 7월 칠석을 전후하여 수확하였으며, 타작은 자연석을 적당히 다듬어 놓은 챗돌 위에다 볏단을 태질하여 탈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월면 군량리의 경우에는 벌판 가운데 마을 공동으로 타작

마당을 만들어 공동작업으로 하였으며, 당시 사용했던 챗돌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다.

참고로 자채를 비롯한 재래종 벼와 일반벼 재배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2>

〈表2〉

재배과정		자채벼	일반벼
심기		<직파> 씨앗을 논에 직접 뿌린다.	<이앙> 모자리에서 가꾼모를 옮겨 심는다.
김매기	초벌	맨손으로 잡초를 뽑는다. 뭉쳐있는 모를 솎아준다. 빈자리에는 솎아낸 모로 채운다.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며 모포기 사이의 흙을 뒤집는다.
	두벌	맨손으로 김을 맨다.	맨손 또는 호미를 쓴다.
	세벌	맨손으로 훑어 준다.	맨손으로 훑어 준다.

V. 紫彩農謠

'자채농요'란 이 지방의 농부들이 자채벼를 심어 가꾸며 부르던 일노래들이다. 자채벼는 멸종되고 말았지만 다행이도 옛날 자채 농사를 짓던 노인들이 많이 생존해 있으므로, 그 시절에 부르던 일노래는 아직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 등 농사기술의 발달로 이 일노래들마저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채벼와 관련된 일노래의 조사는 편의상 옛날 자채벼를 많이 심었

던 마을 중에서 아직도 농촌의 분위기가 살아있고, 토박이 노인들이 많이 생존해 있는 3개의 마을(大月面 郡梁里・廐長面 標橋里・夫鉢面 馬岩里)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마을에 대한 표본조사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대월면 군량리 노인들 사이에 불리워지고 있는 일노래들이 '아리랑타령'의 특이한 가락과 함께 음악성도 뛰어나고 내용도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월면 군량1리 '군들' 마을은 국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최근 인접 지역들이 겪는 급격한 개발의 바람을 타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천읍에서 버스로 30여 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며, 양화천 상류의 기름진 들판을 끼고 마을의 대부분이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78호의 전체 가구 중 순천 김씨가 40여 호로 반 이상을 차지한 김씨들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집성촌인 관계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자채벼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60세 이상된 마을 노인들 거의가 당시 불렀던 일노래들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병익(78세)・김병기(73세)・김병천(66세) 삼형제가 좋은 창법을 구사하는 자채농요의 대표적인 기능보유자들이라 할 수 있다.

자채벼의 일노래는 쓰레질 소리와 김매기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볍씨를 논에 직접 뿌리기 때문에 모를 찔 때와 모내기를 할 때 부르는 소리가 없는 것과, 일반적인 경기도 지방 농요에는 나타나지 않는 길고 구성진 가락이 특징이다. 김매기를 할 때는 마을의 농악이 동원되어 흥을 돋우었는데, 이 때 앞세운 농기에 쓰인 글귀는 '農者天下之大本'이 아닌 '神農之業 后稷之風'이었다.

(1) 쓰레질 소리(소몰이 소리)

쓰레질이란 논을 갈아 엎은 후에 물을 대고 볍씨를 뿌리거나 모심기

를 하기 위해 논 바닥의 흙을 고르는 일을 말하며, 이천지방에서는 소 1마리가 쓰레를 끄는 외결이 방식이었다.

소를 몰며 부르는 일노래가 쓰레질 소리(소몰이 소리 · 호리 소리)인데 '어더더더…' '이랴!' 하는 소몰이의 신호를 중심으로 '이 놈의 소야, 어서 가자' 하는 간단한 말 이외의 특별한 노래말은 없으며 가락이 구성지다.

(2) 김매기 소리

① 아리랑 타령

이 지방의 특산인 자채벼의 김매기에서만 나오는 특징있는 가락으로 얼핏 들어보면 강원도 정선지방의 '정선 아라리'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힘내기(받는 소리)의 제창이 있으므로 틀림없는 일노래로 보아야 한다. 빠르기에 따라 '긴아리'와 '자진 아리'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가락이 길고 매우 구성지다.

金順濟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아리랑 타령은 경기도의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고 이천지방에서만 채집되는 독특한 일노래라고 한다. 가락이 정선 아리랑과 비슷하다고 하여 경기도 지방의 일노래가 아니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이 노래가 채집된 군량1리가 수백년을 내려온 순천 김씨의 세거마을인 관계로 이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불리워진 노래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 정선 아리랑과의 비교를 통한 관련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② 곯았네

보통 두 벌 김을 맬 때나 세 벌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 맨 손으로 곯은 잡초를 훑어 나가며 노래한다.

③ 오호이 에헤야

두 벌, 또는 세 벌 김을 맬 때 부르며 이 소리의 자진 가락은 한 논배미

의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하여 부르는 '단허리' 소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④ 단허리

'대허리' 또는 '우기기'라고도 부르며 그 뜻은 허리를 펴서 쉬지말고 숙인 채로 단번에 남은 일을 끝내자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소리에 비해 박자가 빠르며 힘차다.

이천지방에서는 그 밖에도 '매화타령' '상사디야' 등이 일부 불리워지기도 했다. 벼농사에서 흔히 불리워지는 일노래에 하나인 '하나 하나'는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심기 노래이므로 자채 농사에서는 부르지 않았다.

자채농요의 음악적 구성이나 가락 등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金順濟 교수의 논문 '京畿道 利川 地方 일노래의 音樂的 分析(畿甸文化研究 제15집, 1986, 仁川敎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刊)'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Ⅵ. 紫彩農謠의 內容

(1) 아리랑 타령(어리랑 타령)

A[8] <받는 소리>

아리랑 아리랑 어러리요

아리랑 에헤루 어러리요

8) 金順濟 〈京畿道 利川地方 일노래의 音樂的 分析〉『畿甸文化研究. 제15집』 P. 266~267.

<메기는 소리>

신농씨 농사 마련하실 제
천하 만인 기르려고 농사 마련하셨네.
진충보국이 따로 있나
노지를(놀지를) 말고서 농사에 힘을 쓰세
노다가(놀다가) 가시는 임은 마실꾼이로되
잠을 자다가 가는 임은 우리 님이로다
담넘어 갈 적에 짖는 개는
인왕산 호랑이나 꼭 물어가게
품 안에 들 적에 우는 닭은
앞 산에 족제비나 꼭 물어가게.

B <메기는 소리>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천하도척이 아니거든 날 좀 보소
남전 북답에 노비전답은 없어서 못 드릴망정
품 안에 들 적에 우는 닭은
앞 산에 족제비나 꼭 물어가게.

B[9] <메기는 소리>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천하도척이 아니거든 날 좀 보소
남전 북답에 노비전답은 없어도 못 드릴망정
소녀의 몸에 있는 것이야 못 드릴리있나
메꽃같은 우리 딸 얼굴

9) 上揭書 P.268~270.

구름에 정자나 지어주오
홍당목 치마가 열 두채데
부시쌈이 깁는 족족 다 나가네
담 넘어 갈 적엔 좋다더니
빨래줄 결박에는 진저리가 나네
요 놈의 총각이 내 팔을 놓게
생명주 적삼이 등터지네
생명주 적삼이 등터지면
길상사 저고리 내 해줌세
십 년의 긴 세월 참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같은 한곡이 될까
우리가 살며는 만년을 사나
살아서 생전에 요직을 하나
세상이 가며는 요렇게 가나
열 두절 지나다 보니 사월달이 됐구나.

10) 大月面 郡梁1里 김병천씨 구술.

C[10] <메기는 소리>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타령을 말겠더니
신낸 몸 같아서 또 하겠네
초록 비단에 능라주로만 날 감지말고
정든 님의 긴 긴 팔로 날 감아주게
오늘 해도 다 졌는지
외상추 밭에 큰 애기 논다
바람이 불려거든 지화자 바람불고
풍년이 들려거든 천하태풍년만 들어라

난봉이 났네 난봉이 났네
우리집 삼통세 줄난봉났네
울퉁 불퉁에 저 남산 보아라
우리도 죽으면 저 남산 되리라
울타리 꺽으면 나오신다더니
행랑채를 부숴도 안 나오네
슬스리 동남풍에 궂은 비는 오는데
시화연풍에 님 상봉하겠네

(2) 곯았네(두루기)

A[11] <받는 소리>

11) 『畿甸文化硏究 제15집』 P.279.

어화 곯았네
어화 둥기(두루기) 좋아

<메기는 소리>

여보시오 동갑네들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
한번 아차 실수하면
잎이 나나 움이 나나
슬프고도 가련하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우리 인생 빨리 가세

12) 上揭書 P.280.

B[12] <받는 소리>

오호 곯았네
댕이나 슬슬 굴려라

<메기는 소리>

심누하다 진시왕도
막을 수는 없는데
한(漢)나라 문제(文帝)인들
어찌할 수 있을소냐
크게 했던 회포로구나
태산과도 같은데 나는 어찌 생을 살까
종시 이 날을 잡아볼까
부근 일대 다 댕겨(다녀)보니
여기같이 놀아볼 때 없구나
개천마다 한 가운데
뿌리없는 냉기(나무가) 섰네
그 남개(나무에) 열매가 맺혀
해와 달이 열렸도다
해는 따서 겉을 짓고
달은 따서 안을 받아
새벽 샛별로 염주나 달아
쌍무지개로 끈을 꼬여
뒷 집에 도련님을 채워
이를 보니까 노니 아니 나던 맵새(맵시)가
저절로나 나는구나
이만하면 만족타 하니

오늘날 하루를 끝내보세

C[13] <메기는 소리>

13) 郡梁1里 김병천씨 口述

일락서산에 해 다 지고
월출동녘에 달도 떠온다.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옷갓을 하고서 어디 가나
첩의 집에 가실랴거든
나 죽는 꼴을 보고 가오
첩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당(蓮堂)일세
꽃밭에 나비는 봄 한 철이고
연당에 금붕어는 백년일세
해 다 지고 저믄 날에
고삐없는 소를 잃고
콩가지를 둘러메고
소 있는 곳을 찾아가니 소는 진정 간 곳 없고
모진 광풍이 날 속이네.

(3) 오호이 에헤야

A[14] <받는 소리>

14) 『畿甸文化硏究 제15집』 P.273~275.

오호 오호 오호이
오호호이 에헤야

<메기는 소리>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 병이 들면 나는 못노리라
무정세월 오고 가지를 말아라
알뜰한 우리 청춘 다 늙어 간다
세월 네월아 가지를 마라
꽃같은 청춘이 다 늙어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서 나는 간다
이태백이가 노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가 박혀으니
은도끼로 찍어나 얼싸안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15) 上揭書 p.275~276

B[15] <매기는 소리>

오늘 오늘 몇 날이냐
유월하고도 초순이라
호이야 이 논배미를 얼른들 매고
호이야 장구나 배미로 넘어를 가세
논매는 농부들 내 말좀 들어요
담배에 참이나 늦어를 간다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논매기 힘들지 않아서 좋다
박연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요관폭포 급한 물이라

은하수를 기울인듯
한강수라 깊은 물이라.

C[16] <메기는 소리>

16) 郡梁1里 김병천씨 口述

아침이슬에 만난 농부
오늘 해는 여기서 보내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만나
내일 하루도 같이 노세
여보시오 농부님들아
이 내 말좀 들어보소
먼 데 사람은 듣기도 좋게
가까운 데 사람도 보기도 좋게
일심을 받아서 논을 매세
신농씨의 본을 받아
후직이를 유전으로
높은 데는 밭을 풀고
깊은 데는 논을 풀고
농사 한 철을 지을 적에
여주 이천 진상벼를
여기 저기 심어다가
나랏님전에 진상도 하고
늙으신 부모님 공경도 하고
어린 처자식 배불리니
시화연풍 국태민안이 이 아닌가
풍년일세 풍년일세
우리 나라가 풍년일세
만백성이 격양가 소리만 부르노라

반달같은 이 논배미
초생달만큼 남았구나
네까짓게 무슨 반달
초생달이 반달이지
여주 이천에 자채방아
슬그렁 슬그렁 잘들도 찧는구나.

(4) 단허리(대허리 · 우기기)

A[17] <받는 소리>

17) 『蠶甸文化硏究 제15집』 P.282.

어헐사 대허리야

<메기는 소리>

어헐사 대허리야
여보시오 소년들아
이 내 말씀 들어를 보소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그 아니도 가련한가
당대 일등미색
곱다고나 자랑마라
서산에 지는 해를
금지할 자 뉘기드냐
창해유수 흐르는 물은
다시 오기 어려운데
요순우탕 문무주공.

B[18] <메기는 소리>

18) 上揭書 P.283.

에이얼싸 단허리야
이 논이 길기가
한 치가 더 나가 두 허리 끝이라
기나 짧으나 단허리로 나가자
얼른들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할 테니
부지런히 나가서 그쳐를 버리세
우물가 주변에 개구리는 많고
(노래말 불명)
매우나 술을 많이 하셔서
이 사람은 농사판에서
거머리에 등을 뜯기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일시에 힘이 나왔으니
식사를 하고 마십시다
일락에 서산에 해는 다 지고
월출에 동녘에 저 달이 솟네
수고들 하셨소 수고들 하셨소
이 논을 기회로 그칩시다.

<기전문화, 제2집, 1987>

利川·驪州지역 도자마을의 형성과 변천

Ⅰ. 우리나라의 도예문화

이천시와 여주군은 우리나라 도자기의 대표적인 산지로 유명하다. 현재 이천시에는 신둔면 수광리를 중심으로한 인근 지역에 약 250여 개의 요장(窯場)이 밀집되어 있는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고, 여주군에는 북내면 일원에 500여 개의 요장이 밀집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예촌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천시와 여주군은 각각 조선시대부터 도자기 제작이 활발하여 각종 문헌을 보면 도기(陶器)를 지역 특산물로 손꼽고 있다. 조선시대의 도자기는 이웃 광주군 분원(分院)을 중심으로 활발한 제작이 이루어 지다가 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거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천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통자기의 재현작업이 다시 시작되어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고장으로 발돋움하였다. 한편 여주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일본의 제작기술을 받아들인 생

활도자기의 다량 제작이 이루어졌고, 그 전통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생활도자기의 산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모습에는 서로 차이가 있어도 이들 지역에서 도자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이천시와 여주군에서는 도자기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통한 도자기 산업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여주도자기축제와 9~10월에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를 각각 지역 문화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예문화는 아득한 옛날 선사시대의 토기제작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인류가 처음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더 견고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는 의지는 끊임없이 도자기의 발달을 촉진시켜 왔다.[1]

1) 『우리나라의 도자기』, 1991, 해강도자미술관. 이하같음

처음 만들었던 토기는 물이 새어 나오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었지만 점차 개선된 원료와 높은 온도에서 구어내는 기술로 발전하여 토기보다 견고하고 쓰기 편리한 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도기도 약간의 물이 스며들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약(釉藥)의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유약의 사용으로 도기의 표면에 얇은 유리질 막을 씌움으로써 물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이 매끄러운 그릇의 제작이 가능하여졌다. 유약의 발명으로 도자기는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무한한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유약의 발명에서부터 세계의 도자문화는 양분되기 시작하였다. 즉 저화도유약(低火度釉藥)을 채택한 서아시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화도(高火度) 자기(磁器)제작기술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화도 도기제작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반면 처음부터 고화도 유약을 채택했던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찌기 고화도 자기인 청자(靑磁)와 백자

(白磁)를 제작하여 유리나 금속보다 도자문화가 크게 성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서양 지역은 각기 다른 도자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도자기를 대하는 입장도 각기 다르게 되었다.

먼저 저화도 유약을 채택한 오리엔트 지역에서는(저화도 유약에는 납(鉛)이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다) 사람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관상용의 장식품이나 건축 자재들을 주로 만들었지만, 고화도 유약을 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음식용 그릇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자기가 생활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따라서 오리엔트 지역의 저화도 도기가 장식적이며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하는 감상적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동아시아 지역의 고화도자기는 그 실용적인 특성에 의해 인간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고 삶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삶을 구현해주는 실용적인 미술로 등장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세계도자에 뚜렷힌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토기가 발생한 시기는 이집트·서아시아·인도·중국과 비슷한 기원전 6,000~5,000년 경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토기는 서아시아와 중국의 채문토기(彩文土器)문화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문화로 한반도 전역에 널리 분포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기원전 1,000년 경부터는 한반도에 중국도자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도자는 중국의 도자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도자문화에 선구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기원전 300년 경부터 고화도 경질도기의 제작법이 습득되고 도기의 질도 다양화되고 용도도 다양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원료의 것보다 높아졌다.

기원 후부터 6세기 후반에 이르는 동안 경질도기의 제작법이 일반화되고 나무의 재(灰)를 원료로 하는 고화도회유(高火度灰釉)가 제작되기 시작하며, 중국에서 전해진 저화도연유(低火度鉛釉)의 기술도 받아들여 한층 질적 향상을 이룩하였다.

한국에서 고화도 자기인 청자를 만든 때는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중엽 경이었다. 청자는 오랜 고화도 경질도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도자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청자에 이어 백자가 만들어지고 11~12세기에 와서 고려(高麗)도자문화의 절정기를 맞게 된다. 한국의 독자적인 창안인 상감(象嵌)기술이 개발되고 유약에서 산화동(酸化銅)에 의한 붉은 색 발색을 최초로 내게 되는 등 고려인의 독창성은 세계 도자문화를 윤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전기인 15~16세기는 분청(粉靑)이라는 특별한 자기를 제작하였다. 분청은 회청색(灰靑色)의 몸체에 백토(白土)를 바르거나 또는 문양을 긁어내거나 산화철(酸化鐵)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한국인의 독자적인 창안에 의한 이채로운 심미감(審美感)을 지니는 것이다.

분청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백자였다. 백자는 이미 고려시대 초기부터 만들어졌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크게 성행했다. 백자에는 회청(回靑)을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靑華白磁)등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다 백자의 큰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6세기가 끝날 무렵의 임진왜란으로 선진화된 조선의 문물이 다량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이 때 강제로 끌려간 많은 조선 도공들에 의해 일본의 자기가 비로소 탄생하며 이 후 일본은 급속한 도자기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편 선사시대부터 꾸준히 만들어져 오던 큰 항아리 등은 제작기술의 변화에 따라 점차 질적 향상을 거듭하여 옹기(甕器)라는 한 분야를 개척하였다. 옹기는 고려시대까지는 대부분 유약을 씌우지 않는 경질도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유약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고려시대 말기나 조선시대 초기에 와서 거대한 크기의 용기에도 유약이 씌워지고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미술과 조형의식을 알기 위하여 한국의 도자기에 촛점을 맞춘다. 그 원인은 한국의 도자기가 한국인과 같이 살

아온 삶의 구현체이며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 속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 삶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이천과 도자기[2]

2) 『이천도예촌』 향토문화조사보고서 6 1994, 이천문화원, 「제2장 이천과 도기문화」

1. 역사적 배경

지형적으로 볼 때 이천시는 해발 500m가 넘는 원적산(圓寂山) 줄기가 북쪽 외곽을 길게 감싸고 있어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별다른 자연 장애물이 없는 낮은 구릉과 평야지대로 여주군과 연결되어 있다. 낮은 야산들 사이를 복하천(福河川) · 양화천(陽花川) · 청미천(淸渼川)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그 유역에 비옥한 농경지가 발달하였고, 서쪽과 북쪽을 제외하고는 곳곳에 완만한 구릉과 평야가 전개되어 있는 탓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천지방의 선사시대를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신둔면 · 백사면 일대의 원적산 밑으로 넓게 분포된 대규모 지석묘군(支石墓群)과 효양산토성지(孝養山土城址)를 손꼽을 수 있다. 이천시 부발읍 효양산에 있는 토성지는 삼국시대 후반 신라군의 주둔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 일대에서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형 호(壺)와 옹(甕) 종류의 토기편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외에도 연대가 이보다도 훨씬 오래된 무문토기를 비롯한 선사토기편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보고서[3]에도 '효양산 일대는 무문토기시대부터 주민들이 거주하여 원삼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까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신암리 II』 고적조사보고서 제21책, 1989, 국립중앙박물관, 91쪽

이들 유적지 외에도 지난 79년 4월에 출토되어 이천문화원에 의해 조사되었고, 그 출토품 일체가 해강도자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장동리 고분출토 유물들이 주목된다. 이 유물들은 연질의 회백색 호 2점,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발(鉢) 종류 4점, 소호(少壺) 1점 등인데 한성시대 백제 토기들로 판명되었다. 또 지난 86년 연세대 선사연구실 팀에 의뢰하여 조사한 이천 설봉산성(雪峰山城)에서는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 계열의 기와와 토기편들이 뒤섞여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천지방은 적어도 지석묘시대인 청동기시대부터 토기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그 후 백제시대와 고구려 점령기를 거쳐 삼국시대 후반 남천정(南川停)을 중심으로 삼국의 패권각축장이었던 탓으로 삼국 모두의 토기문화의 흔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이웃 용인군에 대규모 고려자기와 분청자기 유적지가 남아 있는 것과는 달리 이천지방에서는 이 시대의 자기제작을 뒷받침할 만한 흔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지하다시피 인접한 광주군을 중심으로 백자문화가 꽃을 피웠고 거의 전국적으로 활발한 도자기 제작이 이루어졌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전국의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 가운데에는 이천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 후 중종 25년(서기 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천도호부의 특산품으로 백옥(白玉)과 함께 도기를 들고 있다. 적어도 16세기 초 그 이전부터 이 지방의 도자기 제작이 상당히 활발한 수준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이천지방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도자기 제작을 뒷받침해 주는 유적지들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①사기막골(沙音洞) 백자요지

이천시 사음동 사기막골 마을 남쪽 산기슭과 마을에 연해 있으며 인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기막골>이란

지명이 요지의 존재를 뒷받침하며 출토되는 도자편들은 문양이 없는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 자편에 의한 연대추정은 조선조 중기에서 후기까지로 보여진다. 마을 노인들에 의하면 순백자 외에도 청화백자 파편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사기막골은 예전에 가마터가 5군데나 있던 곳으로 이곳 도공들은 광주 분원(分院)에 징발당했다' 고 하며, 지금은 이 일대에 사기막골 도자기 마을이 형성되었다.

② 사기실(蟹越里) 백자요지

이천문화원이 지난 1981년에 <사기실>이란 지명에서 착안하여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조선시대의 백자요지로 확인된 곳이다. 요지가 자리잡은 위치는 마장면 해월리 사기실 부락인데, 10여 호 남짓한 농가 서북편으로 산기슭에 이어진 평평한 밭 일대이다. 표면이 불에 녹아서 반들반들하게 된 가마 안벽을 쌓았던 흙덩어리들과 함께 백자편들이 널려 있어 많은 양의 백자그릇들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밭 상단으로 산기슭에 연해 봉통의 둥근 지붕 일부가 남아있는 가마터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 일대는 해발 410.7m의 건지산(乾芝山)이 우뚝 가로막혀 있어 도자기를 굽는 데 필요한 화목의 채취가 손쉬울 뿐 아니라 점토층의 지층을 끼고 요지로서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채집된 도자편들에 의한 조사 결과 그릇의 형태와 빛깔면에서 고려자기에서 조선백자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 조선시대 초기의 백자가마터로 추정되고 있다.

③ 점말(蟹越里) 요지

<점말>이란 지명에서 착안하여 1981년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위치는 해월리 사기실 마을에서 1㎞쯤 떨어진 건지산 동편 기슭으로 요지 건너편에 점말이 자리잡고 있다. 밭에서 이어진 산기슭에 완연한 가마의 형체가 남아있는데, 대략 동서를 축으로 하여 폭이 6m, 길

이 10m 가량으로 동쪽을 향하여 축조되었다. 남아있는 상태만으로도 둥근 봉통의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그 위로 잡목들이 뒤엉켜 자라고 있고 지붕을 쌓은 내벽의 형체도 표면이 불에 녹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부근에서 발견되는 자편들은 순백자 외에도 유약을 바르고 않고 고온에서 구워내어 표면이 녹은 갈색계통의 석기(石器), 흑색이나 녹색계통의 잡유 등 다양한 종류들이어서 흔히 막사발이나 제기류의 생활용기들이 중심인 다른 지역의 요지들과 구분된다. 조선시대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가마터로 추정된다.

④ 마옥산(磨玉山) 백자요지

모가면 산내리 마옥산 주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지 일대가 지금은 밭으로 변모되어 있다. 다수의 백자 파편들과 함께 고열로 표면이 용해된 점토 덩어리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기형은 주로 사발과 접시, 술병 종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⑤ 가마골(冠里) 요지

역시 지명이 <큰 가마골>, <작은 가마골>이어서 요지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을 진입로 우측 야산기슭에 연해 가마터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고, 주로 막사발류의 백자편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드물게 인화분청 자편들도 눈에 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광주군 도척면과 경계를 이루는데 도척면 일대에도 다수의 백자요지들이 분포되어 있어 상호 연관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신둔면 수광리와 장동리, 모가면 소고리에도 요지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있다. 이와같은 이천지방의 민수용(民需用) 조선조 가마들이 어느 시기까지 존속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자기생산과는 별도로 곳곳에 옹기를 제작했던 가마들이 산재했었음

을 출토품들과 지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신둔면 수광리와 백사면 조읍리 점말, 장호원읍 노탑리 등지는 6 · 25사변 이후 60년대 초까지도 옹기제작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신둔면 수광리 지역은 당시 '대단히 건실한 솜씨인 칠기(漆器)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 50년대 말부터 태동기에 접어든 이천지역 전통도자기 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이천도자기의 발생

신둔면 수광리와 사음동을 중심으로 250여개의 요장들이 밀집된 도예마을이 자리잡게 된 이천도예촌 형성의 배경에는 앞장에서도 언급한 수광리 칠기가마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조 말 이웃 광주군 분원에 자리잡고 있던 관요(官窯)가 문을 닫고 민요화되면서 조선백자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었던 청화백자를 비롯한 고품질 백자제작의 전통도 맥이 끊어지게 된다. 관요에서 고급백자를 만들던 도공들은 지방가마로 흡수되어 품질이 거친 막사기를 양에 치중하여 대량생산하게 되고, 따라서 이 시기는 막사기와 옹기류들이 겨우 전통의 명맥을 이으면서 일본문화의 유입과 함께 흘러 들어온 왜사기(倭沙器)와 함께 사용되었다.

당시 전통 도자기의 제조기술을 익히는 방법으로는 일종의 도제제도를 거치는 길 뿐이었고 이 사정은 오늘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도공들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도자기 제작소에 들어가 기술을 익히거나 밥벌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게 되고, 이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수광리로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이천도자기 발생의 중심 인물들로 등장하게 되었다.

해방이후 6 · 25 사변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사회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전통도예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으며, 1959년에는 처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

술대학 생활미술과가 도예를 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 1955년에 한국조형연구소(韓國造形硏究所)가 문을 열었다. 속칭 '성북동 가마'로 불리운 한국조형연구소는 이사장에 이상백(李相佰), 이사로는 고미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전형필과 미술사학자 김재원, 언론인 홍종인 등이 참가하였고, 실무제작진으로 당시의 도공들을 흡수하여 이임준(李任駿)·지순탁(池順鐸)이 일했다.

이듬해인 1956년에는 조각가 윤효중(尹孝重)에 의해 한국미술품연구소(韓國美術品硏究所-속칭 대방동가마)가 설립되었다. 이 대방동가마는 이천도자기 발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방동가마를 움직였던 당시의 일급 기능인들 대부분이 이 가마가 문을 닫은 1958년 이후 거주지를 수광리로 옮겨와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천도자기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미술품연구소는 설립자인 윤효중을 대표로 지순탁(고려도요)이 공장장 격으로 일했고, 성형부에는 고명순(고영재 부친)·조춘성·윤덕중·윤돈중이 일했다. 조각부에는 최인환(전통조각 담당)·김완배(김종호 부친)·유근형(청자연구 및 조각)·최인석(유약, 기계담당)·김종호(송월요)·김문식(사음요)·윤석준(윤석준도예연구소)·현무남(현암요)·박수만·이종열과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소성부에는 고명순·최인석이 겸임한 외에 유하상이 일했다.[4]

4) 지정희 『한국 전승도자의 현황』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13쪽

1956년 가을에 문을 연 한국미술품연구소는 '우리나라 도자공예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실생활에 조화되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고려청자 이조백자 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1958년 문을 닫게 되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던 도공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때 고명순·김완배·지순탁 등은 일할 곳을 찾아 이천 수광리의 칠기가마로 내려오게 되고, 이들을 따라 윤석준·박수만·현무남 등 젊은 도공들도 합류하며 유근형은 이듬해에 수광리로 오게 된다.

수광리의 칠기가마가 언제부터 문을 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현승씨 증언에 의하면 190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

시 수광리의 칠기가마는 수광 1리의 미나리 칠기가마(현 수광리 12번지 일대)와 수광 2리의 칠기가마(현 광주요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보면 미나리 칠기가마가 원래부터 있었고 수광 2리 칠기가마는 홍재표(이조도요)의 부친 홍순환에 의해 이보다 늦게 생긴 듯하다.

수광리의 칠기가마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모양이어서 해강 유근형 자서전에 보면 '당시 칠기가마는 두개지만 점주가 네 사람이라 한달에도 뻔질나게 5, 6차례씩 굽기 때문에...' 또 '6 · 25사변 이후 칠기가 세월이 있어 선돈을 내고 기다려서 그릇을 가져가는 상태'라고 했다. 대방동가마의 구성원이었던 도공들 대부분이 수광리로 다시 모여들게 된 이유는 호경기로 일손이 부족한 칠기가마의 일을 도우면서 밥벌이를 하고, 각자가 나름대로 연구해 온 전통자기를 직접 칠기가마에 구워 시험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도공들이 도자기만 만들어서는 밥벌이도 어려운 실정이었으니 자신의 가마를 소유한다는 것은 더구나 꿈같은 일이었다. 수광리 칠기가마의 점주로는 신봉근 · 고승술 · 이현승 등이었고, 당시 이곳에는 홍재표 · 이정하 · 고영재 등 이십대 후반 한창 나이의 젊은 도공들이 칠기장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 현지 도공들과 대방동가마에서 옮겨온 도공들이 합류하여 이천도자기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방동 쪽 사람들은 처음에는 칠기가마를 통해 분청사기로 된 화분과 화병, 술병같은 종류들을 만들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칠기가마도 플라스틱 같은 새로운 재질의 식기류들이 보급되면서 판매가 어려워지자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이현승만이 남아서 칠기가마를 운영하다가 1956년 경 당시 대학생이었던 신상호(도예가, 홍익대 교수)에게 넘어갔다.

비슷한 시기에 판화가로 유명한 정규가 도자기에 관심을 갖고 신둔면 남정리에 등요를 마련하여 백자에 안료로 서양화를 그려넣는 제품

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하였고, 현대 도예가인 강수화도 수광리에 가마를 마련하였다. 이 무렵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수광리도예촌은 전통 도자기 생산과는 별도로 각 대학 도예과 학생들의 기능연수와 작품제작을 위한 실습장이 되기도 했다.

50년대 말 홍재표가 지순탁 · 고영재와 손을 잡고 부친이 하던 칠기가마 자리에 수금도요(水錦陶窯)를 열었는데 당시 이곳에는 이들 3인 외에도 현무남 · 김홍준 · 서인수 · 이종열 등이 함께 일했으며 박부원(광주 도원요)도 비슷한 시기에 합류하였다. 수금도요의 운영은 당시 재일교포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도예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소수(趙小守, 광주요)와 선이 닿으면서 차츰 활기를 띠게 된다.

1965년 한 · 일 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인들의 한국방문이 자유로워지자 갑자기 일인들에 의한 전통도자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생산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60년대 초반부터 도자기 공방들도 하나 둘씩 문을 열기 시작하여 지순탁은 고려도요를 설립하여 독립했고, 고영재는 방철주와 손을 잡고 동국요 공장장으로 나갔으며, 수금도요는 조소수에게로 넘어가서 광주요로 바뀌게 되었다.

유근형(柳根瀅)은 1960년 고승술의 칠기가마를 빌어 유광렬과 함께 부자가 해강고려청자연구소를 세웠는데, 유근형과 고려도요의 지순탁, 광주요의 조소수 3인은 특히 이천도예촌 형성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후진 도공들의 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이천도예촌의 형성과 발전

현대 이천도자기의 발생에는 수광리 칠기가마의 존재가 계기를 마련하였고 칠기가마를 매개체로 하여 이천지방으로 모여든 당대의 대표적인 도자장인들이 수광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통자기 제작과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칠기가마 시절부터 도자기 제

작을 용이하게 했던 입지적 조건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광리는 원적산을 끼고 광주군 산간지대와 연결되어 있어 화목의 원료인 소나무를 구하기 손쉬웠고, 도자기의 원료인 점토나 사토 등을 쉽게 주위로부터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천도예촌이 짧은 기간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인들의 왕성한 구매력도 큰 몫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60~70년대에는 이천도자기의 전통과 우수성을 인정한 일본인들이 중요한 고객이었으며 일본시장이 거의 유일한 소비창구였던 것이다. 일제시대에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고사시키려 했던 일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역설적으로 그 동안 겨우 명맥을 이어온 전통도자기 발전의 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천도공들 중에서도 유근형은 고려 멸망 이후 오랜 세월동안 제작기술이 단절되었던 고려청자를 재현하여 오늘의 수준으로 향상시킨 공로자로 평가되고 있다. 지순탁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대인관계를 활용하여 이천도자기의 성가를 알린 인물로서, 조소수는 처음으로 일본시장을 개척하여 이천도자기를 일본에 널리 소개한 공로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당초 칠기장인으로 출발하여 태동기에서부터 도자기제작에 참여했던 홍재표 · 이정하 · 고영재와 대방동가마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도공의 길을 걸어온 고명순 · 김완배 · 김종호 · 김문식 · 현무남 · 윤석준 등도 전통도예 기능 보급과 확산에 한 몫을 담당했던 인물들이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1956년 이후 약 10년 동안 일본인들에 의한 사상 유례없는 호경기를 누렸던 이천의 도자기 산업은 1974년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얼마간 주춤했다가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홍재표의 수금도요 설립을 시작으로 1975년까지 설립된 요장은 9개소였다. 그런데 76년 이후 요장설립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어 76~80년 사이에 18개소, 81~85년 사이에는 28개소, 86~88년에는 불과 2년 사이에 27개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5]

5) 지정희, 앞의 본문 21, 30쪽

최상의 호경기 시절에는 막상 몇군데 안되었던 도자기 공방들이 70

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우선 초창기에는 전문 기능인력의 수효가 한정되어 있었음을 손꼽을 수 있다. 전통 도자기 제작에는 원료의 선택, 유약의 제조에서부터 수비 · 성형 · 조각 · 1차와 2차 번조에 이르는 전과정이 까다롭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심자가 하나의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하기까지엔 상당한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각 요장들을 통한 다수의 기능인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특히 7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깨스가마의 등장은 보다 손쉬운 도자기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70년대 중반이후 요장설립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198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제작활동을 하고 있는 요장으로는 광주요(조태권) · 고려도요(지수구) · 동국요(방철주) · 해강고려청자연구소(유광렬) · 이조요(홍재표) · 보림도원(조성주) · 청파요(이은구) · 한국도요(김정묵) · 사음요(김문식) · 해림도예연구소(이춘규) · 가천요(송기영) · 항산도예(임항택) · 성전요(임일남) · 세창도예(김세룡) 등을 손꼽을 수 있다.

1981년 4월 이천의 도예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전승도예협회(韓國傳承陶藝協會)가 창립되었다. 전람회 개최, 세미나, 요지답사 등을 통한 도예문화의 발전과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승도예협회는 주로 이천과 광주지역 도예가 40여 명을 회원으로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유광렬(해강고려청자연구소)이 회장으로 있다. 81년 7월 제1회 한국전승도예협회전(서울 롯데백화점미술관)을 시작으로 11회의 회원전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1993년 11월에는 일본 하찌노헤(入戶)시에서 초대전(하찌노헤 비브레백화점 미술싸롱)을 갖기도 했다.

1987년 9월에는 이해부터 열게 된 설봉문화제의 간판행사로 이천도자기축제가 처음 선을 보였다. 도예문화의 발전과 생활도예의 보급을 목적으로 해마다 9, 10월경에 이천문화원에서 주최해 온 이 행사는 1994년 8회 축제때까지도 20여개 남짓한 요장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였다. 그러다가 문화체육부가 도자기축제의 문화관광 상품적 가치를 인정하여 시범행사로 지원한 1995년 제9회 축제때부터 대규모의 문화관광축제로 탈바꿈하였고, 지난 제10회 축제도 문체부가 지정한 8대 지역축제의 하나로 치루어졌다.

96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16일간 이천 온천 가설행사장에서 열린 제10회 이천도자기축제는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한 · 일 도예심포지움, 한 · 일 다도발표회, 국제 꽃꽂이 교류전 같은 국제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도자기 관련행사와 116개의 요장이 참여한 도자기 시장이 열려 70만명이 넘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 5월에는 신둔면 수광리에 해강도자미술관(海剛陶磁美術館)이 준공되어 문을 열었다. 해강청자연구소에서 사재를 털어 건립한 이 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도자기 전문 박물관으로써 이천도예촌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나 우리 도예문화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Ⅲ. 여주와 도자기

1. 역사적 배경

여주군은 동쪽은 태백산맥, 북쪽은 광주산맥, 남쪽은 차령산맥으로 둘러 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다. 남한강이 남동에서 북서방향으로 군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어 옛부터 육로보다는 수운(水運)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동북쪽으로는 비교적 높은 산이 펼쳐져 있으나, 서쪽으

로는 넓은 평야가 계속되면서 이천시로 이어진다.

여주군은 남쪽에는 복하천 · 청미천 · 양화천 등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북으로 흘러 남한강에 합류하고 북쪽에는 금당천이 남하하여 합류한다. 이러한 하천들은 해발 100~200m 정도의 야산 사이를 흐르는데, 하천 유역에는 평야와 낮은 구릉지대가 군데군데 발달해 있어 수렵과 어로, 농경생활이 고루 가능한 지형조건을 이루고 있는 탓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을 여러 지역에 남기고 있다.

여주지역을 대표하는 선사 유적지로는 흔암리(欣岩里) 청동기 유적지를 손꼽을 수 있다. 흔암리 유적은 여주읍에서 약 1㎞쯤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상류쪽 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 1972년부터 77년까지 서울대학교 조사단에 의한 6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주거지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흔암리에서는 집자리의 흔적들과 함께 토기 · 석기 · 곡물 · 짐승뼈 조각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갈색 연질무문토기를 중심으로 붉은 간토기, 오목무늬토기 외에도 흙을 빚어서 구워 만든 그물추가 나왔다. 특히 이 유적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탄화된 쌀을 비롯한 보리 · 조 · 수수 등의 곡물이 출토된 점으로 이 시기의 사람들이 농경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며, 연대는 대략 기원전 10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주읍 멱곡리(覓谷里) 유적은 흔암리의 북쪽에 위치하며 후기 무문토기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지이다. 그 밖에 여주읍 교리(校里)에서는 마제석검이 출토되었고, 북내면 석우리(石隅里)와 흥천면 외사리(外絲里)에서는 지난 1989년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고인돌이 발견되어 선사유적지로 판명되었다.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와 인접해 있는 외사리의 고인돌 2기는 현방리 고인돌군의 일부로 생각된다.[6]

여주군을 포함하는 남한강 유역 일대는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지에 속했다가 서기 475년부터 고구려의 영지가 되며, 이후 삼국통

6) 『흔암리 II』, 국립중앙박물관 고적조사보고서 제21책, 1989, 국립중앙박물관, 82~83쪽.

일기까지 삼국의 세력이 서로 교차하는 패권각축장이 되었다. 금사면 금사리(金沙里), 대신면 보통리(甫通里), 여주읍 연라리(煙羅里), 북내면 내룡리(內龍里), 강천면 이호리(梨湖里) 등지의 고분군은 삼국시대의 유적지이다.

고려시대의 여주지역 일부에서는 청자가 만들어진 기록이 있으나[7] 아직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단정을 내릴 수 없는 형편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여주는 도자기 제작이 초기부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전국 도기소(陶器所) 185개소 가운데 '府北串山(中)'이라 하여 여주부 북쪽에 있는 관산(串山)에서 품질이 중품에 해당하는 도자기가 이미 세종시대인 15세기 중엽에 생산되고 있었다. 그 후 16세기에 나온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여주목 특산품조에 녹반 · 금린어 · 눌어 · 실(絲) 등 네가지 품목만 나와 있고 도기는 빠져있다. 아마도 관산에서 생산되던 도자기가 이 무렵에는 이미 생산을 중단해 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지지만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이천 · 여주 · 양평 3개 지역 중 조선시대의 도자기 제작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현대의 도자기 산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양평군이었다. 당시 양평지역의 자기소로는 양근 서쪽의 두을만리(豆乙萬里)와 지평 동쪽의 대동(大東) 2개소가 있었고, 도기소로는 탑동(塔洞)과 문로곡(文老谷)의 이름이 올라 있다.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볼때 양평지역의 도자기 제조는 19세기 후반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의 일본인 아사카와 하쿠쿄(淺川伯敎)가 실시한 전국 도요지조사에서 여주와 관계된 도요지들은 다음과 같다.[8]

7) 『여주도자기 발전계획』, 1995, 여주군, 21쪽.

8) 『여주도자기 발전계획』, 21쪽.

〈表 1〉 1930년대 여주군 도요지

지 명	수	시 대	종류 및 특징
북내면 운촌리	3	고려말기~조선중기	청자상감 · 백자, 백자철회 모래받침, 태토빛음받침
가남면 맹골리	2	조선 전기	청자, 백자, 분청사기 인화, 분장분청, 대마디굽
금사면 상품리	2	조선 전기	백자 태토빛음 받침
북내면 상교리	8	조선 중기	백자 모래받침
여주읍 읍내리	1	조선 중기	백자 모래받침,태토빛음받침
북내면 석우리	1	조선 중기	백자 태토빛음받침
능서면 심도리	1	조선 후기	백자 모래받침

국내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여주지역의 도자기가 조선조 후기까지 꾸준히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인 셈이다.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내면 운촌리 요지이다. 운촌리 요지에서는 상감청자와 함께 철화백자가 출토되었다고 했으니 적어도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전기로 도자기 제작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운촌리 요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여주도자기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남면 맹골리 요지에서는 인화 및 분장계통의 분청사기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역시 주목된다.

한편 북내면 싸리산은 옛부터 양질의 도자기 원료가 생산되어 조선 숙종조와 영 · 정조대에는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이웃 광주군 분원(分院)에 납품되기도 했다고 한다.[9]

9) 『여주도자기 발전계획』, 16쪽.

2. 근대 여주도자기의 발생

여주군이 여주전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여주도자기발전계획』에 의하면 1920년 경 여주에는 요강과 막사발류

를 만드는 요장이 오학리에 4개소, 오금리 2개소, 당우리 1개소, 외룡리(담터) 1개소를 합쳐 모두 9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32년에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여주자기 시험> 보고 내용에 따르면 당시 북내면 오금리에 있는 장규환(張珪煥) · 김현채(金顯采) · 함영섭(咸寧燮) 등의 '공동작업장'이 시험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동작업장에서는 똬리가마식 등요(登窯)와 제토, 성형 그 밖에 필요한 기계기구가 설비된 작업장을 갖추고 수 명의 도공들이 전속되어 주로 조선식기류들을 만들고 있다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 제품들은 부근의 농촌이나 멀리는 한강의 수운과 그 무렵 읍내에 개통된 수여선 기차를 이용하여 경기도 내 각 지역으로 출하되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이른바 '왜사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재래식 기술로 만들어져서 형태나 색채가 조잡한 여주도자기의 수요 감퇴가 예상되므로 도의 담당자가 이를 개량할 목적에서 중앙시험소에 도자기 시험을 의뢰하게 된 것이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동기였다. 당시 일본 관리들의 산업정책에 따라 전통에 의존해 왔던 여주도자기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 셈이다.

1884년 광주군 분원에 있던 관요(官窯)가 문을 닫으면서 관요에 속해 있던 도공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 일부가 여주 오금리로 이주해 와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공동작업장이 생기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총독부 중앙시험소 보고서 내용을 통해 인용하면,

> "지금부터 40년 전(1892)에 이희풍(李熙豊)이 현 제조지로 이주하여 환요식 등요(登窯) 1기를 축조하여 사기 제조를 시작하였으나 그것도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였다. 그 다음 약 35년 전에 마지막으로 등요 1기와 약 30년(1902)전에 1기를 같은 곳에 축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또한 약 15년 전 당시의 요소유자였던 이창배(李昌培)가 경성의 부전(富田)씨로부터 신 고려자기의 제조를 인수받고 자금지원을 받아 경영하였지만 중도

에서 중단하여 그 의미는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요 및 공장을 부전씨에게 양도하고 또한 부전씨는 그 후에 무상으로 함영섭(咸寧燮)에게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자기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현 계장 장규환(張珪煥)도 마찬가지로 이미 본업에 전심종사하여 우량품 제조에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오금리는 그 부근에서 옛날부터 도자기 원료를 산출하고 공장을 지어 자기를 제조하여 많은 제품을 냈지만 그 제법이나 고래의 방법과 경험만으로는 신속한 진보를 이룩할 수 없어 원료의 연구, 제법과 설비개선 등의 필요성을 경기도지사도 인정하여 요업의 개량 발달에 주력하게 되었다. 소화 2년(1927년) 및 3년도에 도 지방비를 보조하여 요의 개량 기계구입 등 일부 개선을 꾀하는 한편 재차 소화 6년도(1931)에 4천원의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오금리에 여주도자기 제조 공동작업장을 설립할 것에 합의했다. 본소에서 추구하는 모범적인 등요 1기와 제토·성형·갑발·제조·제형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비한 공장을 축조할 계획을 추진시켜, 소화 6년 4월 공사에 착공, 동 8월에 준공하여 동 9월부터 제도업계의 사업으로서 준비를 정비하여 조선식기의 제조를 개시하였다."[10]

10)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보고』, 1932, 『여주도자시험』 ii 연혁.

따라서 오금리 공동작업장은 서기 1931년에 경기도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이에 앞서 일본 기후현으로부터 숙련자 2명을 초빙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개량 제조법을 전수시켰다고 했으니 일본의 기술지원까지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32년 중앙시험소의 시험보고가 나온 이후 관주도에 의한 여주도자기의 개량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일본기술의 대거 유입을 의미하였고, 따라서 과거 조선 도자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지던 여주도자기는 일본인들의 기호에 따라 표면이 매끄럽고 반짝이는 소위 '왜사기'를 모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기계화된 대규모 공장인 조선도기가 가동되면서 도자기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해방 전후로 해서 한양요업, 삼성요업 등의 도자기 공장이 새로 건립되었고 주 생산품은 식기류의 생활자기였다.[11]

11) 『여주도자기 발전계획』, 93쪽.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생활도자기의 제작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여주도자기의 특징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통도자기 제조기법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의 여주도자기가 품질경쟁에서 뒤진 저품질 저가품 생활도자기나 전통 자기 모방제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여주도자기의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는 광주의 관요가 파점되면서 들어 온 김현채 · 이희풍이 있고 오금실(오금리) 본 고장 출신으로 함기순 · 한호석 · 김문배 등이 있다.[12]

12) 『위 보고서』, 26쪽.

3. 여주 도예촌의 형성과 발전

일제시대 후반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여주지역에는 대규모 공장시설을 갖춘 조선도기(朝鮮陶器)를 비롯한 한양요업, 삼성요업 등이 다량의 생활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 후 조선도기는 6 · 25 동란을 겪으면서 완전 소실되었으며 그 자리에 남문요업공장이 들어서서 전기재료용 도자제품을 생산하였다.

60년대 후반부터 국내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청자와 백자를 만드는 전통도자기공장이 건립되어 호황을 누리게 되자 70년대에는 50여개의 공장으로 늘어났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이들 공장에서 기능을 연마한 기능공들이 독립하여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북내면 오학리 · 현암리 · 오금리 · 천송리 지역에 수많은 군소 도자기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현재 여주군 지역의 도자기 업체 수효는 1994년 12월 기준으로 여주군 공업계에 등록된 업체 수효만 336개소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가

내공업 형태의 소규모 미등록 업체들과 태도 유약 등의 도자기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500개소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85년 2월 여주민속도자기사업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도자기 축제를 비롯한 도자기 문화발전과 도자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88년 9월에는 북내면 오학리 318-2번지에 도자기 전시관을 신축하여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1990년에는 북내면 지내리에 도예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주업체들을 중심으로 여강전통도자기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여주도자기축제는 여주민속도자기사업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1990년 5월 제1회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 축제는 1995년까지 매년 5 · 6월 경에 소규모 지역행사로 치루어져 오다가, 같은 해에 뒤를 이어 열린 이천도자기축제의 대규모 관광축제화가 성공을 거두게 된 것에 고무되어 이듬해인 96년 도자기 축제는 면모를 일신한 대규모 행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1997년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신륵사 관광마을에서 열린 제8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세종대왕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치루어져서 외래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었다.

<이천상의 10년사, 1997>

徐熙선생에 관한 몇가지 쟁점들

Ⅰ. 들어가는 말

복천(福川) 서희(徐熙) 선생은 우리고장 이천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고려 성종조의 명신이며, 뛰어난 전략가인 동시에 자주정신에 투철한 외교관이었다. 탁월한 지혜와 용기있는 결단력으로 거란 80만 대군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던 나라의 운명을 구한 겨레의 스승이다.

성종 12년(서기 993), 고려를 침입해온 거란의 장수 소항덕(蕭恒德)은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서경 이북의 땅을 요구해 왔다.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한반도의 북쪽이 당연히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다.

적의 위세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고려 조정의 신하들은 거란의 요구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맺을 것을 주장하고 임금도 신하들의 말에 따르려고 했다. 이 때 서희 선생이 결연히 나서서 굴욕적인

화친을 반대하였다. 그후 자청해서 호랑이굴과도 같은 적진으로 가서, 적장과 담판을 통해 거란을 설득함으로써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적군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했던 것이다.

만일 서희 선생의 강력한 반대와 거란과 외교협상에서의 승리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십중팔구 고려 조정은 소신도 없이 나약하기만한 신하들의 주장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굴욕적인 화친을 맺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고려는 거란의 속국이 되어 두고 두고 나라의 주권을 간섭 당하는 수치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의 북쪽을 거란이 지배함으로써 장차 국토의 보전마저 힘든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서희 선생이 힘써 이룩한 북방영토의 개척도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적이다. 서희는 거란과의 협상을 통해, 고구려의 옛 땅인 압록강 유역이 고려의 영토임을 역설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쉴 틈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서서 북진개척에 힘을 쏟았고, 청천강 이북의 280리 땅을 확보함으로써 이 때부터 비로소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장되었던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 일본 · 몽고 · 거란 같은 주변 이민족들의 수 많은 침략으로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애국충정에 넘친 선열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서희 선생의 고결한 정신, 탁월한 지혜와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우리 민족사에 남긴 불멸의 업적은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 같은 위대한 선열들의 그것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 그런데도 선생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평가는 눈부신 업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만 하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 199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천문화원과 고구려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던 「서희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처음 조명해 본 뜻깊은 자리였다. 그때까지 선생에 관한 학계의 연구논문이

단 한편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 서희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5월 21일 서희 선생 기념상 제막식이 설봉공원 충효동산에서 열렸다. 이날 제막식과 함께 「서희선생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앞으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일들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II.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서희

요즈음 우리나라는 갈수록 복잡하기만 한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 남북이 아직도 서로 대치하고 있고, 이같은 한반도의 정세를 이용해 서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드는 미국 · 러시아 · 일본 ·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로 인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웠던 고구려의 역사마저 송두리째 남의 나라 것이 될지도 모른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기관인 변강사지연구센터(邊疆史地研究中心)가 2002년 2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있는 연구과제를 말하는데,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속 연구공정'의 줄임말이다.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한 · 중수교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한국과 조선족 사회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정부가,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동북공

정을 보는 우리측의 시각이다. 더 나아가서 국경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까지도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밝혀진 동북공정의 추진내용 가운데 고구려사와 관련된 중국측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구려는 중국 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중국의 지방정권' 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는 당연히 중국역사의 일부라는 것이다. 광개토대왕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국 수 · 당의 침략을 거뜬히 물리쳐서 용맹무쌍한 기개를 과시했던 고구려의 전사들이 지하에서 허허 웃을 일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후손인 우리들로서는 그냥 웃어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주장처럼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면 고조선도 발해도 모두 중국 역사가 되어 우리의 고대사와 중세사는 반쪽만 남게 되고 만다. 1천년 전에 거란이 그러했듯, 중국이 장차 평양 이북의 땅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고구려가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나라이므로 고구려의 역사가 곧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측의 논리는, 거란이 고려 침략의 구실로 내세웠던 '거란이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므로 평양 이북의 땅도 자기네 영토' 라는 당시 거란의 억지주장과 매우 비슷한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맞서서 서희 선생은, '고려' 라는 나라 이름에도 나타나듯 고려야 말로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하여 거란이 꼼짝 못하고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중국의 역사왜곡 뿐만이 아니다.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철수, 농산물 개방과 어업협상, 독도문제 등 산적한 외교상의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을 볼 때마다, 서희 선생의 탁월한 외교력과 협상능력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뛰어난 정세판단과 소신있는 협상력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던 선생의 자주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이다.

Ⅲ. 서희 선생은 장군이 아니다.[1]

1)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연구회 서길수 교수가 〈서희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서희 선생을 아직도 '서희 장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거란군의 침입 당시 중군사로 임명되어 적장과의 외교협상을 통해 거란군을 물리쳤고, 또 잇달아 군사들을 이끌고 북진을 개척했기에, 이같은 선생의 행적이 호칭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희 선생은 문관이지 장군이 아니었다.

광종 11년(서기960), 18세 때 과거에 급제한 서희는 첫 벼슬로 정6품 문관직인 광평원외랑(廣評員外郞)에 임명되었다. 31세 때인 광종 23년(서기 972), 내의시랑(內議侍郞)으로 있으면서 송나라에 사신으로 간 선생은, 송 태조로부터 검교병부상서(檢校兵部尙書)란 중국의 벼슬을 받기도 했다. 검교란 일종의 임시직이나 명예직을 말하며, 병부상서는 군사업무를 관장하는 직책이지만 역시 문관직이다.

42세가 되던 성종 2년(서기 983), 상서도성의 종3품 벼슬인 좌승(左承)을 거쳐 병관어사(兵官御事)를 지냈고, 같은 해 내사도성의 정2품 벼슬인 내사시랑(內史侍郞)으로 승진하였다. 10년 뒤인 성종 12년(서기993), 역시 내사시랑으로 있으면서 북쪽 거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되자 중군사(中軍使)로 임명되어 북진을 수비하였다.

거란이 드디어 80만 대군으로 침입을 감행해 오자, 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굴욕적인 화친을 맺으려는 것을 앞장 서서 반대했으며, 적장과 외교협상을 벌려 적군을 물리쳤다. 그 이듬해부터 3년 동안 북진개척을 지휘하다가, 목종1년(서기 998), 57세로 돌아가실 때의 벼슬이 내사도성의 최고 벼슬인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 종1품)이었다.

이와같이 서희 선생은 18세 때 문과 급제한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문관으로 여러 요직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나라가 위급하게 되자 국경을 수비하고 군사들을 지휘하여 성을 쌓는 임무를 맡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희 선생을 장군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한 호칭이 아

닌 것이다.

고려시대 초는 무인을 홀대하였기 때문에 무인들의 벼슬은 그리 높지 못했다. 가장 높은 상장군이 정3품, 대장군이 종3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희장군'이라고 부를 때의 '장군'은 정4품으로, 무인들은 아무리 높아도 정3품 이상 올라 갈 수가 없었다. 이와같은 무인들에 대한 지나친 차별대우가 원인이 되어 무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결과, 고려의 무인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렴강직한 성품의 이름난 문신이며, 뛰어난 전략가요 외교관으로 활약한 서희 선생을 '장군'이라 부르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의 신분과 업적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는 셈이니, 앞으로는 장군이란 호칭을 쓰지 않도록 해야 겠다.

Ⅳ. 탄생년도에 대하여

서희 선생이 태어난 해에 대해서는 태조 25년(서기 942)과 태조 26년(서기 943)의 두 가지 설이 함께 통용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이처럼 탄생연도에서 1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려사』 열전 <徐熙>편 기록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고려사』 세가(世家)에는 선생의 출생에 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목종 1년 7월>조에 '태보내사령 서희가 사망했다' 고만 나온다. 그런데 <서희> 열전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서희의 소자(小字)는 염윤(廉允)이다.
> 내의령(內議令) 서필(徐弼)의 아들이다. 성품이 엄격하였다. 광종(光宗) 11년에 나이 18세로 갑과(甲科)에 발탁되어 광평원외랑(廣評

2) 2001, 동아대학교외 『CD-ROM 원전고려사』 〈094열전 07/제신/서희〉

> 員外郞)을 초수(超授)하였다.[2]

18세로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였으니, 급제한 해인 광종 11년에서 18년을 역산하면 탄생년도는 서기 943년이 된다. 그러나 같은 열전 뒷부분에는,

> 목종(穆宗) 원년에 별세하니 나이 57세였다. 진도(震悼)하고 포(布) 1000필, 보리 300섬, 쌀 500석, 뇌원차(腦原茶) 200각, 대차(大茶) 10근, 전향 300냥을 부의하여 예로써 장(葬)하고 장위(章威)라 시(諡)하였다.[3]

3) 위와 같음.

라고 하여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57세라고 밝혔다. 같은 방법으로 목종1년 (서기998)에서 57세를 역산하면 탄생년도는 서기 942년이 맞는다. 같은 열전속에서도 이렇게 두 기록이 차이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쪽 기록이 맞는 것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다.

참고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942(943?)으로 적어서 두가지 설을 모두 표시했고, 중앙일보 판 『인물대백과사전』은 942(?)년으로 표기하였다. 1999년 고구려연구회가 펴낸 서희 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 논문집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에서는, 추모사를 쓴 당시의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과 「서희의 가계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서길수 교수가 모두 942년 설을 따랐고 『이천시지』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다. 942년 탄생설이 학계의 정설인 셈이다.

942년과 943년 중 어느 설을 따르더라도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942년으로 통일해 쓰는 것이 좋겠다. 당시의 역사 기록자들이 서희 선생이 과거에 급제하던 해의 나이를 잘못 계산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대 최고의 재신이며 명망인사가 별세한 해의 나이를 잘못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에 비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V. 熙(빛날희)인가, 凞(화할희)인가

서희 선생의 한문 이름자 표기는 거의 대부분의 기록과 문헌들이 '빛날 熙' 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화할 凞' 로 써야 맞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 본 『이천읍지』의 기록들이 하나같이 '화할 凞' 로 되어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무심코 써온 서희 선생의 함자를 외람되게도 잘못 기록해온 셈이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필자의 얕은 한문실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통용되고 있는 '熙' 자는 '빛날희' 의 속자이고, 정자는 '熙' 로 쓴다는 사실을 한문대사전을 찾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빛날희' 의 또 다른 속자가 '凞' 이다. 『고려사』의 기록들은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번역문에서는 모두 정자인 '熙' 를 쓰고 있다.

서희 선생의 함자가 나오는 옛 문헌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밝혀 졌다. 그것은 연대가 가장 오래 된 『세종실록지리지』부터 그후 차례대로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가 모두 '빛날희' 자를 '熙' 자 왼쪽에 획이 하나 더 들어간 '凞' 로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조선조 후기인 1760년대에 간행된 『여지도서』부터 시작해서 그후에 나온 모든 읍지류들은 하나같이 '화할 凞' 를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여지도서』를 기록한 누군가가 빛날희의 속자인 '凞' 자의 획을 이수변(冫)으로 잘못 적었다고 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후의 읍지류들 역시 아무 생각없이 여지도서를 그대로 모방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서희 선생의 함자는 종전대로 '빛날희' 로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

Ⅵ. 강동 6주 아닌 8성으로 해야

서희 선생이 적장 소항덕과 외교협상을 벌린 결과 고려는 거란으로부터 압록강 안팎의 영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선생은 이듬해인 994년부터 북방개척에 나서서, 3년이란 짧은 기간에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까지 280리 지역에 살던 여진인들을 몰아내고 요충지에는 성을 쌓았다. 서희의 북진개척에 따른 역사적 의의를 서일범 교수(현 중국연변대 서울사무처장)는, '비록 압록강 이북의 광활한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데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할지론(割地論)까지 등장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서희의 탁월한 외교적 수완과 고토회복의지, 그리고 과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청천강 이북지역은 영원히 우리의 국토에서 분리되어 나갔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한반도의 현재를 가능케 한 일대사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4]' 고 지적하였다.

4) 徐日範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 1999 『서희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 논문집』

서희 선생이 개척한 청천강 이북의 북방영토를 흔히 '강동 6주'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 서희열전에는 장흥 · 귀화 · 안의 · 흥화 4진과 곽주 · 귀주 · 선주 · 맹주 4주에 성을 쌓았다고 분명하게 나와있어 모두 8개의 지역에 성을 쌓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덟 개의 성의 이름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이상 출처가 불분명한 '강동 6주'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서일범 교수는 '서희 8성'이란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바 있다.[5]

5) 위의 논문참조

끝으로 서희 선생과 역사적인 담판을 벌린 적장 소항덕(蕭恒德)의 호칭에 관한 문제다. 동경유수이며 거란 임금의 사위였던 소항덕은 『고려사』 이래 각종 문헌에 소손녕(蕭遜寧)으로 나오는데, 소손녕은 본명이 항덕이고 자가 손녕이라는 사실이 얼마전 『요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요사』에서는 하나같이 '항덕'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우리측만 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는 옛날 선비 사회에서 가까운 사이 끼리 상대방을 점잖게 높여 부

르던 이름이다. 당나라의 시인 백낙천(白樂天)과 이태백(李太白)도 후세 사람들이 이들을 경모하는 뜻에서 백거이(白居易), 이백(李白)이란 본명을 제쳐두고 자를 부르다 보니, 우리들 귀에는 본명보다 자가 더 익숙해져 있다. 항덕을 소손녕이라 불러도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침략군의 우두머리인 그에게만 점잖게 자를 붙여 예우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본명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소항덕이란 본명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Ⅷ. 맺는말

지금까지 몇가지 쟁점들을 통해 살펴보았듯, 서희 선생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기가 천 년도 더 넘는 아득한 옛날의 일이고 보니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연구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관련자료들도 턱없이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학계의 연구실적 역시 미흡하기만 하다. 앞 글에서도 지적했듯 서희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도중 출판사로부터 예기치 않았던 책 한 권을 증정받았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김기홍 교수가 쓴 『서희, 협상을 말하다』라는 책이 그것이었는데, '위대한 협상가로서의 서희'를 집중 분석하고, 서희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과 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의 입장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난 1999년의 학술논문집을 빼고는 처음 선보인 서희 선생에 관한 책인 셈이다.

김기홍 교수는 탁월한 협상가인 서희의 덕목을 시대에 대한 소명의

식과 지적능력, 국제감각, 통찰력, 원칙준수와 용기,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대화능력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서희 선생과 같은 인물이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설봉문화, 제31호, 2004>

율면 고당리의 민속놀이와 민요

Ⅰ

星泉 柳達永선생은 1911년 이천군 대월면 고담리에서 태어나 지난 2004년 향년 94세로 별세하시기까지 평생동안 농촌사랑과 농촌운동을 위해 헌신해 오셨다. 선생이 1936년 수원고농(서울대 농과대학 전신)을 졸업하면서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농촌조사연구』는, 이천군 율면 고당리를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여 당시의 농업구조와 농촌사회를 세세한 부분까지 파헤쳐 보여주고 있다.

『농촌조사연구』는 능숙한 필체의 펜글씨로 내려쓴 16절 250쪽 분량으로 일본어로 쓰여졌다. 제1편 개관 및 자연조건, 제2편 경제현황, 제3편 사회현황으로 나누어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제1편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며 위치와 명칭, 연혁 및 주민, 자연조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편 경제현황에서는 농지, 농업과 기타생업, 노동력, 농업상의 개선할 사항, 교통 및 운수, 금융, 재정을 다루었다.

제3편 사회생활에서는 의식주의 개선대책, 사회생활, 위생, 교화, 종교 · 미신 · 의식, 속담 및 기타, 농민심리, 농촌피폐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세시풍습과 농민오락, 관혼상제, 속담과 격언, 민요, 수수께끼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조사하여 수록하고 있어 하나의 마을지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이다.

『농촌조사연구』에 나타난 70년전 일제시대 고당리의 상황과 현재의 고당리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천문화원은 유달영 박사의 졸업논문을 토대로 고당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농촌의 과거와 현재, 가능하다면 미래까지를 조망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상지대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와 손잡고 새로운 농촌조사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예산지원을 하기로 한 이천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일본어로 된 논문집 번역작업을 끝낸 채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 글은 상지대 유기농센터의 의뢰를 받아 『농촌조사연구』에 수록된 율면 고당리의 민속놀이와 민요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글이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연구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민속놀이와 민요뿐만 아닌 각 분야별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율면(栗面) 고당리(高塘里)는 원래가 음죽군(陰竹郡) 하율면(下栗面)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 초인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음죽군의 대부분이 이천군으로 흡수 통합되었고, 이 때 고잣골(高尺里) · 못골(池洞) · 연화동(蓮花洞) 3개 자연부락을 고당리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천시 최남단에 자리잡은 율면은 지금도 관내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손꼽힌다. 시청소재지에서 남쪽으로 28Km 떨어져서 거리상으로도 가장 먼데다가, 북쪽 외곽을 청미천이 가로 막혀 교통이 불편했던 탓이다. 지금은 장호원읍과 안성시를 연결하는 38번 국도와 지방도로가 비

교적 잘 정비되어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

고당리는 율면에서도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장호원읍 어석리와 설성면 제요리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유달영 선생이 1936년 졸업논문 『농촌조사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율면 고당리를 선택하게된 동기나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시 조사된 내용을 보면 고당리의 총가구수는 77호였고 그중 순농가가 70호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고당리는 면사무소, 파출소, 초중고등학교, 농협, 우체국 등이 모여있는 면소재지이다. 그럼에도 1997년 통계[1]를 보면 총 107호 중 농가 62호, 비농가 45호로, 아직도 농가 호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60년 전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것이다.

1) 「이천시율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1997. 5. 이천문화원, 강남대인문과학연구소

한편 1936년의 고당리 인구는 437명으로 남 235, 여 202명이었다. 그런데 61년이 지난 1997년에는 가구수는 30호가 더 늘어났는데도 인구는 318명(남 162, 여156)으로 오히려 120여 명이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농촌이농현상과 소가족제도의 정착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유달영의 『농촌조사연구』에는 당시 고당리의 연혁과 마을개관 및 자연조건을 시작으로 농업과 경제현황은 물론, 가족제도와 마을조직, 세시풍습, 오락, 관혼상제, 종교, 민속신앙 등에서 속담, 격언, 민요, 수수께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사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하나의 마을지라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논문 이후 꼭 60년이 지난 1997년에 가서야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조사단에 의해 고당리에 대한 본격적인 민속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2] 두 보고서에 수록된 민속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민속놀이와 민요 부분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2) 위의책

II

『농촌조사연구』 <농민오락> 부분에서 유달영은 다음과 같은 민속놀이들을 열거하였다.

<농민오락>
①농악 ②씨름 ③윷놀이 ④널뛰기 ⑤그네타기 ⑥장치기 ⑦장기 · 바둑 · 화투 등 ⑧축구 ⑨기타-고누(오밭 · 육밭 · 사밭 · 물밭 · 장수밭 고누)
<소년놀이>
①귀신놀이 ②술래잡기 ③달리기경쟁 ④수건치기 등
<여자놀이>
①품감뭇기 ②수벽치기 ③방맹이 다림이 ④말달래기 ⑤동아떼기 ⑥꼬부랭깽깽 ⑦사방치기 ⑧봉상매(蜂商賣) 등

한편 <연중행사> 항목에서는 위에 열거된 외에도 각종 세시풍습과 함께 음력 정월의 줄다리기와 팔월 추석의 거북놀이를 손꼽고 있다. 이천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거북놀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았는데, 당시 고당리에서도 마을 청년들에 의해 거북놀이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수수 잎으로 크기 2칸 정도의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조종하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거북모양을 쓰고 집집마다 찾아가 기쁨을 노래와 섞어가면서 말한다. 집집마다 거북이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기쁘게 맞아들여 대접한다. 음식이 나쁘면 거북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진다. 술이라도 주면 아주 기뻐하면서 덕담을 잔뜩 늘어놓고 나서, 거북이 의사가 건

드리면 거북은 곧 일어나서 미친 듯이 춤을 춘다. 농민에게 알맞은 극이다'

고당리에 있는 율면중고등학교(당시는 배영중고)학생들에 의해 재현된 거북놀이가 1998년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제주도에서 열린 제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나가 금상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1997년 조사에서도 <개인놀이>는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그네, 화투, 씨름, 장치기 등으로 대체로 비슷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1936년 당시 아이와 여성놀이로 조사된 수건치기, 품감뭇기, 방맹이 다림이, 동아떼기, 봉상매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를 지칭하는지 확실치가 않다. 농촌풍습이 바뀌고 놀이문화가 달라지면서 대부분 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북놀이를 비롯한 줄다리기, 농기싸움 등의 <집단놀이>들도 다른 대부분의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없어졌다.

III

『농촌조사연구』에서는 <구전민요>라고 해서 모두 36편의 전래민요들을 채록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모심기, 김매기소리 같은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일노래와 상여소리같은 제의요(祭儀謠)들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불리고 있는 고당리 사람들의 노래로 제비가, 유산가, 방아타령, 노래가락(잡가), 놀앙(木樵), 모심는 소리, 아리랑, 제석거리, 창부타령, 흥타령, 농부가, 권주가, 난봉가를 손꼽았는데,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해서 조사를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채록된 민요들은 시집살이, 베틀노래, 자장가 등 부녀자들의 내방요와

아이들의 유희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방요중 몇 곡을 1997년도 조사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베틀노래

하늘에 베틀놓고 구름에 이엉거니
잉어떼 형제오 눈썹노리 두형제오
늘늠때는 독신이라 뱁댕이 소리는
구시절 세단풍에 왕가랑닢 소리같고
꼭두마리 우는소리 어미일흔 기럭이가
제고향 차저가며 슲이우는 소리로다
후영구분 제활은 서천에 무지개같고
암방담방 로설새는 남쪽으로 나거는듯
북쪽으로 나거는듯 밀대막대 드문드문
게수방에 드나든다

– 농촌조사연구 –

베틀가

오늘날두 하 심심한데 베틀이나 놓아볼까
베틀다리가 두다리요 내다리두 두다린데
하늘에 있는 선녀 할 일이 전혀없고
동남간에다 베틀놓고
베틀다리는 양 두다리
큰 애기 다리두 양 두다리
구름잡어 잉아달구 잉아짜는 실 명주여
받침대는 형제로다 눌림대는 녁신이요

두줄이 있는 잉아
제파방이 팔을 잡고 억만장을 헤치는 듯
앉을뱅이 앉은 양은 용상에 앉어서
베틀에 앉은 양은 하늘에 노든 선녀
상사울 꾀꼬리가 양 미간에 넘나든다
신추리 나무는 꼬부랑 거리는 건
강태공의 곧은 낙수 때를 찾는 듯 하구요

– 율면민속조사 –

시집살이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사리 어떱디까
부대부대 일러주오
동생동생 사촌동생 시집사리 말도말게
다홍치마 거러놓고 들어올적 나갈적에
눈물씻기 다저젓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사리 어떱디까
아고애야 말도말아 고초당초 맵다더니
시집사리 더맵더라

– 농촌조사연구 –

시집살이

시집살이 못하고 가라면 갔지
술 담배 끊고선 나 못살겠네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 율면민속조사 –

자장가

아가야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은자동이 금자동이 수명장수 부귀동이
은을주면 너를살가 금을주면 너를살가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동내방내 유신동이 태산같이 굿세거라
하해같이 깊어라 유면천하 하여보자
잘도잘도 잘도잔다 두둥두둥 둥기둥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 농촌조사연구 –

자장가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자장
부모님껜 효자둥아
나라님껜 충절둥아
자장 자장 우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 율면민속조사 –

『농촌조사연구』에 수록된 '유희요' 가운데는 나이가 50~60대 연배라면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많다.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주었거나, 아이들끼리 뛰어놀며 부르던 그런 노래들인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면,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 새야새야 –

앞니빠진 갈가지 우물앞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랜다.
앞니빠진 갈가지 서울길에 가지마라
수탉한테 채일라 암탉한테 채일라

– 풍소(諷笑) –

추어추어 추달래 까치달래 시달래
원충이네 큰애기 어름에 빠진 쇠눈깔

– 추어 –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새 만재 두만재
지탕개 조탕개
누무리탁개 꼽박꽁꽁

– 수노래 –

시상달공 할아범이 마당쓸고
꿔떠러진 돈한푼을 얻어서
장에가서 밤한말을 사다가
살강밑에 두었더니

머리감은 생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썩은밤 한톨을 남겼네

– 시상달공(밤노래) –

아침먹이 찌어라 저녁먹이 찌어라
우리댁아씨 흰떡방아 네가 대신 찌어라
건너집처녀 꼬리방아 네가 대신 찌어라

– 방아개비 –

떡해먹자 부–엉 양식없다 부–엉
걱정말게 부–엉 꿔다하지 부–엉
언제갚세 부–엉 갈에갚지 부–엉

– 부엉이 –

그런데 1997년 율면민속조사에서는 유희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아이들의 놀이모습도 크게 달라지다 보니 전래되어 오던 유희요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Ⅳ

고당리의 대표적인 전래 민요로 '정승달구지'가 있다. '달구지'는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통과의례 중 상례 때 시신을 매장하면서 부르거나, 집터 등을 다질 때 부르는 제의요이자 일노래이다. 상례가 인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인 만큼 달구지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친근한

노래였다. 그런데 고당리 정승달구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뚜렷한 유래를 지니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달구지'는 '달구질' '달구' '달고'라 부르기도 하며 흙을 다지는 행위와 소리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어미에 -소리를 더해서 '달구질소리' '달구소리' '달고소리'라 부르기도 하고, 요즈음은 '달구질노래' '달구노래'처럼 -노래란 말을 붙이기도 한다. 또한 '회다지' '회방아' '회다지소리' '회방아소리'라는 호칭도 있다. '달구지'라는 말의 어원은 이 소리가 주로 흙을 다질 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진다'는 뜻의 '다짐질' '달구질'에서 왔다고 본다.[3]

3) 『율면 정승달구지 조사보고서』 김양원, 2004, 이천문화원

『농촌조사연구』에는 정승달구지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조사자가 관혼상제나 민요 부분에서 명칭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당리에 이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고당리 정승달구지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97년 율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를 통해서 인데, 그 후 소리와 달구질 동작으로 이루어진 춤사위를 합쳐서 민속놀이형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율면정승달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명칭은 율면정승달구지로 하고 있지만 율면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유독 고당리 지역에서만 불리우고 있다. 고당리 주민들이 중심이 된 '율면정승달구지'는 2005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받음으로써 뛰어난 음악성과 보존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고당리의 정승달구지는 명칭에서부터 '정승(을 위한)달구지'로 차별성을 보여주며,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뚜렷한 연원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말엽 안동 김씨들의 세도정치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문중인물인 효정공(孝貞公) 김영근(金泳根)의 장례를 모시는데 당시 한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선소리꾼을 뽑아다가 썼다고 한다. 고당리의 달구질소리는 그때 그 유명한 선소리꾼으로부터 마을에 전수되고, 이후부터 고당리 선소리꾼의 전유물이 되었다. 정승달구지라

는 명칭도 그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이다.[4]

4) 『율면 문화유적 민속조사 보고서』 381쪽

김영근은 조선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광주목사를 지낸 복순(復淳)의 아들이다. 철종의 장인인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과 사촌간이며, 아들인 김병기(金炳冀)가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핵심인물인 김좌근(金左根)의 양아들로 들어갔다. 철종 3년(서기 1852) 황주목사를 시작으로 순탄한 벼슬길에 올라 황해도관찰사, 강화부유수, 공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지내고 판돈령부사에 이르렀다. 영의정에 증직되고 효정(孝貞)의 시호를 받았다. 김영근의 묘가 지금도 고당1리 웃상알 기슭에 있으며 부친 복순의 묘는 고당1리 마을회관 뒤에 있다.

김영근이 사망한 해는 고종 10년(서기 1873)으로 안동 김씨들의 세도정치가 막을 내린 대원군 집정기이다. 권좌에서 밀려났다고는 해도 당대 명문세가의 인물에 대한 장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호화로웠을 것이다. 여러 날이 걸렸을 장례 준비에서부터 상여를 메고 봉분을 꾸미는 온갖 잡일들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의 몫이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정승달구지가 자연스럽게 마을사람들에게로 전승되었을 것으로 본다.

상례가 끝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노래가 불리워진다. 발인하기 전날 밤에 재도듬놀이를 할 때 부르는 재도듬소리, 발인하여 상여가 장지까지 가는 동안에 부르는 상여소리, 하관하고 흙을 덮으면서 부르는 달구지소리로 연결된다. 이 세가지 소리는 가끔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달구지소리는 무덤을 조성하면서 흙을 다질 때 부르는 소리다.

율면 지역에 있는 40개의 자연부락에는 여러 가지의 재도듬소리, 상여소리, 달구지소리가 남아있으며, 그 사설은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당리의 정승달구지는 내용에 있어서 인근지역 노래에 나오는 사설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으며 후렴구도 7가지(실제로는 8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히 상례에 사용되는 노래의 총결산편이

라고 할 만하다.[5] 이처럼 정승달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설의 풍부함과 가락, 특히 후렴구의 다양한 변화에 있으며, 거기에 달구지 동작을 형상화한 춤이 함께 어울어져서, 점점 고조되는 가락과 점점 빨라지는 춤이 기 · 승 · 전 · 결로 이어지면서 완성감을 준다.

5) 『율면 정승달구지 조사보고서』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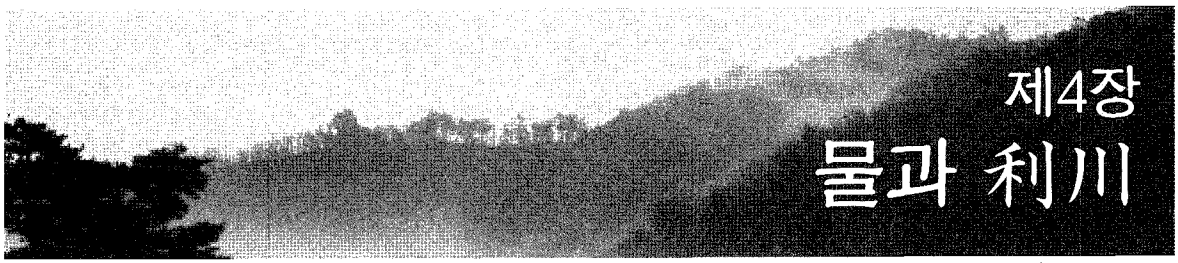
고당리 정승달구지의 기능보유자로는 박영하씨가 있다. 박영하씨는 1941년 생으로 고당1리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18세 되던 1958년 무렵에 당시 마을의 선소리꾼인 박갑진씨로부터 달구지 소리를 전수받았다고 한다. 박영하씨는 그 후 고당1리 지역에서 선소리꾼을 해왔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승달구지의 선소리를 메길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다.

달구지는 예전에는 어느곳에서나 흔히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익숙한 노래였으나, 장례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면서 지금은 시골에서 조차 달구지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게 되었다. 정승달구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나마 남은 노인층 몇몇에 의해 겨우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06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면서 이천문화원이 주선해서 고당리 주민들과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합동으로 율면정승달구지보존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전승달구지의 보존 전망은 여전히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리의 기능을 전수받을 만한 청장년층이 마을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정승달구지가 일반적인 민요나 일노래가 아닌 장례용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뛰어난 민속문화인 정승달구지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다.

<2008>

여 백



제4장
물과 利川

여 백

故鄕 이야기

사무실이 있는 군민회관 삼층에서 보면 이천읍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그런데 그 시가지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시골 읍내에서는 보기드문 고층건물들이 이곳 저곳 들어서고, 바쁘게 오가는 차량과 인파가 어느 큼직한 도시의 한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필자가 국민학교 삼학년 시절, 다니던 학교가 둘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지금의 분수대 로타리 부근에 있었던 천막학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흙바닥에 붙박이로 박아놓은 엉성한 나무걸상과 책상에서 공부를 하면서, 쉬는 시간이면 교문 앞에 버려진 녹슨 탱크 위로 달려가 신나게 병정놀이를 하느라고 시간가는줄 몰랐었다. 장마철이면 천막교실 옆으로 도랑이 패어 때아닌 실개천이 흘렀고, 그 도랑에서 빗물을 타고 올라온 송사리랑 미꾸라지를 잡기도 했다. 철조망으로 둘러친 담장 넘어로 흰 연기를 뿜으면서 오가는 장난감같은 수여선 기차를 바라보며 우리들은 자랐고, 지금도 필자는 그 시절의 꿈같은 기억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천막학교와 기차역이 있던 일대가 이천의 중심가가 되어 고층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성모마리아상의 수줍은 미소가 반겨주곤 했던 아리산 밑 옛 성당자리, 논밭이 질펀했던 공설운동장 부근, 산등성이 위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운치있던 우시장 건너 망재동산 모두가 지금은 집들이 빈틈없이 들어찬 주택가가 되어 버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의 경우는 한 두해 전이 옛날일 만큼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자리를 잡고 고향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고향을 떠나서 살고있을 망정, 생각나면 어느 때고 달려갈 수 있는 고향을 가진 사람도 행복한 축에 든다. 수 년전 텔레비젼의 이산가족찾기를 통해, 돌아갈래야 돌아갈 길이 없는 실향민들의 뼈저린 한과 슬픔을 우리는 눈이 아프도록 보았지 않았던가.

이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어린 시절 읍내 복판을 흐르는 중리천에서 송사리떼를 잡던 일과, 복하천이나 배증개 다리 밑에서 물고기를 잡아 천렵을 즐기던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여년 전부터 어느 냇물이고 할 것 없이 시커멓게 썩은 물이 악취를 풍기고 있다. 요즈음은 송정리나 작은 절, 또는 칼바위 아래 있는 약수터마다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천의 수도물도 믿을 것이 못된다는 주민들의 불신감을 읽을 수 있다. 온 나라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낙동강 페수의 이야기가 강건너 불보듯 구경이나 하면 그만인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천읍이 안고 있는 문제는 오염된 물 뿐만이 아니다. 신흥도시가 갖는 주택난과 주차난이 그렇고, 비싼 물가가 그렇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나 문화공간 부재에 따른 문제들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시가지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마을로 나가보면 그곳은 그곳대로 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어지럽게 널린 비닐조각과 독한 농약냄새와 생활에 찌든 깊은 주름살이 있는 우리네 농촌은 인기드라마 '전원일기'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정답고 목가적인 풍경과는 도무지 거리가 멀다. 어디 그 뿐인가, 힘만 갑절이 들고 소득이 적은 농사일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 폐가가 된 집들이 어느 곳이나 수두룩한 실정이다.

우리 고향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고층 건물과 공장,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와 번창한 상가 등 눈에 띄는 양적 팽창이 과연 바람직하기만한 현상인가를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향에 살고있을 망정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다. 발가벗고 미역감던 설봉산 기슭의 계곡이며, 메뚜기떼가 지천으로 날아다니던 들판들도 모습은 그대로일 망정 옛날의 계곡이며 들판이 아닌 것이다.

모두들 잘 살아보자고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왠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도 더욱 잘 살겠다고 모두를 발버둥치며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한다. 물질의 풍요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장 눈 앞에 있는 이익과 편리함만을 쫓다보니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음이 문제가 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젠 주변을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더 나아가서 이땅의 주인이 될 우리의 어린것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뿌린만큼 거두는 것, 준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 변함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중리천에서 사라진 송사리떼가 되돌아 오고, 들판의 메뚜기떼들이 부활하는 날이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되찾는 날이며, 우리들 모두가 함께 잘 살게되는 날인 것이다.

<이천중앙신협회보, 1991, 봄호>

地名과 향토사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뭐니해도 사료나 옛 문헌같은 관련자료의 부족일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이나 문헌비고, 읍지 등 잘 알려진 몇 종류의 사료들을 제외한다면 우리에게는 지난날 각 지방의 당시 모습을 알려주는 지방사료관계 문헌들이 거의 없으며, 이런 사정은 우리 고장의 경우 더욱 심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향토사 연구에 매우 소중한 단서가 되는 것이 마을이나 들판, 골짜기 이름같은 지명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창전리 관고리 사음리 하는 행정리의 명칭들은 한일합방 이후인 1914년 일인들이 효율적인 식민지통치를 위해 제멋대로 갈라놓고 이름지은 것들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지명이 갖는 특별한 의미나 역사성이 없다. 따라서 지명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닌 옛부터 불리워져 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새말·앞들·텃골 같은 우리 지명들이 소중한 단서가 된다.

필자가 지난 70년대 말 우리군 관내의 문화재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 지명이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바위 표면에 새긴 유려한 선과

균형잡힌 솜씨가 관내에서 가장 뛰어난 불상조각으로 손꼽는, 소고리 마애여래상과 그곁의 마애삼존불도 처음 찾아내게된 동기가 부처바위라는 지명 때문이었다. 부처바위란 지명만 보고 처음에는 자연석이 부처의 형상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했으나 수소문해 알아보니 불상이 있다고 한다. 이리 저리 길을 물어서 마국산자락 작은 골짜기 안에 있는 부처바위를 가까스로 찾아갔을때, 오랜 세월 풍우에 씻긴 바위표면으로 은은하게 떠오르던 부처님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기막골·사기실·점말·가마골같은 이름들은 모두 도자기를 굽던 자리와 관련있는 지명들이다. 마장면 해월리의 자연부락 이름이 사기실과 점말이어서 찾아나선 결과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백자요지의 완연한 가마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도예가 우현과 둘이서 처음 해월리 현지답사를 나갔던 때는 아직 산기슭에 군데 군데 잔설이 남아있는 이른 봄이었다.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탐문한 결과 찾아낸 자리는 산기슭으로 이어진 밭두렁이었는데 반쯤 허물어진 가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데 오토바이를 탄 순경이 쫓아오더니 신분증을 보자고 한다.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서에서 나왔다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했던 기억도 새롭다.

마장면 관리의 마을이름이 가마골이어서 역시 일부러 답사를 나갔었다. 동네 노인들을 만나 혹시 옛날 그릇을 굽던 자리라든가 깨어진 사금파리들이 많은 곳이 없는가를 물었더니 천연덕스럽게 없다는 대답이었다. 결국 가마골이란 이름은 도자기와는 관련이 없고 마을이 가마솥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인 탓에 유래된 이름이란 결론을 내리고 뒤에 책으로 펴낸 지명유래집 속에도 그렇게 적어 넣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가마골에 요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어떤 사람의 제보를 받고 다시 답사를 해보니 조선 초기의 백자요지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가마골의 경우는 마을 노인들의 말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던 경우

이다.

지명 속에는 그 지방의 역사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향토사와 관련지어 앞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천군과 용인군 경계에 있는 대덕산에 입석재란 이름의 고개가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옛날 대덕산에 입석사(立石寺)란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입석(立石)이란 주지하다시피 선사시대의 유물인 선돌을 말한다. 대덕산에 입석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돼야할 과제다.

조선조 때의 향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감독하는 관학이었던 탓에 아무 데에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군·현 단위 이상에만 향교를 두었으므로 우리 고장의 경우는 현존하는 이천향교 말고는 음죽현의 읍치였던 장호원읍 선읍리의 음죽향교가 있었을 뿐이다. 음죽향교는 지금 없어졌지만 향교말과 향교터란 지명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향교와 관련된 지명들이 있어서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호법면 송갈리에 생겨들(향교들)이 있고 마장면 이치리에 생교모퉁이가 있으며, 관내 마을중 손꼽히는 산간 오지인 설성면 대죽리에도 생겨골(향교골)이 있다. 이들 이름이 모두 옛날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이라고 구전되어 오고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명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우리 고장 향토사 연구의 미해결 분야 중에서도 시급히 규명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남천정(南川停)의 위치를 규명하는 문제다. 삼국시대 말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신라가 이천지방에 설치했던 남천정은 삼국이 서로 숨가쁘게 각축전을 벌렸던 무렵 신라군의 전초기지였고, 삼국통일의 시발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 소재지가 이천이라는 것 뿐 분명한 위치가 규명되지 않은 채 설봉산성과 효양산토성의 두가지 설이 엇갈려 있으며, 마장면 오천리 부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양녕대군이 이천으로 귀양살이를 와서 농사(農

舍)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당연히 그 농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의문으로 남게 된다. 김모재가 이천에 와서 은둔했던 줏골이란 동네는 지금의 부발읍 죽당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위치 뿐만 아니라 지명 중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할일은 참으로 많은데 자료는 부족하고 아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으며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대도 마땅치가 않다. 겨우 뜻이 통하는 몇사람이 강변에 흩어진 조약돌을 가려내듯 향토사의 편린들을 찾아줍고 꿰맞추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실상인 셈이다.

<鄕脈, 창간호, 1992. 8>

물과 利川

각종 공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대기오염과 함께 가장 염려되는 공해현상인 수질오염이 우리고장에서도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이천읍을 관류하여 흐르는 중리천에서 송사리떼가 모습을 감춘 것은 십수년도 넘는 옛날의 일이며, 이천의 젖줄인 복하천도 청미천도 시커먼 빛깔로 변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처럼 이천의 주민들도 이젠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으며, 약수터마다 물통을 들고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도 낯익은 풍경이 되어버렸다. 물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수질오염은 우리의 생명보존과 직결된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고장은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 고을이름부터가 물이름이 들어가는 '南川'이었고 '利川'인 것이다. 고구려 때의 南川이었다가 고려 건국 초부터 利川이라 불리워지게 된 유래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고려 개국 초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잔존세력을 소탕

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하는 길에 우리 고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때마침 홍수가 나서 탁류가 굽이치는 복하천을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차에, 효양산에 사는 이천사람 서목(徐穆)이란 사람이 물길을 인도하여 무사히 냇물을 건널 수 있었다. 후일 후백제를 평정하고 개선한 태조가 서목의 일을 가상하게 여겨 '利川'이란 이름을 내렸다고 하는 이 유래는 동국여지승람같은 문헌에도 나오는 유명한 일화이다. 따라서 물로 이로움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얻어야 하는 곳이 우리고장인 셈이다.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쌀과 도자기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진상미로도 유명했던 이천쌀이 유별나게 밥맛이 좋은 이유를 필자는 이 고장의 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자기를 만드는데도 역시 좋은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도자기 가마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둔면 도예촌 일대의 지명들이 水廣·水下·水南·南井里등 모두가 물과 관련 있는 지명들인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도 공교롭다는 생각이 든다. 수광리의 옛지명은 水北과 廣峴인데 水北을 이 마을에 있는 청풍김씨 문평공 묘비명에 의하면 '水出里'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水出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이 마을에서는 아무곳에나 샘을 뚫어도 맑은 물이 콸콸 잘 솟는다고 한다.

水出里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내를 이루어 한내가 되고 한내물이 아리산 밑을 감돌아 흘러서는 배중개에 이른다. 배중개는 '뱃짐개'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여겨지는데 뱃짐을 부리던 곳이라서 뱃짐개이다. 옛날 진상미를 비롯한 고을의 물산들이 이곳에서 배 위에 실리워져서, 복하를 지나 이포나루를 통해서 한강으로 운송되었다고 하니 이곳까지 배가 드나들 만큼 수량이 풍부하였다는 꿈같은 이야기다.

읍지(邑誌)를 보면 배중개는 한자표기가 '梨增浦'로 되어 있다. 내륙지방인 우리 고장에서는 매우 희귀한 지명의 예가 이증포와 함께 청미천 지류인 율면 월포리의 '退浦'이다. 퇴포 역시 옛날 세곡선들이 드나

들었던 포구가 아니었나 여겨지고 있는 지명이다.

조선조 초의 대학자 권양촌(權陽村)이 지은 利川鄕校記에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져서 백성들이 많고 부유하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옛날부터 우리고장은 농사 짓기에 적합한 고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사 짓기가 좋다보니 금방 인구가 불어나서 세종 24년(서기 1444년) '인구가 천호(千戶)이상이 되었으므로 예에 따라'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천은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의 삼대 하천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류하면서 이들 세 하천과 그 지류들을 끼고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그래서 논농사가 주류를 이룬다. 우리 고장에는 큰 강이나 큰 냇물이 없으면서도 비교적 물이 풍부하여, 여간해서는 가뭄의 피해를 입지 않고 반대로 홍수의 피해도 거의 없는 곳이다. 천혜의 지형과 물로 인해 복받은 고장임을 알 수 있다.

물로 인해 복을 누리고 있으니 물을 아끼고 물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수질오염의 공해문제를 우리들은 다른 고장 사람들 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한다.

<鄕脈, 제2호, 1992. 12>

안흥지(安興池)에 대하여

안흥지(安興池)가 수년 째 물이 없는 호수가 되어 황량한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란 바닥을 들어낸 채로 방치되어 있다.

호수의 물을 채우려고 해도 부근 온천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이 고이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 이천읍의 온갖 생활폐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 악취를 풍기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물을 빼버렸다는 말도 있어 확실한 사정은 모르겠다.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있건 간에 역사적인 유물이며 이천읍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이었던 안흥지를 옛날 모습처럼 되살릴 수는 없을까.

중고등학교 여섯해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곁을 오고 가면서 꿈많은 세월을 보낸 필자에게는 안흥지에 대한 감회가 남다른 바 있다.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물가에는 낚시꾼과 산책나온 사람들로 그림같은 정경이 펼쳐지곤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낚시터를 겸한 쉴곳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아이들의 눈썰매장으로 만원을 이루어 사시사철 읍민들이 즐겨 찾아드는 정다운 휴식처였다.

안흥지는 또 드넓은 구만리 벌판을 풍요롭게 하는 젖줄이었다. 날이

심하게 가물어서 연못의 물을 모두 빼기라도 하는 날에는 허리까지 잠기는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 아우성을 치던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흔히 안흥리 방죽으로 통했던 안흥지는 이천읍 소호(沼湖)라 부르기도 했는데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기록은 없으나, 1955년에 나온『利川大觀』을 보면 '전설에 의하면 거금 4백 여년전 세종대왕의 제3 왕자요 당세 명필로 이름이 높든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여주 친릉(英陵)에 참배를 마치고 회정시에, 이천읍에 당도하여 전평(前坪)을 바라보고 수원이 부족함을 탄하여 만든 소호라 하며…' 라고 하여 조선 초기에 안평대군이 처음 만든 것으로 나온다. 신빙성에 의문이 있지만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안흥지의 축조연대는 문종에서 단종 연간이 되어 5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게 된다.

다른 일설에는 시대미상인 옛날 이천읍 지역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점장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읍 수구(水口)에 연못을 만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고려시대 말 읍치로 만드는데 풍수지리에 따르면 고을 남쪽에 큰 못이 있어야 길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기록이 어느 문헌엔가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利川邑誌』를 보면 설봉서원의 내력을 담은 내용중에,

'三賢祠宇 嘉靖甲子歲 府使鄭礪設立于 府內安興池上…'

이라 하여 설봉서원(삼현사우)을 처음에는 안흥지 위에 건립하였다가 지금의 현충탑이 있는 설봉산 기슭으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봉서원이 건립되던 해인 가정 갑자년인 명종 19년(서기 1564) 그 이전부터 이미 안흥지가 존재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읍지 도서(島嶼)조에 보면 안흥서(安興嶼)란 섬이름이 나와있어 지금의 연못 중앙에 있는 인공섬 역시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일합방 이후인 1910년대 초에 당시 이천군수로 있던 민원식(閔元植)이란 이가 대대적으로 연못을 수리하고 중앙 섬위에 팔각정을 건립

하여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개발하였는데, 1915년에 나온『화성나영』이란 수여선지역 관광 사진집을 보면 그때 건립한 팔각정의 모습과, 팔각정이 있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아담한 무지개다리를 비롯한 잘 정돈된 당시의 모습이 나온다.

앞으로 이천읍이 계속 팽창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변두리인 안흥지가 도심지로 바뀔 터이고 그러다보면 연못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적지않을 것이다. 그런데 도시화로 갈수록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할 것이 문화유적이며 시민공원같은 휴식공간이다. 안흥지는 아무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연못이 아니다. 김제의 벽골제(碧骨堤)나 제천의 의림지(義林池)처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백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안흥지의 연못물을 채우고 맑게 유지하는 일에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겠고 적잖은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안흥지는 가능한한 옛모습대로 보존해야 의의가 있다. 나무도 많이 심고 주변 공간을 잘 단장하여, 공원 뿐만 아니라 야외 전시회와 공연같은 문화 행사도 가질 수 있는 서울의 동숭로 같은 문화공간으로 가꾸는 것이 좋겠다.

<鄕脈, 제3호, 1993. 5>

쌀과 도자기의 고장 이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천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사람으로 치면 심장부에 해당한다. 수도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이며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서로 교차하며 사통팔달(四通八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런 이점으로 근래에 와서는 직원이 1만8천여 명에 이르는 현대전자를 비롯하여, OB맥주, 진로, 제일제당 같은 일류기업들이 자리를 잡아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해 가고 있다. 이 고장이 배출한 저명한 농학자 류달영(柳達永)은 자신이 지은 이천 <애향가>에서 "오곡백과 풍성한 우리 고장은 한반도의 한복판 노란자윌세."라고 하였다. 이천은 일찍이 마한 땅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과 노람국(奴籃國) 등 두 개의 부족국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후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찌감치 백제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의 한성 함락 이후로는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이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다 보니 삼국시대 후기에는 삼국의 세력이 서로 부딪치는 패권 각축장이 되었고, 마침내 신라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신라군의 전초기지인 남천정(南川停)을 설치하였다.

태종무열왕 7년(서기 660) 신라가 삼국통일의 꿈을 실천에 옮기는데, 백제 공략에 앞서서 무열왕이 직접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출정길에 오르면서, 맨처음 군사를 주둔시키고 작전계획을 수립한 곳이 바로 남천정이었다. 통일신라 때는 황무현(黃武縣)이라 불렀고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부터 지금의 고을명인 이천(利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

태조가 후백제의 잔존세력과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출정길에 올라 이천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장마철을 만나서 고을 남쪽을 관류하는 복하천(福河川)이 범람하여 내를 건널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출정을 포기하고 회군을 해야 할 판인데 근처에 살던 이천 사람 서목(徐穆)이란 인물이 길을 인도하여 모든 군사들이 무사히 내를 건널 수 있었다. 그래서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 돌아온 태조가 서목의 일을 가상히 여겨 이천이라는 고을명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복하천 곁의 효양산(孝養山)은 삼국시대의 토성지와 금송아지가 묻혀 있다는 전설을 지닌 고을의 명산이다. 신라 조정에서 아간(阿干)벼슬에 있던 서신일(徐神逸)이란 학자가 나라가 망하자 이 산속에 들어와 은거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나이 80세가 되도록 슬하에 아들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어느날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쫓기는 사슴 한 마리를 구해주게 되었다. 그 사슴이 효양산 신령 아들이었고, 그래서 신령의 도움으로 80이 넘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청렴강직한 재상으로 이름을 떨친 서필(徐弼)이다.

서필의 아들이 유명한 서희(徐熙)선생으로 호를 고향의 냇물 이름

인 복하에서 따다가 복천(福川)이라 하였다. 고려 성종 12년(서기 993) 거란의 80만 대군이 침입해 오자 서희는 중군사(中軍使)가 되어 적의 대군을 막았다. 이때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겁에 질려 오랑캐가 요구하는대로 서경 이북의 영토를 넘겨주고 화친을 맺자고 하였으나, 서희 혼자서 이를 반대하고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적장 소항덕과 담판을 벌인 끝에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적군을 물러가게 하였다. 선생의 정확한 사리판단과 언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뛰어난 용기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고려의 운명을 구할수 있었던 것이다. 사슴이 보은한 일화로 유명한 서신일이 이천 서씨의 시조가 되어 묘가 효양산에 있으며,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여 고려조의 손꼽는 명문 중 하나가 이천 서씨였다.

조선 건국 이후 인구가 번창하자 세종 28년에 도호부로 승격하였고, 성종때 시문으로 이름났던 최숙정(崔淑精)과 이관의(李寬義)·이홍망(李弘望)·이식(李栻) 같은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임진왜란 때 팔도 도원수로 서울 사수의 임무를 맡았던 김명원(金命元),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진을 사수하다가 전사한 어재연((魚在淵) 장군도 이천인이다.

한말에 와서 일본이 조선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국적으로 열화같은 의병항쟁이 일어났으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천은 의병활동이 매우 격렬했던 지역이었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 도화선이 된 을미의병은 이 고장의 경우 서울에서 내려온 유생 김하락(金河洛), 구연영(具然英)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이천을 중심으로 각 방면에 사람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곧 1천여 명의 의병들이 집결하여 이천수창의소를 조직하고 넓고개에서 벌어진 일본군 수비대와 첫 전투에서 눈부신 승전을 거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의병활동과 구국항쟁이 활발했던 곳

이천의병진은 2천여 명의 대병력으로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의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본군의 교란전술로 인한 지도부 분열로 실패하고 말았다. 김하락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영남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항전을 계속하다가 전사하였고, 구연영은 그후 기독교에 입문하여 이천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포교활동과 함께 일진회 규탄, 상가철시 등의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이천에서 순국하였다.

그후로도 이천의 의병항쟁이 매우 격렬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보복을 받아 이천읍 시가의 절반 이상이 불타버리는 참상을 겪기도 했다. 의병활동에서 비롯된 구국항쟁의 전통은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수흥(李壽興), 유택수(柳澤秀), 이선룡(李先龍), 김원조(金遠祚)와 같은 독립투사들의 활동으로 맥을 잇는다.

예로부터 이천은 쌀의 고장으로 이름났다. 이천쌀은 원래가 자채(紫彩)쌀이라 하여 이천 근교에서만 재배 가능한 벼 품종을 말하였는데, 이 자채쌀의 밥맛이 좋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로 유명하였다. 60년대에 와서 다수확 품종만을 고집한 농사정책에 밀려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지만, 지금도 이천쌀하면 전국에서 품질 좋은 쌀의 대명사로 손꼽힌다.

벼농사 뿐만 아니라 이 고장은 각종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니 토지가 비옥하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가뭄과 홍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탓이다. 조선조 초의 대학자인 권근(權近)이 지은 『이천향교기』를 보면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져서 백성들이 많고 부유하다' 고 하였으니 옛날부터 농사가 잘되는 고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쌀외에도 인삼과 과수재배가 성행하고 있고 백사면 일대에서 나오는 산수유를 특용작물로 친다.

쌀과 도자기의 고장으로 국내외 관광명소

쌀과 함께 전국 제일의 특산물로 꼽는 것이 도자기이다. 도예촌으로 유명한 이천읍 사음리와 신둔면 수광리 일대에는 2백개가 넘는 도자기 공방과 수 십개의 크고 작은 도자기 상가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이곳 전통도자기 마을은 계절에 관계없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이다. 또한 수광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도자기 전문 박물관인 해강도자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공예 중 대표적인 것이 도자기이고 이 고장의 문화도 도예문화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천문화원이 해마다 10월 초순에 개최하는 설봉문화제는 도자기축제가 중심을 이룬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수도권지역의 유일한 이천온천 가설행사장에서 열리는 도자기 시장이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 기간에는 전통도자기로 빚은 차도구, 반상기, 각종 식기같은 생활용기들을 절반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전통도예 작품전 · 도자기아가씨 선발 · 장작가마 불지피기 · 도자기 제작 실연 등을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천 도자기축제는 금년부터 관광당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옛날부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잡은 이천은 그로인해 전쟁이나 국가적인 변란이 있을 때마다 크게 시달림을 받아온 지역이었다. 또한 농사가 잘되는 고장이고 보니 권력층의 극심한 수탈 대상이 되기도 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수난의 역사를 견디고 극복해온 이천 땅에는 의병항쟁의 자랑스런 전통과 더불어서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의 본고장이란 오명도 함께 지니고 있다.

권양촌이 '백성들이 많고 부유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요즘 이천은 소도읍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활력에 넘쳐 있다. 소비지향의 향락문화

가 농촌 본래의 미풍양속이 들어설 자리를 몰아낸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문제가 코 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지금 이천은 머지 않아 시승격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쌀의 고장이 공업과 교통의 요지로 탈바꿈하면서 외형적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 고장은, 그러나 도자기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룬 문화의 도시로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이 고장 사람들의 바람이다.

<월간「전망」, 1995, 7월호>

망향의 탑

이천향교 앞 언덕위에 잘생긴 오층석탑 하나가 서 있었다.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탑이니 천년이 넘는 유서 깊은 문화재이다. 그런데 한일합방 직후 일제가 이 탑을 조선총독부 박물관 뜰로 옮겨갔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기억속에 사라져서 나중에는 탑이 그 곳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 탑이 지금 멀리 바다 건너 동경에 있는 오쿠라호텔 정원에 외롭게 서서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다. 이천에 있었던 탑이 어떻게 먼 동경에까지 실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전 경위를 밝혀주는 당시 관련문서들을 이천시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게 되었다. 일제 36년간 일본인들에 의한 우리 문화재 수탈의 실상을 알려주는 생생한 증거물인 셈이다.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는 동경의 이름 없는 상인이었다. 1876년 한일 수호조약으로 부산항이 개항되면서 부산에서 잡화상을 연 그는,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무역업·금융업·토건업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 이토오 조선 통감, 데라우치 총독과도 각별한 사이였던 오쿠라는 총독부 고위층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선내의 각종 이권사업

에 개입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일본의 8대 재벌로 부상한 인물이다.

오쿠라는 일찍이 조선의 문화재에도 눈독을 들여 닥치는 대로 소중한 유물들을 수탈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특히 한일합방 직후 경복궁 철거공사를 맡아 전체 궁궐건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 칸의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궁궐 유물들이 그의 수중으로 넘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오쿠라 자신이 미술품 3,700여점, 서적류 1만 5,600권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상상하기도 어려운 막대한 분량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오쿠라는 수집한 유물들로 동경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 한켠에 슈코칸(集古館)이란 이름의 박물관을 꾸미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옆에는 경복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자선당(資善堂)을 통째로 뜯어다가 다시 복원해 놓기까지 했던 것이다.

1918년 7월, 슈코칸의 사카다니 이사란 자가 당시 조선총독인 하세가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선당 곁에 놓을 조선의 석탑 하나를 양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오쿠라측이 처음 요구한 석탑은 평양에 있는 팔각칠층석탑이었다. 평양의 석탑이 이천의 향교 앞 오층석탑으로 바뀌게 되는 경위가 그 후 총독부 관리들과 슈코칸이 주고받은 공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 그것은 평양의 탑이 정류장 옆에 있어서 조선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자신들이 보기에도 문화재 반출이 떳떳치 못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총독부가 평양의 탑을 대신해서 지정해준 탑이 총독부 관내에 이미 옮겨다 놓아서 이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천의 향교 앞 오층석탑이었다. 그 후 총독부 고적 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비롯한 형식적인 양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이해 10월 현해탄을 건너는 운명이 되고 만다.

슈코칸의 문화재들은 1923년 관동대지진때 대부분이 불타 없어지고 그 중 3,000여 점만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향교 석탑이 대재

난을 피할 수 있었으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향교석탑은 1915년 일제가 한일합방 5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물산공진회를 경복궁 안에서 열면서, 안흥리에 있었던 안흥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실어 갔다. 물산 공진회장을 장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일합방 이전부터 일본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의 문화재들을 수탈해 갔으며, 향교석탑의 예에서 보듯 그 배경에는 총독부 관리들의 적극적인 비호와 협조가 뒤따랐다. 일본의 오쿠라 재벌을 상대로 문화재 반환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천설봉신문, 2003. 4. 19>

사라지는 문화유산들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 갈산2지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토기와 자기, 기와편 같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는 이천설봉신문의 보도(7월 26일자. 1면)는 아직도 미흡하기 만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문화재에는 석탑이나 불상, 건축물, 성곽 같은 눈에 드러나는 유적 유물들은 물론, 땅속에 묻혀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매장문화재들까지 포함된다. 아직도 땅속에 남아있는 문화재들은 인위적인 훼손만 아니라면 안전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은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최선의 보존방법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우리나라 현대 전통도예의 중심지라는 사실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세계 도자엑스포와 비엔날레까지로 발전한 이천도자기축제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도자문화와 관

련된 이렇다 할 유적지는 찾아 볼 수 없다. 분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가마터들이 즐비한 이웃 광주시나, 고려시대의 가마터와 싸리산 점토 채굴지 등을 관련 유적으로 보유한 여주군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천시 관내에 옛 도요지들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다. 70년대 말 문화원의 조사를 통해 마장면 해월리 백자요지, 마옥산 백자요지, 관리와 사음동 요지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해월리 요지는 조선시대의 가마흔적이 완연하게 남아 있어 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그 후 주변으로 레포츠 시설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파헤쳐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안흥동과 갈산동, 특히 현 이천중학교 북쪽 일대는 옛날 안흥사(安興寺)라는 큰 사찰이 있었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안흥사는 '부에서 동쪽으로 4리에 있다' 고 하여 이 책의 편찬연대인 1531년까지도 건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지금은 없어졌다' 고 하여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이르는 사이에 모습이 사라진 사실을 알 수 있다.

199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를 통해 '安興寺' 라는 명문을 새긴 기와편들이 출토됨으로써 안흥사의 존재가 뚜렷이 증명되었으며, 대표적인 유물로는 현재 경복궁 앞뜰에 있는 안흥사지 오층석탑이 있다. 그밖에도 시청사 앞에 있는 중리동 삼층석탑과 갈산동 석불입상 또한 안흥사와 관련있는 유물들로 추정된다.

경복궁에 있는 안흥사지 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초기의 것으로 현존하는 이천의 석탑유물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뛰어나고 표현수법 또한 우수한 유물이다. 일제가 1915년 물산공진회를 열면서 향교 앞 오층석탑과 함께 당시의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내로 옮겨다 놓았고, 그 중 향교 앞 오층석탑은 현해탄을 건너 멀리 동경으로 다시 옮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안흥사지 오층석탑의 존재나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안흥사는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번성

했으며, 조선전기까지도 모습을 유지해 왔던 이천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현재의 안흥동과 미란다 호텔 옆에 있는 안흥지 역시 안흥사라는 절의 존재에서 유래된 이름인 것이다.

주택공사의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 이천시의 중요한 유적지 하나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헤쳐져서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건립시기를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천설봉신문, 2003. 8. 16>

양녕대군 유적지 개발 서두르지 말아야

이천시와 이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체험 마을인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 마을을 양녕대군의 유배지라고 하여 이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유적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세종대왕의 형님인 양녕대군이 이천에서 여러 해 동안 귀양살이를 했는데 그 때 머물렀던 곳이 바로 군량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이 아직은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쌀 협상비준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늘어만 가는 요즈음이다. 농촌체험마을인 군량리를 유서깊은 역사와 이야기 거리를 지닌 테마마을로 개발하여 주름살 깊은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발상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이 마을의 양녕대군 유적지설이 아직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점에서, 고증을 무시한 채 개발부터 착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뒤바뀐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녕대군은 끝없는 기행과 풍류 행각으로 인해 수 많은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19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어 장차 임금의 보위에 오를 금지옥

엽의 신분이었지만, 신분과 법도를 무시한 파격적인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귀양길에 오르게 된다. 양녕은 1418년(세종1)부터 1436년(세종18)까지 자그마치 18년동안 이천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세종실록』을 보면 이천에 사는 동안에도 멈출줄 몰랐던 양녕대군의 기행들과 더불어, 형을 위하는 세종대왕의 지극한 마음씨가 잘 나타나 있다. 걸핏하면 조정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양녕을 모함하거나 중벌을 내릴 것을 주장했지만, 그때마다 감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대궐로 불러올려 잔치를 열고 위로하는 등 형제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록에는 '양녕을 이천에다 새로 농사(農舍)를 짓도록 해서 살게 했다' 고만 기록했을 뿐, 구체적으로 살았던 곳이 이천의 어디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 속에서도 양녕대군같은 매력적인 인물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자유분방한 성품과 풍류남아의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숱한 기행과 일화의 주인공이기에 그렇고, 임금의 형이라는 신분 때문에도 그렇다. 임금 자리를 동생에게 양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세종대왕의 치세와 업적을 가능토록한 인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군량리가 양녕대군의 유배지일 것이라는 가설은 군량리의 우리말 이름인 '군들' 을 비롯한 근처 지명들에 대한 풀이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고증이 미흡하거나 논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적지 않아서, 필자는 이미 지난 2003년 『이천문화』 창간호(송라문화연구원 편)에 발표한 글을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군량리가 양녕대군의 유적지라는 주장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아직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이 글은 군량리가 양녕대군의 유적지냐 아니냐를 두고 진위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군량리가 양녕의 유배지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직은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은 유적지설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며, 유적지 개발은 그 후에 논의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

원칙과 순서를 무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천신문, 2005. 11. 24>

전래의 민속놀이를 되살리자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인 지난 2월 11일 설봉공원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열렸다. 정월대보름이 아직도 설날과 추석에 버금가는 우리의 중요한 민속명절이라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풍성하기만 했던 세시풍습도 민속놀이도 이제는 대부분이 사라져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정월 열나흘을 '작은 보름'이라고 해서 오곡밥과 갖가지 나물반찬에 된장국을 먹는 풍습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런데 필자의 어린시절의 이날에는, 밥을 아홉 번 먹어야 하고 나무도 아홉 번을 해와야 한다고 했다. 또 세 군데 이상 남의 집의 밥을 얻어먹어야 길하다고 해서 이날 저녁에는 이웃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 밥을 훔쳐 먹는 풍습도 있었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부럼을 깨물고 귀밝이술을 먹었다. 농가에서는 볏가리대를 세우고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돌맹이를 끼워 넣는 나무장가보내기를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내더위 사가라'고 더위를 팔았고, 겨우내 가지고 놀던 연을 액막이로 하늘높이 띄워 줄을 끊고 날려 보낸다.

보름동안 계속된 정월 명절의 대단원을 장식했던 놀이가 대보름날 저녁 달맞이를 위한 망월놀이나 달집태우기였다. 그런데 요즈음 와서는 대부분이 시골에서 조차 달맞이 풍습이 사라지고 있다. 신둔면 용면리나 모가면 진가리처럼 동민들이 모두 어울리는 줄다리기를 하는 곳도 있기도 하지만 드믄 경우에 속한다.

정월명절에 남자아이들은 연날리기나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을 하며 놀았고 여자아이들은 널뛰기나 줄넘기를 하였다. 연날리기에도 요령이 필요해서 연줄을 적당히 감았다가 풀었다가 해야 연이 높이 솟구치며 잘 나는 법이다. 이날 민속축제에서는 연과 얼레 수백개를 나누어 주었는데 서툰 솜씨이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연을 띄우면서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다.

필자의 어린 시절의 정월명절에는 어느 마을이건 흥겨운 걸립패의 풍물가락을 들을 수 있었다.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밟기로 복을 빌어주면, 걸립패를 맞는 집에서는 음식상을 차려 대접하고 돈이나 곡식을 내어 놓았다. 이렇게 거둔 전곡은 마을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었으니 전래의 미풍양속인 두레의 일종이다.

그런데 당시는 동네 걸립패라고 해도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 상쇠, 부쇠를 비롯한 사물은 물론 호적에 법고잡이와 무동에 이르기까지 구성도 그럴 듯 했고, 길놀이를 시작으로 문굿, 우물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과 마당놀이로 이어지는 풍물잡이들의 기량 또한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풍물가락이 울리는가 하면 어느새 덩달아서 마음이 들뜬 아이들이 풍물패 뒤를 졸졸 따라다니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대보름날 민속축제 때는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무대로 풍물굿판을 벌리기도 한다. 옛날처럼 민속명절의 흥취를 되살려보자는 뜻인데, 시민들의 호응이 신통치가 않다보니 도무지 신명이 나지 않는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심지어는 '시끄러우니 다른 데로 가라' 고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설봉공원에서는 마지막 달집태우기에 들어가기 전에 풍년고사를 지내는데, 고사상에 올린 만원짜리 한장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져만 가는 것이지 답답한 노릇이다.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는 그나마 해가 거듭되면서 점차 시민참여가 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너나 없이 가난했어도 이웃이 서로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지난 시절이 민속놀이의 재현처럼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천신문, 2006. 3. 2>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주5일 근무제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사업장까지도 폭넓게 확대되면서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직장인들의 고민거리가 되고있다. 문화원의 주말문화탐방은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문화유산 탐방이나 박물관 미술관 견학, 자연생태체험, 문화예술공연 단체관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주말문화탐방은 처음 시작때부터 인기가 높아서 매번 신청자가 넘치고 있다.

지난 3월의 마지막 토요일, 가족 단위로 참가한 80명이 넘는 인원을 인솔하여 말로만 들어왔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8년동안의 긴 공사와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 해 10월에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은 건축 총면적이 41,649평에 전시실만 8,195평에 달하는 웅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때 마침 이 날이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는 날이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고고관·역사관·미술관·아시아관·기증유물관 등이 있는 본관 전시실은 현관에서 으뜸홀을 지나

면 '역사의 길'이라 명명된 드넓은 중앙통로를 가운데 두고 좌우 3개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곳을 주마간산 격으로 서둘러서 한바퀴 둘러보는데만 두 시간이 넘게 걸렸다. 정해진 시간 때문에 독도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서관의 기획전시실이나 어린이박물관 쪽은 들여다 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 옥외 전시장 관람 역시 후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웅장한 건축미와 널찍한 공간, 잘 꾸며진 각종 시설들이 눈길을 끌고, 천정까지 툭터진 실내공간에 전시해 놓은 높이 13m가 넘는 경천사 10층석탑 앞에 서면 저절로 탄성이 일어난다. 한쪽 벽면을 높이 9m가 넘는 거대한 불화로 장식했는가 하면, 독립된 전시공간에 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하나만을 전시해서 불상의 세련된 자태와 신비로운 미소를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의 민속박물관이나 중앙청 박물관 시절을 떠올리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국립중앙박물관 견학에 이어서 우리 일행이 찾아간 곳은 효창공원 안에 있는 백범기념관이었다. 이곳을 방문 대상지로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한가지 걱정스러웠던 점은, 일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연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하는 점이었다. 무슨 기념관이다 자료관이다 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슷한 시설들이 무미건조하고 실속없는 내용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그런데 백범기념관의 경우는 달랐다.

기념관 안에는 백범 선생이 태어나서 1949년 서거하기까지의 한평생을 유년기, 동학의병활동, 구국운동기, 대한민국 임시정부활동, 해방이후의 자주통일운동 등으로 세분해서 파란만장한 생애와 업적, 고귀한 인품과 사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진과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시설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만화영화나 홀로그램 같은 영상물들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백범 선생에 관해 알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던 것이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시립박물관이 있다. 시립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및 자료전시의 기능을 떠나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머지 않아 준공될 월전미술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문화학습의 공간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지 사람들까지 기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천신문, 2006. 4. 13>

망향의 이천향교앞 오층석탑

얼마 전 동경에 사는 이천출신 교포 김창진이라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천향교 앞에 있던 석탑 하나가 일제 때 동경 어딘가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이천신문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 향교앞 오층석탑이 동경으로 옮겨지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2003년 겨울 『설봉문화』 30호에 발표한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이란 논문을 통해서 소개한 바 있다.

서기 1916년에 일본인 학자가 당시 조선총독부의 명을 받아 이천지역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이천읍내 향교 서남쪽 언덕 위에 두 개의 석탑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고 했다. 향교앞 오층석탑은 안흥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1915년에 일제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겨졌으니, 소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산공진회가 끝난 후 총독부 박물관 뜰에 놓여져 있던 이천향교앞 오층석탑은 1918년 또 다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멀리 동경으로 옮겨

지는 비운을 맞는다.

일제 36년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실려갔다. 일제에 의한 문화재 수탈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향교앞 오층석탑인 것이다.

향교석탑을 수탈해 간 장본인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이란 인물이다. 오쿠라는 일본의 조선침략과 함께 이토오 히로부미, 데라우치 마사다케 같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대재벌이 되었으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식민지 지배세력의 비호아래 조선의 경제와 문화적 수탈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하수인이었다. 오쿠라는 문화재 수탈에도 앞장서서 수많은 조선의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일본으로 실어갔다. 고려왕릉을 멋대로 도굴하여 소중한 유물들을 실어날랐고, 경복궁 철거 공사를 맡아 전체의 절반이 넘는 4,000여 칸의 궁궐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엄청난 양의 궁중유물들을 빼어 돌렸다. 심지어는 경복궁 내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자선당 건물을 주춧돌까지 통째로 뜯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닥치는대로 수탈해간 유물들을 오쿠라는 동경 아카사카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에 모아놓고 슈코칸(集古館)이란 이름의 박물관을 만들어 1917년부터 일반에게 공개했으니 일본 최초의 사립박물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중하기 짝이 없는 유물들 대부분이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불타거나 없어지고 말았다. 그나마 향교앞 오층석탑이 온전하게 남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까.

김창진씨와 전화통화를 하고나서 얼마후인 지난 12월초 직접 그의 방문을 받았다. 김창진씨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찍어온 사진을 보니, 향교앞 오층석탑은 과연 뛰어난 불교 미술품으로 손색없는 단아한 모습이었다. 각층 사이의 적당한 비례와 간결하고 안정감 있는 형태미,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해서 일본인들이 처음부터 눈독을 들일만 했다. 이천의 불교미술품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겠다.

이 탑을 동경으로 실어보내기 위해 당시의 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를 했다. 그 허가서에 쓰기를 '제작상 특이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량하다고 칭할만 하지 못하다' 고 될 수 있는대로 깎아내리려고 애를 썼던 일제는, 그러나 이 탑을 1933년에 중요미술품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날 김창진씨가 우리에게 향교앞 오층석탑을 되찾기 위한 반환운동을 제의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 보듯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인들이 문화재 약탈사실을 인정하고 선뜻 되돌려 줄리 만무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가서라도 돌려받겠다는 각오로 범시민적인 반환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90년 망향의 세월을 먼 이국땅에서 보내고 있는 향교앞 오층석탑이 고향으로 되돌아올 날을 기대해 본다.

<이천신문, 2006. 2>



이천학술총서

1. 이천의 옛노래 (2002)
2. 이천의 민간신앙 (2003)
3.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2004)
4. 이천사람들의 생활과 의례 (2005)
5. 이천의 문화재 (2006)
6. 이천의 옛이야기 (2007)



지명이란 앞으로도 계속 수도 없이 불리워지고 기록이 되며, 자손대대로 물려주게될 우리의 정신유산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잘못된 지명들은 남김없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바꿔서는 안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옛부터 불리워졌던 원래의 지명을 가능한한 찾아내어 되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차제에 부르기 좋은 고운 우리말 이름들을 행정구역 명칭에도 과감하게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